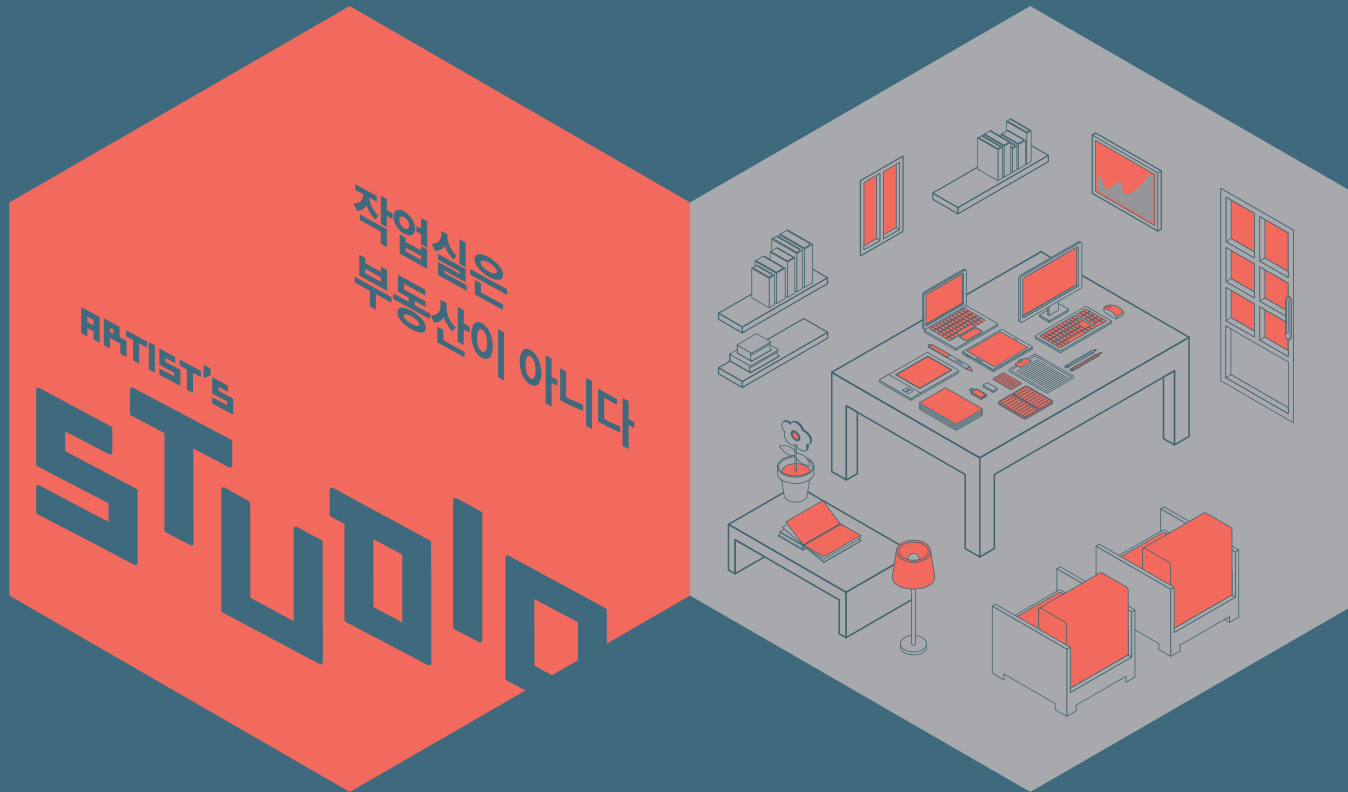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제 8회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The 8th Seoul Art Space International Symposium



2016.11.23(수) 14:00~18:0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문화재단

제 8회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The 8th Seoul Art Space International Symposium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2016.11.23(수) 14:00~18:0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목차

006	인사말 -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008	발제 1 예술가 작업실의 안정적 미래를 위해 - 데이빗 팬톤 (런던 Acme 공동설립자, 부동산 개발 디렉터)
030	[부록] artists' studios: a guide to securing, supporting and creating affordable studios in London
146	발제 2 지속가능한 작업실을 위한 시카고의 전략 : 예술가 대상 부동산엑스포부터 레지던시 설립까지 - 바바라 코에넨 (前 시카고 문화부 도시문화기획과 프로그램 매니저)
192	발제 3 프랑스의 예술가 아틀리에 지원 정책 : 거주 아틀리에와 작업 아틀리에, 그리고 새로운 아틀리에 개념의 대두 - 박지은 (박물관학 박사, 소르본대학 언론정보학과 출강)
222	발제 4 예술인 그리고 그들의 창작공간 -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교수)
252	발제 5 서울의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공유, 임대하는 방법 : 망원동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 사례 - 김성근 (레인보우큐브 대표)
282	발제 6 공적지원 영역 밖 예술가의 자발적 움직임 : 문래동 <아티스트런 스페이스 413> 사례 - 김꽃 (아티스트런 스페이스 413 운영자, 미술작가)
	좌장 -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Contents

006	Welcome Words - Ju, Cheol-Hwan (CEO of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008	Presentation 1 Securing the Future for Artists Studios - David Panton (Co-founder and Director of Estates, Acme Studios, London)
010	(Appendix) artists' studios: a guide to securing, supporting and creating affordable studios in London
024	Presentation 2 Strategies for Affordable Space for Artists - Barbara Koenen (Former Program Manager of Cultural Planning for the City of Chicago's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024	Presentation 3 Policy to Support Artist Ateliers in France : Residence-type ateliers and workshop-type ateliers and the emergence of atelier of new concept - Park, Ji Eun (PhDs in Museum Studies, Lecturer, Graduated Schoo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Universite Paris-Sorbonne)
024	Presentation 4 Artists and Their Workplace - Kim, Kyung-Min (Pr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024	Presentation 5 How artists in Seoul share their studios : the case of <Rainbowcube> in Mangwon-dong - Kim, Sung Geun (Representative of Rainbowcube)
024	Presentation 6 Artists' movement to secure studios without governmental support : the case of <Artists Run Space 413> in Munrae-dong - Kim, Kkott (Representative of Artist Run Space 413, Artist)
	Chaired by - Lee, Dong-yeon (Pr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인사말

2009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은 매년 예술계의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도적으로 다루며 예술가들과 함께 의미 있는 담론을 형성해 왔습니다. 올해 제 8회 심포지엄은 ‘최소한의 창작 조건, 예술가의 작업실’을 주제로 준비 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예술가의 작업실이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와 가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세계 부동산 시장에서 예술가들은 낙후지역의 땅값을 올리는 ‘마법사’로 불립니다. 임대료가 싼 낙후된 지역에 예술가들이 모여 들고 작업 활동이 이루어지면, 이 지역은 특유의 문화적 감수성과 아우라가 생기고, 부동산개발업자들이 그 매력을 상업적으로 활용한 개발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급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마법은 예술가 자신들에게는 ‘저주’가 되고 있습니다.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다른 곳으로 다시 옮겨 가야 하는 이러한 패턴은 세계 주요 대도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안정적인 작업실은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창작의 보루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술가의 작업실’ 주제를 통해 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과 ‘예술인 복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인 지원의 정책적 대안이 효과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술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논의의 시간을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Welcome words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Seoul Art Space, which started in 2009, has created a meaningful discourse as we discussed timely issues facing artists in the artistic community. For this year's 8th symposium, we have prepared the theme of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We believe that this year's venue will provide a unique setting for in-depth discussions on the socio-economic implications and values of the artist's studio. Specifically, in the world real estate market, artists are the influential factors which can magically raise land value in the less developed areas. When artists are gathering and working in an underdeveloped area, where rent is low, they give the area a unique cultural identity. The value of buildings, houses, lands, and the likes in the area increases over time as real estate developers undertake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to commercially take advantag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Meanwhile, artists often find themselves in trouble. With skyrocketing rents, economically vulnerable artists have to move to other places, and these patterns continue to appear in major metropolises around the world.

For artists, a stable workshop is the cornerstone of creative work that must be guaranteed to a minimum. In this sense, it is certain that, through this year's theme of 'Artist's Studio', we can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Gentrification' and 'Artist welfare' and also discuss political alternatives to support artists for the creation of a sustainable creative environment. We hope to see as many participants as possible in the discussion on creating a better future for artists.

Ju, Cheol-Hwan

CEO of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 Studio is not a mere property

발제 1

예술가 작업실의 안정적 미래를 위해

데이빗 팬톤

런던 Acme 공동설립자, 부동산 개발 디렉터

들어가며

런던과 영국 전역에서 작업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는 계속해서 평가절하 되었는데 왜냐하면 광범위한 시각예술계에서 대중과 직면하는 다른 요소들보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런던이 최근에 경험한 현대 예술의 성공은 작업에 투자할 시간과 공간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고군분투하는 다수의 개인 예술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나머지 현대 예술이 의지하는 "작품"을 창작하는 예술가들이 바로 이런 예술가들이다.

예술가는 어쨌든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실을 보유하고, 그런 예술가를 지원하는 예술가 중심 기관들도 그런 예술가와 비슷하게 어쨌든 자극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전략적인 지원 또는 자금 제공 없이도 어쨌든 저렴한 스튜디오가 생길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이 생겼다. 물론

이런 주장이 아직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작업실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를 가능케 하는 자본 지원으로 예술 분야를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자급력이 높게 만들 수 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는 ACME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다리에 한 발을 내딛다 1972-1995

이전의 방식 - "떨어진 콩고물 찾기"와도 같았던 예술가들의 작업실 구하기

영국의 전통적 저렴한 작업실 제공 모델은 예술가 주도 단체 및 기관이 단기, 즉 저비용의 작업실 용 부동산에 접근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활동하던 모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물이 임시적으로 제공되는 특성으로 인해 예술가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제공받기는 하지만 때때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활동해야 했다. 건물은 수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전환되는 방식 때문에 예술가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었다.

전문 부동산업체 및 자선 주택 조합으로서 ACME는 작업실 제공의 개척자였다. 1994년에 국가 운영 로또가 생기고, 예술 자본을 전혀 없는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ACME는 전통적인 단기 부동산 관리 모델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작지만 매우 중요한 예술 및 재건 자금으로 수백 명의 예술가들에게 주거 및 작업실 공간을 제공했다. 하지만 조합은 지원 기관 또는 예술가들에게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해 줄 수는 없었다. 임대료를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상당량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전환기 1996 - 2004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 1: 예술위원회 보조금을 통한 개입

1996년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를 통해 120만 파운드(총 프로젝트 비용 170만 파운드 중)의 국가 운영 복권에 성공적으로 신청하여 주요 두 건물, **코퍼필드 로드(Copperfield Road)**, E3 42/44와 **길렌더 스트리트(Gillender Street)**, E14의 소방서를 구매하고 전

환할 수 있었다. 이 두 건물의 구매로 해당 기관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ACME는 향후에 예술가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자본 개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다.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 2: 개발자가 된 예술가들의 교차 보조

2000년도에 ACME는 세 번째 건물로, 1983년부터 임대하여 소유자와 공유해왔던 **오만 로드 (Orsman Road)**, N1의 건물을 구매하였다. 소유주는 해당 건물을 공개 시장에서 즉시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물 전체를 구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은행의 지원과 담보 자산으로, 8곳의 작업 및 생활 공간이 예술가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교차적 보조금 덕분에 ACME는 전체 공간을 구매하는데 일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작업실 수 증가와 저비용 임대료가 모두 가능해졌다.

안정적 미래를 위한 2005년의 움직임, 그리고 현재와 미래

2005년 2월, ACME는 우선 과제 중 하나인 예술가를 위한 작업실 지원의 새로운 복권 기금 운용 계획, 즉 예술 자본 프로그램에 대한 잉글랜드 예술 위원회(ACE)의 보조금 제도를 통해 2백만 파운드를 받았다. ACE에 대한 성공적인 자금 신청 건 중에 어쩌면 특별할 수 있는 ACME의 제안은 확정적이라기 보다 시사적인 4가지 자본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다. 부동산 관련 협상의 예측 불가능성과 기획 시스템의 예상 밖의 변화를 고려할 때 ACE의 이러한 유연한 접근 방식은 ACME의 성공에 중요했다. ACME는 부동산 개발 및 관리 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다양한 개발안 및 파트너십을 분석하고 ACME와 ACE의 돈에 합당한 가치와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는 개발안 및 파트너십을 진행할 수 있었다.

“부동산 관련 협상의 예측 불가능성과 기획 시스템의 예상 밖의 변화를 고려할 때 ACE의 이러한 유연한 접근 방식은 ACME의 성공에 중요했다.”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 3: 정책과 연계하고 파트너십을 계획, 획득

우리는 갤러리아 SE15의 상업용 주택 개발업자인 바렛 홈즈(Barratt Home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저렴한 신축 작업실을 확보하려는 혁신적인 신규 모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을 확보했다.

계획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활용하여, 상호 모두에게 성공으로 여겨지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사우스워크(Southwark)는 현장에서 계속 고용 인력을 활용했으며, 바렛은 기획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ACME는 작업실을 확보했다.

현재 활동하는 예술가로 구성된 공동체는 재건 계획이 문화적, 경제적 및 사회적 강점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기획 과정을 통해 조정된 다목적 주택 및 상업 계획에 예술가의 작업실을 편입시키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얻게 된다. 지방 정부는 현지 고용으로 자원이 영구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술가는 요구를 통해 작업실 전체를 첫 날부터 계속해서 점유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개발에 참여하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며 다양한 예술가들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활기차고, 통합적인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목표의 버팀목이다.

예술가 작업실 내의 조용한 활동은 주택과 완벽하게 양립가능하고, 종종 채우기에 어려운 상업적 공간의 활용을 보장하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이 계획 달성 외에도 이런 과정을 통해 얻는 것이 있다. 예술가와 함께 사는 것은 바렛 홈즈(Barratt Homes)의 더 갤러리아(The Galleria)와 스완 하우스(Swan Housing)의 아틀리에와 같은 계획에 브랜드 명을 부여할 때 볼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다.

예술가들은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작업실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혜택을 얻기도 한다. 작업실을 장기로 이용하며 안정을 얻은 예술가들은 지역의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에 투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주지를 작업실과 가까운 곳으로 옮기기도 한다.

갤러리아에서의 “계획-혜택(planning-gain)”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로 향후 6년동안 5개의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발판이었다. 또한 다른 작업실 제공업체, 개발업체 및 영국의 다른 지방 정부가 추구할 수 있는 실행 가능 모델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 모델은 최근 캐나다에서 활발히 구현되었다.

ACE 자금이 할당된 영구적 신축 건물 프로젝트는 더 갤러리아 SE15, 레벤 로드 E14, 하로우드 로드 NW10, 매치메이커스 워프, E9이다. 이렇게 총 4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총 비용 760만 파운드(42,700 평방 피트에 이르는 지역에 132개의 영구적 작업실을 공급했다. 해당 금액에는 ACME가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확보한 380만 파운드(개발업체에 고지된 총 프로젝트 비용과

지급 금액 간 차이)와 대출과 현금 보유액을 통해 기부한 180만 파운드가 포함된다.

일부 대규모 주택 개발 시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작업실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계획(제 106장)했어야 했던 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포함될 상업적 공간에 대한 요건을 계획 단계에서 수립한다. (왜냐하면 이전에 현장에서 인력 활용을 한 적이 때문에) 텔포드 홈즈(Telford Homes) Plc와 매치메이커스 워프 프로젝트에서 개발업체는 자신의 계획에 ACME를 포함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원했다. 런던의 브렌트 지구와 하로우 로드 프로젝트는 지방 정부가 주도했다. 영구적이고, 목적 기반의 신축 작업실을 하위 시장의 “저렴한” 작업실을 유지할 수 있는 가격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혜택”이었다.

ACME는 엄격한 설계 및 성능 설명서에 맞는 작업실을 개발자가 토지 획득에 들인 비용,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및 건축 비용보다 상당히 적은 비용에 구매할 수 있었다. 각 파트너와 맺은 계약의 본질은 대부분의 위험이 개발업체에 의해 야기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ACME만이 1평방피트 당 고정 금액으로 작업실의 최종 측정 임대 가능 면적에 대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1996년도 이후에는 저렴한 양질의 작업실 공간을 얻기 위한 신규 모델의 개발 및 잉글랜드 예술 위원회의 ACME에 대한 자본 투자로 앞으로 예술가들에게 혜택을 줄 영구적인 자금 지원을 구축해왔다.

잉글랜드 예술 위원회(ACE)의 지원 및 상업적 및 사회적 주택 개발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획득한 영구적 건물에 대한 ACME의 포트폴리오에는 추가 작업실 프로젝트가 구축될 수 있는 플랫폼이 담겨 있다. 저렴하고 안전한 스튜디오에 대한 지속적 요구, 우리가 예술가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품질과 범위 개선에 대한 야심을 강한 의지로, 2014년 9월까지 3채의 추가 스튜디오 건물 내에 100개의 작업실을 개관하였다.

해당 작업실은

- 제네시스 주택 그룹(Genesis Housing Group)과 a s106 파트너십을 통해 스트라포드 하이 스트리트(Stratford High Street) E15에 위치한 와튼 하우스(Warton House) 내 27개의 작업실(2012년 12월 개관)
- 하이 하우스 프로덕션 파크(High House Production Park)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에섹스

(Essex) 퍼플릿(Purfleet)의 하이 하우스 프로덕션 파크(High House Production Park)에 위치한 신축 스튜디오 건물 내 39개의 작업실과 4곳의 작업 및 생활 공간 (2013년 5월 개관)

- 스톡웰 그린(Stockwell Green), 상업적 주택 개발 기업, 스피릿 본드(Spirit bond)와의 파트너십 아래 SW9에 위치한 30개 작업실과 6곳의 작업 및 생활 공간 (2014년 9월 개관)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 4: 창의적인 협업관계 구축

ACME가 이제까지 구축한 자본 개발 파트너십은 모두 오래 가는 문화적, 사회적 및 경제적 혜택을 창출하며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왔다. 그러나 일단 건물이 완공되고 점유되면, 일반적으로는 협업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이런 파트너십의 본질이다. 이러한 종류의 협업은 "경제적 실용주의"를 우선한 파트너십으로 구분된 것이다. 반면, 이후에 시행된 3개의 프로젝트는 파트너십 모델을 발전시키고, 파트너십이 또 다른 단계로 진전되도록 하였다. 각 프로젝트는 현재의 창조적 협업 관계에 바탕을 둔 파트너십을 통해 고유성을 얻게 된다. 이런 프로젝트는 교육과 전문적인 활동 사이에 다리를 놓으며, 최근 졸업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예술 대학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는 형태부터 예술가 및 전문가의 창의력 및 기술을 갖춘 기관 사이의 교류가 갖는 잠재력을 탐색하는 형태까지 다양하다.

ACME의 새로운 자본 개발 프로그램 단계에서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이해 증진이었다. 이는 우리가 설계 및 구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가 예술가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러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술가들이 우리의 스튜디오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는 점은 여러 일화 등을 통해 알고 있다. 점유율은 보통 99%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까지 어떤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피드백을 받으려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2년동안 기금을 지원한 **센트럴 세인트 마틴 예술대학(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s and Design)**과의 **지식 이전 파트너십**이 이 모든 상황을 바꿔 놓았다. 우리는 상근 연구원인 아란샤 에체테(Arantxa Echarte) 박사와 함께 심층 인터뷰를 포함하여 현대 예술가의 작업실 활동에 대한 새롭고 광범위한 연구를 ACME 작업실 설계 및 사양에 반영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우리는 또한 우리 건물이 어떻게 운영되고, 우리가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하며, 중요하게는 저렴한 작업실이 예술가의 활동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술가들에게 주기 위해 세세한 내용을 다루는 온라인 조사를 개발했다. KTP의 또 다른 중요한 강점은 CSM 및 런던 예술대학과 계속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왔

고, 협업 프로젝트의 발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CSM이 제공하는 전문 지식, 특히 현대 예술 활동에 대한 그들의 지식 및 경험, 미술 전공 학생들과 작업실 공간과의 관계 및 학생들의 졸업에 대한 니즈가 모두 매우 중요하다.

ACME는 올림픽 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1937년에 공장 및 야들리스(Yardley's)의 사무실로 처음 사용되었다 재탄생 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워튼 하우스(Warton House)**에 27개의 작업실을 개관하였다. 우리는 또한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차일더스 스트리트(Childers Street)의 졸업생 작업실에 기반을 두고 2곳의 런던 예술대학 및 주요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어 4가지 새로운 생활비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했다. 목적에 따라 설계되고 근접한 곳에 위치한 작업실이 이런 현대적 건물에서 넓고 서쪽을 향하고 있는 반원의 공간에 위치하여 연간 내내 무료 작업실, 학비 보조금, 멘토링, 전시 기회 및 동료의 지원이 이곳에서 제공된다. ACME는 최근 몇 년 동안 런던의 주요 예술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해왔으며, 워튼 하우스 작업실을 추가하게 되면서 ACME 프로그램은 2013년엔 졸업생을 위한 연간 8개의 작업실 생활비 지원금 제도로 확대되었다.

2014년 스톡웰 그린(Stockwell Green)의 개발업체 스피릿본드(Spiritbond)와의 파트너십 프로젝트인 **더 글래스 야드(The Glass Yard)**를 통해 추가로 30곳의 신축 작업실이 생겼다. 이새로 형성된 공간의 일부가 런던 예술대학의 학생 기숙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탐색하고 또 추구하는 의미 있는 기회를 창출했다. KTP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졸업생을 위한 특정 공간 유형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이 인지되기도 했는데, 그 중 하나는 자치권, 공동체, 전문적 환경 및 적정 비용에 대한 바람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ACME와 CSM은 KTP의 광범위한 목표 달성 노력 외에도 현재 이러한 신규 작업실 개발의 일환으로 최근 졸업생에게 특정 목표를 위해 설계된 “과도기적 작업실”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공동으로 관리되는 프로그램은 절반의 비용으로 작업실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생들은 대학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혜택을 얻게 된다.

에섹스 퍼플릿의 하이 하우스 프로덕션 파크(High House Production Park) 내에 작업실을 구축하여 완전히 새로운 기회 및 도전 과제도 창출했다. 큰 개발 시설 내에 물리적인 작업실을 갖추는 것이라기 보다 분리된 스튜디오 건물을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었다. 현장에 다른 창작 기관이 존재하게 되면서 색다른 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하이 하우스 프로덕션 파크(High House Production Park)는 잉글랜드 예술 위원회, 잉글랜드 동부 개발 기관, 창조 & 문화를 위한 국가 기술 아카데미(The National Skills Academy for Creative & Cultural), 터록 위원회(Thurrock Council), 터록 템즈 강 관문 개발 공사(Thurrock Thames Gateway Development Corporation)와 왕립오페라하우스 간의 협업 프로젝트이다. 이 기관들은 서로 협력하여 2010년 12월에 공원을 준공했다. 14에이커(약 17,138평)의 부지에서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왕립오페라하우스의 코벤트 정원 무대에 필요한 배경과 경치를 만들어내는 왕립오페라하우스의 밥 앤 태머 마노우키안 배경 제작(Bob and Tamar Manoukian Set Production) 워크숍이 열렸다. 왕립오페라하우스의 터록 기반 교육 팀도 그 부지에 상주하고 있다. 국가 기술 아카데미는 영국에서 첫 번째인 백 스테이지 훈련 센터(Backstage Training Center)를 개관하였다. 해당 시설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극장 및 라이브 뮤직 부문의 백 스테이지 경력에서 뛰어남을 발휘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기술을 가르친다.

예술가들의 작업실은 하이 하우스 프로덕션 파크의 비전 실현을 함에 있어 항상 중요한 요소였으며, ACME는 초기 수요 조사를 시행했던 2007년 초 이후로 해당 활동에 계속 참여해왔다. 첫 수요 조사 이후 2010년도에 심층 타당성 및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기도 했다.

왕립오페라하우스 옆에 위치한 3층 건물 계획에 대한 동의는 2012년 3월에 받았다. 이 건물에는 4곳의 작업 및 생활 공간을 포함하여 43개의 작업실이 들어서게 되는데 설계는 최근에 헤이스팅스(Hastings)에서 제르우드 갤러리(Jerwood Gallery)를 완공한 콜체스터(Colchester) 기반의 HAT 프로젝트가 했다. 공원을 관리하는 자선 단체인 (주)하이 하우스 프로덕션 파크(High House Production Park Ltd)는 ACME와 파트너십을 맺고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는 해당 건물을 25년 동안 임대했다. 총 240만 파운드 규모의 계획을 위해 잉글랜드 예술 위원회의 신규 자본 백만 파운드를 받았다. 해당 건물의 1층은 대규모 제작 및 전시 공간으로 설계되었고, 그 건물에는 다양한 규모 및 유형의 작업실이 존재한다.

위 프로젝트의 구상과 실현에 있어 센트럴 세인트 마틴과 함께 진행하는 KTP, 그리고 설계 및 사양에 반영되는 심층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품질의 작업실은 거주 예술가들의 직업 기반을 강화하면서, 예술가들의 실질적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가 일

하고 방문하기에 좋은 영감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목표 임대료는 연간 1평방피트 당 9.5 파운드(연간 제곱미터 당 102 파운드)로 정했는데 이 금액은 런던에 소재하는 예술가 작업실의 평균 임대료 보다 상당히 낮다.

위 프로젝트는 작업실이 런던 동부 및 남동부의 전통 기반을 넘어 시각 예술 활동 중심지로서의 풍부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해준다. 작업실의 품질, 제작에 대한 파크(Park)의 강조, 왕립오페라하우스 및 국가 기술 아카데미와의 적극적 협업이 갖는 잠재력으로 인해 런던에서 이사 가기를 원하는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강 하구 양쪽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예술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아주 의미 있는 새로운 작업실 공급 프로젝트가 되리라 생각한다.

새로운 작업실을 홍보하고, 창의적 개발을 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ACME는 스테판 크립스 스튜디오 어워드(Stephen Cripps' Studio Award)를 설립했다. 이는 중요한 “불꽃 제조 조각가”인 스테판 크립스(Stephen Cripps, 1952-1982)의 일과 삶을 기리기 위해 행사가 될 것이며, 작품 활동의 기반이 조각이지만 조명, 움직임, 기계, 소리 또는 성능 등의 요소를 수용하는 조각에 뿌리 내린 활동을 하는 예술가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 본 어워드는 또한 파크에 대한 비전과 파트너, 하이 하우스 프로덕션 파크, 왕립오페라하우스, 국가 기술 아카데미 및 ACME 스튜디오 간 창의적 협업에 대한 잠재력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연례 어워드를 통해 목적에 맞게 설계된 무료 조각 작업실과 장학금, 프로젝트 실현 비용을 지급한다.

우리는 현재 런던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과정의 모든 영향력 있는 요소들을 수집하고 사용하여 영속적인 유산을 남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작업실에 대한 특정 약속을 하는 상업적 개발업체에 지속적으로 ‘과세’하고, 기업 및 민간이 자선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작업실을 지원하는 가운데, 작업실 운영 기관이 새로운 정부 계획과 중개로 얻게 된 모든 전문성과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예술가가 작업실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 5

: 연대를 생각하다 "문화적 토지신탁(Cultural Land Trust)"

이런 획기적인 계획은 “문화적 토지 신탁(Cultural Land Trust)”이란 이름으로 제안되고 있는데, 이 계획의 결정적 측면은 자선 기관 및 정부 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금이 “눈에 보이는”, 즉 공적 행사, 기념물, 작품 주문, 예술 작품 및 모든 현재의 “문화적” 자금의 수혜자에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인프라에 쓰인다는 점이다. 이런 대규모의 재원은 상업적 개발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발생하지만, 그에 대한 통제 및 관리는 작업실 운영 기관이 한다.

나는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 아주 강력한 사례가 탄생되어, 널리 확산될 수 있으며, 서울에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Presentation 1

Securing the Future for Artists Studios

David Panton

Co-founder and Director of Estates,
Acme Studios, London

INTRODUCTION

Studio provision in London and throughout the UK is vital, but continues to be undervalued, partly because it is less visible than the more public-facing elements of the wider visual-arts ecology.

The success of the contemporary art world in London in recent years has not trickled down to the majority of individual artists who continue to struggle to afford time and space to devote to their work. It is these artists that create the ‘product’ on which the rest of the contemporary art world relies.

Artists are impelled to do what they do and those artist-centred organisations that support them with studio space are similarly motivated. This has led to a general assumption that affordable studio space will happen anyway, without strategic

support or funding. It is clear that the argument has yet to be won; that appropriate investment in studios can not only provide a significant return, but capital support which enables property ownership, can create a strong, independent and self-sustaining sector. We hope that Acme through demonstration of our methodological evolution can provide a persuasive model of how this can be achieved by others the world over.

GETTING A FOOT ON THE LADDER 1972 - 1995

1. The old way - how artists find studios - “crumbs from the table”

The traditional model of affordable studio provision in the UK has seen artist-led groups and organisations operating opportunistically within the property market to access short-term, and therefore low-cost, property for studio use. While providing a critically important resource for artists, the temporary nature of most buildings sees artists operating in a sometimes insecure environment. Buildings can often be in a poor state of repair and fail to meet artists' needs because of the way they have been converted on minimal budgets.

As a specialist property organisation - a charitable housing association - Acme has been a pioneer in the development of studio provision in the UK. Until the advent of the National Lottery in 1994, and the availability of unprecedented levels of arts capital funding, Acme operated successfully using the traditional model of short-term property management. Small, but vitally important, amounts of arts and regeneration funding helped provide housing and studio space for many hundreds of artists. However it could not guarantee long-term security for the organisation or the artists it supported. It was impossible to maintain affordable rent levels and build significant cash reserves, all in a climate where artists are at the mercy of the vagaries of the property market.

TRANSITION 1996 - 2004

2. The next way - how artists find studios -intervention

- “Arts Council Grants”

In 1996 all that changed. A successful application to the National Lottery through the Arts Council of England for £1.2 million (of total project costs of £1.7 million) supported the purchase and conversion of two major buildings: **42/44 Copperfield Road, E3** and **The Fire Station in Gillender Street, E14**. The purchase of these two buildings provided the beginnings of an asset base against which the organisation could borrow. Acme could now plan a long-term capital development programme to secure the future of its support for artists.

3. The next way - how artists find studios - become developers

- “do it yourself cross-subsidy”

In 2000 we purchased our third building at **Orsman Road, N1** which we had been leasing and sharing with the owner since 1983. The owner allowed us time to develop a scheme to purchase the entire building even though they could have achieved an immediate sale on the open market. With the support of our bank, and now with assets against which we could borrow, eight work/live units were developed for sale to artists. This cross-subsidy enabled us to part-fund the purchase of the whole site, both increasing the number of studios and maintaining low-cost rents.

SECURING THE FUTURE 2005 - today and tomorrow

In February 2005 we were awarded 2 million from Arts Council England’s Grants for the arts - capital programme, a new round of Lottery funding which had as one of its priorities the support of artists’ workspaces. Possibly unique amongst

successful applications for capital funding to Arts Council England (ACE), our proposal was for four indicative, rather than defined, capital projects. Given the unpredictable nature of property negotiation and the vagaries of the planning system, this flexible approach by ACE was critical to our success. Acme is a property development and management organisation by definition. Our experience in the field enabled us to explore a range of development options and partnerships and to proceed with those that met both Acme's and ACE's value for money and associated criteria.

4. The next way - how artists find studios - discover politics - “planning gain partnership”

The availability of capital funding coincided with our pioneering a new model for securing new-build affordable studios, through a partnership with commercial housing developer, Barratt Homes at the Galleria, SE15. By exploiting the requirements of planning a mutually successful outcome was achieved: Southwark got continued employment use on the site, Barratt got their planning consent, Acme got affordable studios.

Communities of working artists bring cultural, economic and social benefit to regeneration schemes. Integrating artists' studios into mixed use housing and commercial schemes brokered through the planning process brings 'gains' for all involved. Local authorities see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resource for local employment, and the demand from artists means studios are continuously fully-occupied from day one. The presence of creative, dynamic and diverse artists in a new development also assists with aims to establish vibrant, integrated communities in which people are happy to live.

In addition to achieving planning, developers gain from the process because the quiet activity of artists' studios is perfectly compatible with housing and provides a guaranteed use of commercial space which is often difficult to fill. Living along-

side artists is a powerful marketing tool which can be seen in the branding of schemes as 'The Galleria' by Barratt Homes and 'Atelier' by Swan Housing.

Artists gain from the process through the provision of high-quality, permanent studios at an affordable rent level. The security of a long-term studio leads to artists investing in the community through involvement in local initiatives, and even moving home to be closer to their studio.

The 'planning-gain' project at the Galleria was of critical importance, leading to five further partnership projects over the following six years. It also provided a viable model that could be pursued by other studio providers, developers and local authorities elsewhere in the UK, and indeed has been taken up more recently in Canada.

The new-build, permanent projects achieved to which ACE funding was allocated are: **The Galleria**, SE15; **Leven Road**, E14; **Harrow Road**, NW10 and **Matchmakers Wharf**, E9. In total the four projects have delivered **132 permanent studios** across **42,700 square feet** at a total project cost of **7.6 million**. This includes 3.8 million which Acme secured as partnership fund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tal project cost to the developer and the price paid) and 1.8 million which Acme contributed from a combination of loan finance and cash reserves.

Most of these large-scale housing developments had a planning requirement for commercial space to be included, referred to as 'reprovision', (because employment use had previously existed on the site), while some had a planning obligation (section 106) specifically to provide affordable workspace for artists. With Telford Homes Plc at the Matchmakers Wharf project, the developer proactively sought Acme's inclusion in their scheme. With the London Borough of Brent and the Harrow Road project it was the local authority that took the lead. The 'gain' is the achievement of permanent, purpose-designed, new-build studios secured at a price which enables sub-market 'affordable' studios to be sustained.

Acme was able to buy studios built to exacting design and performance specifications at considerably less than the cost to the developer of land acquisition, professional fees and build costs. The nature of the contract with each partner saw the majority of the risk being borne by the developer because Acme only paid for final measured lettable studio floor area at a fixed price per square foot.

The development of new models for achieving affordable, high-quality studio space, coupled with Arts Council England's capital investment in Acme since 1996, has established a permanent and self-sustaining resource which will benefit artists for years to come.

This portfolio of permanent buildings, achieved with the support of Arts Council England and partnerships with commercial and social housing developers, has provided the platform on which yet further studio projects have been established. Driven by the continuing demand for affordable and secure studios, and our ambition to increase the quality and range of the programmes we provide for artists, we created 100 studios in three further studio buildings by September 2014.

These are:

- 27 studios at Warton House, Stratford High Street, E15, a s106 partnership with Genesis Social Housing Group (opened December 2012)
- 39 studios and 4 work/live units in a new-build studio block at High House Production Park, Purfleet, Essex, in partnership with High House Production Park Ltd (opened May 2013)
- 30 studios and 6 work/live units at Stockwell Green, SW9, in partnership with commercial developer Spiritbond (opened September 2014)

“Given the unpredictable nature of property negotiation and the vagaries of the planning system, this flexible approach by ACE was critical to our success.”

The availability of capital funding coincided with our pioneering a new model for securing newbuild affordable studios, through a partnership with commercial housing developer, Barratt Homes at the Galleria, SE15. By utilising the requirements of planning permission a mutually successful outcome was achieved: Southwark got continued employment use on the site, Barratt got their planning consent, Acme got its studios.

Communities of working artists bring cultural, economic and social benefit to regeneration schemes. Integrating artists' studios into mixeduse housing and commercial schemes brokered through the planning process brings 'gains' for all involved. Local authorities see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resource for local employment, and the demand from artists means studios are continuously fully-occupied from day one. The presence of creative, dynamic and diverse artists in a new development also assists with aims to establish vibrant, integrated communities in which people are happy to live.

In addition to achieving planning, developers gain from the process because the quiet activity of artists' studios is perfectly compatible with housing and provides a guaranteed use of commercial space which is often difficult to fill. Living alongside artists is a powerful marketing tool which can be seen in the branding of schemes as 'The Galleria' by Barratt Homes and 'Atelier' by Swan Housing.

Artists gain from the process through the provision of high-quality, permanent studios at an affordable rent level. The security of a long-term studio leads to artists investing in the community through involvement in local initiatives, and even moving home to be closer to their studio.

The 'planning-gain' project at the Galleria was of critical importance, leading to five further partnership projects over the following six years. It also provided a viable model that could be pursued by other studio providers, developers and local authorities elsewhere in the UK.

The new-build, permanent projects achieved to which ACE funding was allocated are: The Galleria, SE15; Leven Road, E14; Harrow Road, NW10 and Matchmakers Wharf, E9. In total the four projects have delivered 132 permanent studios across 42,700 square feet at a total project cost of 7.6 million. This includes 3.8 million which Acme secured as partnership fund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tal project cost to the developer and the price paid) and 1.8 million which Acme contributed from a combination of loan finance and cash reserves.

“The ‘planning-gain’ project at the Galleria was of critical importance, leading to five further partnership projects over the following six years. It also provided a viable model that could be pursued by other studio providers, developers and local authorities elsewhere in the UK.”

Most of these large-scale housing developments had a planning requirement for commercial space to be included (because employment use had previously existed on the site), while some had a planning obligation (section 106) to provide affordable workspace for artists. With Telford Homes Plc and the Matchmakers Wharf project, the developer proactively sought Acme’s inclusion in their scheme. With the London Borough of Brent and the Harrow Road project it was the local authority that took the lead. The ‘gain’ is the achievement of permanent, purpose-designed, new-build studios secured at a price which enables sub-market ‘affordable’ studios to be sustained.

Acme was able to buy studios built to exacting design and performance specifications at considerably less than the cost to the developer of land acquisition, professional fees and build costs. The nature of the contract with each partner saw the majority of the risk being borne by the developer because Acme only paid for final measured lettable studio floor area at a fixed price per square foot.

The development of new models for achieving affordable, high-quality studio space, and Arts Council England’s capital investment in Acme since 1996, has

established a permanent and self-sustaining resource which will benefit artists for years to come.

“The development of new models for achieving affordable, high-quality studio space, and Arts Council England’s capital investment in Acme since 1996, has established a permanent and self-sustaining resource which will benefit artists for years to come.”

Securing the Future - new projects and partnerships

Our portfolio of permanent buildings, achieved with the support of Arts Council England and partnerships with commercial and social housing developers, has provided the platform on which further studio projects can be established. Driven by the continuing demand for affordable and secure studios, and our ambition to increase the quality and range of the programmes we provide for artists, we will be opening 100 studios in three further studio buildings by September 2013.

These are:

- 27 studios at **Warton House**, Stratford High Street, E15, a s106 partnership with Genesis Housing Group (opening December 2012)
- 39 studios and 4 work/live units in a new-build studio block at **High House Production Park**, Purfleet, Essex, in partnership with High House Production Park Ltd (opening May 2013)
- 30 studios and 6 work/live units at Stockwell Green, SW9 (opening September 2013)

5. The next way - how artists find studios - “creative partnerships”

Our previous capital development partnerships have all been successful, creating enduring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However it is the nature of these

partnerships that once the buildings are completed and occupied,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 generally comes to an end. One can categorise this kind of partnership as "economically pragmatic".

These next three projects further refine the partnership model and take it to another level. Each one has a unique added dimension achieved through partnerships founded on ongoing creative collaboration. These vary from working with art colleges and others to establish programmes which support recent graduates, providing a 'bridge' between education and professional practice, to exploring the potential for exchange between artists and organisations with specialist creative and technical skills.

Critical to this new phase in our capital development programme has been the achievement of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rtists we support. This is to ensure that what we design and build, and the management services we provide, meet artists' needs and will continue to do so into the future. We have always known anecdotally that artists value our studios and we consistently receive positive feedback - we routinely achieve occupation levels of 99%. However, in 2010 we decided to seek feedback in a systematic way. Our two-year government-funded **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 (KTP) with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s and Design (CSM)** has enabled us to undertake extensive research into contemporary artists' studio practice to feed into our studio designs and specifications. Integral to this research we developed a detailed on-line survey to provide artists with the opportunity to comment on how our buildings perform, how we manage our services and importantly how an affordable studio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ir practice. The other important benefit of the KTP is that it has enabled an ongoing dialogue with CSM, and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to be maintained and provides a significant focus for the development of collaborative projects. The expertise offered by CSM, particularly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of contemporary practice, the relationship fine art students develop with studio space and their needs on graduation, is proving invaluable.

At **Warton House**, on the edge of the Olympic Park, in autumn 2013 we opened 27 studios in a refurbished listed building which was built in 1937 as the factory and office of Yardley's perfume. Based on our highly-successful Childers Street graduate studios, we established four new awards operating in partnership with two London art colleges and a major foundation. The purpose designed adjacent studios are located in one of the large west-facing, semi-circular spaces of this modernist building and provide year-long free studios, bursaries, mentoring, exhibiting opportunities and peer support. We have been working closely with leading London art colleges in recent years and the addition of the Warton House studios has expanded our programme to eight annual studio awards for graduates.

Our partnership project in 2014 with developer Spiritbond in Stockwell Green, The Glass Yard, has provided us with a further 30 new-build studios. The fact that these form part of a student accommodation development for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has created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explore and pursue a range of collaborative programmes. The KTP project has also identified the important role played by a specific type of space for recent graduates; one that reconciles the desire for autonomy, community, a professional environment and affordability. As a result, and in addition to the KTP's broad aims, Acme and CSM work together to develop the creation of specifically-designed 'transitional studios' for recent graduates as part of this new studio development. This jointly-managed programme offers studios at half-rent and the graduate benefit from a continuation of contact with the college.

The development of studios at **High House Production Park** in Purfleet, Essex created a whole new set of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Rather than physically embedding studios within a larger development, with the possibility of a detached studio block we were able to design everything from scratch. Additionally the presence of other creative organisations on the site has created the possibility of unique collaboration.

High House Production Park is a collaboration between Arts Council England, East of England Development Agency, The National Skills Academy for Creative & Cultural, Thurrock Council, Thurrock Thames Gateway Development Corporation and the Royal Opera House. These agencies worked together to set up the Park which opened in December 2010. The 14-acre site is home to the Royal Opera House's Bob and Tamar Manoukian Set Production workshop where world-class artists produce the sets and scenery required for the Royal Opera House's Covent Garden stage. The Royal Opera House's Thurrock-based education team is also located on the site, and the National Skills Academy have opened the UK's first ever Backstage Training Centre. This facility features state-of-the-art technology to teach students of all ages the skills required to excel in backstage careers for the theatre and live music sector.

Artists' studios have always been central to the vision for the Park and Acme has been involved since early 2007 when we carried out an initial demand study. This was followed by an in-depth feasibility and demand study in 2010 which provided a blue-print for the new scheme.

Planning consent for the three-storey building, sited next to the Royal Opera House workshop, was granted in March 2012. The development consists of 43 studios, including four work/live units and has been designed by Colchester-based architects HAT Projects who recently completed the Jerwood Gallery in Hastings. High House Production Park Ltd, the charity which manages the Park, works in partnership with Acme, and we have a 25-year lease on the building. The 2.4 million scheme has been granted 1 million from Arts Council England. The building has a range of studio types and sizes, with those on the ground floor specifically designed for large-scale fabrication and public display.

This project has benefited from our KTP with Central Saint Martins, with the in-depth research feeding into the designs and specifications. The high-quality studios have been designed with great care to ensure not only that artists' practical

needs are met but that the building itself will be an inspiring place to work and visit, reinforcing the professional status of its artist tenants. The rent is 9.50 per square foot per year (102/M per year) which is considerably lower than the current average for artists' studios in London.

The project provides a great opportunity to develop the rich potential for the studios to become a major centre for visual arts activity in the Thames Gateway, beyond our traditional base in east and south east London. The quality of the studios, the Park's emphasis on making, and the potential for continued active collaboration with the Royal Opera House and National Skills Academy, makes this a very significant new resource for local artists on both sides of the estuary, as well as those wishing to relocate from London.

To promote the new studios and provide a major creative development opportunity we have established the **Stephen Cripps' Studio Award**. This celebrates the work and life of the important 'pyrotechnic sculptor', Stephen Cripps (1952-1982), and is open to applications from artists whose practice is rooted in sculpture but which embraces elements of light, movement, machinery, sound or performance. The award helps make public the vision for the Park and the creative collaboration between its partners, High House Production Park Ltd, the Royal Opera House, the National Skills Academy and Acme Studios. The annual award provides a free purpose-designed sculpture studio, a bursary and project realisation costs.

6. The way of the future - how artists find studios **- joined up thinking - "Cultural Land Trust"**

In London we are now moving into a new phase which is endeavouring to bring together all of the most powerful elements i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use these to achieve a permanent legacy. It is harnessing all the expertise and knowledge that studio organisations have learnt already with new government initiative

and brokerage, continuing to 'tax' commercial developer partners with a specific studio commitment, and directing corporate and private philanthropy towards permanent studios.

This groundbreaking initiative is the proposed "Cultural Land Trust", crucially where money, both from philanthropic and governmental sources will be directed not towards 'the visible' ie public events, monuments, commissions, artworks and all the current recipients of 'cultural' money but towards 'the invisible', the infrastructure which supports artists. This new largescale source of finance will be partnered with the commercial development world, but controlled and managed by studio organisations.

I believe that a very strong case can be made for this approach to be widely promoted, hopefully to be adopted in Seoul.

부록

예술가의 스튜디오

런던에서 저렴한 스튜디오를
확보하고 지원하고 만들기 위한 안내

예술가의 스튜디오
런던에서 저렴한 스튜디오를 확보하고 지원하고 만들기 위한 안내



서문

본 ‘안내서’는 캐피털 스튜디오(Capital Studios) - 런던 예술가 스튜디오 개발 사업(London Artists’ Studio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만들었다. 캐피털 스튜디오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려는 전망을 가지고 도시 재개발 사업의 중요한 요소로서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사업이다.

이 사업은 런던의 저렴한 스튜디오 제공자들의 입장에서 Acme 스튜디오(Acme Studios)가 주도하고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에서 지원하며, 지역 당국, 개발기관, 개발업체, 주거단체 등 핵심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들이다.

캐피털 스튜디오 사업은 한시적으로 진행되어 2007년 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Acme 스튜디오는 본 사업으로 향상된 관심과 기회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전국 예술가 스튜디오 제공자 연맹(National Federation of Artists’ Studio Providers), 스튜디오 집단, 단체들과 협력할 것이다.

본 안내서는 발 밀링튼(Val Millington)이 Acme 스튜디오와 협력하여 자료를 취합하고 집필했다. 편집은 Acme 스튜디오의 공동 소장인 조나단 하비(Jonathan Harvey)와 캐피털 스튜디오의 사업 코디네이터 발 밀링튼이 맡았다.

Acme 스튜디오

디자인은 Area, cara@designbyarea.com에서 맡았다. 인쇄는 마틴 에드워즈(Martin Edwards), art-work@martinedwardsprint.co.uk가 담당했다.

44 Copperfield Road, Bow, London E3 4RR
전화 020 8981 6811 팩스 020 8983 0567
전자우편 mail@acme.org.uk

표지 사진 : Bow Arts Trust(골목 조명 설치미술)

사진 : 제레미 클라크(Jeremy Clarke)

본 간행물은 2007년 3월 1일 후에

발행 : 캐피털 스튜디오 - 런던 예술가 스튜디오 개발 사업

www.acme.org.uk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례

034 **1 이 안내서는 어떤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038 **2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

050 **3 스튜디오 단체의 가치**

저렴한 스튜디오가 어떻게 문화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가?
스튜디오 집단과 단체는 무엇인가?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저렴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050 **4 스튜디오의 확보**

지속가능성과 성장의 필수적 요건
개발 방안 : 개조와 신축
스튜디오 개발 사업의 자금 확보

060 **5 관련 사실**

정책적 맥락
예술가 스튜디오와 스튜디오 건물의 요건
갤러리아 - 개발이익 사례 연구
런던의 스튜디오 집단 및 단체
런던의 저렴한 스튜디오 - 주요 사실과 수치
2004년 런던의 스튜디오 건물 분포를 나타내는 지도
도움이 될 만한 연락처
참고문헌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 Studio is not a mere property

1

본 안내서는 어떤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ACAVA 미술가 롤랜드 라와
(Roland Lawar)

테이트 모던 미술관(Tate Modern)에서
랭포드 학교(Langford School) 어린이
들과 함께.

사진 : 저스틴 피퍼거(Justin Piperger)

본 안내서는 개발 주체 - 지역 당국, 등록된 사회적 임대업자 (social landlord), 민간 분야 개발업자들을 위한 것이다. 본서는 런던의 저렴한 스튜디오 제공자들 및 이들이 런던의 문화와 경제 생활에 기여하는 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사례연구와 보기를 이용하여 어떻게 지속 가능한 스튜디오 개발을 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며, 도움과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스튜디오 단체 연락처와 자료를 제공한다.

런던은 세계 현대 시각예술의 중심지이다. 2005년에 불과 4일 동안 4만 7천 명의 관람객들이 프리즈 아트 페어(Frieze Art Fair)를 찾았다. 테이트 그룹 미술관의 2004/2005년 방문자 수는 600만 명이 넘었고, 테이트 모던 한 곳의 방문자 수가 400만 명이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현대미술관으로 기록됐다. 영국의 시각 예술가들과 사진작가의 40% 이상이 런던에 자리잡고 있으며, 런던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5개 중의 1개는 창조적 산업의 일자리이다.

영국의 시각 예술가들은 세계적 수준이다. 문화 대사로서 이들의 영향력은 세계 각지에서 이들의 작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

에서 확인된다. 영국의 우수한 시각 예술가들의 작품은 세계 곳곳의 박물관, 미술관, 비엔날레에서 전시되고 있다.¹

런던에는 특히 현대 미술을 찾는 관람객들이 많아서 현대 시각 예술의 독특한 기법과 접근방식이 여러 측면에서 지역사회 곳곳에 점점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런던의 저렴한 스튜디오 단체들은 창작의 기초적인 단위에서 예술가들을 지원하여 이들이 작업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런던의 미술 분야의 성공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스튜디오 단체들과 입주 예술가들은 지역사회의 번영과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사회적 및 재생 의제 전반에 걸쳐 혁신과 창의성을 북돋움으로써 스튜디오 단체들은 문화적, 지역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저렴한 스튜디오 분야는 지난 40년간 발전해 왔다. 런던에는 잉글랜드의 다른 모든 지역을 합한 것보다 많은 스튜디오 건물이 위치하여, 전체 스튜디오 공간의 58%가 런던에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의 3분의 2 이상이 런던의 동부와 남동부에 위치해 있다. 31개 집단과 단체에서 2,500명의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89개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예술가가 3,500명에 이르러, 스튜디오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많은 수요가 있고 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술가들에게 연구, 실험, 작업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런던에 있는 모든 스튜디오 건물의 절반 이상에서 전시와 교육 사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스튜디오 단체들은 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현대미술에 쉽게 다가가서 시각 예술에 참여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Acme 스튜디오의 카펜터스 로드
(Carpenters Road) 스튜디오

이 건물은 1985년에 세워져 140개의 저렴한 스튜디오를 제공해 왔으나 2012년 올림픽을 앞두고 철거되었다.

사진 : 휴고 글렌딩(Hugo Glendinning)

예술가의 스튜디오

스튜디오 분야는 외견상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작가들의 작업공간은 도시의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예술가들은 런던 동부의 성장과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이 지역이 지금과 같은 활력을 띠고 런던과 영국이 시각예술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도 예술가들의 입지는 전혀 안정적이지 못하다.

땅값이 오르고 새로운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많은 작업공간의 임대차 계약이 앞으로 7년 안에 만료됨에 따라 런던은 430개의 저렴한 스튜디오를 잃을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자조’(自助) 방식의 대체 및 개발 옵션도 전보다 적어졌다. 런던의 활기차고 다양하며 영향력 있는 문화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의 중요한 요소로서 홍보되었지만 이러한 활력에 기여했던 스튜디오 단체는 올림픽으로 인한 기회를 활용하려는 개발업자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예술가들의 작업공간 제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없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스튜디오 제공자들을 포함하여, 조기에 도움을 청할 경우 땅값을 감정하고 개발 기회에 관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단체들이 있다.



1995년에 카펜터스 로드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고 있는 폴라 호니로(Paula Haughey-Law)와 딸 루스(Ruth)
사진 : 휴고 글렌디닝

이 분야의 역사는 자조(自助)와 기회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스튜디오 단체들과 상업적, 공공 및 사회적 개발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개발 및 자금지원 기관에서 이를 매개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이 실현되지 않으면 저렴한 스튜디오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시 중심부에서 더욱 밀려나게 될 것이다.

테임스 게이트웨이(Thames Gateway) 등 주요 개발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스튜디오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있다. 저렴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합용도 개발 사업 안에서 보조금 또는 개발이익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저렴한 스튜디오 제공에 대한 투자가 상당한 가치가 있고, 임차권(leasehold)이 아니라 영구적인 자유보유권(freehold)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상당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예술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예술가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하고 안정적인 시설을 보장하는 것은 예술가들이 창작을 계속하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창조적이고 활기 넘치는 도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

비상업 미술가란 어떤 사람인가?	미술작품의 상업적 가치가 아니라 주로 창조적, 문화적, 지적 또는 철학적 가치를 위해 작품을 만드는 미술가.
예술가들에게 왜 저렴한 스튜디오가 필요한가?	비상업 미술가들의 대부분은 주거 공간과 별도로 스튜디오를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할 정도의 돈을 창작 활동으로부터 벌지 못한다. 많은 예술가들이 교육, 지역사회 개발 등의 분야에서 일하면서 작품활동을 보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 및 재생 의제 전반에 걸쳐 혁신과 창의성을 복돋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술가들이 문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최대의 혜택을 계속 제공하려면 이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저렴한 스튜디오 제공자란 무엇인가?	저렴한 스튜디오 제공자는 예술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 다른 활동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다. 런던의 저렴한 스튜디오 제공자들이 받는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비슷한 공간에 대해 받는 시세의 3분의 1 수준이다. 저렴한 스튜디오 제공자들은 스튜디오 공간 외에도 예술가들과 작품활동을 여러 가지로 지원한다. 10면 참조.
저렴한 임대료는 얼마인가?	2004년에 실시된 전국 단위 조사 결과를 보면 저렴한 스튜디오 분야에서 런던의 스튜디오 평균 임대료는 공과금을 포함하여 평방피트당 연간 7.54 파운드로 나타났다. 이를 2007년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평방피트당 8.50파운드로서, 저렴한 임대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많은 예술가들이 지불할 수 있는 주당 최대 임대료는 공과금을 포함하여 50파운드이다. 12면 참조.
임대료를 누가 내는가?	저렴한 스튜디오 제공자들 중에는 세법상 자선단체 지위를 인정받는 곳이 많아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혜택은 각 스튜디오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대해 적용된다. 예술가들이 주로 내는 임대료에는 재산세를 포함하여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데 전기요금은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혜택에 따라 예술가 각자가 부담하는 임대료가 평방피트당 1 내지 1.50파운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일반 부동산 시장에 저렴한 스튜디오가 많이 있지 않나?	스튜디오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는 스튜디오는 구하기도 어렵고 조건도 저렴한 스튜디오보다 좋지 않다. 게다가 공과금을 포함하는 조건의 임대료는 저렴한 스튜디오의 3배에 이르러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13면 참조.
스튜디오 개발이 지속될 수 있는 건물 내 최적의 스튜디오 수는 몇 개인가?	스튜디오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를 보면 한 건물에 스튜디오가 5개에서 100개 이상 있는 경우까지 다양하지만, 20 내지 25개면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예술가들이 작업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이다.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이면 관리와 운영비 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24면 참조.

예술가의 스튜디오에 대한 사상이 있나?	예술가들이 어느 정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스튜디오는 평균적으로 300 내지 350 평방피트 정도이다. 이 밖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사양은 높은 천장, 자연 채광, 벽이 없는 구조, 24시간 출입 가능, 우수한 접근성과 안전성 등이다. 23면 참조.
3년간 임대할 수 있는 빈 건물이 있다. 저렴한 스튜디오 제공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을까?	건물의 적합성, 상태, 임대 조건, 임대료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 스튜디오 공간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스튜디오 제공자가 이를 관리해 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그 지역에 장기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예술가들은 안정적이라고 느끼지 않을 것이고, 금방 떠나야 하는 조건이라면 그 지역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간을 쏟는 데 소극적일 것이다. 계약을 계속 갱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임대 또는 신축 스튜디오의 영구적인 계약이 더 좋은 방법이고,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투자 가치를 높여주는 방법이다.
한 건물에 미술가, 공예가, 창조적 기업들 모두 수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있지만 임대료를 다양하게 책정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사업 성장 모델은 비상업적 미술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의 작업 방식은 일반적인 창조적 기업의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 비상업적 미술가들은 대부분 저렴한 스튜디오를 필요로 할 것이다.
스튜디오에 공공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독립된 작업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스튜디오 단체에서 공동의 공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스튜디오를 일반에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 행사에 참여한다. 일부 단체들은 현대미술의 전시를 장려하는 별도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어떤 단체에서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자체 공간 또는 해당 지역 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는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스튜디오를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까?	물리적인 접근성 면에서 모든 신규 스튜디오 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의 법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오래된 건물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 개조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단기 임대의 경우 그렇다. 스튜디오 단체에서는 다양한 장애가 있는 예술가들의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부분의 스튜디오 단체에서는 공개 선정 절차를 운영하며, 저렴한 스튜디오 제공자들 중에서도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모범 사례가 되는 곳이 여럿 있다. 장애인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금, 문화적 다양성 지원금,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의 사업이다.
우리 지역에 예술가 스튜디오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부 자치구의 경우 구청 문화 서비스 부서에서 스튜디오 희망자의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관내 작업공간 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한 자치구도 있다. 창조적 르위섬(Lewisham) 자치구 등 창조 산업의 허브들은 창조적 산업 종사자들의 공간 수요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가들은 적절하고 저렴한 스튜디오가 있으면 신규 개발 스튜디오에 몰릴 것이다. 스튜디오가 수요를 만든다.
스튜디오 사업에 관심이 있다. 어디에 알아봐야 하나?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예술 담당관 또는 전국 예술가 스튜디오 제공자 연맹에서 조언을 제공한다. 연락처는 32면 참조

3

스튜디오 단체의 가치

큐빗(CUBITT)은 이스링톤(Islington)에서 예술가가 운영하는 미술관 및 스튜디오로서, 스튜디오 입주자 33명의 창작활동을 위한 활기찬 환경과 일반 전시, 강연, 공연, 영상, 출판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 예술위원회의 정기적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큐빗 미술관은 독립적 큐레이터를 위하여 18개월간 지원금(bursary)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큐레이팅 및 전시 기획 모델을 시험하고 있다. CUBITT은 예술가가 운영하는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스튜디오, 미술관, 외부 활동을 활용하여 시각 문화 분야의 국내외 발전을 계속 장려하고 있다.

저렴한 스튜디오가 어떻게 문화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가?

창조적 경제에서 일하는 개인과 공적인 자금 지원을 받는 문화 및 창조적 산업 기반의 관계는 창조적 공간의 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²

문화적 혜택의 창출

저렴한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단체들은 런던과 영국의 문화생활에 상당히 공헌한다. 이들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예술 창작을 지원한다. 스튜디오 단체들은

-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계속하고 작업과 전시, 작품 판매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하고
- 저렴한 임대료를 통하여 예술가들이 스튜디오에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며
- 예술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을 제공하며
- 안전하고 저렴한 스튜디오를 제공하여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여생을 꾸려 나갈 구심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어떤 스튜디오 단체들은 예술가, 예술계, 일반 대중이 시각예술을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현대미술의 한시적 전시, 스튜디오에 있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업공간을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 행사, 인근의 단체들과 함께 진행하는 공동 프로젝트 등의 활동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스튜디오 단체에서 단독으로 또는 여러 단체가 협력하여 기획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전체적인 문화 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스튜디오 단체들은 런던의 창조적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창조적 산업은 영국과 런던 경제의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 시각 예술가와 사진작가의 40% 이상이 런던에 자리잡고 있으며, 런던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일자리 5개 중 1개가 창조적 산업 분야의 일자리이다. 작업공간을 필요로 하는 예술가들이 전국에 있는 약 1천 개의 관련 학과에서 해마다 배출된다. 스튜디오 단체들은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창조적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저렴하고 적절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들은 실험적이고 위험부담이 있는 작업도 흔히 하는데, 이러한 작업이 항상 상업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창조적 산업(및 시각예술) 분야의 핵심적인 연구개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 창출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하여 작업하는 지역사회 예술 활동은 런던의 창조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런던 곳곳에 창조적 활동의 거점을 구축하는 데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마노이 암바스나(Manoj Ambasna), 런던시장 직속 창조적 산업 위원회 보고서에서

아트 언랩드(Arts Unwrapped)

는 런던에서 처음 시도되는 시 차원의 오픈 스튜디오 프로젝트이다. 40개 건물에 있는 1천여 명의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의 작품과 작업공간이 2005년 11월에 3주간 주말마다 일반에 공개되어 14,000명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창조적 런던(Creative London)과 잉글랜드 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저렴한 스튜디오 단체인 ASC가 행사를 맡았다.

보우 아트 트러스트(Bow Arts Trust)

는 런던의 타워 햄릿(Tower Hamlet)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90명이 넘는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너너리 미술관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런던 동부와 남부의 청소년 25,000여 명과 함께 하면서 교사들에게 연수를 제공하고 100명이 넘는 예술가들에게 일자리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예술가의 스튜디오

트러스트에서 성공시킨 프로젝트 중에는 세인트 폴 웨이 커뮤니티 스쿨(St. Paul's Way Community School)과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다. 정원 1,200명인 이 학교는 빈민가에 자리잡고 있으며 전교생의 87%가 인도계이다. 영국의 중등교육 인증제도인 GCSE에서 이 학교의 성적은 거의 바닥권으로서 전교생의 15%만이 A-C 성적으로 통과했다. 시각예술 특성화학교로 지정되고 영국 최초로 공식 예술 파트너(보우 아트 트러스트)가 선정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 학교의 GCSE 예술 분야 성적은 크게 향상되어 대상 학생의 90%가 A로 통과했다. 이러한 성공은 모든 예술 및 미디어 형태로 확산되어 그 후 매년 성적이 90점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학교는 현재 모든 교육과정에서 대상 학생의 50% 이상이 A-C로 통과하고 있다.

스튜디오 단체들은 지역사회의 생활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 장기 계약으로 충분한 안정성을 제공하면 지역사회에 강한 소속감을 형성하고 장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의 시설과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책임 있는 입주민이다.

또한 많은 스튜디오 단체들은

- 폭넓은 교육 및 외부 연계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시각예술에 참여하고 배우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단체들과 중층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의 프로젝트를 제공한다.
 - 예술 교육 활성화
 - 공공 영역 강화
 - 사회 통합 지원
 - 범죄 및 반사회적 행동 감소

우리는 APT 및 라반(Laban)과의 협력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시각예술 및 무용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그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한다. 이는 우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크리스 기트너 (Chris Gittner),
크릭사이드 교육 트러스트(Creekside Educational Trust)



보우 아트 트러스트 정원에서 열린
오픈 스튜디오의 밤 행사.
사진 : 제레미 클락(Jeremy Clarke)



미술가 매트 케인즈(Matt Caines)가 진행한 세인트 폴
웨이 스쿨의 조각 워크숍(보우 아트 트러스트)
사진 : 보우 아트

경제적 혜택의 창출

스튜디오 단체들은 도시의 재생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이들은

- 임대료가 잘 안 되는 건물을 점유하여 범죄와 기물파괴를 줄이고 건물을 보수하여 다시 활용하도록 한다.
- 지역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 역할을 한다.
- 재생 계획을 알리는 공청회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 예술가들이 도시 재생 과정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안정성 및 지역과의 연계를 제공한다.
- 자신의 지역과 폭넓은 지역의 공공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한다.

예술가들은 고품질 도시 환경의 재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 미술’의 창조 뿐만 아니라 계획 및 설계 팀의 일원으로 참가한다. 이러한 협력은 예술가들이 처음부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예술가들은 가치, 자부심, 차별성을 창출하여 지역 재생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크리스 머리(Chirs Murray). 학습 및 발전 책임자.

2003년 7월 테이트 모던 미술관 건축 및 도시 환경 위원회(CABE)에서 개최한 장소의 창조(Creating Place) 컨퍼런스에서.

스튜디오 단체들은 지역사회에 경제적 혜택도 제공한다.

이들은

- 복합용도 개발의 가치를 높인다.
- 개발 사업에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여 계획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도울 수 있다.
- 임대료가 저렴한 스튜디오를 제공함으로써 예술가들에게 상당한 지원을 제공한다(저렴한 임대료와 지원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13면 참조).



1967년에 예술가들을 위한 스튜디오 공간 제공 사업으로 제안된 스페이스(SPACE)의 리플렛.

세인트 캐더린(St Katherine) 부두의 창고 일부를 활용하자는 제안이었다.

사진 : 스페이스 스튜디오(SPACE Studios)

스페이스 스튜디오는 런던 스튜디오 단체의 원조격이다. 1967년에 설립되어 현재 16개 건물을 관리하며 500명이 넘는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있다. 스페이스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예술가들의 역량 개발, 지역사회와 연계한 외부 협력 사업, 미디어 소프트웨어 강좌와 개인지도를 제공하는 스페이스 미디어 아트(SPACE Media Arts) 및 트라이앵글(Triangle)에서의 전시회 등이 있다.

APT(The Art in Perpetuity Trust)는 초기의 예술 중심 단체로서, 일찍이 비어 있는 산업용 공간을 활용하여 예술가들을 위한 스튜디오로 개조하고 교육 프로젝트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지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곳이다. 현재 크릭사이드(Creekside)에는 유명한 콕핏 아트(Cockpit Arts)와 크릭사이드 아티스트(Creekside Artists) 등 5개의 스튜디오 단체가 있고, 라반 등 다른 예술 단체들도 있다.

ASC(Artists Studios Company)는 등록된 자선단체로서,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예술을 진흥하며 공공에 대한 예술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이다. ASC는 저렴한 작업 공간 제공자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여 현재 런던 남부와 동부 곳곳에서 임차 건물 7개를 관리하며 400명이 넘는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ASC의 뉴 크로스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고 있는 미술가.

사진 : 제니 존스

스튜디오 집단과 단체는 무엇인가?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예술가들은 스튜디오를 필요로 한다. 비상업적 미술³에 종사하는 많은 미술가들에게 스튜디오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술가들의 대부분은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스튜디오와 별도의 주거 공간을 임대할 정도의 돈을 창작활동으로부터 벌지 못한다. 저렴한 스튜디오 제공자들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한다. 현재 31개 집단과 단체가 런던 곳곳의 건물 89개에서 2,500명의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있다. 저렴한 스튜디오 제공 사업은 매우 다양한 분야이다. 철학과 구성, 조직, 직원 규모가 제각기 다르다(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곳도 많다). 스튜디오의 규모와 연수, 임대료 수준, 단체가 진행하는 활동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모두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의 핵심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집단’은 공적 조직이지만 법적인 조직체가 아닌 주체를 가리키며, ‘단체’는 법적 조직체를 가리킨다.

근본적으로 스튜디오 단체들은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한다. 하지만 스튜디오는 연구를 하고 작품을 제작하는 공간 외에도 다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시장
- 상호 지원을 위한 장소
- 교육을 위한 장소(정규 및 비정규 교육)
- 예술가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구심점
- 수련을 위한 장소

스튜디오 단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건물 하나를 사용하는 스튜디오 집단 및 단체와, 여러 개의 건물을 관리하는 스튜디오 제공자-개발업자이다. 전자는 단체의 정신과



활동이 특정 건물 및 입주자들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단체이다. APT, 큐빗(Cubitt), 개스웍(Gasworks), 오큐페이션 스튜디오(Occupation Studios)는 단일 건물 단체이며, ACAVA, Acme 스튜디오, ASC, 스페이스 등 이보다 규모가 큰 단체들은 여러 개의 건물을 관리하여 수백 명의 예술가들에게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스튜디오 제공자-개발업자이다.

건물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라운지 갤러리 앤 스튜디오(Lounge Gallery and Studios)와 스탠포인트 스튜디오(Standpoint Studios)는 각각 10개 이내의 스튜디오를 제공하며, 보우 아트 트러스트는 건물 하나에서 90명이 넘는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제공한다.

런던에 있는 모든 저렴한 스튜디오 건물의 절반 이상이 공공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어 일반 대중을 위한 전시회, 예술가들을 위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 미디어 아트 시설, 교육 워크숍,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예술제와 공공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튜디오 단체도 여럿 있다. 예술가들은 이를 통하여 작품 제작 의뢰를 받기도 하고 공공영역의 프로그램과 협력하기도 한다. 공공 활동의 수준은 단체의 목표와 철학에 따라 다르다.

위 : ASC의 뉴 크로스 스튜디오
(New Cross Studios).

개발 전의 모습.

사진 : 제니 존스(Jenny Jones)

개스웍(Gasworks)은 런던 남부의 케닝턴 오벌(Kennington Oval)에 위치하고 있으며, 12개의 예술가 스튜디오를 제공한다. 이 중 3개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 예술가들에게 제공한다. 개스웍은 1994년 이후 50개국에서 100명 이상의 예술가들을 초청했다. 개스웍은 연간 최대 6회의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전시회에는 교육 프로그램과 외부 활동이 함께 진행되어 예술가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플로렌스 트러스트 스튜디오는 엄선된 소수의 예술가들에게 작품활동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도록 1년간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의 지원은 단순한 스튜디오 공간 제공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는 작가들의 인맥 형성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공공분야의 예술계 주요 자금지원자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런던의 공영 및 민영 미술관, 아트 페어, 미술 단체, 컨설턴트, 미술 담당 기자, 큐레이터들과도 연결되어 있다.

2006년에는 줄리 쿡(Julie Cook)이 자신의 작품세계를 보다 개념적인 미술 세계로 확장하고 싶은 작가로서 우리와 만났다. 줄리는 전시회를 2회 열었고, 예술위원회 지원금을 받았으며, 새로운 스튜디오를 구하고, 1년의 지원기간을 마무리할 무렵 대작 한 점을 공예위원회(Crafts Council)에 팔았다. 그녀가 표현한 대로 “...놀라운 한 해의 놀라운 마무리”였다.

폴 베일리(Paul Bayley), 스튜디오 사업 책임자. 플로렌스 트러스트 스튜디오.

플로렌스 트러스트 스튜디오(Florence Trust Studios)의 2005년 여름 전시회에 출품된 조 홀랜드(Jo Holland)의 작품

사진 : 플로렌스 트러스트 스튜디오

런던에 있는 저렴한 스튜디오 제공자의 70%가 세법상 자선단체 지위를 인정받아 공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저렴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술가의 저렴한 스튜디오란 예술가가 작품활동을 계속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작업공간으로서, 이를 필요로 하는 예술가, 즉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작업공간 및 별도의 주거공간을 임대할 소득수준이 안되는 예술가에게 적절한 임대료와 임대기간으로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저렴한 임대료

2004년에 Acme가 전국의 스튜디오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런던의 저렴한 스튜디오의 평균 임대료(공과금 포함)는 평방피트당 연간 7.54파운드이며, 평균적인 크기

(340평방피트)의 스튜디오 임대료는 월 215파운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저렴한 스튜디오 제공자들은 임대료에 공과금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매달 부담하는 액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공과금 포함 임대료에는 보통 보험, 수리비, 유지보수비, 재산세, 관리비 등 전기요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전기요금은 각자 사용하는 만큼 내게 된다. 한두 달치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리비는 보통 소액이다.

유연한 임대기간

대부분의 예술가 스튜디오 단체에서는 저렴한 임대료 외에도 장기간의 임대를 보장하여 예술가들이 앞날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술가들이 한두 달 전에만 통지를 하면 되는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가는’ 임대기간 역시 중요하다. 예술가들이 스튜디오를 유지하는 능력은 경제적 상황의 변화, 일정 기간 다른 형태의 공간에 대한 요구, 상당 기간 동안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자신의 스튜디오를 비워두어야 하는 상황, 또는 작업방식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술가들이 장기간의 유연성 없는 임대료에 묶이는 것은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고 비용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저렴한 스튜디오 제공자들은 임대기간과 관련하여 또 다른 옵션도 제공한다.

- 임대료가 부담스러워지면 스튜디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옵션



ACAVA의 블레킨든 스트리트
(Blechynden) 스튜디오.

노스 켄싱턴(North Kensington) 소재.
사진 : ACAA



APT의 스튜디오.
덱트포드(Deptford) 소재.
사진 : 리즈 메이(Liz May)

-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에 자신의 스튜디오를 다른 예술가에게 전대하는 옵션

기타 지원

일반적으로 저렴한 스튜디오 제공자들은 다음 사항도 제공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부채 및 연체 관련 상담
- 어려운 상황의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유연한 업무처리
- 개별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예술가들을 위한 스튜디오 개조, 변경 등

일부 스튜디오 집단과 단체에서는 장비, 보관 공간, 전시공간 등 다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임대료에 포함될 수 있다.

일반 부동산 시장과의 비교

2005년 11월에 런던 10개 자치구의 스튜디오 물량, 적합성, 임대료 수준, 임대기간에 관하여 캐피털 스튜디오가 발주한 조사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조사된 스튜디오의 평방피트당 평균 임대료는 연간 22.82파운드(공과금 포함)로, 저렴한 스튜디오가 평균 7.49파운드인 것과 비교하면 평방피트당 15.33파운드(299%) 더 높았다.
- 임대료에 공과금을 전부 포함시키는 곳은 일반 부동산 시장 조사대상의 10% 미만이었다.
- 임대기간, 예술가들의 요구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렴한 스튜디오 쪽이 훨씬 유연한 입장이었다.

- 적절하고 저렴한 작업공간은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저렴한 스튜디오 분야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2005년 11월의 조사 결과 런던의 시각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났다.

-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비교하여 런던의 저렴한 스튜디오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연간 임대료 보조금 수준은 현재 930만 파운드에 이른다.
- 저렴한 스튜디오 분야에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연간 88만 파운드 내지 140만 파운드이다.

이 조사 보고서에서는 시각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스튜디오를 제공함으로써 런던의 시각예술 분야에 상당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셈이며, 이는 지원되는 돈의 액수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4

스튜디오의 확보

마더 스튜디오(Mother Studios)

는 2001년에 예술가 조안나 휴즈(Joanna Hughes)가 설립했다. 스토크 뉴잉턴(Stoke Newington), 브릭 레인(Brick Lane), 쇼어디치(Shoreditch)에 있는 다양한 스튜디오를 이용했던 조안나는 더 큰 공간이 필요했다. 스튜디오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예술가에게 적합한 공간이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자신의 작업공간을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뺏긴 예술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는 적합한 공간을 찾는 것이 어렵게 되자 결국 스튜디오 단체를 직접 설립했다. 자체 자금으로 출범한 마더 스튜디오는 이제 리버 리(River Lee) 옆의 해크니 Wick(Hackney Wick)에 있는 넓은 창고 건물 맨 위층 3개 층을 이용하여 예술가 45명에게 스튜디오 30개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성장했다.

전통적인 접근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

1970년대에 저렴한 작업공간에 대한 시각 예술가들의 절실한 필요로부터 ‘스튜디오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대한 해결책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남아도는 건물을 이용하려는 예술가들의 집단행동에 의해 얻어졌다.

이에 따라 형성된 저렴한 스튜디오 분야는 규모가 크고 다양하면서 일반 부동산 시장과 구별되는 하나의 분야를 이루고 있는데, 예술가들의 자발적 문제해결에서 유래한 자조적 접근방식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땅값이 오르고 지원금을 통한 대규모 자금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예술가들 스스로의 노력은 스튜디오 공간 확보 방안으로써 경제적 타당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접근성이 뛰어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업 주체들, 즉 지방자치단체, 주택 단체, 민간 분야 개발업자들과 협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크스턴(Hoxton)은 지난 10년간 런던 미술품 시장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2002년에는 미술관 100여 개가 밀집된 구역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세련된 바, 클럽, 식당이 들어서고 새로운 주택단지가 개발되면서 임대료가 치솟았다.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단체들이 많다.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시장의 문화 전략. 2004년 4월

지속가능성과 성장의 필수적 요건

스튜디오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적인 임대기간, 자금 지원, 전문성 계발/역량 확충의 3가지로 요약된다.

안정적인 임대기간

안정적인 임대기간이 보장되면 스튜디오 단체들이 안정성과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최대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저렴한 예술가 스튜디오 사업이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고 임차권(leasehold)이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자유보유권(freehold)이 있는 건물을 취득하여 스튜디오를 제공하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런던의 스튜디오 단체 두 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정적인 임대기간은 스튜디오 단체들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체의 정신을 확립 - 응집력 있고 자신감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을 투자
- 지역에 뿌리내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술가들과 연계하며 운영 실적을 축적하여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협력자들을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⁵

단기 임대 스튜디오를 전전하거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거나 스튜디오를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돈과 시간이 낭비되며, 예술가들의 에너지와 자신감이 소진된다. 이렇게 되면 예술가들이 작품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고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키스헤일 아트 플래스(Chisen-hale Art Place)는 1980년에 버틀러스 워프(Butler's Wharf)에서 쫓겨난 예술가와 무용가들이 설립했다. 이들은 버려진 건물을 개조하여 스튜디오 39개와 무용실을 제공했다. 이후 건물 1층을 개조하여 키스헤일 미술관을 설립했고, 미술관은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타워 햄릿의 허트포드 유니언 커널(Hertford Union Canal)의 문화 명소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런던 동부에 미술관과 스튜디오가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타워 햄릿 자치구는 이를 인식하여 건물의 임대기간을 25년 연장했다. 키스헤일 아트 플래스는 이제 앞으로의 발전을 이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나는 키스헤일 스튜디오와 미술관을 설립한 버틀러스 워프 예술가 집단의 일원이었으며, 우리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서로 많은 에너지를 얻었다. 저렴한 스튜디오를 갖는다는 것은 예술활동에 집중하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예술 창작은 장기적인 작업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가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인 스튜디오를 갖는 것이 중요했다. 나는 스튜디오에 가까운 곳에 살기 위해 이사까지 했다. 나는 이 지역의 발전에 힘쓸 것이다.

키스헤일 미술가 잉그리드 커마(In-grid Kerma)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 Studio is not a mere property



미술가 잉그리드 커마.
키스헤일 아트 플레이스.
사진 : 리사 하워드(Lisa Howard)

그러나 자유보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안정적인 임대기간은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많은 스튜디오 단체들이 단기 임대로 건물을 사용했는데, 그 건물의 장래가 불확실하고 임대료가 낮았기 때문이다.⁶ 만약 개발업자들과 부동산 소유주들이 갱신 가능한 15년 내지 20년의 장기 임대를 제공하면서 임대료 인상 폭을 소매물가지수(RPI)와 연계하여 제한한다면 스튜디오 단체들 입장에서 임대기간이 충분히 안정적이고 임대료의 확실성이 있어서 좋고, 지역사회에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 지원

문화적 건물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은 문화적 건물이 금전적인 부담이 되며 그 비용(자본 비용 및 운영비)을 공공 자금, 자선단체 또는 민간 후원자가 보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튜디오 단체가 문화적, 지역적,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금융 지원이 제공되면 스튜디오 제공자들은 높은 점유율과 낮은 임대료 연체율로 궁극적으로 순수익을 창출하며 탄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자금지원 사업, 단일 재생 예산(Single Regeneration Budget), 유럽연합 자금 등 주요 자금원은 최근 수 년간 줄어들어 왔고, 스튜디오 단체들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자금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 기반시설 투자 자금, 지역 재생 자금, 개발이익, 저금리 대출 등을 고려할 수 있다(17면 참조).

전문성 개발/역량 확충

2004년 잉글랜드의 예술가 스튜디오 및 단체 조사에 따르면

단체들의 경영 역량은 편차가 크고 전문성 개발 및 지원에 대한 분명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튜디오 운동은 경영 및 개발을 자발적인 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런던의 저렴한 스튜디오 제공자 31개 중 22개의 상근 직원이 평균 1명 미만이고, 7개는 직원이 없이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다.

스튜디오 단체들은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유급 전문인력과 전문가의 조연 부족이 이 분야 성장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전국 예술가 스튜디오 제공자 연맹은 정보, 조언, 지원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장려하며 단체들의 전문성을 공유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자세한 사항은 32면 참조). 연맹은 또한 스튜디오 단체들의 요구와 이들이 제공하는 혜택을 널리 알리고 스튜디오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 정책과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개발 방안 : 개조와 신축

지난 30년간 예술가들은 공장, 창고, 학교, 교회, 사무실 등 매우 다양한 노후 건물들을 개조하여 스튜디오를 만들어 왔다. 런던 스튜디오 건물의 거의 4분의 3이 50년 이상 된 것이어서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하다.

필요에 의해 도출된 이러한 접근방식의 단점은 이제 너무나 분명하다.

대부분의 건물이 단기 임대되었기 때문에 개조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여 건물들이 스튜디오로 간신히 쓸 수 있는 수준이다.

- 환경과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부분의 건물들이 법정 요건을 겨우 채우는 수준이다.

머튼(Merton) 자치구에서는 스튜디오 단체 **ACAIVA**가 구청 직원들과 협력하여 세탁소, 화원 등 사용되지 않는 문제 건물 여러 개를 활용하는 한편 예술가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스튜디오 공간을 제공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예술 프로젝트를 만들고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치구의 예술 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머튼은 처음에는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고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예술가들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이것으로 머튼의 운영비를 충당하며 예술가들과 머튼 예술 담당자들이 협의하여 전략적 지역 예술 프로젝트 기금을 만들었다.

“협력을 통하여 머튼이 제공하는 저렴한 예술가 스튜디오 수를 3배로 늘릴 것이다. 낡은 건물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다.”

모린 페퍼(Maureen Pepper). 머튼 예술 개발 책임자. 제대로 사용되지 않던 세탁소를 활용한 펍스 브리지 스튜디오를 개장하면서.

- 예술가들은 자신의 스튜디오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쓸 만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건물들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쇠락해 왔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이제 싼 건물이 없다.
- 단기적으로 사용할 건물을 개조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제 양질의 지속 가능하고 법규를 완전히 준수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2가지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

- 기존 건물을 장기 용도로 전환
- 스튜디오 전용 건물 신축

기존 건물의 전환

문화를 중심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포함하는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사용되지 않는 대형 건물을 장기적인 스튜디오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 이러한 건물을 이용하여 인접 지역을 상업적으로 개발하고 그 개발이익을 활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혀 또는 거의 부담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적 혜택을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전략적 재생기금을 결합시키면 예술가의 스튜디오 공간을 위한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 건물이든, 공장 건물이든 오래된 ‘상징적’ 건물을 개조하는 것은 신축보다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오래된 건물들은 그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 접근성

- 건강 및 안전
- 건축 당시에 사용한 자재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
-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짐 - 금전적으로 비효율적
- 환경 및 열 효율이 낮아 서비스 비용이 많이 소요
- 신축건물보다 리스크 파악이 어려움

신축하는 방안

기존 건물 개조의 어려움은 신축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배제할 수 있다. 신축의 장점을 살펴보면

- 우수한 설계
- 우수한 성능 사양
- 비용 통제가 용이
- 현재의 예술가들의 요구
- 높은 환경 사양
- 낮은 유지보수 비용
- 공간 효율성

그러나 단독건물은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신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을 포함한 복합개발 방식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 토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층건물을 공유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주거용 또는 사무용 공간과 예술가 스튜디오가 함께 들어서는 것이다(서로 요구 조건이 달라서 계단,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을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공간이 충분히 있다면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을 1층에 배치하여 건물 공간을 용도별로 분리하고 다른 종류의 사용자들이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할 수 있다.

스페이스(SPACE)에서 최근에 진행한 스튜디오 개발 사업인 트라이앵글(The Triangle)에서는 기술대학 건물을 활용하여 스튜디오 67개, 전시공간, 이스트 런던 프린트메이커(East London Printmakers), 디지털/네트워킹 교육장 2개, 스페이스와 스페이스 미디어 아트 사무실, 임대용 사무 공간을 마련했다. 개조 비용 120만 파운드는 유럽연합과 런던개발국(LDA)의 재생기금에서 마련했다. 개조 작업은 2007년 봄에 마무리되어 장애인들을 위한 완전한 접근성, 도로와 접하는 건물 전면에 전시 및 교육 공간 1천 평방피트, 임대용 스튜디오, 소기업 전용 공간을 확보했다. 스페이스의 목표는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지역의 예술단체, 학교, 지역단체, 주민 등 인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물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임대료가 높은 일부 시설과 런던개발국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달려 있다.



그랜드 유니언 운하를 끼고 코퍼필드 로드(Copperfield Road)에 있는 Acme의 건물.

사진 : 휴고 글렌드닝(Hugo Glendenning)

Acme는 복권 기금을 활용하여 예술위원회로부터 1997년에 120만 파운드, 2005년에 200만 파운드를 지원받아 장기적인 건물 확보 사업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10년 내에 런던에 저렴한 스튜디오 400개를 만들 계획이다. Acme는 이 지원금으로 건물 2동을 매입하여(마일 엔드(Mile End)의 코퍼필드 로드)에 소재한 건물과 작업/주거공간 개발사업에 활용될 포플러(Poplar)의 소방서 건물) 점점 비싸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처음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Acme는 이 건물들을 바탕으로 교차 보조금 방식의 개발을 통하여 해크니(Hackney)의 오스만 로드(Orsman Road)에 세번째 건물을 확보할 수 있었다.

스튜디오 개발 사업의 자금 확보

개조와 비교한 신축의 장점은 앞 절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적합한 건물 또는 부지는 어디에 있고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아래의 방안들 중 어떤 것도 해결책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향후의 개발 사업은 이러한 방안들을 결합하고, 결정적인 사항으로써 다른 주체들의 개입 및 지원 또는 협력을 통해 추진될 것이다.

-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공간 임차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 임차
- 지원금
- 대출
- 교차 보조금(cross-subsidy) 방식의 개발
- 개발이익의 활용
- 이전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공간을 한꺼번에 임차하는 방안

일반 부동산 시장의 작업공간 임대료는 물리적으로 대등한 수준의 저렴한 스튜디오의 평균 3배에 이른다. 이는 대부분의 개인 예술가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하지만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행동하면 규모의 경계를 활용할 수 있다. 건물이 클수록 단위면적당 임대료는 싸진다. 임대료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고 건물 공간을 다수의 예술가들을 위해 분할하려면 개조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공동으로 행동하는 예술가들이 법적 조직을 갖추지 않았다면 세법상 자선단체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재산세를 전부 부담하게 된다.

상업용 공간을 공동으로 임차하는 예술가들이 있지만, 이는 임대료나 공간의 품질 면에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예술가들의 시간과 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면 건물주들에게 도시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제106조에 의한 협약을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 즉 신축 후 5년 내지 10년간 제공되는 저렴한 임대용 공간을 만들도록 유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 임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다른 용도를 찾기 어려운 건물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공에 대한 혜택, 특히 해당 지역의 문화 정책을 고려하여 저렴한 임대료에 제공하도록 협상할 수 있다.

지원금

지난 10년간 저렴한 스튜디오 분야의 건물 매입과 신축에 제공된 주요 자금원은 국가 복권 수입과 유럽연합 지원금이었다. 이 두 가지 모두 줄어들어 왔다.

아직 예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 매입, 개조, 개선 사업에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로부터 10만 파운드까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⁷

신탁 및 재단 중에서 자신의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이 있는 스튜디오 개발 사업에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스튜디오 단체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인 비영리기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조해야 하

가장 최근에 복권기금의 지원금으로 마련한 첫번째 건물에는 펙햄(Peckham)의 갤러리아 스튜디오(Galleria Studios)를 만들어 배럿 홈즈(Barratt Homes)와의 협력을 통한 복합용도 개발이의 방식의 개발사업으로 스튜디오 50개를 만들었다. 25면의 사례연구 참조. Acme가 관리하는 건물 12개 중 4개는 현재 Acme가 영구적으로 확보한 것으로서 200명이 넘는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스튜디오와 작업/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ASC는 학교를 아파트로 개조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제106조에 의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디지털 미술관 공간과 예술가를 위한 작업/주거 공간 20개가 만들어진다.

는 시설이 런던개발국이 자금을 제공하는 창조적 산업 지원 교육사업에 필요할 경우 런던개발국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대부분의 스튜디오 사업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없다.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임대료만 저렴한 수준이라면 100% 임대될 것이 확실하고, 따라서 임대료 수입이 매우 안정적이다. 이 점에서 스튜디오 사업은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낮은 여신 기회가 된다.

하지만 스튜디오 개발 사업 자금의 일부를 대출을 통해 마련하려는 집단 또는 단체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하고 상환 능력을 입증하는 탄탄한 사업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에 대출은 좋은 자금확보 방안이지만,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있는 단체는 극소수이다.

자선은행(The Charity Bank)⁸ 등의 기관에서는 비영리기관에 소규모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 있지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리는 일반 대출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정적으로 탄탄한 단체만이 저리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저렴한 스튜디오 분야 대부분의 단체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다.

교차 지원금 방식의 개발

브리스톨(Bristol)의 스파이크 아일랜드(Spike Island), Acme 스튜디오의 오스만 로드(Orsman Road) 프로젝트 등 대규모 스튜디오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교차 지원금 방식의 중요한 사례가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부지를 매입한 다음 일부를 개발 또

는 분양하여 전체 부지 매입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복잡하고 리스크가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미 부동산 개발 실적이 있거나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스튜디오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개발이익

25면의 사례연구 참조.

이전

대규모 개발사업이 런던 동부, 특히 템즈 게이트웨이(Thames Gateway)에서 진행되면서 예술가들이 작업공간을 옮길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창조적 산업을 유치하고 싶어하며, 예술가들의 스튜디오를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식하는 곳이 많다. 런던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 중의 하나지만 예술가들은 집중적인 상호 교류와 인맥 형성의 기회 때문에 런던으로 온다. 스튜디오 단체들은 이전과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보상할 만한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오cup레이션 스튜디오(Occupation Studios)는 런던 중심부에 저렴한 스튜디오 공간을 만들려는 예술가들이 주도한 사업에서 시작되었다. 이 단체는 보유 부동산의 자유보유권을 가지고 스튜디오 공간 13개와 공동 공간 및 시설을 예술가 16명에게 제공한다. 건물은 런던의 예술가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전시와 교육 활동을 하는 사우스워크(Southwark) 자치구에 있는 월워드 로드(Walworth Road)의 변화가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예술가들의 스튜디오는 오cup레이션 스튜디오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서 중심이다. 모든 예술가들은 창작활동을 통해 발전시킨 기량과 지식을 활용하여 생활과 작업을 꾸려 나간다. 이들이 진행하는 많은 공공 프로젝트가 자금제공 기관과 자선 신탁의 지원을 받아 예술가들이 영국과 런던의 문화 및 창조적 생활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미술가 롤리 배티(Lolly Batty)가 오cup레이션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 방문객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 나오미 다인즈(Naomi Dines), 오cup레이션 스튜디오

5

관련 사실



셀 프로젝트 스페이스
(Cell Project Space)의
'헐루시네이처'(Hallucinature)를 위한
크리스 존스(Chris Jones)와 길즈
라운드(Giles Round)의 작품

정책적 맥락

시각 예술은 그 어느 때보다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영국의 성인 인구 중 25%가 미술관을 찾는다. 테이트 미술관은 2004/2005년에 방문자 수가 600만 명을 넘었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 한 곳의 방문자 수만 해도 400만 명이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현대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런던은 파리와 함께 유럽의 수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가 최근 예술에 대한 참여를 조사⁹한 결과를 보면 2003년에

- 성인의 13%가 소묘, 회화, 판화, 조각을 했다.
- 10%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미술 또는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들었다.
- 8%는 사진을 찍었다.
- 6%는 미술작품을 구입했다.

시각예술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모든 사회 집단과 민족 집단을 망라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단지 미술관 방문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그리고 시각예술계의 일원으로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예술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¹⁰

예술가들은 미술관을 넘어 공공영역의 곳곳에서 이러한 현대 시각예술의 대중화를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술가들이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려면 연구, 실험, 창작을 할 공간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잉글랜드의 국가 예술 진흥기관인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는 개인 예술가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작품 제작 단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왔다. 예술위원회가 진행한 인헤빗(Inhabit) 작업공간 사업은 ‘아티스트 인사이트’(Artists’ Insights) 프로젝트에 따라 추진되는 6개의 사업 중 하나로써, 예술가들이 활발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술가들의 직업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인식하고,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최근에 향후 10년간의 잉글랜드의 현대 시각예술 전략인 ‘전환점’(Turning Point)을 채택하여 예술가들의 새로운 작품활동과 성장을 계속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전략의 5대 중점사항 중 하나는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및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 지원을 계속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새로 출범한 전국 예술가 스튜디오 제공사 연맹(NFASP)도 지원한다. 연맹은 잉글랜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스튜디오 공간과 기타 시설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회원제 단체이다. 연맹은 저렴한 스튜디오를 확보, 유지, 개선,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맹은 2007년 가을까지 예술가 스튜디오 제공의 모든 측면에 관한 정보, 조언, 지원을 제공하는 곳으로 자리잡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APT의 주말 오픈 스튜디오.

사진 : 리즈 메이(Liz May)



가스웍스(Gasworks)
사진 : 가스웍스

창조적 산업

정책결정자들은 창조적 산업이 영국, 특히 런던에서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영국에서 창조적 산업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5% 성장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영국 경제가 평균 3% 성장한 것과 비교된다. 2005년을 기준으로 창조적 산업 분야의 기업은 117,500개이며 1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니카 에릭슨(Annika Eriksson),
'부르주아의 애완견'(Lapdogs of
the Bourgeoisie) 개막식에서
진행된 이벤트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We are not who you think we are)
에서. 가스웍스. 2006.
사진 : 가스웍스

창조적 경제 사업은 2005년 11월에 출범했으며, 영국을 전세계 창조적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따른 첫 번째 사업이다. 초기 사업은 창조적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7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그 중의 하나가 '기반시설'이다. '핵심 과제는 문화 및 창조적 산업의 기반시설을 지역사회의 중심에 배치하여 도시들을 창조적 활동의 허브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들이 런던 및 남동부 지역과 협력하도록 하여 영국의 창조적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¹¹

기반시설 실무그룹은 창조적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10대 기반시설 조건을 파악했다.

그 중 세번째는 '...창조적 산업의 여러 부분을 위한 폭넓은 전문가 및 미디어 센터, 연습공간, 스튜디오 공간, 작업공간 등 접근성 있는 시설이다. 창조적 산업 가치사슬 전체를 망라하여 핵심적인 것은 저렴한 비용과 접근성이다.'

창조적 산업에 관한 정부의 정책 제안서는 2007년 봄에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문화, 매체, 스포츠부(DCMS)**에서 정의하는 창조적 산업의 범위에는 시각예술이 포함되지 않는다. 자신을 창조적 산업에 속한 시각예술 분야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예술가들도 많지만 이들은 탁월한 사업가 기질을 보이고 있으며 예술적 리

스크를 감수하는 능력과 기량은 지식 경제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문화, 매체, 스포츠부의 창조적 산업의 정의를 확장하여 시각예술을 포함시키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다. 한편 ACAVA, ASC, APT 등 여러 스튜디오 단체에서 창조적 허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발전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으며, 창조적 산업 진흥기관들을 통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의 혜택을 홍보하고 있다.

런던의 창조적 산업

창조적 산업은 런던 경제를 이끄는 산업 분야들 중 금융/기업 서비스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250억 내지 290억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분야 종사자는 50만 명이 넘고, 런던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5개 중 1개는 창조적 산업의 일자리이다. 런던은 건축에서부터 공예, 대중음악,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창조적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제작, 금융 제공, 거래의 중심지이다.

창조적 런던(Creative London)은 경제 발전을 위한 런던시장 지속기관인 런던개발국에 속해 있다. 창조적 런던의 구상, 정책, 사업은 시장 지속 창조적 산업위원회에서 6개월간 진행한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마련된 것이다. 위원회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부동산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보았다.

이밖에도 창조적 산업은 지금과 같이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에서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장려하고 소외된 지역을 참여시키며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과 혁신만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루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이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역할이다.

예술가들이 모든 활동에서 자신의 작업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독립적이고 외부의 자금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으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술가들, 지역사회의 협력자 및 고객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얻은 인식과 영향력을 활용하여 정교한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고 외부 기관들이 우리 단체 및 우리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우리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지역사회에서 예술가들이 장래에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마셀 배티그(Marcel Baettig).
신탁 책임자. 보우 아트 트러스트.

창조적 런던

창조적 런던은 창조적 산업 지원 전략의 일환으로서 런던 곳곳에 10개의 ‘창조 허브’를 만들고 있다. 창조 허브는 덤트포드(Deptford), 시티 프린지(City Fringe), 바킹(Barking), 데이건햄(Dagenham) 등 런던의 지리적 영역 안에 있는 창조네트워크로써 창조적 산업 분야의 기업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와 교육 및 기회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은 ‘창조적 사업의 전 과정을 위한 적절하고 저렴한 작업공간 제공’을 목표로 하는 창조 허브의 핵심 초점 중 하나이다.

런던시장의 문화 전략 2004에서는 창조적 산업에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창조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제작의 모든 단계에서 적합하고 저렴한 작업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 전략에서는 기술적 역량 교류, 규모의 경제, 협력 및 네트워킹을 위한 창조적 기업들의 상호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관계로 인하여 예술가와 창조적 기업들이 런던 동부 등 특정 지역에 밀집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전략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 개발사업 승인, 지역의 전략적 발전에 관한 전체적인 책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상의 권한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문화전략의 주요 결과물 중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창조적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도시계획법 제 106조를 활용하고 문화의 비중을 높이도록 장려
- 창조적 및 문화 산업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추진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부가 2006년 5월에 신설되었다. 그 비전

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번영하고 응집력 있는 지역사회’이다.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부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에 거주하고 일하고 싶은 곳, 현재와 미래의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곳, 안전하고 포용성이 있으며, 잘 계획되고 건설되고 운영되며, 모두를 위한 균등한 기회와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제공하는 정책 체계가 마련된다. 지역사회의 정체성, 소속감, 문화, 레저, 공동체, 스포츠, 기타 활동의 기회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된다. 스튜디오 단체들이 이러한 의제에 기여하는 역할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지역의 전략적 협력관계

2000년에 제정된 지방정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과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역사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 민간, 지역사회, 자원봉사 분야를 참여시키는 지역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주민들의 요구와 소망에 부응하도록 서비스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는 지역사회 전략 계획의 핵심이다.

런던의 많은 자치구가 지역사회 전략의 기초 또는 일부를 이루는 문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문화 전략은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체계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발전 체계¹²에 의하여 문화 공간, 구체적으로는 예술



로레인 클락(Lorraine Clarke).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유로아트 스튜디오 및 갤러리
(Euroart Studios and Gallery).
사진 : 유로아트 스튜디오



마더 스튜디오(Mother Studios),
해크니(Hackney) 소재.
사진 : 마더 스튜디오

가들의 작업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나 건물을 파악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전략적 문화 목표로 뒷받침하는 곳에서는 그러한 기회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지역 공간 협약에서는 다음의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의 토지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 어린이와 청소년
- 안전하고 튼튼한 지역사회
- 건강한 지역사회와 고령자
- 경제 발전 및 기업

협약은 지역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에서 협상을 맡아 추진하며, 가용 재원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스튜디오 단체들은 위 4개 주제 모두에 대한 지원 및 추진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예술가 스튜디오와 스튜디오 건물의 요건

예술가 스튜디오란 무엇인가?

해답은 회화, 조각, 뉴미디어 등 분야에 따라 다르다. 예술가들은 공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작업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작업하기를 원한다.

마이클 크레이그-마틴(Michael Craig-Martin), 예술가,
공간의 창조(Creating Places) 컨퍼런스에서. 테이트 모던 미술관. 2003년 7월

예술가 스튜디오의 청사진은 없다. 현대 시각예술가들은 여러 가지 소재와 기법 및 기술을 이용하여 작품 성격과 규모 면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단히 다양한 작품활동을 한다. 스튜디오

단체들은 이러한 변화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떤 스튜디오 단체에서는 설계 기준, 즉 성능 요건을 마련했다. 이는 특히 신축 스튜디오를 위한 것이다. 기존 건물을 개조하든 신축하든, 어느 정도의 기본적 조건은 필수적이다.

물리적 조건 : 스튜디오 공간을 구하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다음 사항을 원한다.

- 독립적 공간
- 양호한 자연 채광
- 일반적인 사무실 또는 주거공간보다 높은 천장
- 뛰어난 접근성. 예를 들어 대형 그림을 반출, 운반하기 쉬운 환경
- 벽으로 막히지 않은 공간
- 씻을 수 있는 장소. 각 스튜디오 안에 싱크대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니면 각 층마다 공동 세탁 및 세척실과 샤워장.
- 24시간 출입 가능(예술가들이 시간제로 하는 부업 및 집안일과 작품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 안전성

공간의 크기 : 이는 임대 가능한 스튜디오의 물량, 임대료, 예술가의 작업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다를 것이다. 런던의 평균적인 스튜디오는 340 평방피트이고, 300 내지 350 평방피트의 공간이면 작업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 작가들이 많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은 월 250파운드이다.

어떤 예술가들, 특히 3D 및 대작을 만드는 작가들은 열, 물, 화학물질, 전동 공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공간을 필요로 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

Acme 스튜디오는 다른 스튜디오 단체들과 달리 예술가들을 위한 저렴한 주거공간도 제공하며, 1970년대와 80년대에 런던의 공립 단기 주거시설을 가장 많이 관리한 경험이 있다. 이에 의한 저렴한 주거 및 작업공간에 끌려 수백 명의 예술가들이 런던 동부로 와서 정착했다.

Acme의 작업/주거 공간(E14의 소방서 건물과 E15의 슈거 하우스(Sugar House))는 Acme가 과거의 사업을 재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두 건물은 많은 보조금을 받아 저렴한 비주거용 예술가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Acme의 기본 사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작업공간인 스튜디오가 레지던시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Acme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주거/작업'이 아니라 '작업/주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주거공간이 딸린 이러한 공간은 예술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주거공간과 스튜디오를 위해 별도로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같은 공간에서 생활과 작업을 함으로써 출퇴근에 소비되는 시간이 절약된다.

레지던시 사업은 최대한 많은 예술가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용 기간에 제한을 두어 운영된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홍보되고 있고, 예술가들은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공개 지원서를 제출하여 선정된다. 이 사업에 가치를 더하는 지원금 제도도 있다. 장애인 예술가 등에는 임대료가 면제되고 별도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기를 원한다. 또한 출입문이 높고 넓어서 크거나 무거운 공구와 재료를 반입, 반출할 수 있어야 하고 바닥은 무거운 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예술가들은 추출 시설을 필요로 하며, 소음과 연기가 허용되는 곳을 원한다.

스튜디오 건물

스튜디오 건물에 관한 표준 사양은 없다. 하지만 특정 요건과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면 예술가들을 위한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 스튜디오 건물의 수용 규모에는 제한이 없지만 지속 가능한 최적의 규모는 20명 내지 25명이다. 이 정도 인원수면 임대료 수입으로 유지보수,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 세척시설, 보관 시설, 공동 공간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 동료들 간의 비공식 네트워크가 가능한 우호적 환경 및 ‘오픈 스튜디오’ 등 공동 사업의 잠재성
- 장애인들을 위한 양호한 접근성
- 상점, 대중교통 등 지역의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성

스튜디오 건물은 스튜디오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에 위치해야 하지만, 수요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 런던에는 스튜디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질 좋은 스튜디오 공간이 있으면 수요가 창출되고 예술가들이 찾아올 것이다.

작업/주거 스튜디오

작업/주거 스튜디오는 작업공간을 필요로 하면서 주거공간과

별도로 스튜디오를 임대할 돈이 없는 독신 예술가들에게 적합하다. 또한 작품활동에 따른 필요 또는 다른 사정상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작업해야 하는 예술가들에게도 적합하다. 이러한 공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지원시설을 갖춘 제대로 된 작업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작업공간은 천장 높이, 채광, 막힘 없는 벽 등 앞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요건 중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런던 곳곳에서 ‘주거/작업’ 공간이 상업적으로 많이 개발되었다. 이 중 많은 사업이 실패했는데, 용도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작업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주거공간을 위주로 설계하면서 방 하나를 작업용으로 배정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고용 창출 효과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정책과는 달리 주거용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작업 공간 개발 계획을 허가하지 않는다. 고용창출 효과가 유지될 것인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Acme 스튜디오의 소방서 건물, 슈거 하우스, 오스만 로드 프로젝트 등 진정한 작업/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고용 창출이 자선이라는 사업목적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거/작업공간 개발사업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복합 용도 및 고용 창출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다.

갤러리아 - 개발이익 사례 연구

갤러리아(The Galleria)는 Acme 스튜디오가 배럿 홈즈(Barrett Homes)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개발이익 방식을 통하여 민간 분야가 저렴한 예술가용 스튜디오 공간을 만드는 사상 초유의 프로젝트이다. 저렴한 주거공간 확보가 개발이익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Acme 스튜디오와 민간 개발업



Acme 스튜디오가 포플러(Poplar)의 소방서 건물에 마련한 작업/주거 공간.
사진 : 조나단 하비(Jonathan Harvey)



퍼민다 카우어(Permindar Kaur).
소방서 건물의 작업/주거 공간에서.
사진 : 휴고 글렌드닝

체인 배럿 홈즈의 협력은 개발이익 방식을 통하여 어떻게 ‘사회적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부 장관 데이비드 래미(David Lammy)는 2006년 6월 갤러리아 스튜디오 사업의 기공식에서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혼합 용도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사업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바로 그런 사업이다”

갤러리아 스튜디오

2003년 말에 Acme 스튜디오는 배럿 이스트 런던(Barratt East London)과 협력하여 연면적 16,000 평방피트의 스튜디오 공간을 만들어 저렴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예술가 스튜디오 50개를 제공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이 스튜디오는 2005년 12월 말에 완공되어 2006년 1월 초에 모두 입주가 완료되었다.

이 스튜디오는 버지스 공원(Burgess Park)을 내려다보는 펙햄(Peckham SE15) 지역 섬너 로드(Sumner Road)에 위치한 갤러리아라는 상징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택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신축된 것이다.

이 사업에는 Acme가 제공하는 스튜디오 50개 외에도 아파트 98세대와 주거/작업 공간 4개가 포함되어 있다. 아파트 중 23세대는 사회적 주거공간으로서, 임대 또는 공유 방식으로 제공된다.

Acme의 스튜디오는 5층짜리 건물의 일부를 차지하는데, 4개

층은 스튜디오이고 맨 위층에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총 50개의 스튜디오는 면적 300평방피트 내지 500평방피트이며, 완전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스튜디오가 들어서는 각 층에는 화장실과 싱크대가 있는 세척 구역이 있다.

이 건물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직원 30명 정도의 인쇄소가 이전하면서 이 부지를 팔았다. 배렛은 처음에는 이 곳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으려 했다. 당초에 제안된 개발계획은 주거공간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고용을 창출하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술가를 위한 스튜디오를 포함시킴으로써 고용 창출 요건을 대부분 충족시킬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효과로서, 이전의 건물에서보다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스튜디오 공간을 포함시킨 것은 사우스웍(Southwark) 자치구에서 사업 허가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스튜디오를 개발계획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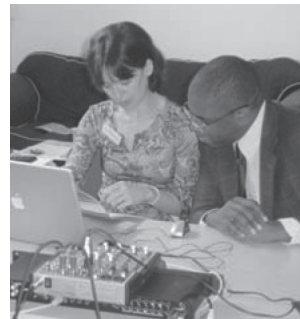
Acme는 사용자 요건을 명시한 명확한 성능 사양을 배렛에 제시하여 배렛의 건축가들이 예술가들의 공간 요건, 특히 높은 천장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설계할 수 있었다. 이 사양은 이어 배렛과 Acme 간의 계약의 일부가 되었고, 배렛은 건물 규제에 따라 이 요건을 준수하기로 했다.

개발이익

사우스웍 자치구는 2003년 1월에 개발계획을 허가했다. 제안



갤러리아 스튜디오.
팩햄의 심너 로드 소재.
사진 : 조나단 하비



입주 예술가 이사 주아레즈(Isa Suarez)와 문화부 장관 데이비드 래미(David Lammy).
갤러리아 개관식에서. 2006년 6월.
사진 : 엠마 보우킷(Emma Bowkett)

서가 자치구의 재생 목표와 복합용도 개발 정책을 충족시키며 그 지역 및 인접 지역의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상 초유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발이익’ 방식을 이용하여 민간 분야에서 스튜디오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이 때 사회적 작업공간 제공은 도시개발법 제106조에 의한 협약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배렛이 사우스웍 자치구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었다.

Acme는 이 분야에서 30년 동안 사업한 실적이 있고 자선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단체로서 신축 건물에서 저렴한 작업공간이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106조에 의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도 예술가 스튜디오를 확보할 수 있었다.

비용

배렛은 완공된 스튜디오 층을 건물 건축비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Acme에 팔았다. 덕분에 Acme는 저렴한 작업공간을 예술가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저렴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이익 방식의 개발과 같은 방식이다. 스튜디오는 임대기간을 10년(갱신 가능)으로 하여 공과금을 포함한 연간 임대료 평방피트당 8.50파운드에 예술가들에게 임대되었다.

Acme는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예술 지원 사업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은 이 사업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향후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스튜디오 대체

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Acme는 사우스웍 북부의 버몬지

(Bermondsey)에서 관리하던 스튜디오 30개의 임차 계약이 2006년 12월에 만료될 때까지 이를 대체하고도 남는 효과를 거두었다. 땅값이 치솟아 임대료가 Acme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Acme는 스튜디오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하고 양질에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영구적인 공간을 얻었다.

개발업체의 이익

배랫은 개발사업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Acme에 스튜디오 부분을 미리 매각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했다. 경공업 지역의 개발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지만, 예술가들의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Acme는 입주 첫날부터 100% 임대를 보장할 수 있었다. 또한 예술가 스튜디오를 포함시킴으로써 배랫은 아파트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에 이를 활용했다.

복합용도의 가치

갤러리아 프로젝트는 복합용도 개발을 통하여 주거공간과 예술가의 스튜디오가 서로 어울릴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갤러리아 입주자들과 지역사회는 이미 오픈 스튜디오 행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입주 예술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 예술가들 가까이에 사는 혜택을 누리기 시작했다.

각주

1. Turning Point, Arts Council England: a strategy for the contemporary visual arts in England,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2006년 6월.
2. Creative Economy Programme Infrastructure Working Party 보고서 초고 전문, 2006년 8월. www.cep.culture.gov.uk
3. ‘비상업적 미술 활동’은 주로 상품 가치가 아니라 창작적, 문화적, 지적 또는 철학적 가치를 위하여 작품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의 활동을 가치키는 표현으로 사용했다.
4. Cubey, Michael, Commercial workspace provision for visual artists - a comparison with the affordable sector, Acme 및 캐피털 스튜디오, 2006년 2월. 보고서 전문과 요약본은 www.acme.org.uk 참조.
5. Artists' studios: creating public benefit, Acme 및 캐피털 스튜디오, 2006년 12월.
6. ‘2004년 잉글랜드의 예술가 스튜디오 집단과 단체 조사’에 따르면 300개 이상의 스튜디오가 들어선 건물 약 13개를 2008년까지 비워야 하며, 이 밖에도 건물 4개와 스튜디오 130개를 2013년까지 비워야 한다.
7. www.artscouncil.org.uk/funding
8. www.charitybank.org
9. Fenn, C et al, 2004, Arts in England 2003: attendance, participation and attitudes,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10. The power of art: visual arts: evidence of impact, regeneration, health, education and learning,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2006.
11. 창조적 경제 프로그램 기반시설 그룹 보고서 초안 전문, 2006년 8월, 문화, 매체, 스포츠부, www.cep.culture.gov.uk
12. 지역 개발 체계(LDF)는 도시계획 당국의 모든 지역 개발 문서를 포함하는 문서함을 가리키는 비 법적 용어이다.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 Studio is not a mere property

런던의 스튜디오 집단 및 단체

ACAVA (Association for Cultural Advancement through Visual Art)
54 Blechynden Street, W10 6RJ
Royal Borough of Kensington and Chelsea
T - 020 8960 5015
E - dsmith@acava.org
W - www.acava.org
Studio provider/developer
F = 3, **L** = 16, **S** = 270, **A** = 300

Acme Studios
44 Copperfield Road, E3 4RR London Borough of Tower Hamlets
T - 020 8981 6811
E - mail@acme.org.uk
W - www.acme.org.uk
Studio provider/developer
F = 4, **L** = 8, **S** = 365, **A** = 440

APT (The Art in Perpetuity Trust)
6 Creekside, SE8 4SA
London Borough of Lewisham
T - 020 8694 8344
E - aptlondon@btconnect.com
W - www.apstudios.org
Studio group/organisation
F = 1, **L** = 0, **S** = 37, **A** = 39

Art Services Grants Ltd (SPACE)
129-131 Mare Street, E8 3RH
London Borough of Hackney
T - 020 8525 4330
E - mail@spacestudios.org.uk
W - www.spacestudios.org.uk
Studio provider/developer
F = 0, **L** = 17, **S** = 435, **A** = 500

Artists@Redlees
Redlees Park, Worton Road, TW7 6DW London Borough of Hounslow
E - artists@redlees.org
W - www.redlees.org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9, **A** = 30

ASC (Artists Studio Company)
3rd Floor, 246 Stockwell Road, SW9 9SP
London Borough of Lambeth
T - 020 7274 7474
E - info@ascstudios.co.uk
W - www.ascstudios.co.uk
Studio provider/developer
F = 0, **L** = 6, **S** = 250, **A** = 300

Barbican Arts Trust / Hertford Road Studios
12-14 Hertford Road, N1 5SU
London Borough of Hackney
T - 020 7241 1675
E - bag.trust@btconnect.com
W - www.artworksproject.com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24, **A** = 19

Bow Arts Trust
181-183 Bow Road, E3 2SJ
London Borough of Tower Hamlets
T - 020 8980 7774
E - mbaettig@bowarts.com
W - www.bowarts.com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90, **A** = 93

Brightside Studios
9 Dartford Street, SE17 5UQ
London Borough of Southwark
T - 07815 927211
E - emoticon@cybele.freemove.co.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4, **A** = 7

Cell
HQ, 4-8 Arcola Street, E8 2DJ
London Borough of Hackney
T - 020 7241 3600
E - info@cell.org.uk
W - www.cell.org.uk
Studio provider/developer
F = 0, **L** = 3, **S** = 85, **A** = 101

Chisenhale Art Place
64-84 Chisenhale Road, E3 5QZ
London Borough of Tower Hamlets
T - 020 8981 1916
E - mail@chisenhale.co.uk
W - www.chisenhale.co.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39, **A** = 39

City Studios
Alpha House, Tyssen Street, E8 2ND London Borough of Hackney
T - 020 7254 0601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11, **A** = 12

주 : F-자유보유권, L-임차권, S-스튜디오, A-예술가. 단체에서 2개 이상의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 표시된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의 주된 사무실 소재지이다.

Creekside Artists

Units A110-114, Faircharm Estate,
8-10 Creekside, SE8 3DX London
Borough of Lewisham
T - 020 7254 0601
E - info@creeksideartists.co.uk
W - www.creeksideartists.co.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12, **A** = 25

Euroart Studios

Unit 22F, 784/788 Tottenham High
Road, N17 0DA
London Borough of Haringey
T - 07802 502 136
E - nayoung@euroart.co.uk
W - www.euroart.co.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3, **S** = 41, **A** = 46

Limehouse Arts Foundation

Towcester Road, E3 3ND
London Borough of Tower Hamlets
T - 020 7515 9998
E - mail@laf-arts.org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37, **A** = 50

Cubitt Artists Ltd

8 Angel Mews, N1 9HH
London Borough of Highbury &
Islington
T - 020 7278 8226
E - info@cubittartists.org.uk
W - www.cubittartists.org.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31, **A** = 33

Florence Trust Studios

St Saviours, Aberdeen Park, N5
2AR London Borough of Highbury
& Islington
T - 020 7354 4771
E - info@florencetrust.org
W - www.florencetrust.org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12, **A** = 11

Lounge Gallery and Studios

2nd floor, 28 Shacklewell Lane,
E8 2EZ
London Borough of Hackney
T - 0786 606 3663
E - monikabobinska@onetel.com
W - www.lounge-gallery.com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5, **A** = 6

Dalston Underground Studios

The Basement, 28 Shacklewell
Lane, E8 2EZ
London Borough of Hackney
T - 07941 715 888
E - info@dalstonunderground.org.uk
W - www.dalstonunderground.org.uk
Studio provider/developer
F = 0, **L** = 2, **S** = 13, **A** = 22

Gasworks

155 Vauxhall Street, SE11 5RH
London Borough of Lambeth
T - 020 7587 5202
E - alessio@gasworks.org.uk
W - www.gasworks.org.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10, **A** = 10

Maryland Studios

2nd Floor, 80 Wallis Road, E9 5LW
London Borough of Hackney
T - 020 8986 2555
E - jgeorgiades@hotmail.com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10, **A** = 15

Diesel House Studios

Kew Bridge Steam Museum, Green
Dragon Lane, TW8 0EN
London Borough of Hounslow
T - 020 8569 8780
E - elizabeth@dieselhousestudios.com
W - www.dieselhousestudios.com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3, **S** = 30, **A** = 30

Lewisham Arthouse

140 Lewisham Way, SE14 6PD
London Borough of Lewisham
T - 020 8244 3168
E - lewishamarthouse@btconnect.com
W - www.lewishamarthouse.co.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42, **A** = 44

Mother Studios

9D-F Queens Yard, White Post
Lane, E9 5EN
London Borough of Hackney
T - 07968 760 550
E - jo@motherstudios.co.uk
W - www.motherstudios.co.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34, **A** = 45

Occupation Studios

7 - 10 Occupation Road, SE17 3BE
London Borough of Southwark
T - 020 7639 8792
E - n.dines@csm.arts.ac.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1, **L** = 0, **S** = 14, **A** = 16

Standpoint Studios

45 Coronet Street, N1 6HD
London Borough of Hackney
T - 020 7739 4921
E - standpoint@btopenworld.com
W - www.standpointlondon.co.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7, **A** = 8

Stockwell Studios

39 Jeffreys Road, SW4 6QU
London Borough of Lambeth
T - 020 7978 2299
E - stockwellstudios@uk2.net
W - www.mccallheritage.co.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21, **A** = 23

Studio Voltaire

1A Nelsons Row, SW4 7JR
London Borough of Lambeth
T - 020 7622 1294
E - info@studiovoltaire.org
W - www.studiovoltaire.org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30, **A** = 45

Tannery Arts

Brunswick Wharf, 55 Laburnum
Street, E2 8BD
London Borough of Hackney
T - 020 7729 8008
E - admin@tanneryarts.org.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2, **S** = 26, **A** = 36

The Delfina Studio Trust

50 Bermondsey Street, SE1 3UD
London Borough of Southwark
T - 020 7357 6600
E - admin@delfina.org.uk
W - www.delfina.org.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30, **A** = 32

Wimbledon Art Studios

Unit 10, Riverside Yard, SW17 0BB
London Borough of Wandsworth
T - 020 8947 1183
E - enquiries@wimbledonartstudios.com
W - www.wimbledonartstudios.com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104, **A** = 120

요약

스튜디오 단체 수 - 31

스튜디오 제공자/개발자 - 6

스튜디오 집단/단체 - 25

건물 수 - 89

자유보유권 건물 - 9

임차권 건물 - 80

스튜디오 수 - 2,128

입주 예술가 수 - 2,497

런던 자치구 현황

(스튜디오 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해크니 - 10

해링이 - 1

하이베리, 이슬링턴 - 2

혼슬로우 - 2

켄싱턴, 첼시아 - 1

램베스 - 4

르위삼 - 3

사우스웍 - 3

타워 햄릿 - 4

완스워드 - 1

런던의 저렴한 스튜디오 - 주요 사실과 수치

- 런던에는 잉글랜드 전체 스튜디오의 공간의 58%가 몰려 있다.
- 31개 단체에서 건물 89개를 관리하며 2,500명의 예술가들에게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있다.
- 런던 스튜디오의 65%는 동부와 남동부에 분포되어 있다.
- ACAVA, Acme 스튜디오, ASC, 스페이스 4개 단체에서 건물 54개를 관리한다.
- 모든 스튜디오 건물의 절반 이상이 전시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을 위한 공간의 역할도 수행한다.
- 런던에 있는 스튜디오의 대기자 명단에 등록된 예술가가 3,500명이 넘는다.
- 많은 건물들이 낙후된 상태이다. 건물의 75%가 50년이 넘어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 완전한 접근성을 갖춘 건물은 3개 뿐이다.
- 영구적인 건물은 9개 뿐이다.
- 스튜디오로 제공되는 전체 공간의 약 90%는 임대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 2004년에 저렴한 스튜디오 분야의 공과금을 포함한 평균 임대료는 평방피트당 연간 7.54파운드였다. 평균적인 크기(340평방피트)의 스튜디오 임대료가 거의 215파운드인 셈이다.
- 일반 부동산 시장의 임대료는 공과금을 포함하여 평균 22.38파운드였다(2005년 11월에 10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평균적인 크기의 스튜디오(340 평방피트) 임대료가 거의 635파운드로서 저렴한 스튜디오 임대료의 3배에 이른다.
- 저렴한 스튜디오 분야를 통하여 런던의 예술가들에게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혜택은 연간 약 140만 파운드이다.
- 저렴한 스튜디오 분야를 통하여 런던의 예술가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은 연간 930만 파운드이다.
- 스튜디오 430개가 향후 10년 안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중 300개는 앞으로 5년 안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 이러한 결과는 2004년에 Acme 스튜디오에서 실시한 전국 예술가 스튜디오 조사에서 파악된 것이다. 이 조사의 결과는 2005년 5월에 보고서로 발표된 바 있다.
- 스튜디오 제공자 및 건물에 관한 정보는 2006년 11월에 갱신된 것이다. 잉글랜드에 있는 스튜디오 집단과 단체의 목록은 전국 단위 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되었고, 2006년 6월에 갱신되었다. www.acme.org.uk에서 볼 수 있다.
- 런던 다이제스트(London Digest)는 런던에 있는 27개 스튜디오 집단과 단체 및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건물 72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www.acme.org.uk에서 볼 수 있다.

2004년 런던의 스튜디오 건물 분포를 나타내는 지도



- 그리니치(1)
- 르윈삼(5)
- 사우스웁(6)
- 램베스(7)
- 완스워드(1)
- 머튼(2)
- 서튼(1)
- 호운슬로우(1)
- 일링(4)
- 해머스미스, 풀햄(3)
- 캔싱턴, 첼시아(2)
- 캠덴(1)
- 해링이(2)
- 이스링튼(3)
- 해크니(19)
- 타워 햄릿(13)
- 뉴햄(1)

런던 동부는 과거 적합하고 저렴한 부동산이 많아서 스튜디오 집단과 단체가 몰리면서 예술가 스튜디오 공간 개발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해크니 자치구는 스튜디오 건물과 세대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런던 전체 스튜디오 수의 24%)지만, 스튜디오의 총 면적

으로 보면 타워 햄릿 자치구가 최대이다(전체 면적의 30%). 해크니, 스리니치, 르윈삼, 뉴햄, 사우스웁, 타워 햄릿에는 전체 스튜디오 수의 68%가 있다. 이 중 그리니치, 해크니, 뉴햄, 타워 햄릿 등 4개 자치구는 런던 2012 구역에 포함된다.

도움이 될 만한 연락처

• a-n 예술가 정보 회사

시각예술가에 초점을 맞춘 예술 정보 및 권익 단체. 홈페이지에는 스튜디오 개발 및 사례연구에 관한 정보가 있다.

www.a-n.co.uk

• 아트퀘스트(Artquest)

아트퀘스트는 런던의 시각예술가와 공예가들을 위한 조언 및 정보 서비스 업체이다. 홈페이지에는 스튜디오에 관한 정보와 자료가 실려 있고 스튜디오 단체의 연락처가 많이 나와 있다.

www.artquest.org.uk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잉글랜드의 국가 예술진흥기관이다. 위원회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정부 지원금과 복권 수입으로 11억 파운드를 예술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www.artscouncil.org.uk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런던사무소 (Arts Council England, London)

2 Pear Tree Court, London, EC1R 0DS 전화 : 0845 300 6100
www.artscouncil.org.uk

• **문화산업개발국(CIDA)**는 현재 창조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기업, 예술단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과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여 이들이 점점 비싸지는 런던 동부에서 버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www.cida.co.uk

• 창조적 경제 사업

영국을 전세계 창조적 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정부 사업으로서, 문화, 매체, 스포츠부에서 관리한다.

www.cep.culture.gov.uk

• 창조적 런던(Creative London)

은 런던의 창조적 산업을 위한 전략 기관으로서 런던개발국 산하조직이다.

www.creativelondon.org.uk

• 창조적 허브

창조적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조적 런던의 전략의 일환으로서, 런던의 지리적 영역 안에 있는 창조적 네트워크이다. 창조적 산업 분야의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교육,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www.creativelondon.org.uk

• 창조적 공간국(Creative Space Agency)

는 창조적 활동을 하는 사람, 문화기관 및 기업들이 런던에서 작업, 전시, 연습,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공간 제공자와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검색 가능한 목록을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창조적 공간국은 모든 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활동하며, 문화산업개발국과 어번스페이스 매니지먼트(Urban Space Management),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www.creativespaceagency.co.uk

•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런던사무소는 런던의 지방자치단체 예술 및 문화 서비스 담당자들의 연락처 목록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에 문의할 수 있다.

• 전국 예술가 스튜디오 제공자 연맹 (NFASP)

c/o Acme Studios, 44 Copperfield Road, Bow, London E3 4RR
NFASP Administrator

전자우편 : admin@nfasp.org.uk

연맹은 2006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잉글랜드에서 저렴한 예술가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단체를 위한 조직이다. 연맹은 스튜디오 단체에 조언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렴한 스튜디오의 확보, 유지, 개선, 증가를 돕는다. 또한 스튜디오 분야와 예술가들을 돕기 위하여 공공정책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잉글랜드 곳곳의 다른 자문기관들과 협력하며, 예술가 스튜디오 제공의 모든 요소에 관한 정보, 조언,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문헌

Oranges and Lemons and Oranges and Bananas, essay by Michael Archer, Acme Studios, 2001. www.acme.org.uk

Supporting artists' workspace: three Arts Council funded studio conferences, conference report, Janet Hadley, Arts Council England, January 2004.

A survey of artists' studio groups and organisations in England, Acme Studios, May 2005. www.acme.org.uk

A register of artists' studio groups and organisations in England, Acme Studios, May 2005, updated June 2006. www.acme.org.uk

Creative Yorkshire: visual artists in shared workspaces - resources and facilities, University of Leeds, Creative Yorkshire, 2005.

London Digest: a survey of artists' studio groups and organisations in London, Acme and Capital Studios, March 2006. www.acme.org.uk

Commercial workspace provision for visual artists - a comparison with the affordable sector, Michael Cubey, Acme and Capital Studios, February 2006. www.acme.org.uk

Shaping artists' space, a-n The Artists Information Company, May 2006.

Artists' studios: creating public benefit, Acme and Capital Studios, December 2006. www.acme.org.uk

The Power of Art - visual arts: evidence of impact, Arts Council England, June 2006.

Turning Point - Arts Council England: a strategy for the contemporary visual arts in England, Arts Council England, June 2006. www.artscouncil.org.uk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 Studio is not a mere property

Appendix

artists' studios:

a guide to securing, supporting and
creating affordable studios in London

예술가의 스튜디오
런던에서 저렴한 스튜디오를 확보하고 지원하고 만들기 위한 안내



Preface

This 'guide' has been developed by **Capital Studios - the London Artists' Studios Development Programme**. Capital Studios is an advocacy programme which aims to raise awareness of artists' workspace as an important element in urban renewal programmes, with a view to creating opportunities for long-term sustainability and growth.

Led by **Acme Studios** on behalf of affordable studio providers in London and supported by Arts Council England, the advocacy programme is directed at key bodies: local authorities, development agencies, property developers and housing associations - all those with a role in developing sustainable communities.

The Capital Studios programme is time-limited and will be concluded in spring 2007. Acme Studios will continue to work with Arts Council England, the National Federation of Artists' Studio Providers and studio groups and organisations, to ensure that the interest and opportunities raised by the programme can be maintained and developed.

This guide has been compiled and written by Val Millington working with Acme Studios. Edited by Jonathan Harvey, Co-Director, Acme Studios and Val Millington, Programme Coordinator, Capital Studios.

Designed by Area, cara@designbyarea.com

Printed by Martin Edwards,

artwork@martinedwardsprint.co.uk

Front cover: Bow Arts Trust: alleyway light installation; photo: Jeremy Clarke

Acme Studios

44 Copperfield Road, Bow, London E3 4RR

T 020 8981 6811 F 020 8983 0567

E mail@acme.org.uk

Published by Capital Studios - the London Artists' Studios Development Programme

This publication can be downloaded after 1 March 2007 from www.acme.org.uk

Contents

201	1 What is this guide and who is it for?
205	2 Frequently asked questions
210	3 The value of studio organisations
	How affordable studios benefit culture and communities
	What are studio groups and organisations? What do they do?
	What do we mean by affordable?
250	4 Securing and creating studios
	Essential requirements for sustainability and growth
	Development options: conversion and new-build
	Financing and securing new studio developments
267	5 Fact file
	The policy context
	Specification for an artist's studio and a studio building
	The Galleria - a planning gain case study
	Studio groups and organisations in London
	Affordable studios in London: key facts and figures
	Map showing distribution of studio buildings
	Useful contacts
	Bibliography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 Studio is not a mere property

1

What is this guide and who is it for?



ACAVA artist, Roland Lawar with children from Langford School at Tate Modern.

Photo: Justin Piperger

This guide is for developers - local authorities, registered social landlords and private sector developers. It provides information on affordable studio providers in London,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cultural and economic life of the capital. Using case studies and examples it provides guidance on how to achieve sustainable studio developments and provides a list of studio organisation contacts and sources of help and advice.

London is a world centre for the contemporary visual arts. In 2005, the Frieze Art Fair had 47,000 visitors in just four days. Tate attracted more than six million visitors in 2004/05 with four million going to Tate Modern alone, making it the most visited modern art museum in the world. Over 40 per cent of the country's visual artists and photographers are based in the capital, and one in five new jobs in London is in the creative industries.

British visual artists are world class. Their power as cultural ambassadors is shown by the international demand for their work. The work of our distinguished

*visual artists is represented in museums, galleries and biennales all over the world.*¹

Audiences for contemporary art are especially large in London where the distinctive skills and approaches of contemporary visual artists are increasingly benefiting a wide range of communities in a variety of ways.

London's affordable studio organisations play a vital role in this success by supporting artists at the basic level of production, enabling them to sustain and develop their practice. Studio organisations and their tenant-artists also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well-being and sustainability of local communities. By encouraging innovation and creativity across the social and regeneration agendas, studio organisations deliver cultural, community and economic benefits.

The affordable studio sector has developed over a period of forty years. There are more studio buildings in London than the rest of England combined, with 58 per cent of the total studio space located in the capital. More than two-thirds of this space is in the east and south east of the capital. Thirty-one groups and organisations manage 89 buildings providing affordable studios for 2,500 artists. But, with over 3,500 artists on waiting lists there is a high, and growing, unmet demand for studios.

As well as providing space for artists to research, experiment and make work, more than 50 per cent of all



Acme Studios' Carpenters Road studios. Established in 1985 and providing 140 affordable studios, the building was demolished to make way for the 2012 Olympics.

Photo: Hugo Glendinning

studio buildings in London have public spaces for exhibition and education programmes. Studio organisations help to demystify contemporary art by providing alternative spaces for the public to view work and meet those who create it, and to participate and learn about the visual arts.

Despite apparent success, the studios sector is seriously under threat. Having played a major role in regeneration, artists' workspaces have been squeezed out of many inner city areas. In particular artists hav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East London, which has been pivotal to the current vitality and world-wide recognition of the visual arts in London and Britain. However, even here, their position is far from secure.



Paula Haughney-Law and her daughter, Ruth in her Carpenters Road studio, 1995.

Photo: Hugo Glendinning

Rising land values and new development schemes are, more than ever, having an adverse effect on the provision of affordable workspace for artists. With the leases of many spaces due to expire within seven years, London could lose up to 430 affordable studios. There are also fewer options for replacement and development through the traditional 'self-help' route. London's vibrant, diverse and influential culture has been promoted as a significant aspect of London 2012, but the very studio organisations that have contributed to that vitality are under threat from commercial developers exploiting the opportunities the Olympics present.

There is no single solution to the provision of artists'

workspace. Each situation requires a different approach. However, there are agencies, including existing studio providers, who can appraise and advise on development opportunities if involved at an early enough stage.

The history of the sector has been characterised by self-help and opportunism. Future developments, however, will require partnerships between studio organisations and commercial, public and social developers, brokered and supported by development and funding agencies. If these partnerships are not realised the sector faces both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affordable studios overall and many organisations will be forced to relocate further from the centre.

New opportunities do exist for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studios in major development areas like the Thames Gateway and elsewhere across the capital. Within mixed-use developments cross-subsidy or planning gain can be exploited to achieve affordable workspace. Underpinning these opportunities is the growing recognition not only of the considerable value of investing in affordable artists' studio provision, but of the significant added value achieved in the acquisition of permanent freehold rather than leasehold property.

If we value art, we must value artists. Ensuring there are appropriate, secure facilities for the long term means artists can continue to make work and contribute to a creative and vibrant city for the benefit of all.

2 Frequently asked questions

What is a non-commercial fine artist?	An artist who makes art work primarily for its creative, cultural, intellectual or philosophical value, rather than its commodity value.
Why do artists need affordable studios?	The vast majority of non-commercial fine artists do not earn enough from their art practice to afford a studio at open market rents in addition to a separate place to live. Many artists support their practice by working in education, train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encouraging innovation and creativity across the social and regeneration agendas. If artists are to continue to provide maximum cultural and community benefit, they need space in which to work at a rent they can afford.
What is an affordable studio provider?	Affordable studio providers charge rents which artists are able to pay without spending too much working time on other income-generating activities. Affordable studio providers in London charge rents which are, on average, one third of those for similar space on the open market. Alongside the studio space, providers offer other resources to support the artists and their work. See page 10.
How much is an affordable rent?	A national survey conducted in 2004 showed that the average 'inclusive' rent for a London studio in the affordable studios sector was 7.54 per square foot per annum. This figure, updated to 2007 prices - 8.50 per square foot - may be taken as a benchmark of affordability. For many artists a weekly 'inclusive' rent of 50 is the maximum they can afford. See page 12.
Who pays the rates?	Many affordable studio providers have charitable status enabling them to claim 80 per cent business rate relief. The charity pays rates for the whole building rather than each studio being separately rated. Artists usually pay an 'inclusive' rent which covers all costs including rates, but not electricity. The business rate relief provides a reduction of 1 to 1.50 per square foot on individual artists' rents.
Aren't there plenty of affordable studios available on the open market?	There appear to be studios available, although research has shown that commercially available studios are more difficult to find and offer less sympathetic terms than studios in the affordable sector. Furthermore, 'inclusive' rents are likely to be three times as expensive as those in the affordable sector, making them beyond the reach of most artists. See page 13.
What is the optimum number of studios in a building to ensure that a studio development is sustainable?	Successful studio projects range between five and over 100 studio units, but 20 to 25 should provide sufficient critical mass to enable the development of a viable business plan, and to ensure an appropriate and supportive environment within which artists can work. Buildings of this size will have an economy of scale in terms of management and running costs. See page 24.

Is there a specification for artists' studios?	The space requirements of artists vary, but the average studio is around 300 to 350 square feet. There are additional basic features that should be provided including good ceiling height, natural light, unfettered walls, 24-hour access, good general accessibility and security. See page 23.
We have an empty building available for three years. Would an affordable studio provider take it on?	This will depend on a number of factors, such as the suitability of the building, its condition, lease terms and cost. There is such a shortage of studio space that, given the right terms, a studio provider may be willing to manage it. However, this type of arrangement will not create any lasting benefits for the locality. Artists will not feel secure and will be reluctant to commit themselves to developing relationships locally when they know they will have to move on. A long renewable lease or permanent new-build studios would be a better option and provide better value for money, for all, in the long term.
Is it possible to mix artists, crafts-people and creative enterprises in one development?	Yes, it is possible to have a mix, but there needs to be a range of prices. The traditional business growth model does not apply to non-commercial fine artists whose working practice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many creative enterprises. Non-commercial fine artists are likely to need an affordable studio for much of their working lives.
How do we ensure that there is a public face for the studios?	Most artists need a private, self-contained space in which to work, but there are ways in which studio organisations can offer opportunities for public engagement. Many take part in 'open studios' events when artists open their studios to the public. Some organisations have separate spaces in which they promote public exhibitions of contemporary art. Some run residencies or programmes of education and outreach activity involving diverse communities, on their own premises or within the local community.
How do we ensure that studio developments are inclusive?	<p>In terms of physical access, any new studio development will have to meet legal standards. However it will often be uneconomic to make older buildings accessible, particularly those on short-term leases, for example by installing an accessible lift. Studio organisations do their best to make adaptations that meet the needs of artists with differing disabilities.</p> <p>Most studio organisations have open selection procedures and several affordable studio providers run particular schemes to encourage diversity and inclusion, creating examples of good practice. These include bursaries for artists with disabilities, cultural diversity bursaries and residencies.</p>
How do we know if there is a demand for artists' studios in our area?	In some boroughs, local authority arts or cultural services departments keep a record of expressions of interest. Some may have undertaken an audit of workspace needs in their borough, or could help set one up. Some of the creative hubs, such as Creative Lewisham, maintain a register of creative practitioners' space requirements. However artists will be drawn to new studio developments if they are appropriate and affordable. Studios create demand.
I'm interested in taking this further. Where do I go next?	The following will be able to provide advice and contacts: Arts Council England, your local authority arts officer or the National Federation of Artists' Studio Providers. See page 32 for contact details.

3

The value of studio organisations

CUBITT is an artist-run gallery and studios in Islington, providing a vibrant environment for the creative practice of its 33 studio holders and a lively programme of public exhibitions, talks, performances, screenings and publishing projects. In receipt of regular Arts Council funding since 2001, CUBITT Gallery provides an 18-month bursary for an independent curator and tests new models of curating and exhibition-making. CUBITT upholds the importance of the artist-run space, and by virtue of its diverse studio, gallery and off-site activities, continues to promote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visual culture.

How affordable studios benefit culture and commun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working in the creative economy and publicly funded cultural and creative infrastructure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the development of creative places.²

Creating cultural benefit

Affordable studio organisations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ultural** life of London and the UK. They support artists and, therefore, the making of art. Studio organisations:

- provide the resources artists need to sustain their professional practice, make, exhibit and sell their work
- through low rents, enable artists to maximise the time they can spend in their studios
- provide a supportive environment in which artists can flourish
- by providing a secure and affordable studio, create the focus around which many artists are likely to build the rest of their lives

Some studio organisations provide public programmes of activity which enable artists, the wider arts community and members of the public to experience and engage in the visual arts. Activities might include: temporary exhibitions of contemporary art; open studios events, when artists in studio buildings open their spaces to public view; or, joint projects with neighbouring organisations. Such programmes, developed by studio organisations individually, or in collaboration with others, enhance overall cultural provision in an area and contribute to community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Studio organisations are an important part of London's creative industries sector, which is recognised as a major driver for the UK and London economy. Over 40 per cent of the country's visual artists and photographers are based in the capital, and one in five new jobs in London is in the creative industries. Each year, artists wanting space to work emerge from around 1,000 courses in colleges nationwide. Studio organisations provide affordable, appropriate space for those creative people working as freelancers and sole traders. They make work that is frequently experimental and risk-taking, that does not always have a commodity value, but which forms a vital research and development arm of the creative industries (visual arts sub-) sector.

Arts Unwrapped was London's first city-wide open studios project. Forty buildings featuring the work and workspaces of around 1,000 artists and designer-makers opened to the public over three weekends in November 2005, attracting 14,000 visitors. Affordable studio organisation ASC (Artists Studios Company) manages Arts Unwrapped on behalf of Creative London and Arts Council England.

Bow Arts Trust, based in the London Borough of Tower Hamlets, manages affordable studios for over 90 artists and the Nunnery gallery. The Trust also manages an educational agency and resource which works with over 25,000 young people across east and south London, delivers inset training for teachers and provides employment and training for over 100 artists.

Successful projects include Bow Arts Trust's work with St. Paul's Way Community School, a 1,200 place school in an area of severe poverty, where 87% of pupils are Bengali. The school's GCSE results were near the bottom of the league tables with only 15% A-C passes. Within the first year of becoming a specialist Visual Arts College and being the first school in the country to take on an official arts partner (Bow Arts Trust), GCSE art results were above 90% pass rate at grade A. This success has spread to all the art and media forms with results remaining in the mid 90s year on year since. The school is now achieving over 50% A-C passes across the whole curriculum.

Creating community benefit

Community Arts practice that works with and for local communities over the long term has been recognised as a vital factor in stimulating London's creative economy and developing centres of creative activity across London.

Manoj Ambasna, Report of the Mayor's Commission on the Creative Industries

Studio organisations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life of **communities**. They:

- are responsible tenants who, given sufficient security of tenure, develop a strong loyalty to their neighbourhood, build long-term relationships and make good use of local facilities and services

In addition, many of them:

- deliver a wide range of educational and outreach activities, enabling diverse groups of people and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learn through and work in the visual arts
- are involved in a complex web of partnerships with local organisations to deliver projects which:

- promote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arts



Courtyard, Bow Arts Trust, Open Studios night.

Photo: Jeremy Clarke



Sculpture workshop at St Paul's Way School with artist Matt Caines (Bow Arts Trust).

Photo: Bow Arts

- enhance the public realm
- support social cohesion
- reduce crime and anti-social behaviour

We value our partnership with APT and Laban. Being able to draw on the skills of their members, skilled people who work professionally in the visual arts and dance, enriches the work we do with the local community. It means we can offer the local kids and families who come on our courses so much more.

Chris Gittner, Creekside Educational Trust

Creating economic benefit

Studio organisations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regeneration** of areas of the city. They may:

- occupy difficult, hard-to-let buildings, reducing crime and vandalism and securing funds to refurbish and bring them back into use
- act as a catalyst for the revitalisation of areas
-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nsultation processes that inform regeneration plans
- provide the security and links with neighbourhoods that artists need to enable them to play an active, creative part in the urban renewal process
- support artists who work in the public realm, in their own neighbourhoods and further afield



A proposal to provide studio workshops for artists. SPACE leaflet, 1967, a proposal to occupy part of a warehouse at St Katharine Dock.

Photo: SPACE Studios

SPACE Studios is the original London studio organisation. Established in 1967, SPACE currently manages 16 buildings providing affordable studios for over 500 artists. SPACE Programmes includes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artists, off-site collaborations involving local communities, exhibitions at the Triangle and SPACE Media Arts, which offers media software courses and individual surgery advice. SPACE Media Arts also runs a flagship programme of projects and research engaging artists with emergent technologies.

APT (The Art in Perpetuity Trust) was one of the early arts-led organisations which saw an opportunity to utilise available industrial space to convert to artists' studios and use as a base for running and supporting education projects. There are now five studio organisations in Creekside, including the well-known Cockpit Arts and Creekside Artists, as well as other arts organisations such as Laban.

Artists have an important role in the renewal of a high-quality built environment, not just as creators of 'public art', but by being part of planning and design teams. This kind of cooperation works best when artists are valued from the outset as an intrinsic part of communities... Artists have an essential role in neighbourhood renewal; creating a sense of value, pride and distinctiveness.

Chris Murray, Director of Lear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CABE) Creating Places conference, Tate Modern, July 2003

ASC (Artists Studios Company) is a registered charity that exists to support artists, promote art and advance the education of the public in the arts. ASC is a leading affordable workspace provider currently supporting over 400 artists in seven leasehold buildings across south and east London.

Studio organisations also deliver **economic** benefits to communities. They:

- add value to mixed-use developments
- can help to maintain employment use in developments, so meeting planning obligations
- provide a significant subsidy to artists by providing studios at an affordable rate (see page 13 for details of affordability and the subsidy provided)



Artist in ASC's New Cross Studios.
Photo: Jenny Jones

What are studio groups and organisations? What do they do?

Artists need studios. For many artists committed to non-commercial fine art practice³, having a studio is essential. However, the vast majority of these artists do not earn enough from their art practice to be able to afford a studio at open market rents in addition to a separate place to live. Affordable studio providers respond to this need.



Above: ASC's New Cross Studios prior to development.

Photo: Jenny Jones

Currently, 31 groups and organisations provide affordable studios for 2,500 artists in 89 buildings across London. This is an extraordinarily diverse sector. There are different philosophies, constitutions, structures and staffing levels (many are run by volunteers). They are very different in size and age, rental range and in the types of activities they undertake. However, all have the provision of affordable space for artists at their core. The word 'group' denotes a body which may be formally but not legally constituted, as opposed to an 'organisation' which will be a legal entity.

Fundamentally, studio organisations provide the resources artists need to sustain their professional practice. But, as well as places for undertaking research and making art, studios can be:

- a marketplace
- a venue for mutual support
- centres for education - both formal and informal
- a focus for peer support
- venues for training

Gasworks is based at Kennington Oval in south London and provides 12 artists' studios including three studios for visiting international artists participating in its residency programme. Since 1994, Gasworks has hosted over 100 artists from 50 different countries. Gasworks presents up to six exhibitions a year and both the residencies and exhibitions are accompanied by an education programme and off-site activities through which artists engage with local communities.



The Florence Trust Studios

provide a small group of carefully selected artists with an intense period of a year to push the boundaries of their work and explore new ideas.

"Our support goes well beyond the normal provision of studio space as we recognis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professional networking skills. We work with the major public arts funders, have links with the public and commercial London galleries, art fairs, arts organisations and consultants, art writers and curators.

In 2006 Julie Cook joined us as a maker wanting to push her work into a more conceptual art world arena. Julie went on to have two exhibitions, gained an Arts Council grant, secured a new studio and ended her time with us by selling a large-scale work to the Crafts Council collection. As she said, '... an amazing end to an amazing year.'

Paul Bayley, Studio Programme Director, Florence Trust Studios

Jo Holland's work in the summer exhibition 2005, at Florence Trust Studios.

Photo: Florence Trust Studios

There are two main types of studio organisation: those studio groups and organisations that occupy a single building, where the ethos and activity of the organisation is inextricably linked to that particular building and the individuals that occupy it; and, studio provider-developers, who manage multiple buildings. APT, Cubitt, Gasworks and Occupation Studios are single-building organisations, while a number of larger organisations, such as ACAVA, Acme Studios, ASC and SPACE, are studio provider-developers managing multiple buildings, each providing studios for hundreds of artists.

Individual buildings vary greatly in size. The Lounge Gallery and Studios and Standpoint Studios house under ten artists each, while Bow Arts Trust provides space for over 90 artists in one building.

More than 50 per cent of all affordable studio buildings in London are also resource spaces for the pub-

lic, variously providing public exhibitions,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mes for artists, facilities for media arts, and educational workshops and outreach programmes involving diverse communities. Several are involved in local arts festivals and in public art programmes through which artists are commissioned to make new work or collaborate on public realm enhancement schemes. The level of public activity varies considerably from one studio provider to another, depending on its particular aims and ethos.

Seventy percent of affordable studio providers in London have charitable status enabling them to gain access to public funding and reductions in business rates.

What do we mean by affordable?

An affordable artist's studio is a workspace which enables an artist to sustain and develop their practice and which is made available at a rent and with lease terms appropriate for artists in need i.e. artists who are unable to afford to rent workspace on the open market in addition to somewhere to live.

Studio Voltaire is the only artist-led gallery and studio complex in south west London providing affordable studios to over 40 artists. Over the past four years, Studio Voltaire has developed an ambitious and wide-ranging programme of educational events and projects especially for individuals who may have little access to formal education or who may not be regular gallery visitors.

An affordable rent

The national survey of studio organisations undertaken by Acme in 2004 showed that the average inclusive rent for an affordable studio in London was 7.54 per square foot per year, approximately 215 per month for a studio of average size (340sq. ft.).

Most affordable studio providers charge inclusive rents, so artists know exactly how much they will pay. An ‘inclusive’ rent normally includes insurance, repairs and maintenance, business rates, caretaking and management - all costs except electricity, which is usually metered with artists charged for what they use. One or two months’ returnable deposit is the norm, as are low or minimal administration charges.

Flexible lease terms

In addition to an affordable rent, most artists’ studio organisations try to offer guaranteed periods of occupation so artists can plan ahead.

‘Easy-in, easy-out’ lease terms, where artists need to give only one or two months’ notice are also important. An artist’s ability to maintain a studio may be affected by a change in financial circumstances, the need for a different type of space for a limited period, residencies which may take an artist away from their studio for an extended period, or a change in type of practice. It can

be very restrictive and expensive for an artist to be tied to a long-term and inflexible lease.

Other lease terms offered by affordable studio providers include:

- an option to share, if rent becomes unaffordable
- an option to sub-let for artists who may need to work away temporarily

Other support

Generally, affordable studio providers also offer:

- debt and arrears counselling when necessary
- a supportive and flexible response to artists facing hardship
- a commitment to make adaptations to studios for artists with particular requirements

Some studio groups and organisations provide other services for their tenants, such as access to equipment, resource areas or exhibition space. These may be included in the rent.

Comparison with the commercial sector

A November 2005 survey⁴ commissioned by Capital Studios of the availability, suitability, rent levels and terms for commercially available studios in 10 London boroughs found that:



ACAVA's Blechynden Street Studios, North Kensington.

Photo: ACAVA



APT's studios, Deptford.

Photo: Liz May

- the average inclusive rent per square foot per year surveyed in the commercial sector was £ 22.82 compared with £7.49 in the affordable sector-a difference of £15.33 per square foot, or 299 per cent
- less than 10 per cent of commercial agencies surveyed offered fully inclusive rents
- there is far greater flexibility of lease terms and support for artists' needs in the affordable sector
- appropriate, affordable workspace is rarely available on the open market

Subsidy value provided by the affordable studios sector

The November 2005 survey demonstrated the vitally important support provided to the visual arts economy in London. It showed that:

- the level of annual rent subsidy created by the affordable sector in London, compared to commercially available premises is currently around 9.3 million
- the value of annual business rate relief obtained by the affordable studio sector, represents between £880,000 and £1.4 million

The report concludes that the affordable sector's provision of studios to visual artists creates a very significant subsidy to the visual arts sector in London and represents extremely good value for money.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 Studio is not a mere property

4

Securing and creating studios

Mother Studios was founded in 2001 by artist Joanna Hughes. Having occupied various studios in Stoke Newington, Brick Lane and Shoreditch, Joanna found she needed a larger space. Her search confirmed just how few spaces were available and how many artists had lost their spaces to property developers. In the end, her difficulty in finding a suitable space led her to set up her own studio organisation. Initially a self-funded project, Mother Studios is now a not-for-profit organisation providing 30 studios for 45 artists on the top three floors of an old warehouse in Hackney Wick, next to the River Lee.

The traditional approach is no longer viable

The 1970s saw the beginnings of the 'studio movement' which grew from the acute need of visual artists for affordable workspace. Solutions to this need were achieved by the collective action of artists themselves, acting opportunistically in response to a depressed property market and the availability of redundant buildings.

The large, diverse, yet distinctive sector which has resulted is still characterised by this self-help approach. However, this is no longer sustainable. Rising land values and the diminishing availability of capital funds through grant sources have combined to make artists' self-help efforts less viable as a way of securing studio space. The need now is to work in partnership with developers - local authorities, housing associations and private sector developers - to achieve affordable, secure and accessible space that will be available for the long term.

For example, Hoxton has grown during the last decade as a centre for London's art market with a cluster of approximately 100 galleries in 2002. However, fashionable bars, clubs and restaurants combined with new residential developments have caused rents to go up. Many organisations can no longer afford to remain in the area and are moving eastwards. Creative activities are often forced out of an area because they have not had the capital to purchase their property and protect themselves from rent increases... This is a key issue.

The Mayor's Culture Strategy, April 2004

Essential requirements for sustainability and growth

Studio organisations have three key requirements: security of tenure, access to finance and professional development/capacity building.

Security of tenure

Security of tenure enables studio organisations to develop stability and confidence and deliver maximum benefit to communities.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that there is considerable value in investing in affordable artists' studio provision and significant added value in providing it through the acquisition of permanent freehold buildings rather than leasehold property.

Chisenhale Art Place was set up by a group of artists and dancers who were forced out of Butler's Wharf in 1980. They renovated the derelict building to provide 39 studios as well as a dance space. Subsequently, the artists renovated the ground floor to establish the Chisenhale Gallery, now managed independently. The three organisations together form an internationally known, cultural landmark on the Hertford Union Canal in Tower Hamlets and have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he proliferation of galleries and studios in East London. In recognition of this, the London Borough of Tower Hamlets has renewed the lease on the building for an additional 25 years and the organisation is exploring fresh ways to develop in the coming years.

"I was part of the original group of artists from Butler's Wharf to establish Chisenhale Studios and Gallery, which generated much energy within our artistic group. Having an affordable studio meant

I could concentrate on my artistic research and start to exhibit my paintings. Since the creation of art is a long-term endeavour, often without a secure income, it was important for me to have the security of a studio which I could afford. I also have moved into the area to live close to the studio. I am commit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area."

Chisenhale artist **Ingrid Kerma**



Artist Ingrid Kerma,
Chisenhale Art Place.

Photo: Lisa Howard

Research into two London studio organisations has shown that security of tenure provides the self-confidence and motivation for studio organisations to:

- build the ethos of the organisation - to invest the time needed to create a cohesive and confident community
- commit to their locality and become part of the community
- establish their identities, groups and track record and attract and build creative and professional partners and networks.⁵

Moving from one short-term let to another, or being involved in campaigns or protracted negotiations to retain studios, is financially wasteful, time-consuming and saps the energy and confidence of artists. This, in turn, reduces the likelihood of artists developing confidence in their practice and taking an active role in the local community.

However, securing freeholds is not the only option. Security of tenure can also be achieved through long-term leasehold arrangements. Traditionally, many studio organisations occupied buildings on short-term leases because the future of those buildings was uncertain and rents were cheap.⁶ If developers and property owners offered long-term, renewable leases of 15 to 20 years, with protected rent reviews linked to the RPI (Retail Price Index), studio organisations would enjoy sufficient security of tenure, and cost certainty, to enable them to provide many of the cultural and community

benefits referred to elsewhere.

Access to capital finance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cultural buildings is that they are liabilities in financial terms, whose costs (both capital and revenue) must be subsidised by public, charitable or private patronage. However, new models are emerging through which studio organisations are delivering cultural, community and economic value. Given capital financing, studio providers can make a powerful business case, showing high occupancy levels and low arrears, leading to eventual net income generation.

Major sources of capital funding, such as Arts Council England's capital programme, the Single Regeneration Budget and European funding have dwindled in recent years and new sources of capital investment are now needed to ensure studio organisations can continue to develop. Such sources might include cultural infrastructure investment funds, neighbourhood renewal funds, planning gain and low-cost loans.

(See page 17)

Professional development/capacity building

The 2004 Survey of Artists' Studios Groups and Organisations in England showed that management capacity among organisations varies widely and there is a clear need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lso,

In the Borough of Merton, studio organisation **ACAVA** has worked with local authority officers to bring back into use several disused and problem buildings, including a laundry and a potting shed, at the same time providing much needed studio space for artists. The partnership supports the local authority's arts development strategy by creating community arts projects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artists. Merton has granted peppercorn leases, initially for five years, but to be increased to 20. The artists pay an affordable rent which covers running costs and, following discussion with Merton Arts Officers, creates a fund for strategic community arts projects.

"The partnership will triple the number of affordable artists' studios in Merton. I am delighted that this run-down building will have a new lease of life that will benefit the community."

Maureen Pepper, Merton Arts Development Manager, on the reopening of the disused laundry as Phipps Bridge Studios.

the studio movement relies to a large extent on voluntary input for its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he 31 affordable studio providers in London, 22 employ less than one full-time staff member and seven have no staff and are run entirely by volunteers.

Studio groups find themselves 'reinventing the wheel' when embarking on development projects and lack of paid time and specialist advice are significant barriers to growth in the sector. The new National Federation of Artists' Studio Providers will address this need by providing information, advice and support and encouraging networking and sharing of expertise among the sector (see page 32 for details). Also, the Federation will champion the needs and benefits of studio organisations and campaign to influence public policy and decision-making in support of studio developments.

Development options: conversion and new build

Over the last 30 years, artists have created studios by converting an extraordinary range of older buildings including factories, warehouses, schools, churches and offices. Almost three-quarters of London studio premises are more than 50 years old, requiring a high level of repairs and maintenance.

The disadvantages of this approach, borne out of necessity, are now all too clear:

- because most buildings were rented on short-term leases investment in conversion was minimal, making the buildings barely usable as studios
- environmental and access issues were not addressed, resulting in most buildings being only just legal
- while artists have valued their studios enormously and worked hard to keep them operational, the buildings have been subject to slow but certain decay

The situation that faces us is:

- there are no cheap buildings any more
- it is often too complex and therefore too expensive to convert buildings for short-term use

There are now two realistic options for achieving good quality, sustainable, fully compliant space:

- conversion of existing buildings for long-term use
- new, purpose-built studios

Conversion of existing buildings

Culture-led regeneration projects involving mixed-use developments offer scope for the 'recycling' of large, disused buildings for long-term studio use. Through the planning gain process such buildings may be 'harnessed' to an adjacent commercial development application, resulting in long-term, sustainable cultural provision at little or no cost to the local authority. By linking

SPACE's most recent studio development, The Triangle, is a former technical college, which comprises 67 studios, an exhibition space, East London Printmakers, two digital/net-working teaching suites and office space for SPACE, SPACE Media Arts and office tenants. The 1.2 million refurbishment was paid for with regeneration funds from the European Union (EU) and London Development Agency (LDA). The final work was completed in spring 2007 bringing full disabled access, public street frontage and visible gallery and training spaces, a 1,000 sq. ft. commissioning studio for hire, and new small business units. SPACE's brief was for a building which would provide artists with affordable spaces but would also provide real benefits to the wider neighbouring community: local arts organisations, schools, community-based agencies and local residents. The viability of this scheme is contingent on some higher rent facilities for hire and training programmes attracting grant funding from the LDA.

strategic regeneration funds to the scheme, it may be possible to achieve a realistic business plan for artists' studio space.

However, the particular costs involved in the conversion of old 'land- mark' buildings, civic or industrial, may exceed the costs of new-build.

Older buildings often have innate, sometimes irreconcilable problems:

- accessibility
- health and safety
- original construction materials lead to very high future maintenance costs
- very wasteful of space - financially inefficient
- environmentally and thermally inefficient leading to high service costs
- more difficult to identify risk than with new-build

New-build option

The difficulties faced in converting existing buildings can, in every sense, be 'designed' out once it is established that the new-build is economically viable. New-build can achieve:

- good design
- a good performance specification
- better cost control
- current artists' needs
- a high environmental specification

- low maintenance costs
- space efficiency

However, stand-alone buildings are not likely to be achievable in a planning gain scenario: it is much more likely that artists' workspace will be incorporated into a mixed-use development. Where land is scarce, this could take the form of a shared multi-storey building - shared with other users, e.g. domestic or office (recognising there will be practical issues such as shared staircases, entrances, lifts etc, where user requirements are not readily compatible).

Where a larger footprint is available, then the workspace could be configured on ground floor only, thus rendering it far more suitable, within the overall building, to separate out uses whilst at the same time keeping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between them.

Financing and securing new studio developments

The advantages of new-build over conversion are explored in the previous section. But where are the suitable properties or sites and how can projects be financed?

None of the options below represents a solution in itself; future developments are likely to involve a com-



Acme's Copperfield Road building on the Grand Union Canal.

Photo: Hugo Glendenning

Two Arts Council capital awards from lottery funds of 1.2 million in 1997 and 2 million in 2005 have enabled **Acme Studios** to build on their successful long-term capital programme which aims to create 400 new affordable studios in London within 10 years. These funds made it possible for Acme to buy two buildings (Copperfield Road in Mile End and The Fire Station work/live development in Poplar) guaranteeing for the first time a sustainable future in an increasingly expensive property market. With this asset base they were able to secure a third building in Orsman Road, Hackney, through a cross-subsidy development. The first building to be created through the most recent lottery funding is The Galleria Studios, Peckham where 50 new studios have been created

combination of these options and, critically, the intervention and support of, or partnership with, others:

- leasing space on the open market
- leasing space from local authorities G grants
- loan finance
- cross-subsidy developments
- planning gain
- relocation

Leasing space collectively on the open market

Rents for workspace units on the open market are, on average, three times more than those for physically comparable, affordable studios. This is not an option for most individual artists.

However, artists acting collectively will benefit from an economy of scale: the larger the building the cheaper the rent per square foot. Rents will still be relatively high and the premises may require some conversion work to sub-divide for multiple-occupation. If the artists are not a legally constituted group with charitable status they will face the additional burden of full business rates.

Groups of artists do continue to rent commercial space collectively, but it does not produce a long-term solution, affordable rents or good quality spaces. Neither is it a good investment of the artists' time and money.

Local authority intervention would help encourage

landlords to create affordable rented workspace for fixed terms i.e. the first five or ten years of a new development, through the use of Section 106 agreements.

Leasing space from local authorities

Most local authorities have a property register of some kind, which may well include buildings which are not easily suited to other purposes. In these cases, discounted rents may be negotiated in relation to anticipated public benefits, particularly those meeting local cultural aims.

Grants

The main sources of capital funding available to the affordable studio sector in the last ten years, for the acquisition of buildings for conversion and new-build, have been the National Lottery and European funding. Both these sources have dwindled.

Grants of up to £100,000 are still available through Arts Council England's Grants for the arts scheme to undertake feasibility studies in relation to a building, or towards purchase, refurbishment or improvement of buildings for arts use.⁷

Some trusts and foundations may provide grants towards aspects of studio development, where there is

as part of a mixed-use planning gain development in partnership with Barratt Homes. See case study, page 25. Of the 12 buildings Acme manages, four are now permanent and provide affordable studios and work/live units for over 200 artists.

ASC is working in partnership with a developer as part of a scheme to convert a school into flats. A Section 106 scheme, if successful, it will deliver a digital gallery space

activity which specifically meets their aims. To access funding, groups generally need to be legally constituted not-for-profit entities able to put forward credible business plans. The London Development Agency (LDA) may provide funds towards capital costs where the facilities to be improved are necessary for LDA funded training programmes supporting the creative industries.

Loan finance

Most studio projects are not financially speculative; the huge demand will ensure 100 per cent occupation as long as rents remain at affordable levels i.e. rent income is very reliable. On this basis studio projects should be a low-risk lending prospect for banks.

However, groups or organisations seeking to part-finance studio developments by borrowing will need to have assets against which they can secure loans, as well as robust business plans that demonstrate their ability to service repayments. At a time of relatively low interest, loan finance is an attractive funding option, but very few organisations have the assets to secure loans.

The Charity Bank⁸ and others have schemes which provide small-scale loans to the not-for-profit sector, but given the perceived increased level of risk, interest rates are normally higher than those available commercially. Therefore, only those organisations which are

financially strong can benefit from cheap loan finance; a solution which is not accessible to the majority of the studios sector.

Cross-subsidy developments

There have been important examples of cross-subsidy schemes helping secure major studio developments, such as Spike Island in Bristol and Acme Studios' Orsman Road project in London. These projects have involved buying a site and developing and/or selling off part to cross-subsidise the acquisition of the whole.

Such projects are often complex, and not without risk, and would not be open to studio organisations which do not already have a track record in developing property, or appropriate financial support.

Planning gain

See case study, page 25.

Occupation Studios grew out of an artist-led initiative to create affordable studio space in central London. The organisation owns the freehold on its premises which provide 13 separate studio spaces, together with communal areas and facilities, for a changing population of 16 artists. The building is located in the London Borough of Southwark, an area where many of London's artists live, show work and teach, and is at the heart of the busy local community around the Walworth Road.

The studios are central to the professional lives of artists at Occupation Studios. All of the artists support themselves and their work using the skills and knowledge that they have developed through their practices. Many of their public projects attract support from funding bodies and charitable trusts, enabling them to contribute to the cultural and creative life of the UK and its capital.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 Studio is not a mere property



Artist Lolly Batty discusses her work with a visitor at Occupation Studios.

Photo: Naomi Dines, Occupation Studios

Relocation

With large-scale developments to the east of the capital, especially Thames Gateway, there may be significant opportunities for artists to relocate. Local authorities are, in general, keen to attract creative industries as part of their redevelopment strategies and many see artists' studios as a key component.

Even though London is one of the most expensive places to live in the world, artists move to the capital because of the opportunity for increased, intensive, creative interaction and peer networking. Studio organisations will need compensating rewards for relocating and preferential rent levels.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 Studio is not a mere property

5

Fact File



Work by Chris Jones and Giles Round for 'Hallucinature' at Cell.

Photo: Cell Project Space

The policy contex

The visual arts have never been so popular. Twenty-five per cent of the adult population in Britain visit art galleries. Tate attracted more than six million visitors in 2004/05. Four million went to Tate Modern alone, making it the most visited modern art museum in the world. And with Paris, London is the most visited capital city in Europe.

Arts Council England's recent survey of engagement with the arts⁹ showed that in 2003:

- 13% of adults drew, painted, made prints or sculpted
- 10% created an original artwork or animation using a computer
- 8% did photography
- 6% bought an original work of art

The upsurge in enthusiasm for the visual arts cuts across all social and ethnic groups. It is a powerful testament to the growing opportunities for people to be involved with visual arts, not only as visitors to galleries but in a vast

range of contexts as part of their daily lives and of the visual arts workforce.¹⁰

Artists are vitally important in supporting this proliferation of the contemporary visual arts in and beyond the gallery and across the public realm. And if artists are to maintain this important role, they need space in which to research, experiment and create work.

In recent years, Arts Council England, the national development agency for the arts in England, has prioritised support for the individual artist, particularly at the level of production. Its Inhabit workspace initiative is one of six under the umbrella project Artists' Insights, which aim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artists to flourish, in which their professional, social and economic status is recognised, respected and valued. In its new ten-year strategy for the contemporary visual arts in England, Turning Point, Arts Council England affirms its continuing support for new work and artists' development. One of its five key priorities is support for artists and a commitment to 'continue to give priority to capital investment for the development of artists' workspace.'

Arts Council England also supports the newly-established National Federation of Artists' Studio Providers (NFASP), a membership organisation representing all those engaged in providing affordable studio space for artists working in England, as well as other facilities. The Federation aims to help secure, sustain, improve and increase affordable studio provision. By autumn



APT Open Studios weekend.

Photo: Liz May



Gasworks.

Photo: Gasworks



Annika Eriksson, we are not who you think we are, event at the opening of Lapdogs of the Bourgeoisie, Gasworks, 2006.

Photo: Gasworks

2007 the NFASP will be the principal source of information, advice and support on all aspects of artists' studio provision. (See page 32 for contact details)

Creative industries

The creative industries are acknowledged by policy makers as being of major economic significance in the UK and, particularly, in London. In the UK, the creative industries grew at an average of 5 per cent per annum between 1997 and 2004, compared to an average of 3 per cent for the whole of the economy. In 2005, there were an estimated 117,500 creative companies and total employment for the sector exceeded 1.8 million.

The Creative Economy Programme was launched in November 2005 and is the first step in the Government's desire to make the UK the world's creative hub. The initial work of the programme centred around seven issues, all of which are important productivity drivers for the creative industries. One of these is 'infrastructure'. *'A key challenge is to position cultural and creative infrastructure at the heart of place and community, which will allow our cities to flourish as creative hubs that work together and with London and the South East for increased UK creative competitiveness.'*¹¹

The Infrastructure Working Group identified ten infrastructural conditions for creative industries growth and competitiveness, of which the third is: *'... a wide range*

of specialist and accessible facilities for different parts of the creative industries - such as through media centres, rehearsal space, studio space and workspace. Crucial is afford- ability and accessibility across the creative industries value chain.'

A Government Green Paper on the creative industries is due to be published in spring 2007.

The current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definition of the creative industries does not include visual artists. Although many artists do not readily identify themselves as part of the creative industries visual arts sub-sector, they show exceptional entrepreneurship and the ability to take artistic risks and their skills are recognised as part of the knowledge economy. Arts Council England is lobbying for the DCMS definition to be expanded to include visual artists. In the mean- time, several studio organisations, such as ACAVA, ASC and APT, are actively supporting and have been part of the development of creative hubs and are promoting the advantages of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available through the creative industry development agencies.

Creative industries in London

The creative industries represent the second biggest sector in London, after the financial/business services, with a total estimated 25 to 29 billion annual turno-

"The process of being an independent, non-funded organisation committed to helping artists develop all their practice across their professional lives has allowed us to respond directly to them, as well as to respond directly to our partners and clients in the community. This has brought a recognition and relevance to our organisation that has created a sophisticated support network, helping those outside agencies to understand us and what we deliver in real terms. This, we feel, is of vital importance if artists are to have an affordable and sustainable place in the future of this changing community."

Marcel Baettig, Trust Director,
Bow Arts Trust

ver. More than half a million people are employed in the sector, and one in five of all new jobs in London are in the creative industries. London is a global centre for the development, production, financing and trade of creative products and services, from architecture to crafts and from pop music to software.

Creative London is part of the London Development Agency, the Mayor's agency for economic development. Its ideas, policies and programmes are based on the findings of a six-month inquiry by the Mayor's Commission on the Creative Industries. Access to property on reasonable terms was identified by the Commission as a 'common bottleneck to success.'

But besides the sums, the creative industries also provide ideal opportunities to achieve social inclusion in the capital - challenging existing economic and social barriers, promoting diverse workforces, engaging with disadvantaged communities and allowing individuals to use talent and innovation alone to shine. And that's priceless.

Creative London

As part of its strategy to support the creative industries, Creative London is establishing ten 'creative hubs' across London. Creative Hubs are creative networks within geographical areas of London such as Deptford, City Fringe and Barking and Dagenham, and which focus on encouraging enterprise, generating more jobs, training and opportunities in the creative industries sector. Property is one of the main focuses for Creative

Hubs, which aim to provide access to ‘appropriate and affordable workspace across the creative business lifecycle.’

The Mayor’s Culture Strategy 2004 acknowledges the need for a range of support for the creative industries: in particular, ensuring that creative individuals and businesses have access to suitable and affordable workspace at all stages of their development. It highlights the ‘interdependence of creative businesses for exchange of technical skills, economies of scale, collaboration and networking’ which has resulted in artists and creative enterprises tending to cluster in certain locations, for example in East London. It also urges local authorities to use their planning responsibilities both in terms of local development plans and approving planning applications, and in terms of their overall responsibility for strategically developing their areas.

Key deliverables of the Culture Strategy include:

- Promote the use of Section 106 and percent for art in major development to develop the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and
- Develop initiatives to address the property issues of the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The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was created in May 2006. Its vision is ‘of prosperous and cohesive communities, offering a safe,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for all.’

It defines sustainable **communities** as, ‘places where



Lorraine Clarke in her studio, Euroart Studios and Gallery.

Photo: Euroart Studios



Mother Studios, Hackney.

Photo: Mother Studios

people want to live and work, now and in the future. They meet the diverse needs of existing and future residents, are sensitive to their environment, and contribute to a high quality of life. They are safe and inclusive, well planned, built and run, and offer equality of opportunity and good services for all.'

This provides the policy framework within which local authorities operate and deliver local services. A sense of community identity and belonging and opportunities for cultural, leisure, community, sport and other activities are seen as important components of sustainable communities. Increasingly, studio organisations are recognised for the role that they play in contributing to this agenda.

Local strategic partnerships

Under the Local Government Act 2000, local authorities must prepare a community strategy to improve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well-being of their area and its residents.

Local strategic partnerships that involve public, private, 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s are at the heart of the community strategy planning process, with responsibilities to improve services and respond to people's needs and aspirations.

Many London boroughs have cultural strategies which frequently feed into or form part of their community strategies. Cultural strategies provide an important policy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artists' work-space.

Similarly, **local development frameworks**¹² provide an opportunity to identify particular sites or buildings for cultural space and, more specifically, artists' work-space, especially where this is supported by strategic cultural aims.

Local area agreements set out priorities for a local area around four themes:

- children and young people
- safer and stronger communities
- healthier communities and older people
- economic development and enterprise

They are negotiated by local authorities on behalf of their local strategic partnerships and their government office, and are intended to make the best use of available funds. Studio organisations can play a role in supporting and delivering all four themes.

Uniquely amongst studio organisations **Acme Studios** also provides affordable housing for artists and was the largest manager of municipal short-life housing stock in London in the 70s and 80s. Through this provision many hundreds of artists moved permanently to East London attracted by low-cost combined working and living space.

Acme's work/live residencies (at The Fire Station in E14 and The Sugar House in E15) mark a return to this original activity. They are highly subsidised programmes which complement Acme's principal activity of providing affordable, non-residential studios for artists.

Since the workspace, the studio, is at the heart of the residency programmes, Acme uses the term work/live, rather than the more commonly used live/work. The accompanying living space helps to take pressure off artists financially; they avoid having to pay two rents on a separate living space and studio. By living and working in the same space they also gain time which would otherwise be spent commuting.

Residencies are time-limited so that as many artists as possible may benefit from this creative breathing space. The programmes are advertised nationally and artists are selected from an open submission with the help of external experts. To add value to the schemes special bursaries are available, including rent-free space and grants, for artists with disabilities and others.

Specification for an artist's studio and a studio building

What is an artist's studio?

The answer depends on the medium: painting, sculpture, new media and so on. Artists need a choice of spaces. Some can work in proximity to others; others need to work in isolation.

Michael Craig-Martin, artist, Creating Places conference, Tate Modern, July 2003

There is no blueprint for an artist's studio. Contemporary visual artists, more than ever before, produce an extraordinarily wide range of work in terms of nature and scale, involving diverse materials, working methods and technologies. Studio organisations work hard to provide flexible space that can accommodate these varying requirements. Some studio providers have developed design guidelines, or a performance specification, particularly for new-build studios. Whether for the conversion of existing buildings or new-build, certain basic features are essential.

Physical features: in seeking an individual studio space, most artists want:

- self-contained space
- good natural light
- higher ceilings than normal office or domestic space

- good access e.g. for large paintings
- a good run of unfettered working walls
- a place to wash and clean up; preferably a sink in their studio, or a shared washing and clean-up area on each floor and a shower
- 24-hour access (to enable artists to combine part-time earning and domestic responsibilities with their practice)
- good security

Size of space: this will vary according to availability, price and the particular needs of an artist's practice. An average London studio is 340 square feet and many artists will find a space of 300 to 350 square feet adequate for their needs. For most artists 250 a month is the maximum rent they can afford.

Some artists, particularly those working in 3D and on a large scale, may need relatively large amounts of space, or access to shared space that can be used for wet or dry, clean or dirty activity using heat, water, chemicals and power tools. They will also need doors that are high and wide enough for large and/or heavy tools and materials to be brought in and out as well as floors that can accept heavy loading. Some artists need extraction facilities and to be in an area where noise and fume pollution is permissible.

The studio building

There is no standard specification for a studio building. However, there are certain features and economies of scale which, combined, can deliver an appropriate and sustainable working environment for artists:

- studio buildings may house any number of artists, but 20 to 25 is the optimum number to enable sustainability. This number should provide sufficient income to allow for repairs and maintenance and some paid staff time to administer the facility, adequate space for wash and clean-up facilities, storage and, perhaps, some communal space
- a supportive environment which allows for informal networking with peers and the potential for joint initiatives such as ‘open studios’
- good disability access
- reasonable access to local facilities such as shops and public transport

Studio buildings should be located in an area where there is a high demand for studio space, but demand may be determined in a number of ways. Such is the shortage of studio space in the capital that the provision of good quality, affordable studio space will create demand and artists will follow.

Work/live studios

Work/live studios are often more suitable for single art-

ists who need work- space and are unable to afford a studio in addition to a separate place to live. They are also suitable for artists who may want to relocate temporarily due to the changing needs of their practice or other circumstances. To be successful, such schemes must provide genuine workspace with ancillary accommodation and ensure that the workspace provides some of the basic features of height, natural light and unfettered walls, referred to above.

A number of 'live/work' schemes have been commercially developed throughout London in recent years. Many of these fail, largely because they do not provide adequate workspace, are too often designed as living space with one room set aside for work and because their use is not regulated. Such developments often drift into residential use against the planning policies of local authorities who wish to maintain employment use. Several local authorities are now refusing to grant consent for live/work schemes because they cannot guarantee the continuation of employment use. An exception should be made for workspace providers where genuine work/live provision - such as Acme Studios' Fire Station, Sugar House and Orsman Road projects - and the creation of employment forms part of their charitable objectives. These projects fulfil the very policies - mixed-use and the creation of employment - local authorities had hoped to secure through live/work schemes.



Acme Studios' work/live Fire Station building in Poplar.

Photo: Jonathan Harvey



Perminder Kaur in her Fire Station work/live unit.

Photo: Hugo Glende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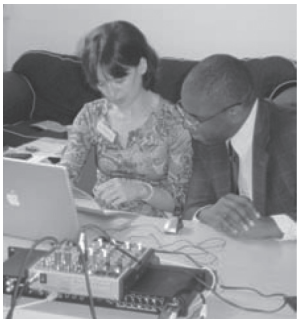
The Galleria Studios,
Sumner Road, Peckham.
Photo: Jonathan Harvey

The Galleria - a planning gain case study

The Galleria is a ground-breaking project developed by Acme Studios in partnership with Barratt Homes where affordable artists' studio space has been created by the private sector through the planning gain mechanism. In the same way that affordable housing is often achieved, this partnership provides a vitally important model showing how 'social workspace' can be achieved through planning gain.

Speaking at the launch of The Galleria Studios in June 2006, David Lammy MP, Minister for Culture said:

"I think it's wonderful that we can create mixed communities in this way - I hope this will be replicated across the country. We have to make more space available to artists. This scheme is precisely what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should be supporting."



Artist in Residence, Isa Suarez
and David Lammy MP, Minister for
Culture at the opening of The
Galleria, June 2006.

Photo: Emma Bowkett

The Galleria Studios

At the end of 2003, Acme Studios entered into a partnership with Barratt East London to create 16,000 square feet of new-build studio space, providing 50 affordable and accessible artists' studios. The studios were completed at the end of December 2005 and fully occupied by artists at the beginning of January 2006.

The studios are part of a larger housing development, a major landmark building called The Galleria, in Sumner Road, Peckham SE15, overlooking Burgess Park.

In addition to Acme's 50 studios, the project includes 98 apartments and four live/work units. Twenty-three of the apartments are for social housing, both for rent and shared ownership.

Acme's studios form part of a five-floor block, which has four floors occupied by studios with the top floor given over to apartments. The 50 studios range between 300 and 500 square feet and are fully accessible. Each studio level has a main washroom area with toilets and sinks for cleaning up.

How did the building come about?

A print company employing around 30 people sold the site when the company wished to relocate. Barratt was originally refused planning permission to build on the site because its proposed development consisted entirely of housing and no employment space. By including artists' studios on the site, it was possible to replace most of the employment floor space and most importantly, many more jobs could be created than had existed in the old buildings. The inclusion of studio space was a key factor in the London Borough of Southwark's decision to grant consent.

Designing studios into the scheme

Acme provided Barratt with a clear performance specification setting out their user requirements, enabling Barratt's architects to design a scheme which met artists' space requirements, particularly their need for high ceilings. The specification subsequently formed part of the contract between Barratt and Acme, with Barratt committed to meeting the specification, subject to Building Regulations.

Planning gain

Southwark granted planning consent in January 2003 on the basis that the proposal fully met the council's regeneration objectives and their encouragement of mixed-use schemes as well as making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local economy and immediate environment.

Through this ground-breaking project studio space has been created by the private sector using the 'planning gain' mechanism. In this instance, the provision of social workspace did not form part of the Section 106 agreement, but it was an explicit element of the proposal by Barratt to Southwark Council.

Acme's 30-year track record and core charitable objectives effectively provide the covenant that ensures that

affordable workspace will be maintained at the building in perpetuity, obviating the need in this case for a separate Section 106 agreement.

The cost

Barratt sold the finished studio block to Acme at a price well below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building. This has enabled Acme to provide affordable workspace in the same way as the scheme provides affordable housing. Studios are rented out to artists on ten year (renewable) leases at a fully inclusive rent of 8.50 per square foot per year.

Part-funded by Arts Council England's Grants for the arts - capital programme, the project has released capital to Acme which it can invest in future schemes.

Replacing studios

This new development has more than replaced the 30 studios which Acme managed in Bermondsey, north Southwark, until the lease expired in December 2006. Soaring land values had put rents beyond Acme's reach. However, this new project not only provides additional floor space but also space which is low-cost, high-quality, accessible and permanent.

Benefits for the developer

Not only was Barratt able to achieve its development, but the pre-sale to Acme provided Barratt with a known outcome. Often the development of light industrial space can be speculative, but with the huge demand from artists Acme was able to guarantee 100 per cent occupation from day one. The inclusion of artists' studios also provided Barratt with a marketing theme which has attracted buyers.

Value of mixed-use

The Galleria project is a living and working example of the compatibility of housing and artists' studios in a mixed-use scheme. Already, through open studio events and an artist in residence scheme, supported by the local authority, the residents of The Galleria, and the wider community, are beginning to benefit from their proximity to professional artists.

Notes

1. Turning Point, Arts Council England: a strategy for the contemporary visual arts in England, Arts Council England, June 2006.
2. Creative Economy Programme Infrastructure Working Party full draft report, August 2006 www.cep.culture.gov.uk
3. 'Non-commercial fine art practice' is used as a term to encompass the activity of artists who primarily make art work for its creative, cultural, intellectual or philosophical value, rather than its commodity value.
4. Cubey, Michael, Commercial workspace provision for visual artists - a comparison with the affordable sector, Acme and Capital Studios, February 2006. For the full report and an executive summary see www.acme.org.uk
5. Artists' studios: creating public benefit, Acme and Capital Studios, December 2006.
6. The 2004 Survey of Artists' Studios Groups and Organisations in England indicates that around 13 buildings housing over 300 studios were likely to be vacated by 2008, with at least a further four buildings and 130 studios by 2013.
7. www.artscouncil.org.uk/funding
8. www.charitybank.org
9. Fenn, C et al, 2004, Arts in England 2003: attendance, participation and attitudes, Arts Council England.
10. The power of art: visual arts: evidence of impact, regeneration, health, education and learning, Arts Council England, 2006.
11. Creative Economy Programme Infrastructure Group full draft report, August 2006, DCMS www.cep.culture.gov.uk
12. The Local Development Framework (LDF) is a non-statutory term used to describe a folder of documents, which includes all the planning authorities' local development documents.

Studio groups and organisations in London

ACAVA (Association for Cultural Advancement through Visual Art)

54 Blechynden Street, W10 6RJ
Royal Borough of Kensington and Chelsea
T - 020 8960 5015
E - dsmith@acava.org
W - www.acava.org
Studio provider/developer
F = 3, **L** = 16, **S** = 270, **A** = 300

Artists@Redlees

Redlees Park, Worton Road, TW7
6DW London Borough of Hounslow
E - artists@redlees.org
W - www.redlees.org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9, **A** = 30

Brightside Studios

9 Dartford Street, SE17 5UQ
London Borough of Southwark
T - 07815 927211
E - emoticon@cybele.freemove.co.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4, **A** = 7

Acme Studios

44 Copperfield Road, E3 4RR London Borough of Tower Hamlets
T - 020 8981 6811
E - mail@acme.org.uk
W - www.acme.org.uk
Studio provider/developer
F = 4, **L** = 8, **S** = 365, **A** = 440

ASC (Artists Studio Company)

3rd Floor, 246 Stockwell Road, SW9 9SP
London Borough of Lambeth
T - 020 7274 7474
E - info@ascstudios.co.uk
W - www.ascstudios.co.uk
Studio provider/developer
F = 0, **L** = 6, **S** = 250, **A** = 300

Cell

HQ, 4-8 Arcola Street, E8 2DJ
London Borough of Hackney
T - 020 7241 3600
E - info@cell.org.uk
W - www.cell.org.uk
Studio provider/developer
F = 0, **L** = 3, **S** = 85, **A** = 101

APT (The Art in Perpetuity Trust)

6 Creekside, SE8 4SA
London Borough of Lewisham
T - 020 8694 8344
E - aptlondon@btconnect.com
W - www.apstudios.org
Studio group/organisation
F = 1, **L** = 0, **S** = 37, **A** = 39

Barbican Arts Trust / Hertford Road Studios

12-14 Hertford Road, N1 5SU
London Borough of Hackney
T - 020 7241 1675
E - bag.trust@btconnect.com
W - www.artworksproject.com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24, **A** = 19

Chisenhale Art Place

64-84 Chisenhale Road, E3 5QZ
London Borough of Tower Hamlets
T - 020 8981 1916
E - mail@chisenhale.co.uk
W - www.chisenhale.co.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39, **A** = 39

Art Services Grants Ltd (SPACE)

129-131 Mare Street, E8 3RH
London Borough of Hackney
T - 020 8525 4330
E - mail@spacestudios.org.uk
W - www.spacestudios.org.uk
Studio provider/developer
F = 0, **L** = 17, **S** = 435, **A** = 500

Bow Arts Trust

181-183 Bow Road, E3 2SJ
London Borough of Tower Hamlets
T - 020 8980 7774
E - mbaettig@bowarts.com
W - www.bowarts.com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90, **A** = 93

City Studios

Alpha House, Tyssen Street, E8
2ND London Borough of Hackney
T - 020 7254 0601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11, **A** = 12

Key:

F - freehold
L - leasehold
S - studios
A - artists

Where an organisation manages more than one building the local authority listed is where it is principally based.

Creekside Artists

Units A110-114, Faircharm Estate,
8-10 Creekside, SE8 3DX London
Borough of Lewisham
T - 020 7254 0601
E - info@creeksideartists.co.uk
W - www.creeksideartists.co.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12, **A** = 25

Euroart Studios

Unit 22F, 784/788 Tottenham High
Road, N17 0DA
London Borough of Haringey
T - 07802 502 136
E - nayoung@euroart.co.uk
W - www.euroart.co.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3, **S** = 41, **A** = 46

Limehouse Arts Foundation

Towcester Road, E3 3ND
London Borough of Tower Hamlets
T - 020 7515 9998
E - mail@laf-arts.org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37, **A** = 50

Cubitt Artists Ltd

8 Angel Mews, N1 9HH
London Borough of Highbury &
Islington
T - 020 7278 8226
E - info@cubittartists.org.uk
W - www.cubittartists.org.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31, **A** = 33

Florence Trust Studios

St Saviours, Aberdeen Park, N5
2AR London Borough of Highbury
& Islington
T - 020 7354 4771
E - info@florencetrust.org
W - www.florencetrust.org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12, **A** = 11

Lounge Gallery and Studios

2nd floor, 28 Shacklewell Lane,
E8 2EZ
London Borough of Hackney
T - 0786 606 3663
E - monikabobinska@onetel.com
W - www.lounge-gallery.com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5, **A** = 6

Dalston Underground Studios

The Basement, 28 Shacklewell
Lane, E8 2EZ
London Borough of Hackney
T - 07941 715 888
E - info@dalstonunderground.org.uk
W - www.dalstonunderground.org.uk
Studio provider/developer
F = 0, **L** = 2, **S** = 13, **A** = 22

Gasworks

155 Vauxhall Street, SE11 5RH
London Borough of Lambeth
T - 020 7587 5202
E - alessio@gasworks.org.uk
W - www.gasworks.org.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10, **A** = 10

Maryland Studios

2nd Floor, 80 Wallis Road, E9 5LW
London Borough of Hackney
T - 020 8986 2555
E - jgeorgiades@hotmail.com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10, **A** = 15

Diesel House Studios

Kew Bridge Steam Museum, Green
Dragon Lane, TW8 0EN
London Borough of Hounslow
T - 020 8569 8780
E - elizabeth@dieselhousestudios.com
W - www.dieselhousestudios.com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3, **S** = 30, **A** = 30

Lewisham Arthouse

140 Lewisham Way, SE14 6PD
London Borough of Lewisham
T - 020 8244 3168
E - lewishamarthouse@btconnect.com
W - www.lewishamarthouse.co.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42, **A** = 44

Mother Studios

9D-F Queens Yard, White Post
Lane, E9 5EN
London Borough of Hackney
T - 07968 760 550
E - jo@motherstudios.co.uk
W - www.motherstudios.co.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34, **A** = 45

Occupation Studios

7 - 10 Occupation Road, SE17 3BE
London Borough of Southwark
T - 020 7639 8792
E - n.dines@csm.arts.ac.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1, **L** = 0, **S** = 14, **A** = 16

Standpoint Studios

45 Coronet Street, N1 6HD
London Borough of Hackney
T - 020 7739 4921
E - standpoint@btopenworld.com
W - www.standpointlondon.co.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7, **A** = 8

Stockwell Studios

39 Jeffreys Road, SW4 6QU
London Borough of Lambeth
T - 020 7978 2299
E - stockwellstudios@uk2.net
W - www.mccallheritage.co.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21, **A** = 23

Studio Voltaire

1A Nelsons Row, SW4 7JR
London Borough of Lambeth
T - 020 7622 1294
E - info@studiovoltaire.org
W - www.studiovoltaire.org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30, **A** = 45

Tannery Arts

Brunswick Wharf, 55 Laburnum
Street, E2 8BD
London Borough of Hackney
T - 020 7729 8008
E - admin@tanneryarts.org.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2, **S** = 26, **A** = 36

The Delfina Studio Trust

50 Bermondsey Street, SE1 3UD
London Borough of Southwark
T - 020 7357 6600
E - admin@delfina.org.uk
W - www.delfina.org.uk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30, **A** = 32

Wimbledon Art Studios

Unit 10, Riverside Yard, SW17 0BB
London Borough of Wandsworth
T - 020 8947 1183
E - enquiries@wimbledonartstudios.com
W - www.wimbledonartstudios.com
Studio group/organisation
F = 0, **L** = 1, **S** = 104, **A** = 120

Summary

Total studio organisations - 31

Studio providers/developers - 6
Studio groups/organisations - 25

Buildings - 89

Freehold buildings - 9
Leasehold buildings - 80

Total studios - 2,128

Total artists - 2,497

London boroughs (principal location of studio organis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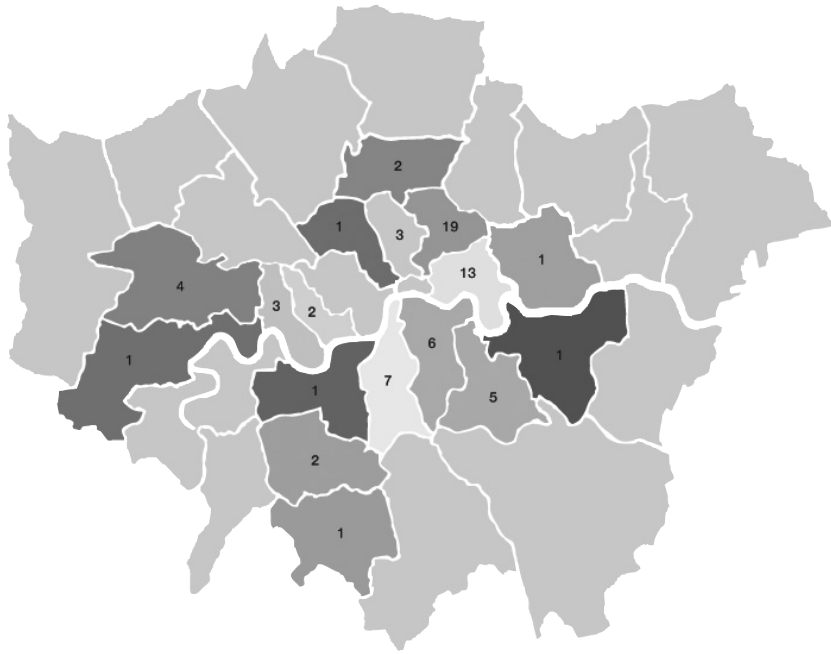
Hackney - 10
Haringey - 1
Highbury & Islington - 2
Hounslow - 2
Kensington & Chelsea - 1
Lambeth - 4
Lewisham - 3
Southwark - 3
Tower Hamlets - 4
Wandsworth - 1

Affordable studios in London

- key facts and figures

- London has 58% of the total studio space in England
- Only nine buildings are permanent - nearly 90% of the total space is rented
- 31 organisations manage 89 buildings, providing studios for 2,500 artists
- The average, inclusive rent for a studio space in the affordable studios sector in 2004 was £7.54 per square foot per year - nearly £215 for an average size studio of 340 sq. ft.
- 65% of London studios are in the east and south east of the city
- The average inclusive rent for a studio in the commercial sector (based on a survey in 10 boroughs in November 2005) was £22.38 - nearly £635 for an average size studio of 340 sq. ft. - three times as much as a studio in the affordable sector
- Four organisations - ACAVA, Acme Studios, ASC and SPACE manage 54 buildings
- The annual value of business rate relief provided to London artists by the affordable studios sector is around £1.4 million
- More than half of all studio buildings are also resource spaces for the public providing exhibitions and education programmes
- The annual value of subsidy provided to London artists by the affordable studios sector, through affordable rents, is £9.3 million
- There are more than 3,500 artists on waiting lists for studios in London
- 430 studios are 'at risk' over the next 10 years, 300 of these over the next five years
- Many buildings are in poor condition. 75% are over 50 years old with resulting high maintenance costs. Only three buildings are fully accessible
- These findings are drawn from a national survey of artists' studios carried out by Acme Studios in 2004 and published as a report in May 2005. The information on studio providers and buildings was updated in November 2006. A register of studio groups and organisations in England was published at the same time as the national survey. Updated in June 2006, the register is available from www.acme.org.uk
- A London Digest presents information on the 27 London groups and organisations and the 72 buildings they operated in 2004 and is available from www.acme.org.uk

Map showing the distribution of studio buildings in London in 2004



- Greenwich(1)
- Lewisham(5)
- Southwark(6)
- Lambeth(7)
- Wandsworth(1)
- Merton(2)
- Sutton(1)
- Hounslow(1)
- Ealing(4)
- Hammersmith & Fulham(3)
- Kensington & Chelsea(2)
- Camden(1)
- Haringey(2)
- Islington(3)
- Hackney(19)
- Tower Hamlets(13)
- Newham(1)

East London has been at the centre of the development of artists' studio space with groups and organisations attracted, in the past, by the availability of suitable and cheap property. The London Borough of Hackney has the largest number of studio buildings and units (24 per cent of the London total of units), but Tower Hamlets

has the largest square footage (30 percent of the total). Hackney, Greenwich, Lewisham, Newham, Southwark and Tower

Hamlets have 68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studio units. Four of these boroughs - Greenwich, Hackney, Newham and Tower Hamlets - fall within the London 2012 zone.

Useful contacts

• a-n The Artists Information Company

An arts information and advocacy organisation which focuses on visual artists. The website has information on developing studios and case studies. www.a-n.co.uk

• Artquest

Artquest is an advice and information service for London visual artists and craftspeople. The Artquest website includes information on studios and resources and provides contact details for many organisations. www.artquest.org.uk

• **Arts Council England** is the national development agency for the arts in England. Between 2006 and 2008, it will invest 1.1 billion of public money from government and the National Lottery in supporting the arts. www.artscouncil.org.uk

• **Arts Council England, London**
2 Pear Tree Court, London, EC1R 0DS Tel: 0845 300 6100 www.artscouncil.org.uk

• **CIDA - The Cultural Industries Development Agency** is currently funded to deliver projects and services that offer practical support to creative individuals, businesses and arts organisations, helping to make their existence in East London tenable

in an increasingly expensive part of the city. www.cida.co.uk

• Creative Economy Programme

Government programme to make the UK the world's creative hub, managed by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www.cep.culture.gov.uk

• **Creative London** is the strategic agency for London's creative industries, part of the London Development Agency. www.creativelondon.org.uk

• Creative Hubs

Part of Creative London's strategy to support the creative industries, creative hubs are creative networks within geographical areas of London which focus on encouraging enterprise, generating more jobs, training and opportunities in the creative industries sector. www.creative-london.org.uk

• **Creative Space Agency** is a brokering service enabling creative individuals, cultural organisations and businesses to identify potential spaces in London to work, exhibit, rehearse or perform. The project mainly focuses on a website with a searchable directory, enabling space providers and those seeking space to match their needs. Working across all art forms, the Creative Space

Agency is facilitated by the Cultural Industries Development Agency (CIDA) and Urban Space Management and funded by Creative London and Arts Council England. www.creativespaceagency.co.uk

• Local authority contacts

Arts Council England, London maintains a register of local authority arts and cultural services officers for London. Or, contact individual boroughs for details.

• National Federation of Artists' Studio Providers (NFASP)

c/o Acme Studios, 44 Copperfield Road, Bow, London E3 4RR
NFASP Administrator
E: admin@nfasp.org.uk

Established in June 2006, the NFASP is the new professional body for organisations providing affordable studios for artists in England. The NFASP will help secure, sustain, improve and increase affordable studio provision by providing advice and support to studio organisations, and will campaign to influence public policy and decision-making in support of the studios sector and artists. Working in cooperation with other advisory agencies across England, the Federation will become the principal source of information, advice and support on all aspects of artists' studio provision.

Bibliography

Oranges and Lemons and Oranges and Bananas, essay by Michael Archer, Acme Studios, 2001. www.acme.org.uk

Supporting artists' workspace: three Arts Council funded studio conferences, conference report, Janet Hadley, Arts Council England, January 2004.

A survey of artists' studio groups and organisations in England, Acme Studios, May 2005. www.acme.org.uk

A register of artists' studio groups and organisations in England, Acme Studios, May 2005, updated June 2006. www.acme.org.uk

Creative Yorkshire: visual artists in shared workspaces - resources and facilities, University of Leeds, Creative Yorkshire, 2005.

London Digest: a survey of artists' studio groups and organisations in London, Acme and Capital Studios, March 2006. www.acme.org.uk

Commercial workspace provision for visual artists - a comparison with the affordable sector, Michael Cubey, Acme and Capital Studios, February 2006. www.acme.org.uk

Shaping artists' space, a-n The Artists Information Company, May 2006.

Artists' studios: creating public benefit, Acme and Capital Studios, December 2006. www.acme.org.uk

The Power of Art - visual arts: evidence of impact, Arts Council England, June 2006.

Turning Point - Arts Council England: a strategy for the contemporary visual arts in England, Arts Council England, June 2006. www.artscouncil.org.uk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 Studio is not a mere property

발제 2

지속가능한 작업실을 위한 시카고의 전략

: 예술가 대상 부동산엑스포부터
레지던시 설립까지

바바라 코에넨

(前 시카고 문화부 도시문화기획과 프로그램 매니저)

예술가를 위한 저렴한 공간 제공 전략

시카고는 예술가 작업실의 역할과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예술가를 위한 저렴한 작업 공간 확보가 어떤 접근들로 이루어져 왔나?

나는 “일하는 도시(the City that Works)”라고 불리며,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 시민이다. 시카고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문화 허브 도시다. 미국에서 세 번째 큰 도시로 한국의 부산과 비슷하게 약 27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은 228 제곱 마일 정도 된다. 미술 부분 학위를 수여하는 학술 기관이 11곳 이상, 시각 예술가를 양성하는 소규모 예술 학교가 대략 20곳 정도 있다. 시카고는 미국의 동서부 해안을 잇는 교통 허브이기도 하다. 5대호에서 미시시피 강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를 연결한다. 서울에 비하면 젊은 도시다. 도시가 생긴 150년 전에는 철도와

선박을 통해 동물과 철광석을 각각 가축 사육장과 강재 적치장으로 보냈다. 시를 거쳐가는 상품 중에는 옥수수, 밀, 위스키도 있었다. 공장과 창고가 강과 철도를 따라 건축되었는데, 해당 건물을 지은 영향력이 큰 기업가들이 예술과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중 한 기업가는 1893 년도에 개최된 세계 박람회를 방문한 예술가들이 시카고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작업실 건물을 건축하기도 했다. 바로 2005년도에 복원된 트리 스튜디오(Tree Studios)다.



트리 스튜디오, 1893,
2005년도에 복원

현재 시카고는 서비스와 금융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탈 산업화 도시다. 8만명이 넘는 극장, 음악, 시각 예술, 디자인, 미디어, 패션, 건축 분야 예술가가 거주하고 있다. 매해 적어도 5천명의 학생들이 시카고에서 예술 및 디자인 학위를 받는다. 시는 이렇게 급증하는 수의 예술가들이 학교를 떠나면 창작 활동을 계속할 공간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2010년도에 예술 및 문화 산업(비영리 예술 단체 및 관객 포함)이 달성한 경제적 효과가 약 22억 달러임을 볼 때, 예술가 집단이 도시의 문화적 복지뿐만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사실 2012년도 시카고 문화 계획(2012 Chicago Cultural Plan)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예술가 유인 및 유지”다.

나 역시도 예술가다. 나는 아름다운 도시 시애틀, 그리고 아주 비싼 도시 뉴욕을 거쳐 예술 학교를 다니기 위해 시카고로 왔다. 예술가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프라와 기회가 풍부한 도시에서 살고 싶었다. 시 정부에서 일한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러다 내가 정부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20년 동안 예술가이자, 시카고 시 문화부(Chicago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에서 근무하는 관료로 일을 하며 예술가들

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여러 권한을 주어 예술가들 역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고안하고 있다. 그렇게 내가 하는 일 중 주된 일은 공간에 대한 기회와 관련된 일이었다.

시카고 지역에 예술 공동체가 번성하며 에너지와 창의력이 숨쉬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는 이런 이유로 해당 지역이 르네상스를 경험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대부분의 시카고 예술 공동체는 시내와 인근 지역에 위치했었다. 도시의 산업 및 제조업 기반이 쇠퇴하면서 발생한 많은 버려진 건물들이 예술가들에 의해 재탄생 되었다. 이런 지역이 활성화된 것은 일정 부분 예술가들의 활동으로 인한 문화 르네상스 덕분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예술가 및 예술 단체가 상주하는 건물들이 시장 시세로 거래되는 주거용 건물로 전환되기도 했다. 유명한 시카고의 부활, 이로 인해 예술가와 예술 기업이 도시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예술 활동 및 생산도 훨씬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현상으로 시카고의 많은 지역들이 예술가들이 가져온 문화 및 경제 혜택의 씨앗을 얻고 있는 반면, 시각 예술가 및 예술 기관들의 전문적인 사업 활동은 몇몇 중요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예술가 주거 관련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카고 문화부(Chicago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DCA) (현 문화 및 특별행사부, Dept of Cultural Affairs and Special Events)는 1984년도에 시카고 시 내각 급 부서로 설립된 후 예술 및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카고의 문화 자원을 양성, 향상, 보완 및 홍보하며 시카고 시민들을 위해 일해왔다. 시카고 문화부는

- 예술, 공동체, 교육 기관을 통한 직간접적인 보조금 제도
- 전시 기회 제공
- 교수 기회 제공
- 공공 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작품 의뢰 및 포트폴리오 등록
- 기술적 지원
- 예술가 및 예술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등을 통해 개인 예술가를 지원해왔다.

리처드 달레이(Richard M. Daley)시카고 시장은 오랫동안 예술 분야를 지원했다. 재임하는 동

안 수상까지 한 밀레니엄 파크(Millennium Park)를 시내에 짓는 것부터 청년들을 요리, 춤, 문학, 오페라, 연극 및 시각&미디어 예술 등의 분야에서 도제 교육을 받는 예술가로 양성하는 혁신적인 청년 고용 프로그램 등 예술가들을 지원하거나 고용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창안했다. 달레이 시장과 그의 시 정부는 예술과 문화를 관광 및 시민 참여를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 예로 서머댄스(시내의 공원에서 여름 내내 이루어지는 무료의 참여형 야외 댄스 프로그램) 및 시 전역에서 콘서트를 여는 세계 음악 페스티벌, 악명 높은 카우 퍼레이드(Cows on Parade) 관광 프로그램¹ 등이 있다.

1999년도에 달레이 시장은 문화 담당관에게 “예술가들의 주거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 보았다. 그 때 대답은 “별로 없는데.. 앞으로 진행 하겠습니다”였다.

우리는 수 년이 걸리는 일련의 연구를 진행했다. 실제 진행되고 있는 몇몇 예술가 공간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연구

문화 및 특수행사 부 산하 도시문화기획과(Cultural Planning Office)에서는 몇 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다. 처음으로는 1999년도에 기획 및 개발부(Department of Planning and Development)와 협력하여 시가 승인한 컨설턴트 중 일부로 구성된 컨설턴트 팀에게 시 전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조사와 시장이 예술가 주거지로 관심을 보인 특정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했다. 미니아폴리스에 소재하고 있는 예술가 주거지 개발 주요 국가 기관인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Artspace Projects)가 협력 업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다. 연구는 인터뷰, 지역 도서관에서 개최한 공동체 회의, 지역의 시민사회 지도자 간 회합을 통해 진행되었다. 도시 계획 자금 중 대략 10,000 달러를 해당 연구에 투입했다.

그 다음 해인 2000년도에 DCA는 시카고 예술가 조사(Chicago Artists Survey)를 시행했다.

1 카우 퍼레이드(Cows on Parade)는 예술가들에게 시내 곳곳에 설치된 실제 크기의 플라스틱 소를 장식하도록 요청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매우 인기 있는 관광 이벤트로 마지막에는 해당 소들을 자선 경매에 내놓았다. 예술가들은 경매가의 일부를 지급 받았다.

1,000명의 예술가가 기본 신상 정보(나이, 성별, 교육, 가구 규모, 고용 상태, 가계 소득)부터 제 1, 그리고 제 3의 활동을 포함한 예술 활동,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 실제 및 희망하는 작업 공간, 실제 및 희망하는 사업적, 기술적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질문까지 약 50여개의 질문을 메일을 통해 받았다. 예술가의 메일 목록은 문화부의 예술가 목록에 기반하여 기타 예술 단체, 서비스 단체, 교육 단체 및 예술 관련 간행물을 바탕으로 한 목록을 추가하여 만들어졌다. 해당 예술가들의 주소는 시를 대표할 수 있도록 우편번호 별로 추려졌다. 1,400명에게 메일을 발송했고, 2주 내에 그 중 25%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예술가들은 우리들에게 감사해 했다. 그 중 일부는 이런 질문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을 적어 보내기도 했다!

2002년도에는 에밀리 홀 트레마인 재단(Emily Hall Tremain Foundation)이 전국의 시각 예술가들을 위해 역량 강화 자원 창출 및 유지를 목표로 하는 “시각 예술가 지원(Empowering Visual Artists)” 계획 참여와 관련하여 문화부와 접촉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세 곳(휴스턴, 시애틀, 애틀랜타)의 비영리 조직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존 기술”이라는 시범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였다. 시카고 시 정부는 해당 재단이 접근한 첫 번째 정부 기관이었는데, 이는 우리의 임무가 시의 모든 예술가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소수의 예술가들에게 특정 워크숍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기관들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는 시카고 시각 예술가들의 니즈를 발견하고, 예술가와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 자원 평가에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평가 결과에 따라 재단에 일련의 권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 서비스 제공 방법의 발전, 충족되지 않는 니즈 및 시각 예술 관련 이슈 파악, 신규 프로그램 또는 협업 추진과 같은 결과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첫째, 2000년도 시카고 예술가 조사의 시각 예술가 부분 분석, 둘째, 현지 예술 단체, 예술가, 서비스 제공 기관 인터뷰, 셋째, 개별 예술가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넷째, 다른 국가 및 국제적 자원과 모범사례 연구를 제안했다. 2002년 12월에 DCA가 2개년 이행 계획을 포함한 기술 지원 계획에 대해 공식 제안을 하라는 요청을 하며 해당 제안이 수용되었다.

25,000달러로 DCA 도시문화기획과와 협업하는 몇 명의 시간제 컨설턴트와 인턴을 고용하여 시각 예술가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조사 분석, 모범 사례 연구, 예술가, 예술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예술 단체 인터뷰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런 연구 결과 2003년도에 “시각 예술가를 위

한 전략”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본 보고서에 담긴 주요 권고로는

1. 예술가들을 위한 중앙 정보 공급소 구축
2.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 지원 프로그램(Space Assistance Programs for Artists) 활성화
3. 시 예술가 위원회 창립
4. 국내외에서 시카고 기반 예술가(Chicago-based Artists) 추진

이 있다.

이런 권고 중에 첫 번째 권고인 중앙 정보 공급소 구축은 시카고 예술가 자원(Chicago Artists Resource, CAR) 웹사이트 개설 결정과 함께 채택되었다. 트레마인 재단은 예술가들의 활동을 강화시켜주는 정보 및 수단과 예술가들을 연결해주는 초기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 활동으로 시카고 예술가 자원 웹사이트(CAR)가 탄생한 것이다. 또한 공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두 번째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카고 아티스트 스페이스 + 하우스링 엑스포(Chicago Artists Space + Housing Expo, 2004)를 탄생시켰고, 이는 후에 크리에티브 시카고 엑스포(Creative Chicago Expo, 2007-2014)가 되었다가 현재는 레이크 FX 서밋 및 엑스포(Lake FX Summit and Expo, 2015-현재)가 되었다.

2010~2011년에 시카고는 다시 공간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예술가들의 니즈를 조사했다. 거의 5,000명의 예술가들이 50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온라인 조사에 참여했다. 해당 연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2012년도 시카고 문화 계획(2012 Chicago Cultural Plan)이 고안되었다.

공간이 예술가의 작업을 결정한다.

많은 예술가들이 저렴한 생활 및 작업 공간 확보가 자신들의 주된 관심사라고 응답했다.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저렴한 공간의 부족이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된다. 작업 공간에 특히 영향을 받는 시각 예술가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은 그들의 활동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 예술가들은 어디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 작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대략 절반의 응답자(52%)가 여러 곳에서 작업을 하며, 75%는 적어도 일부 창작 활동은 집에서 수행하며, 특히 여분의 침실, 지하실, 다락방 또는 차고에서 자주 작업한다고 응답했다. 39%가 집을 주요 창작 활동 공간으로 선호한 반면 51%는 집 외의 공간을 작업 공간으로 원했다.

주요 작업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규모, 자연광, 교통 편의, 인터넷 접속, 조용함, 그리고 충분한 저장 공간이었다. 예술가들은 방해물이 없는 공간, 방음이 되거나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 주차, 다른 예술가들과의 교류 및 자연 환경을 원했다. 넓은 복도 및 문, 무거운 하중을 견디는 바닥, 화물용 엘리베이터, 개수대도 언급되었다. 작업 공간의 이상적인 규모는 83-92m²였다.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61%)가 주요 창작 활동 공간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이 없다고 한 반면, 나머지 40%는 월 평균 780달러(약 891,926.19원)를 지출한다고 했다.

예술가에 대한 조사 외에도 시카고는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 마련을 해왔었거나 관심이 있는 개발업자들에게도 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라는 인터뷰를 요청했다. 개발업자들은 예술가들의 공간에 대한 특별 재정 또는 보조금, 감세, 특별 구역 설정 및 건축 규정 수정을 권고하였다. 그들은 또한 예술가 및 예술 기관을 미개발 지역 및 자료실(a toolbox of resources)로 유인할 수 있는 보장책 및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고안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²

2 1999년도에 11명의 개발업자에게 전화를 통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했다.

1. 예술가의 생활 및 작업 공간을 개발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 작업을 했고, 왜 하지 않았나요?
2. 예술가의 장기 생활 및 작업 공간 개발 또는 지원을 장려하는 유인책에는 무엇이 있나요?
3. 예술가의 장기 생활 및 작업 공간의 성공적인 구축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4. 예술가의 생활 및 작업 공간을 가장 잘 지원해주기 위해 시카고 시가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를 말씀해주세요.
5. 예술가의 주거 그리고/또는 생활 및 작업 공간의 경향은 어떻습니까?
6. 어떤 공동체가 예술가의 생활 및 작업 공간으로 인한 혜택을 가장 많이 얻습니까?

답변으로 “도시 규약에 생활 및 작업 공간 지정과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담아라. 저소득 금융을 예술가의 공간을 위해 쓸 수 있게 만들어라. 자금 조달에 관한 생활 및 작업 관련 브로셔를 만들어라. 건축 규정을 수정하고, 집행을 일관성 있고 이해 가능하게 만들어라. 예술 지구를 지정해라.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해라. 예술가의 생활 및 작업을 위해 단위 당 신용 거래 또는 유인책을 창안해라. 개발업자에게 주차공간에 대한 부담이 없는 차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기존 예술가의 건물을 파악해서 장기 사용 건물로 만들어라” 등이 나왔다.

공간

저렴한 생활 및 작업 공간은 2000년도 시행된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조사에서 파악된 최우선 니즈였다. 우리는 예술가 주도로 이미 진행 중인 ACME 예술가 프로젝트와 후에 스위칭 스테이션 아티스트 로프트(Switching Station Artists Lofts)라는 이름을 얻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두 프로젝트는 규모 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모델과 소유권 측면에서는 비교를 하고 싶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

ACME 예술가 콘도 공동체(ACME Artists Condominium Community)



ACME 예술가 콘도 공동체
(현 블룸िंग데일 예술 건물, Bloomingdale Arts Building)
25개 콘도, 2003년도 준공

1980년대 중반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위기를 막기 위해 한 예술가 집단이 로프트 스타일로 생활 및 작업 공간을 같이 두고,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소유와 운영을 하는 건물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참여 예술가들은 해당 조직을 **ACME 예술가 협동조합 (ACME Artist Cooperative)** 이라 칭하고, 제한적 자기 자본 조달 구조 및 협동적 소유를 제안했다. 거주 주민들이 건물의 “지분”은 구매하지만 실제 공간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지분에 대한 비용은 조합이 결정하는데 미래의 회원들이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 이사회가 회원들의 예술적 자격 요건을 심사한다.³

3 시카고 매거진, 2014년 12월

2003년도에 예술가들은 공동체 공간과 상업적 공간이 있는 25 가구 거주 가능 규모의 경공업 용 건물을 조성할 수 있었는데, 이 건물은 곧 벡타운(Bucktown) 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야기했다. 총 비용은 4백만 달러(물가인상을 반영하여 530만 달러로 조정)(6,017,015,680원, 가구 당 평균 243,065,420원)가 소요되었다. 시에서는 계약금으로 가구 당 소요 비용의 최대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격이 되는 개인 회원에게 제공하였다. 제한적 자기 자본과 더불어 이는 예술가들이 해당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보다 쉽게 해주었다. 달레이 시장은 2003년도에 열린 해당 건물 준공식에 참석했다.

비록 실현하기까지 14년이 걸렸지만, ACME의 회원들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회원이 될 수 있는 금액과 요건도 설정할 수 있다. 건물 준공 이후, 길가의 높은 철도를 따라 공원이 지어졌고, 건물의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그렇지만 예술가들이 건물을 “제한적 자기 자본” 콘도로 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건물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스위칭 스테이션 아티스트 로프트(Switching Station Artist Lofts)



스위칭 스테이션 아티스트 로프트
25개 작업실-침실 2개의 임대 공간, 2003년도 준공

예술가들이 주도했던 ACME 프로젝트와는 대조적으로, 스위칭 스테이션 아티스트 로프트(Switching Station Artists Lofts)는 시가 주도한 프로젝트였다. 달레이 시장의 예술가 주거 문의에 대한 답으로, 시가 미국의 주요 비영리 예술 부문 개발 업체인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Artspace Projects, Inc)를 초빙하여 시 소유의 남는 건물 한 곳을 1달러에 구매하도록 하고,

그 건물을 예술가들이 생활하고 작업할 수 있는 저렴한 공간이자, 시카고의 모범적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개발하도록 했다. 시는 아트스페이스에 이 작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그보다 아트스페이스가 해야 하는 실현 가능 개발, 그리고 건물을 적어도 30년 동안(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거나 그들이 사용한 저렴한 주거 기금 제공 기간) 저렴한 예술가의 주거지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적은 금액에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모델의 발전을 촉진했다. 스위칭 스테이션 아티스트 로프트(Switching Station Artist Lofts)는 2003년도에 25 가구에 임대 가능한 아파트로 문을 열게 되었다. 해당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530만 달러(2016년도 7백만 달러)(물가 인상을 반영하면 한화로 약 8,004,465,000원)였다. 자금은 저렴한 주거 및 역사 보존 세금 공제(Affordable Housing and Historic Preservation Tax Credits)와 기타 보조금 및 대출을 통해 조달했다.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일리노이 주 주거 개발기관(Illinois Housing Development Agency, <https://www.ihda.org/developers/>)에서 찾아볼 수 있다.

ACME 프로젝트 기간이 14년이었던데 반해 본 프로젝트 기간은 4년밖에 되지 않았다. 아파트는 임대용이며, 예술가의 필요나 희망 보다 더욱 표준화된 증축과 마감 규정을 담고 있을 수 있는 연방 주거 지침을 충족하여 지어졌다. 스스로 관리하는 ACME의 제한적 자기 자본 콘도와 달리 본 건물의 모든 주민들은 심사를 거치고, 저렴한 주거 지침에 맞는 소득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소득 자격이란, 예술가의 연간 소득이 해당 지역 소득 평균의 80% 미만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신청자들은 전업 예술가가 아니어도 되지만 전시 또는 공연, 수상, 작품 의뢰 등으로 예술 활동을 해왔음을 증명할 필요는 있었다. 예술 위원회 및 공동체 구성원이 신청자에 대해 검토하고, 신청자를 인터뷰했다.

스위칭 스테이션이 ACME처럼 탄탄한 예술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은 흥미롭다. 아마 그것은 현지 예술가가 소유주 또는 개발업자인 경우가 드물기 때문일까?

2004년 이후 보다 많이 이행된 예술가의 생활 및 작업 공간 프로젝트

이 두 프로젝트가 2003년도에 시작된 이후 시는 예술가 및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예술가들의 생활 및 작업 공간 90곳과 작업 공간 50곳을 추가로 만들었다. 모두 임대용이었고, 대부분은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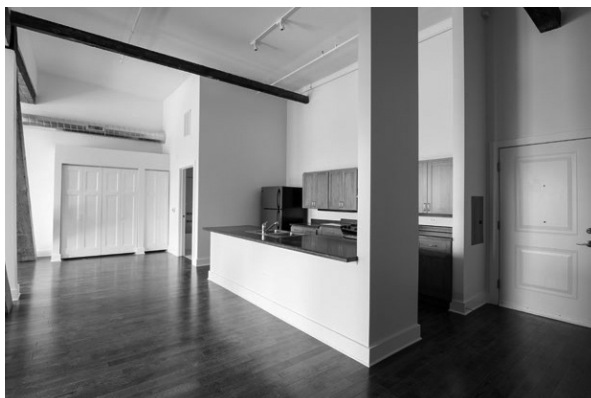
럼”했거나 연방 지침에 따른 혼합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평균 개발 비용은 가구당 317,000달러(약 363,472,200원)이다. 일부는 예술가들의 참여로 개발되는 반면, 엄격하게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 개발되는 경우도 있다.



도체스터 예술+주거 콜라(Dorchester Art + Housing Collaborative)

32채의 타운하우스 + 공동체 예술 센터, 2014년도 준공.

예술가 씨에스터 게이트즈 (Theaster Gates), 재건축 재단 (Rebuild Foundation) + 브린쇼어 개발(Brinshore Development)



보네빌 아티스트 로프트(Bonneville Artist Lofts)

16가구, 1-2개의 침실, 2014년도 준공



코너스톤 50 아티스트 하우스(Cornerstone 50 Artist Housing)

14가구. 2015년도 준공.

(주)더 커뮤니티 빌더스(The Community Builders, Inc.)



헤어핀 로프트(Hairpin Lofts)

브린쇼어 개발(Brinshore Development)

28가구, 저렴한 임대료. 2010년도 준공.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 Studio is not a mere property

예술가에게 낚시하는 법 가르치기

“생선을 주면, 하루를 먹을 수 있지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먹을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 시카고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4500만 달러를 들여 140곳의 생활 및 작업 공간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예술가는 8만명이 넘었다. 우리는 예술가가 자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수단

예술가들을 조사했을 때, 그들은 종종 “필요한 정보는 ‘외부’에 있는데 그 정보를 찾을 시간이나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예술가와 정보를 이어줄 웹사이트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웹사이트 구축이 큰 일이 아니지만, 2003년도에는 이제 막 준비만 갖췄을 때였다. **시카고 예술가 자원(Chicago Artists Resource, CAR** (www.chicagoartistsresource.org))은 “예술가에 의해, 그리고 예술가를 위해”, 예술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보, 자원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구축되었다. 우리가 고용한 시 전역의 전문 예술가들과, 예술단체 및 현지 학교의 인턴들과 함께 사이트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콘텐츠를 결정했으며 그 내용을 쓰고 수정했다. 우리는 뉴욕예술재단(New York Foundation for the Arts), 영국의 예술정보사(The Artists Information Company), LA의 GYST, 그리고 토론토 아트스페이스(Toronto Artscape)와 협업하였다. CAR에 모범 사례에 대한 글과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침을 게재했다. 그래도 가장 있기 있는 서비스는 공동체에서 무료로 기고한 공간, 각종 연락처, 직업 및 행사 목록 서비스일 것이다. “스페이스파인더(Spacefinder).” 이 곳에 누구나 계정을 만들고, 판매, 임대 또는 작업실 공동 사용자를 찾을 목적이든 그 목적에 상관없이 공간에 대한 내용을 올릴 수 있다. 또한 각종 연락처 정보, 직업, 공연 또는 전시 및 기타 행사에 대해서도 올릴 수 있다. 그 공간은 명확히 예술가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정보 목록 제공 서비스와 다르게 특별한 내용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스퀘어 피트 시카고(Square Feet Chicago)

CAR, 그리고 예술가의 공간에 대한 니즈를 종합 지침을 제공하며 지원해주는 전반적인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스퀘어 피트 시카고(Square Feet Chicag)**다. 스퀘어 피트 시카고는 토론토 아트스페이스로부터 허락을 받고 개정한 공간 구매 및 임대에 관한 종합 지침서다. 스퀘어 피트는 신용 거래에 대한 이해 및 공간의 진짜 비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시카고의 구역 확정 조례 및 건축 규약에 대한 개괄, 다양한 임대 유형, 부동산세 및 지역에 대한 설명도 있다. 부동산을 구매하고, 대출을 받는 다양한 방식, 부동산 업자와 일하는 방식, 소유 모델, 자금 조달, 세입자의 권리 및 시설 계획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 스케어 피트 시카고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래 CAR 웹사이트에 여러 챕터와 연습 문제로 구성된 독립적인 섹션으로 게재되어 있었는데 현재 그 정보는 보다 유연하게 이질감 없이 최신 CAR 웹사이트에 통합되어 들어가 있다.

토론토 아트스페이스는 스케어 피트에 대한 라이선스를 다른 관심 있는 도시에도 줄 예정이다. 그러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관련 정보를 개정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www.artscapediy.org/Creative-Placemaking/Square-Feet.aspx>
<http://issuu.com/torontoartscape/docs/artscapediy-squarefeet/15?e=0>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로그램

2004년부터 시카고 아티스트 스페이스 + 하우스 익스포(Chicago Artists Space + Housing Expo)를 개최하기 위해 주거 담당부(Dept of Housing, DOH)와 협업하였다. 주거 담당부는 이미 시 전역의 여러 장소에서 저렴한 주거 박람회(Affordable Housing Fairs)를 개최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예술가들도 저렴한 공간에 대한 동일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런 많은 동일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주거 담당부의 프로그램을 예술가에 맞게 개정하여, 시카고의 예술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네트워크, 시설, 및 전문성을 활용하였다.

제 1회 “시카고 하우스 익스포(Chicago Housing Expo)”는 하룻동안 열리는 무료 행사로 시카고 시내에서 문화부가 운영하는 시 건물로 무료 공공 행사, 프로그램, 콘서트 및 전시회를 많이 하는 시카고 문화 센터(Chicago Cultural Center)에서 진행되었다.

엑스포는 “저렴한 주거 및 공간 프로그램과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교육, 정보, 직접 서비스 공급처”로 묘사되었다. 현지의 주거 전문가, 은행가, 부동산업자, 개발업자, 비영리 기관 및 기타 대표들이 주택 소유, 작업실 안전, 건강 보험, 시 프로그램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정부의 주거 관련 기관, 공동체 주거 관련 기관, 주거 관련 상담 기관, 주요 은행 및 대출 기관, 시카고 부동산업자 협회, 개인 중개인, 개발 및 건설 회사, 주거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전문 회사, 공간과 주택 소유와 관련 있는 예술 단체 및 예술가와 예술 단체를 찾고 있는 지역의 대표들이 전시에 참여했다.

본 행사의 예산은 최소로 책정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부에서 방 임대료, 가구 및 장비 등을 현물로 기부했기 때문이다. 전시 참여자들은 사업의 일환으로 참석 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 받지 않았다. 비용은 주로 연사들에게 제공하는 사례비 및 다과 외에 포스터와 엽서 출력 및 배포, 이메일 마케팅 등의 마케팅 활동에 들어갔다. 2,000명의 사람들에게 기자 회견문과 이메일 초청장을 보내고 시내에 5,000개의 엽서를 배포했다.

첫 번째 엑스포에서는

- 임대에서 소유로: 저는 예술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재건: 건축가 및 자영업자들과 일하기
- 생활, 작업 및 공연 공간으로서의 상점 및 기타 비전통적 건물
- 주택 소유, 상업적 공간 및 생활/작업 공간 관련 법률적 측면
- 재정 건전성 복원 방법
- 건축 규약, 구획 확정 및 허가 관련 시와 협력
- 건전하고, 안전하며, 창의적인 공간
- 공동체 예술 - 동네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
- 극장 개관 방법

과 같은 무료 워크숍을 제공했다.

CHICAGO ARTISTS SPACE & HOUSING EXPO

SATURDAY, APRIL 10, 2004 9:00 A.M.—3:00 P.M.

CHICAGO CULTURAL CENTER
78 E. Washington, Chicago, IL 60602
www.chicagoculturalcenter.org
(312) 744-6630

ADMISSION FREE
To Register, or for more information:
(312) 747-8529 or dial 311

FOR ARTISTS AND ART ORGANIZATIONS IN CHICAGO

FIND OUT ABOUT

- Neighborhoods Seeking Artists
- Home Ownership
- Getting a Mortgage
- Renter's Rights
- Storefronts and Other Non-Traditional Spaces
- Theater Space Issues
- Legal Issues
- Establishing Credit
- Artist Communities and Mutual Housing
- Healthy Safe Spaces
- Insurance for Health, Work, and Home
- Community Art: How to Get Involved in your Neighborhood
- Surviving the Rehab Process
- Working with the City: Building Codes, Zoning and Permits

Over 50 exhibits plus free workshops targeted to living and workspace needs.
Meet one-on-one with housing experts, financial advisors, realtors, developers, not-for-profit agencies, city services, and artist organizations.



City of Chicago
Richard M. Daley, Mayor



chicago cultural center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Lois Weisberg, Commissioner



Department of Housing
John G. Markowski, Commissioner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 Studio is not a mere property

엑스포는 성공적이었고, 우리는 엑스포를 매회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공간 이외의 내용도 다루다가 2008년에는 크리에티브 시카고 엑스포(Creative Chicago Expo)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2015년에는 레이크 FX 서밋 + 엑스포(Lake FX Summit + Expo)로 바뀌어 예술가의 발전과 창조 산업에 더 중점을 두었다. 관련 주제 역시 사업 개발, 네트워킹, 마케팅 및 예술가들이 계속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주제(저렴한 공간 외의)들로 확장했다. 워크숍과 전시 참가자 공개 모집도 실시하였다. 현재 약 1만여명의 사람들이 레이크 FX에 참여하고 있으며, 본 행사를 통해 이들 동안 오디오션, 1대1 상담, 공연 워크숍, 기조 연설 등이 이루어진다. 주로 시카고 문화 센터에서 진행되지만, 그 외 시의 여러 장소에서도 진행된다.

전시 참여자는 참가비로 100-500달러를 지불해 부스(테이블, 의자 2개, 테이블보, 테이블 위의 안내판, 전기 및 wifi)를 설치하고, 출력물과 온라인 목록에 등록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만약 참가자로 선택되면, 해당 비용은 면제된다.

이런 프로그램을 연간 내내 작업실의 예술가 포럼(Artists at Work Forums)과 함께 진행했고, 공간에 대한 내용과 공지 사항은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달했다.

시카고 문화 센터에서 이루어진 크리에티브 시카고 엑스포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 Studio is not a mere property

DIY(Do It Yourself! 스스로 하기!)

15년동안 예술가의 생활 및 작업 공간 140곳을 지원하기 위해 4,500만 달러(51,597,000,000원)가 투자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는 의미 있는 투자가기는 해도 예술가의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공의 지원을 받은 공간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그와 동시에 시장에는 민간이 소유하고 개발한 작업실이 2,000곳 이상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공간은 산업용 건물, 강 및 철도 따라 위치하고 있는 창고, 주거 또는 생활 및 작업용으로 규정되지 않는 산업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들은 현대 산업에서는 쓸 수 없는 구식 건물인데 예술가의 작업실로는 1평방피트 당 평균 1.2달러로 임대되고 있다. 이는 만약 100제곱미터의 공간을 임대할 경우, 월 1,375,920원을 지불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산업용 또는 제조용 시설 구획 수정에 대한 정의가 “예술가의 생활 및 작업”(뱅크버처럼) 또는 기타 주거, 생활 및 작업 또는 작업 및 생활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바뀔 때까지 또는 특정 건물이나 지구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러한 산업용 또는 창고 건물이 비싼 주거용 아파트로 바뀔 수는 없다. 지난 50년 동안 시카고에서 주거지로 변모한 산업용 또는 제조시설 용 지구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기란 매우 어려우며 원상태로 돌리기란 더욱 더 어렵다. 이러한 업계의 유산으로 인해 오늘날 시카고에서 많은 예술가가 일하는 공간과 예술가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정신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개인들이 이런 건물 중 상당수를 구매하여 예술가들에게 해당 건물을 작업 공간으로 빌려주었다. 종종 이런 건물의 소유주가 예술가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예술가들은 선견지명이 있고, 개인주의자이며 인습타파주의자다. 그들 자신도, 그들의 공간도 주류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공간이 시카고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역동적이며, 창의적인 예술 공간이다. 예술가 사이에서는 널리 퍼져있는 DIY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넓은 공간을 구매 또는 임대하여, 다른 예술가들에게 나누어 다시 임대한 예술가 또는 예술가 단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런 건물을 소유한 사람 중 일부는 부유하거나 부동산 관련 경험이 있어 단순히 예술가를 지원하고 싶은 사람이다. 또는 비용을 많이 들여 증축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술가들이 보다 많은 개발되지 않은 공간을 임대하려 하기도 한다. 주 브라더스(Zhou Brothers)와 같은 일부 건물 소유주는 다른 예술가를 위해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매우 성공한 예술가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돈 또는 건물을 상속받았을 것이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가격을 많이 낮추지 못한 채 상업 대출을 받아 건물을 구매했다. 그들은 매우 안 좋은 조건이지만 아주 비싸지는 않은 금액으로 건물을 구매했을 수도 있다.

건물 구매 외에도 예술가가 넓은 공간을 임대해 일부 작은 공간을 다시 다른 예술가에게 임대해 주는 형태가 더욱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건물주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건물을 팔기에는 예술가들이 좋다”라고도 말한다. 이런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저장 공간을 임대하는 것도 흥미롭다. 이렇게 얻은 소득으로 종종 건물 운용 비용을 부담하며, 예술가 작업실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브리지포트 예술 센터(Bridgeport Art Center), 마나 컨템포러리(Mana Contemporary) 외 여러 장소가 이렇게 운용된다.



브리지포트 예술센터(Bridgeport Art Center)

영리 목적으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본 건물에는 120 곳의 예술가 작업실, 갤러리, 저장 공간으로 쓰이는 행사 개최 공간 및 행사용 대여 공간이 있다.



마나 컨템포러리(Mana Contemporary)

120곳 이상의 예술가 작업실이 예술 쇼핑 및 저장 비즈니스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



스토니 아일랜드 예술 은행(Stony Island Art Bank)

도체스터 프로젝트(Dochester Projects), 워싱턴 파크 아트 인큐베이터(Washington Park Art Incubator) 및 예술가 씨에스터 게이트(Theaster Gates)가 주도하는 다른 계획과 더불어 스토니 아일랜드 예술 은행은 저장 공간 또는 적극적으로 구제 후 재사용되고 있는 기록 보관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예술 은행은 시카고 대학의 글래스 랜턴 슬라이드 (Glass Lantern Slide) 컬렉션뿐만 아니라 존슨 퍼블리싱(Johnson Publishing)의 기록도 보관하고 있다.



잃어버린 예술을 위한 센터(The Center for Lost Arts)

예술가 공유 작업 공간, 2016년도 준공

잃어버린 예술을 위한 센터는 기술 부문 창업 지원기관과 휘트니스 센터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킥스타터 창립자인 찰스 애들러(Charles Adler)의 비전에 따라, 본 센터는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 3D 프린터에서 용접 장비, 재봉틀 등이 있는 공유 작업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자신의 작업실을 임대하고 자신의 도구를 구매하는 대신, 회원이 되면 필요할 때에 한해 도구, 시간 및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코너(Corner) 공유 작업실 공간, 2015년도 준공

코너는 예술가 린 바사(Lynn Basa)가 개관한 또 다른 모델의 공간이다. 그녀는 예술가들에게 임대료를 해주고 스튜디오 및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상점 건물을 구매하였다. 로프트 스타일의 산업용 공간이라기 보다 상업지구에 위치하는 상점에 가깝다.

시카고에는 예술가의 공간에 대한 세부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술가는 보호 장치 및 지원 없이 활동하게 되고 이는 예술 기업이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잠재력을 해칠 수 있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창의적이고, 두려움이 없다. 예술가이자 정부 관료로서 내가 배운 점은 정부의 리더십, 프로그램 및 지원을 통해 위에서부터 진행된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지만 그 보다 많은 성공을 아래로부터, 즉 예술가와 자기만의 프로젝트 및 시설을 운영하는 선견지명이 있으며 창의적인 건물 소유주로 인해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예술가와 서울시가 예술가를 위해 새로운 공간을 만들 때 많은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Presentation 2

Strategies for Affordable Space for Artists

Barbara Koenen

Former Program Manager of Cultural Planning
for the City of Chicago's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How the city of Chicago acknowledged
the role/value of artists' studios in the city?**

**What kinds of approaches have been made to secure
affordable work space for artists?**

I am from Chicago, the third largest city in the US, which is called "the City that Works." Chicago is the cultural hub of the Midwest. It covers 228 square miles with a population of 2.7 million people. More than 11 academic institutions offer degrees in fine arts and there are roughly 20 smaller art schools that train visual artists. The 3rd largest city in the United States, Chicago has a population of 2.7 million, similar to your city of Busan. Chicago is a transportation hub between the East and West Coast. It connects Canada to Mexico through the Great Lakes to the Mississippi River. Chicago is young, in comparison to your city of Seoul. When it was being

built 150 years ago, railroads and ships transported animals to the Stockyards, and iron ore to the steelyards. Corn, wheat, and whiskey were some of the commodities that coursed through the city. Factories and warehouses were built along the rivers and rail lines, and the great industrialists who built them began to be interested in arts + culture. One of them even built an artist studio building to entice the artists who came for the 1893 World's Fair to stay. That is the Tree Studios, which was rehabbed in 2005 and is ...



Tree Studios, 1893, rehabbed 2005

Today, Chicago is a post-industrial city with growing service and financial economies. There are over 80,000 artists, working in theater, music, visual art, design, media, fashion and architecture. At least 5,000 students graduate every year with art/design degrees. The City recognizes that once these burgeoning artists leave school, it is important that they have space to continue their creative work. With an economic impact of the arts and cultural industry (combining non-profit arts groups and audiences) of \$2.2 billion in 2010ⁱ, it is clear that a concentration of artists this significa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ity's economy as well as its cultural well-being. In fact, one of the primary goals of the 2012 Chicago Cultural Plan was "to attract and retain artists".

ⁱ Americans for the Arts, 2010

I am an artist. I moved to Chicago to go to art school, after living in Seattle, which was very beautiful, and New York, which was very expensive. I wanted to live in a city with a great infrastructure and many opportunities to make an impact as an artist. I did not expect to be working for city government... but found I could make a difference there. So for 20 years, I was an artist AND a bureaucrat at the Chicago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creating programs and policies that would support and empower artists - so they could make a difference too. Primary among them were opportunities for space.

Chicago's neighborhoods have experienced a renaissance in part due to the energy and creativity invested in them by burgeoning art communities. From the 1960s - 1980s, most of Chicago art communities were located downtown and in nearby neighborhoods. The city's declining industrial and manufacturing base yielded many deserted buildings that artists reanimated. As these neighborhoods became revitalized, in part due to the cultural renaissance brought by artists' practices, buildings inhabited by artists and arts organizations were converted for market-rate residential use. The much-heralded renewal of Chicago caused artists and their enterprises to disperse farther throughout the city and resulted in much less concentrated artistic activity and production. While this provides many more Chicago neighborhoods with the seeds of cultural and economic benefits that an artist population brings, it poses several important challenges for visual artists and organizations in terms of professional and business practice.

What are we doing about Artist Housing?

The Chicago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DCA) (now the Dept of Cultural Affairs and Special Events) was created in 1984 as a cabinet-level municipal department of the City of Chicago, dedicated to providing arts and cultural services and serving the people of Chicago by nurturing, enhancing, complementing and marketing

Chicago's cultural resources. Among the Chicago DCA's support mechanisms for individual artists were

- Direct and Indirect grants through art, community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 Exhibition opportunities
- Teaching opportunities
- Commissions and portfolio registry from the Public Art program
- Technical assistance
- Marketing and promotion of artists and arts services.

Chicago Mayor Richard M. Daley had a long history of support for the arts. His administration created many programs that supported or employed artists - from developing the award-winning Millennium Park downtown to creating an innovative youth employment program that trained young people as apprentice artists in Culinary, Dance, Literary, Opera, & Theater, and Visual & Media Arts. The Daleys and his administration used arts and culture as vehicles for tourism and for civic participation. Examples of that include many festivals, like Summerdance (a free, participatory outdoor dance program that happens all summer long in a downtown park) and World Music Festival, which brings concerts throughout the city and the infamous Cows on Parade tourism program¹.

In 1999, Mayor Daley asked our Commissioner of Cultural Affairs, "What are we doing about Artist Housing?" And the answer was, "Not much... but we will."

We began a series of research projects that spanned several years. We also began working on some actual artists space development projects.

¹ Cows on Parade™ enlisted artists to decorate life-size plastic cows that were placed throughout the downtown. It was a very popular tourism event and the cows were auctioned off for charity at the conclusion. The artists received a percentage of the auction amount.

Research

The Cultural Planning office of the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and Special Events conducted research in several parts. First, in 1999, it worked with the Department of Planning and Development to a consultant team from a pool of city-approved consultants to do a survey of artists from across the city and an analysis of a specific neighborhood that the Mayor had indicated an interest in for artists housing. Artspace Projects, a leading national developer of artists housing based in Minneapolis, was included as a sub-contractor. The research included interviews, a community meeting held in a local library and a convening of local civic leaders. The funding for this research, approximately \$10,000, came from city planning funds.

The next year, in 2000, DCA conducted the Chicago Artists Survey. One thousand artists were mailed a survey of about 50 questions, ranging from basic demographics (age, gender, education, household size, employment status, household income), to questions specific about their art practice, including primary and tertiary type of art practice, income derived from art practice, actual and desired work space, and actual and desired business / technical assistance. The artist mailing list was based on the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artist list, with the addition of lists from other art organizations, service organizations, education groups and arts publications. Their addresses were culled into zip codes to insure representation from throughout the city. Of the 1400 mailed out, 25% mailed back their responses within 2 weeks. The artists were appreciative - some even sent notes to thank us for asking them!

In 2002, the Emily Hall Tremain Foundation contacted the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about participating in their “Empowering Visual Artists” Initiative, aimed at creating and sustaining skills-building resources for visual artists across the nation. This program funded pilot “survival skills” programs in three non-profit or-

ganizations (in Houston, Seattle and Atlanta). Chicago was the first governmental agency that they approached and as our mission was to serve all the artists in the city. Instead of proposing a specific workshop program for only a few artists, as the other organizations did, we requested funding to do find out the needs of visual artists in Chicago and evaluate existing resources from the perspective of artists and service providers. This evaluation would lead to a series of recommendations presented back to the Foundation. Possible outcomes included augmenting existing program and services offered through public and private sectors, enhancing methods for delivery of services, identifying unmet needs and issues of visual arts and creating new programs or collaborations.

We proposed 1. Analyzing the visual artists subset of the 2000 Chicago Artists Survey; 2. Interviewing local arts organizations, artists and service providers; 3. conducting focus groups of individual artists and 4. research oth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ources and best practices. The proposal was accepted in December 2002 with the request that DCA follow up with a formal proposal for a technical assistance initiative, including a two-year implementation plan.

Their grant of \$25,000 hired several part-time consultants and interns who worked with the DCA Cultural Planning Office to conduct focus groups of visual artists, survey analysis, research on best practices, and interviews with artists, arts service providers and arts organizations. This led to the report "Strategies for Visual Artists" which was completed in 2003.

The top recommendations of this report were

1. To create a central resource of information for artists
2. Facilitate Space Assistance Programs for Artists
3. Create a city-wide council of Artists
4. Promote Chicago-based Artist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Of these recommendations, the first one, to create a central information resource,

was adopted with the decision to create the Chicago Artists Resource website. The Tremaine Foundation agreed to fund the initial development to connect artists with information and tools to strengthen their practice. This became the Chicago Artists Resource (CAR) website. The second recommendation, for space assistance programs, became the Chicago Artists Space + Housing Expo (2004) later the Creative Chicago Expo (2007 - 2014) and now the Lake FX Summit and Expo (2015-present).

In 2010-2011, Chicago again surveyed artists about their Space and Technical Assistance Needs. Almost 5,000 artists completed an online survey that featured 50 questions. The information from this research informed the 2012 Chicago Cultural Plan.

Space determines your work

Many artists responded that securing affordable live/workspace is their primary concern. Like you are experiencing here in Seoul, lack of affordable space is cited as one of the main reasons artists abandon their practice. Visual artists are especially impacted by their workspace, noting, “the space you have determines what work you’re able to do.”ⁱⁱ

Artists’ workspaces are as diverse and complex as their practices. Artists were asked where they worked and where they wanted to work. About half of survey respondents (52%) worked in multiple spaces, and 75% did at least some of their creative work in their homes—more often than not in a spare bedroom, basement, attic or garage. 51% wanted a space outside their home, while 39% preferred their primary creative space be in their home.

ii Strategies for Visual Artists, 2003. Chicago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their primary workspace were size, natural light, close to transit, internet access, quiet, and with ample storage. They wanted unobstructed space, and sound-proofing or ability to make noise without disturbing others; parking; being with other creatives and natural ventilation. Wide hallways and doors, heavy load bearing floors, freight elevators, slop sinks were also mentioned. The ideal size for a work space ranged from 83 - 93 m². The majority of respondents (61%) said they pay nothing additional for their primary creative work space, while the remaining 40% pay a mean of \$780/month (891926.10 KRW).

In addition to working with artists, Chicago asked developers who had or were interested in creating spaces for artists were interviewed for insights on what the City should do. These developers recommended special financing or subsidies for artists space, tax reductions, special zoning and modified building code requirements. They encouraged creating incentives to draw artists and art organizations into underdeveloped areas and a toolbox of resources and guidelines for them to use².

2 Eleven developers were identified and asked these questions via phone interviews in 1999:

1. Have you ever developed live/work space for artists? Why did or didn't you?
2. What would be incentives for our to develop or support long-term live/workspace for artists
3. What are the barriers to successful long-term live/work space for artists/
4. What three things can the city of Chicago do to best support artist' live/work space?
5. What are trends in artists housing and/or live/work space?
6. What community areas do you think would be most benefited by artists live/work space?

Responses ranged from "create live/work designation and definition in city codes, make Low income financing available for artists spaces; create a live/work brochure discussing financing; modify the building code and make enforcement consistent and understandable. Designate arts district areas. Create public/private partnerships. Create a credit or incentive on a per unit basis for artists live/work. Give developers more FAR require less parking. Identify existing artists buildings and make them long term.

Spaces

Affordable housing/work space was the top need identified in interviews and in focus groups in 2000. We began working on 2 projects - the ACME Artists Project, which was an artist-led effort already underway, and a project that was later called the Switching Station Artists Lofts. These have similarities in scale, but differences in model and ownership, which are interesting to compare.

The ACME Artists Condominium Community



ACME Artists Condominium Community
(now Bloomingdale Arts Building)
25 condominium units, opened 2003

In the mid 1980s, to prevent the threat of gentrification, a group of artists began to organize to establish a cooperatively owned and operated building that would have artists live/work space with loft-style units. They called it the **ACME Artist Cooperative** and proposed limited equity financing structure and cooperative ownership. Residents would purchase a “share” of the building but not an actual unit. The cost of the shares would be determined by the association, and be less than the market rate to insure affordability for future members. Members would be screened by the board for artistic qualifications ³.

3 Chicago Magazine Dec. 2014

In 2003 the artists were able to develop a 25-unit light industrial building with community space and commercial space in the soon to be gentrifying Bucktown neighborhood. Total costs were \$4Million. (\$5.3M adjusted for inflation) (6017015680 KRW, an average of 243065420 KRW per unit.) City assistance provided up to 15% of the cost of a unit for a down payment to individual qualifying members. This, combined with the limited equity, made it easier for artists to afford. Mayor Daley attended the ribbon cutting in 2003.

Although it took 14years to realize, the members of ACME now own their building and can set the rates and requirements for being a member. Since it opened, a new park was built along the elevated rail line across the street and the property values have gone up dramatically. Because the artists structured it as a “limited-equity” condominium, they will be able to afford to stay in place.

The Switching Station Artist Lofts



Switching Station Artist Lofts
25 studio-2 bedroom rental units, opened 2003

In contract to the ACME project that was led by artists, the Switching Station Artists Lofts was a project initiated by the City. Responding to Mayor Daley’s inquiry

about artist housing, the City invited the leading non-profit arts developer in the US, Artspace Projects, Inc., to purchase a surplus city-owned building for \$1, and redevelop it as affordable live/work space for artists and as a model program for Chicago. They did not pay Artspace to do this work, rather they facilitated this model development by offering the building for a small amount in return for a realizable development that Artspace had to create, and their commitment to maintaining it as affordable artist housing for at least 30 years (which is the timeline for the tax incentives and /or affordable housing funds that they used). The Switching Station Artist Lofts opened in 2003, with 25 units of rental apartments. The total cost for the project was \$5,300,000 USD (\$7,000,000 in 2016) (8,004,465,000 KRW adjusted for inflation). It was financed with Affordable Housing and Historic Preservation Tax Credits, plus other grants and loans. A description of financing programs can be found at the Illinois Housing development Agency (<https://www.ihda.org/developers/>)

The project timeline was only 4 years, unlike ACME's 14 years. These are rental apartments, built to meet federal housing guidelines which may mean more standardized buildout and finishing than an artist might need or desire. All the tenants must be screened and income-qualify for affordable housing guidelines, unlike ACME's limited equity condominiums which are self-managed. Income qualifying means demonstrating that your annual income falls under 80% of the median for the area. Applicants did not have to be full-time artists, but they did need to demonstrate a commitment to their artistic practice in terms of exhibition or performance record, awards, commissions, etc. Applicants were reviewed and interviewed by committee of arts and community members.

It is interesting to observe that the Switching Station does not have as robust an art community as ACME. Perhaps this is the result of a lack of local artists as owners or developers?

More Artist Live / Work Projects since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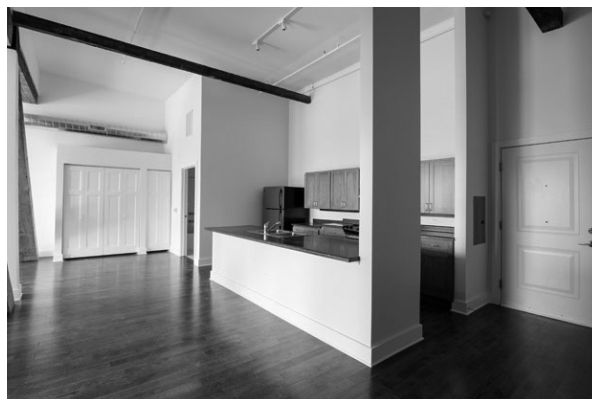
Since these two projects opened in 2003, the City has worked with artists and developers to create 90 additional units of artist live/work space and 50 units of workspace. All have been rental, most have been “affordable” or mixed income under Federal guidelines. The average development cost is \$317,000 per unit (363472200.0000 KRW). Some are developed with the participation of artists, while others strictly through professionals.



Dorchester Art + Housing Collaborative

32 townhouses+ community art center, Opened 2014

Artist Theater Gates, Rebuild Foundation + Brinshore Development



Bonneville Artist Lofts

16 1-2 bedroom units, Opened 2014



Cornerstone 50 Artist Housing
14 units. Opened 2015 The Community Builders, Inc.



Hairpin Lofts Brinshore
Development 28 units, affordable rental. Opened 2010

Teach an Artist to Fish

There is a proverb that says “Give a man a fish, he eats for a day. Teach a man how to fish, he eats for a lifetime.” Chicago spent \$45million dollars to provide 140 live/work spaces from 1999 - 2015. But we have over 80,000 artists. We needed to do more to help artist help themselves.

TOOLS

When we surveyed artists, they often said they knew “the information they need is ‘out there’” but they lacked the time or tools to find it. We decided to create a website to connect them with that information. A website isn’t that big a deal now, but it was back in 2003 when we went live. **The Chicago Artists Resource** (www.chicagoartistsresource.org) website was built “by and for artists” to provide information, resources and programs to help artists thrive. Working with professional artists from across the city that we hired, along with arts organizations and interns from local schools, we planned the site, determined the content that was most important to artists, and wrote and/or edited it. We partnered with the New York Foundation for the Arts, with a-n, The Artists Information Company in the UK, with Los Angeles’ GYST and with Toronto Artscape. CAR featured articles on best practices and guides from lawyers, accountants, and real estate professionals. Perhaps the most popular feature, though, is the free, community-contributed listing service for Spaces, Calls, Jobs and Events. “Spacefinder” Anyone can create an account and post their space - whether for sale, for rent, or looking for a studio mate. They can also post calls, jobs, performances or exhibitions, and other events. Because it is explicitly for artists, it provides specificity unlike other listing services, thus it is widely used.

Square Feet Chica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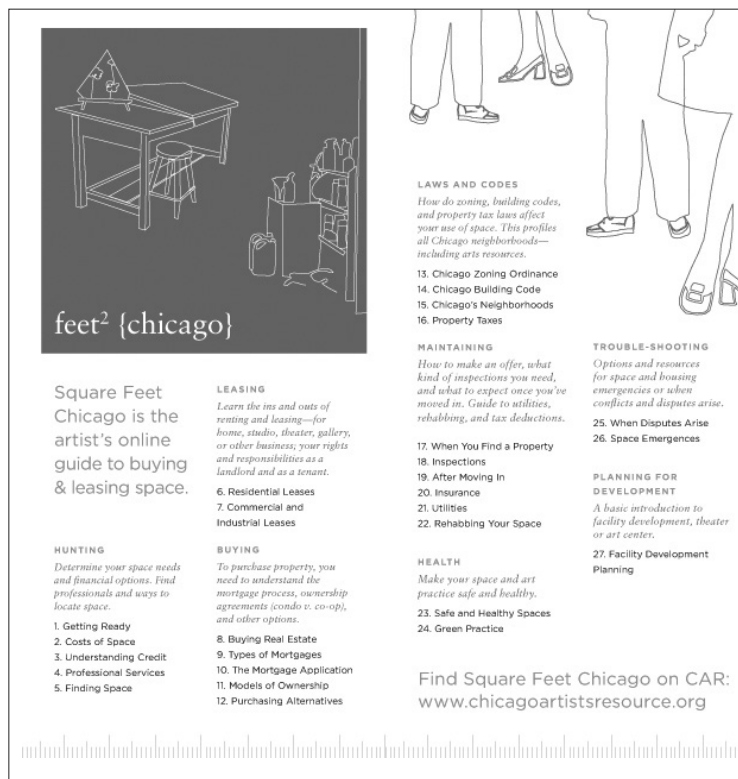
An important part of CAR and our overall strategy for supporting artists’s space needs with a comprehensive guide was Square Feet Chicago. This is a comprehensive guide to buying and leasing space that we adapted with permission from a publication by Toronto Artscape. Square Feet contains chapters about Understanding Credit and the True Cost of Space. Overviews of Chicago’s Zoning Ordinance and the Building Code, different types of leases, property taxes and

neighborhood description. Different ways of purchasing real estate and getting a mortgage, Working with Realtors, Models of Ownership, Financing, Renter's Rights and even Facilities Planning. Square Feet Chicago had 27 chapters all together. Square Feet Chicago was originally published on the CAR website as a standalone section, with chapters and worksheets. Now the information is integrated into the updated CAR website more seamlessly.

Toronto Artspace will license Square Feet to other interested cities, and you can adapt the information to your situations. You can find out more at

<http://www.artscapediy.org/Creative-Placemaking/Square-Feet.aspx>

<http://issuu.com/torontoartspace/docs/artscapediy-squarefeet/15?e=0>



PROGRAMS

Beginning in 2004, we collaborated with **the Dept of Housing (DOH)** to launch the **Chicago Artists Space + Housing Expo**. DOH was already producing Affordable Housing Fairs in locations throughout the City, and we realized that artists needed the same information about affordable space and artists would qualify for many of the same programs. We adapted the DOH program for artists, and used our network, facilities, and expertise with Chicago's art community.

The first "Chicago Housing Expo" was a free, 1 day event held at the Chicago Cultural Center in downtown Chicago, a municipal building run by the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that presents free public events, programs, concerts and exhibitions.

The Expo was billed as a "comprehensive, one-stop education, information, and direct-service resource for affordable housing and space programs and resources". Topics such as home ownership, studio safety, health insurance, city programs and more were addressed by local housing experts, bankers, realtors, developers, not-for-profit agencies and other representatives.

Exhibitors included government housing agencies; community housing organizations; housing counseling organizations; major banks and lending institutions; the Chicago Association of Realtors; individual brokerage,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firms and other companies that specialize in housing-related goods and services; arts organizations related to space and home ownership; and representatives from neighborhoods seeking artists and arts organizations.

The budget for this event was minimal because the room rental fees, furniture and equipment were in-kind contributions of our Department. The exhibitors were not paid because they were doing this as part of their business. The major expense

was marketing - printing and distributing posters, postcards and doing email marketing - as well as honorariums and refreshments for speakers. We sent press releases, email invitations to a list of 2000 people and distributed 5000 postcards around town.

The first Expo offered free workshops that included:

- Moving from Rental To Ownership: I am an Artist, How can I get a Mortgage?
- Rehab: Working with Architects and Tradespeople
- Storefronts and Other Non-Traditional Buildings as Live, Work and Performance Space
- The Legalities of Home Ownership, Commercial Space and Live/Work Space
- How to Rebuild your Financial Health
- Working with the City on Building Code, Zoning and Permits
- Healthy, Safe Creative Spaces
- Community Art - How to Get Involved in Your Neighborhood
- How to Open a Theater



The 2004 Chicago Artists Space + Housing Expo
Poster

The Expo was a success and we decided to present it every year. We expanded it beyond space and renamed it Creative Chicago Expo in 2008, and in 2015 it became Lake FX Summit + Expo, with more of a focus on artists development and creative industries. We expanded the topics to business development, networking, marketing, and other types of subject matter that would help artists sustain their career (in addition to affordable space). We issued Open Calls for workshops and for exhibitors. Now about 10,000 people attend Lake FX and it runs for 2 days, with auditions, one-on-one consultations, performance workshops, keynote speakers and more. It is centered at the Chicago Cultural Center, but also at multiple venues in the city.

Exhibitors were charged a fee of \$100 - \$500 to participate, this would entitle them to a "booth" (table, 2 chairs, table linens tabletop sign, electricity and wifi) and listing in the print and online directory. If they were selected to present, their fee would be waived.

We continued these programs throughout the year with Artists at Work Forums and email and social media messaging about spaces and announcements.

Views of the Creative Chicago Expo at the Chicago Cultural Center





DIY Do It Yourself!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n 15 years, \$45,000,000 was invested to support 140 units of Artists Live/Work Space. (51597000000.0000 KRW). This is a significant investment, but it is not the only solution to the problem of artist space. Because at the same time as these publicly subsidized units were being developed, there were over 2,000 units of privately owned and privately developed work-only studios available on the market. These are in industrial buildings, the warehouses along the rivers and the rail lines, in industrial corridors that are not zoned for residential or live/work use. The buildings are obsolete for modern industry. As artist studios, they are renting for an average of \$1.20 / s.f. This means if you rent a space that is 100 m2, it would cost around 1375920.0000 KRW per month.

Unless and until the definition of industrial/manufacturing zoning amendment is changed to include “artist’s live/work” (as happened in Vancouver BC) or some other residential, live/work or work/live category, or unless and until a specific building or district is amended, these industrial/warehouse buildings can’t be gentrified into expensive residential apartments. Over the past 50 years in Chicago, there are some industrial / manufacturing areas that have become residential, but it is very difficult to do and even more difficult to undo. This legacy of industry has helped define the spaces where many artists work in Chicago today and the ethos that drives and supports them. Many of these buildings have been purchased by individuals who rent them to artists as work space. These building owners are often like artists themselves - they are visionary, they are individualists, they are iconoclasts. They don’t conform to the mainstream, and their spaces don’t either.

These are the most successful, most dynamic, most creative art spaces in Chicago. They reflect the DIY “Do it Yourself” ethos that is so prevalent with artists.

Here are some examples of an artist or a group of artists who have purchased or

rented a large space, then divided and subleased it to other artists. Some of the people who own these buildings are wealthy or experienced in real estate, and simply want to support artists. Or they don't want to invest in expensive build-out, and artists will rent more raw space. Some building owners, like the Zhou Brothers, are very successful artists who want to create a community for other artists. Some are people who perhaps inherited money or building. Some have purchased the buildings for not a lot of money down, and taken out Commercial mortgages. They may have purchased them when they were in very bad condition, and so not very expensive.

In addition to purchasing a building, it is more prevalent for an artist to lease a large space and sublease smaller portions to other artists. Building owners say "Artists are a good deal for not so great property"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many of these buildings also offer storage space for lease. This income often underwrites the cost of operating the building, and can subsidize artist studio rent. That is how the Bridgeport Art Center, Mana Contemporary and other sites operate.



Bridgeport Art Center

This privately owned for profit has 120 Artist Studios, Galleries, Event Space are underwritten by storage facilities and event rentals.



Mana Contemporary

Over 120 artist studios are underwritten by an art shipping and storage business.

The Stony Island Art Bank, along with the Dorchester Projects, Washington Park Art Incubator and other initiatives by the artist Theaster Gates are predicated on the idea of storage - or archives actively rescued and reused. The Art Bank holds the Johnson Publishing archive as well as the University of Chicago's Glass Lantern Slide collection.



Stony Island Art Bank, 2015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 Studio is not a mere property



The Center for Lost Arts Artist Co-working Space, opened 2016

Lost Arts is inspired by tech incubators and fitness centers. The vision of Kickstarter founder Charles Adler, Lost Arts is a co-working space with many tools that its members can use - from 3-D printers to welding equipment to sewing machines. Instead of renting your own studio and buying your own tools, you become a member and receive access to tools, time and space, only when you need it. Corner is another model space opened by artist Lynn Basa. She bought a storefront building to rent to artists and to use the storefront as a studio and workspace. It is not an industrial loft, but rather a storefront on a commercial street.



Corner Shared storefront studio space, opened 2015

Chicago's lack of a detailed policy about artists' space means that artists operate without protections and support, which can undermine the economic potential of artists' enterprise on the overall economy. But artists are creative and intrepid. As an artist and a bureaucrat, what I have learned is that success can happen with

projects initiated from the top down, through government leadership, programs and assistance, but much of it happens from the bottom up. - with artists and visionary creative building owners launching their own projects and facilities. I wish the artists and city of Seoul much luck in their launch of new spaces for artists.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 Studio is not a mere property

발제 3

프랑스의 예술가 아틀리에 지원 정책

: 거주 아틀리에와 작업 아틀리에,
그리고 새로운 아틀리에 개념의 대두

박지은

(박물관학 박사, 소르본대학 언론정보학과 출강)

들어가는 말

프랑스의 예술가 아틀리에 지원 정책의 배경에는 아틀리에라는 공간을 예술창작활동의 기본조건으로 인식하는 풍토가 역사적 문화예술의 기반 위에 자리잡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의 예술지원정책에서는 예술가들을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군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진정한 예술을 위해 생활고를 견디며 추운 아틀리에에서 창작을 이어가는 가난한 예술가 상이 대두된 것은 19세기 중반 정도부터로,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 이전의 예술가 아틀리에에는 창작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살롱(salon)과 결합된 사교와 토론의 장소가 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공간은 대개 예술가들이 소유한 사적 공간이었다. 즉 예술가들이 경제적 능력을 이미 갖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한 사회의 예술가 아틀리에 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가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짚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예술과 예술가라는 개념은 그 일반적 정의가 모호한 것으로, 흔히 배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예술가를 정의하기 위해 반대로 예술가가 아닌 것, 예술이 아닌 것 등을 논하게 된다는 것이다. 취미로서의 예술과 직업으로서의 예술 사이의 경계 역시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대예술의 창작의 양상이 날이 갈수록 다

양화되고 복합장르적으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예술활동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예술과 예술가의 구체적인 정의가 무엇이건 간에, 프랑스의 예술가 아틀리에 지원을 비롯한 예술가 지원 정책의 근간에는 전문직 노동자로서의 예술가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구성원으로서의 예술가를 위한 복지 및 지원 문제 논의의 시작점이 된다. 예술창작의 특성상, 특히 조형예술분야¹의 경우, 정기적인 임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타 분야와 같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낼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가의 직업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지원은 정당성을 찾는다. 다시 말해 사회의 한 구성원인 전문노동자로서의 예술가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프랑스에서 예술가의 아틀리에에는 전문직(professionnel)이면서 동시에 사회적(social)인 공간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아틀리에 지원 정책 안에는 예술창작이라는 특정 전문 분야를 지원하는 측면과 사회적 소외 직업군에 대한 복지 개념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프랑스 사회에서 조형예술가라는 위치는 타 분야 예술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고유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앵페르미명 제도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공연예술가의 경우와는 달리, 조형예술가들은 단순히 자유직종(profession libérale)로 분류되어 일반 사회보장제도의 관할 하에 있다. 그러나 건축가, 의사, 변호사들과 같은 기타 자유직종의 노동자들과는 소득 수준이나 사회 지위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또한 공연예술가들이 극단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반면, 조형예술가들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단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다보니 미술관이나 화랑과 같은 미술제도 기관들의 지원 역시 주로 소수의 엘리트 작가들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명성을 얻지 못한 평범한 예술가들은 작업 발표의 기회 및 지원 등 많은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1 프랑스에서 조형예술(arts plastiques)은 회화, 조각 등 일정한 공간 안에서 주로 물질적 재료를 통해 구현되는 작업들을 일컫는 말로, 기존에 사용되던 보자르, 즉 미술(beaux-arts)이라는 표현에서 '아름다움'이라는 용어가 주는 지형적인 의미를 배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작품의 시각적인 요소가 강조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비디오, 컴퓨터, 영화 기법이 현대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영미권을 중심으로 시각예술(arts visuels)이라는 용어가 도입, 확산되었다. 이는 프랑스 문화부를 중심으로 십수년 전부터 프랑스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설치, 퍼포먼스 등 다중감각과 복합장르로 전개되는 현대미술의 특성 상 용어가 부적합하다는 견해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조형예술이라는 용어를 대체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시각예술가'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예술가들을 칭할 때에는 여전히 조형예술가, 교사를 칭할 때에도 조형예술교사(professeur d'arts plastiques)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분류	예술가-작가 (artiste-auteur)	실연 및 녹음 공연 예술가 및 기술자 (artiste et technicien du spectacle vivant et enregistré)
분야	화가, 조각가, 작곡가, 안무가, 사진작가 등	무용수, 영화감독, 성악가, 연극 배우, 텔레비전 PD, 무대장식가 등
소득원	저작권(droit d'auteur)	임금(salaire) : 피고용인인 임금노동자 신분
특별사회 보장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기본) • 사회지원 • 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 수당 : 앵페르미엥 제도 • 은퇴(기본 + 보충) • 의료 보충 보험 : MUTUELLE • 사회지원(action sociale) • 직업교육
사회보장 담당기관	AGESSA, MDA(기본 은퇴 연금, 기본 의료, 사회지원), AFDAS(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DIENS(은퇴보충보험, 의료보충보험, 사회지원) • AFDAS(직업교육)

<프랑스 예술가의 사회보장제도적 분류>

이러한 상황에서 조형예술가들의 사회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술가의 집 (La maison des artistes, 이하 MDA) 협회와 작가사회보장경영협회 (Association pour la Gestion de la Sécurité Sociale des Auteurs, 이하 AGESSA)이다. 예술가 스스로가 서로를 돕는 직업 연대(solidarite professionnelle)를 위한 협회의 형태로 1952년에 만들어진 MDA는 시각조형 예술가들의 공동 의사 표명(manifestation)을 통해서 1975년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제도를 담당 하게 하는 국가의 승인 및 신임(agrement)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조형예술가들의 사회복지 및 보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후 문 학가, 시나리오 작가, 소설가, 사진작가 등을 위한 AGESSA 라는 기관이 설립되어 해당 분야에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².

이쯤에서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조형예술가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9 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MDA에 등록된 프랑스 전역에 거주하는 조형예술가의 수는 48,536명이 었다. 이 중에서 23,682명이 파리가 위치한 일드프랑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드프랑스 거 주 작가들 중 60퍼센트가 파리에 거주하고 있다³. 그러나 MDA에 가입되지 않은 예술가들을 합 치면 대략 일드프랑스 지역 거주 조형예술가의 수는 30,000에서 40,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 산된다. 파리의 예술가 밀집 현상을 보여주는 이러한 수치는 파리라는 도시가 지니는 예술의 중 심지적 위치와 무관하지 않다.

본 고에서는 파리가 위치한 일드프랑스 지방의 경우를 중심으로 프랑스 예술가 아틀리에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확한 실제 통계에 따른 비교가 필요하겠으나, 서울 및 경기 지방에

많은 예술 활동 및 발표의 기회가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지원 절차 : 자격 및 등록

예술가 아틀리에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파리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시에서 관장하고, 기타 지역은 주로 지방문화부인 DRAC(Direction re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이하 DRAC)⁴에서 관장하는 것이 보통이며, 한번 신청을 했더라도 신청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해 혹은 최소 3 년마다 신청 서류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아틀리에 및 예술창작지원금의 신청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MDA나 AGESEA의 등록 증명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작가들은 이밖에 세금 증명, 소득 신고서, 이력서, 포트폴리오, 은행계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MDA 혹은 AGESEA의 가입은 가입 의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본인이 전문적인 예술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이 산정한 최소 예술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예술활동관련소득의 최소하한선은 해마다 조정되는데 2009년의 경우 연 6,864 유로로 책정되었다⁵.

- 2 MDA의 활동은 크게 작가 간의 직업연대를 위한 협회로서의 사회복지관련활동과 작가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행정적 사회보장제도관련활동으로 나뉜다. AGESEA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으나 작가 간 직업연대협회 활동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명문화되어있기는 함). 두 단체를 통합해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각 예술분야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도 개별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신 예술가 및 예술배급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창구 (공식 웹사이트 : <http://www.secu-artistes-auteurs.fr/>) 를 일원화하여 이해당사자들의 행정 서비스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 3 21,687명의 일드프랑스 거주 등록 예술가들이 신고한 1년 평균 예술활동 소득은 8,290 유로임 (2008년 통계)
- 4 1977년 문화부의 기능을 각 지방으로 분권화하기 위해 생겨나, 지방자치단체들과 문화협력단체들의 주변에서 전문자와 조연자 역할을 담당하며 각 지방의 문화사업 및 활동을 총괄하는 드락 DRAC은 조형미술 뿐 아니라 문화유산, 박물관, 서지류, 서적과 대중 독서, 음악 및 무용, 연극 및 공연, 과학 및 기술 문화 그리고 영화 및 시청각류까지 전반적인 문화범주를 다룬다. DRAC의 주요 활동은 영역 정비와 대중의 확대,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경제육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5 MDA 혹은 AGESEA에 작가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예술적 이윤창출 행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작품 판매 뿐 아니라 예술분야의 교육 강습 등의 활동도 해당된다. 예술소득하한선은 물가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2013년 기준 8,379유로). 예술활동으로 발생한 연간 소득이 하한선을 넘지 못하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작가도 등록 해지가 되는데, 이는 작가의 명성과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등록될 경우 각 예술가는 협회활동을 위해 30유로 수준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예술가 아틀리에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예술창작 수입(revenus artistique)에 대한 세금 혜택, 그리고 예술활동에 대한 경비(frais) 부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N. Siret), 소득 영수증, 소득원천 작품/활동 사진, 판매작품 사진, 전시 카달로그 등 소득을 창출한 전시 및 창작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MDA 혹은 AGESEA가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통보한다. MDA/AGESEA 등록 조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http://www.secu-artistes-auteurs.fr/mda/debuter>

예술가 아틀리에 지원 절차의 예로, 파리 시내의 조형예술가 아틀리에 신청의 경우⁶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원 기간

일정 기간에만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다음 등록 기간은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지원 자격

-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기본거주지를 두고 있으며, 전문적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조형 예술가(화가, 판화가, 조각가, 조형사진가, 비디오작가, 설치 작가 등의 예술가)
- MDA나 AGESEA 등록(affiliation) 혹은 예술속(assujettissement) 작가⁷
- 거주 아틀리에가 아닌 작업 아틀리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자는 반드시 사회주택신청 등록을 해야한다 (<https://www.demande-logement-social.gouv.fr/>) : 이는 건축 공간 관리를 주택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이다.

제출 서류

- 가장 최근의 MDA 혹은 AGESEA 회비 청구 서류 : 해당 연도 회비 미납자도 한 해 전 서류가 있을 시 신청 가능
- 가장 최근의 작품 10-20점의 이미지 : 사이즈, 연도, 기법 등의 정보와 함께. 비디오나 사운드 작품의 경우 AVI 혹은 MOV 파일로 제출
- 예술활동 상세 이력서
- 예술활동전반의 요약서(최대 1장)
- 보도 자료(최대 3개)
- 신청 동기서
- 주거과에 신청을 등록했다는 증명서류
- 신청서류 양식 작성(첨부 참조)

6 http://www.paris.fr/aides-et-subsidations#candidature-a-un-atelier-d-artiste_8

7 요구되는 예술활동 소득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가들은 작가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예술속(assujettissement) 정도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경우 MDA의 작가협회에 가입하여 직업연대활동은 할 수 있으나 예술가를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 및 세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 가장 최근의 세금부과서류(avis d'imposition)
- dac-atelier-artiste@paris.fr 주소로 발송

법적 근거

- 조형예술가 아틀리에 임차인 지정은 1982년 12월 31일 제정된 파리-마르세이유-리옹 법에 근거한다.(해당 3개의 도시의 행정 조직과 관련된 법)
- 이 법 조항의 14조항을 보면 사회주거공간의 임차인 지정에 관한 법을 명시하고 있음
: 시청과 구청 사이의 관계 안에서의 임차인 지정 권리
- 후보 선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 파리 시의 관할 하에 있는 아틀리에의 임차인 1차 선정, 지정, 할당 등의 과정을 거침.

등록

지원서류 작성 및 제출, 접수의 단계. 예술전문위원회 (comite d'expertise artistique)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자의 예술활동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첨부한다. 예술활동에 유의미한 발전이 있었을 경우 3년에 한번씩 새로운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예술전문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명

예술가 아틀리에 하나가 비게 될 때, 주택관련 담당 시장 보좌관에 의해 주재되는 심의회가 신청서류들을 검토, 후보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심의회의 선정에 중요한 기준 사항은(예술전문위원회의 평가를 기초로 한) 후보자의 예술활동, 공식이 된 아틀리에와 작가가 신청하는 아틀리에 형태의 부합 여부, 첫 등록 이후의 대기 기간 및 사회적인 위급성 등이다.

배당

임대기관(HLM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싸인을 받기 전에 선정 작가의 소득이 HLM 입주 소득상한선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배당 대기 시간

예술가들의 아틀리에 신청에 비해 파리 내 조형예술 아틀리에의 수가 매우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대기 시간은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틀리에 교환 신청

타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임대하고 있는 아틀리에를 다른 아틀리에와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아틀리에의 형태

이런 지원 과정을 통해 국공립차원에서 제공하는 예술가 아틀리에 관련 지원의 형태는 크게 분양입주지원과 공사 지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다시 거주 아틀리에와 작업 아틀리에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1) 거주 아틀리에 (atelier de logement)

작업 공간인 아틀리에와 거주 공간을 결합한 이 형태의 아틀리에에는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과 함께 최소의 거주생활조건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주거 아틀리에 지원은 프랑스 국적자 뿐 아니라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예술가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파리를 국제적 예술활동의 중심지로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수많은 예술가들이 뉴욕에 자리를 잡으면서 파리의 예술적 입지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고, 이에 정책적으로 각국의 예술가들을 파리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게 하여 예술적 중심지로서의 파리의 위상을 되찾고자 하는 의도가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거주 아틀리에 입주 지원은 원래 예술가가 작업활동과 생활 기반을 잡는 것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일정 기간 이후 입주작가가 자발적으로 다른 곳에 정착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대기하고 있는 작가들을 위한 아틀리에 로테이션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특히 파리의 경우 세계적으로 월등히 높은 물가 수준과 임대료가 작가들이 자립하는데 매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게다가 거주 아틀리에의 계약 조건 자체는 종료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tacite reconduction)을 원칙으로 하므로 실질적으로 한번 아틀리에에 입주하게 된 경우 (원하는 경우) 평생 해당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주 아틀리에에는 작가의 기초생활의 거주 문제와 창작공간을 동시에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반

면, 사생활과 업무의 공간적 영역이 중복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형태의 복합 공간에서 가족과의 생활과 예술가의 작업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거주 아틀리에에는 독채 형식으로 건축되어 분양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일반 임대 아파트의 최상층 같은 공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형 작품을 제작, 운송해야 하는 경우에 애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거주 아틀리에 배당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평가의 범주와 관련되는 예술적인 선택 기준(예술작업의 수준, 예술성 등), 소득 수준의 기준(너무 낮아도 높아도 안됨. 최소한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함), 조형작업과 해당 아틀리에 구조의 상관성(ex. 대형 조각 작업의 경우 천장이 높아야 하는 등의 조건), 예술가 가족의 수와 아틀리에 크기의 상관성⁸ 등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문제는 실제로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2) 작업 아틀리에 (atelier de travail)

거주 환경 없이 예술 작업만을 위한 공간을 작업 아틀리에라 칭하며, 이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베르트랑 들라노에 전 파리 시장은 본인의 1기 임기 때 부터 거주 아틀리에 보다 작업 아틀리에를 장려하는 정책을 발전시켰으며, 이에 따라 2008년을 전후하여 파리 시의 거주 아틀리에 신축사업은 거의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 역시 부동산 위기 및 경제 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거주 아틀리에에서 일상생활과 작업환경이 섞일 수 있는 것과 달리 작업 아틀리에에는 오로지 예술창작활동의 전문직업적인 집중도를 높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작가가 저렴하게 책정된 아틀리에 임대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 공간의 임대료와 작업 공간의 임대료를 별도로 중복해서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예술가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작가들이 창작활동 이외의 생계형 직업을 가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작업 아틀리에가 작가의 거주공간 인근에 얻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므로 작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기 쉽다. 이에 편법적으로 작업 아틀리에를 불법 개조하여 거주하며 사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8 David Langlois-Mallet, L'aide aux ateliers d'artistes : problématiques individuelles, solutions collectives? De l'atelier-logement à l'atelier-bureau, Région Ile-de-France, Paris, mai 2008. P. 27.

3) 기타 아틀리에 관련 지원

프랑스 예술가 아틀리에 지원 정책은 단순한 작업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예술 창작의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범주 내에서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준비된 아틀리에에 입주하는 형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 스스로 아틀리에 건축 공사를 하는 경우, 혹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공간 및 기존 아틀리에의 수리 등의 지원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작업 공간의 상태, 변경을 희망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 사항, 예산 상세 내역 및 (지원 받은 이후) 공사완료 리포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사 지원의 경우, 각 지역의 부동산 및 실생활 물가를 고려하여 지원금이 책정된다⁹.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창작을 위한 기계 구입 지원도 가능하다. 이는 판화 프레스에서부터 비디오 작업을 위한 비디오 관련 기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프랑스 아틀리에 지원 정책의 주요 문제점

전술한 바와 같이, 수요불균형 상황이 조형예술가 아틀리에 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파리의 경우, 현재 존재하는 모든 아틀리에가 점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의 이사, 사망 등의 사유로 기존 입차 예술가가 아틀리에를 비우는 경우에만 새로운 신청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조금 더 자세한 수치로 파리 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주거 임대사업기관(parc social)이 보유하고 있는 파리의 예술가 아틀리에 숫자는 1,500에서 1,600 개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파리에서 조형예술가 아틀리에를 신청,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500 여명, DRAC에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600 여명인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재의 아틀리에 할당 리듬으로 본다면 평균 34년을 기다려야 파리에서 아틀리에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¹⁰. 이론적으로는 배당받아 보유하고 있는 아틀리에의 교환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러한 극심한 수요불균형 상황에서 실제로는 거의 어려운 일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다.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아틀리에 정책 전반이 물리적 주거 공간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아틀리에를 배정 받는 동시에 모든 운영의 관련 사항들이 문화정책분야에서 거주정책분야로

9 예를 들어 같은 일드프랑스 지방이라고 해도 지역에 따라 6,860 유로에서 9,147유로까지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다.
(연 보조금 기준)

10 Idem, p. 2.

넘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후자는 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낮으므로 예술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원활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몇몇 참고 수치

- DRAC 일드프랑스가 2007년에 배당한 아틀리에 숫자 : 16
 - 파리에서 1년에 비워지는 거주 아틀리에의 평균 수 : 14
 - 파리 시가 1년에 배당하는 아틀리에의 평균 수 (2001년부터 2008년 사이) : 46
-

예술가 아틀리에 건축은 주로 저렴한 월세 거주 공간 HLM(logement d'habitation à loyer modéré, 이하 HLM)¹¹과 연관되어 있다. 이 HLM이라는 주거 형태는 일정의 공공재정지원을 받는 거주형태로, 임대사업자는 직접 지원금의 형태 혹은 신용대출, 세금감면 등의 국가의 간접적 지원을 받게 된다. HLM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 중 제 1의 선정 기준은 소득수준의 상한선이다. 그러나 소득이 너무 낮은 경우 또한 분양을 받지 못한다. 즉,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제시하는 대신 이를 반드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HLM로 구분되는 조형예술가 아틀리에 신청 자격 역시 기본적으로 MDA와 AGESEA 등록 작가들을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너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작가들도 아틀리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반대로 최저생계소득자(RSA : Revenu de Solidarite Active)에 해당되는 작가들 역시 아틀리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작가의 예술활동 자체 보다 아틀리에 신청 작가의 소득 수준이 해당 임대료를 낼 수준이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아틀리에 분양에서 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 등의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예술가에게 아틀리에 분양의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다. 실제로 예술교사이지만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가 아닌 경우도 다수인 상황에서 진짜 예술가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술활동의 수입소득을 아틀리에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예술가 지원에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동시에 예술가의 창

11 이러한 대중을 위한 거주 대책 정책은 1894년 11월 30일 제정된 지그프리트 법(loi Siegfried du 30 novembre 1894)이 만든 아쉬베엘(HBM : Habitations à Bon Marché)으로 거슬러 올라감 : 대중적인 임대료 및 세금 면제 혜택. 1945년 이전에 건강부(ministère de la Santé, 우리 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 에 소속되어있던 이 HBM 업무가 도시재건부(ministère de la Reconstruction et de l'Urbanisme)로 이관되면서 HLM으로 변화된 것이다.

작활동을 전문직업활동으로, 즉 예술가를 사회를 구성하는 노동자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므로 쉽게 이를 수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예술활동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없이 단순 경제 논리로 아틀리에 지원 정책에 접근하게 되면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은 항상 예의주시해야 하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지원을 했으니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논리는 조형예술에서 백프로 통용되기 어렵다. 예술의 분야는 수학 공식 처럼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의 이윤이 창출된다는 식의 계산이 불가능한 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지원이 지속되어 왔으나, 프랑스에서도 정권의 교체 등과 함께 이러한 관점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정책의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아틀리에 개념의 대두 : 자발적인 문제 해결의 움직임과 공공기관의 보조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예술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되었다. 일정한 아틀리에에서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대신 각 예술기관들이 제공하는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젝트를 전전하는 방식을 대안적으로 선택하는 작가들도 있다. 많은 작가들은 더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공공 아틀리에 지원을 기다리기 보다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룹이나 협회를 조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La Fonderie, La Petite Rockette, Arts Cloche, Cité des Arts Montmartres, La Générale, Les Frigos, Arkane, Le Caes, Le Laboratoire, Les Macaq, Le Carosse, Le 104, La Maison des Métallos 등은 이러한 작가들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구성된 그룹 아틀리에의 예이다.

버려진 거주 공간이나 공장 등의 공간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예술 활동을 하는 스쿼트 운동(mouvement squat)은 이러한 그룹 결성의 특징적 활동 중의 하나이다. 스쿼트 아틀리에 활동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공공 단체들의 지원 등 다양한 차원의 개입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과정은 대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스쿼트 예술활동의 기본 정신은 사라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파리 1구 리볼리 가에 위치한 쉐 로베르 엘렉트롱 리브르(Chez Robert Electron Libre)는 그 한 예를 보여준다. 파리 시가 이 건물을 구입하고 건축 안전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공사로 문을 닫는 과정에서 기존의 점거 예술가들을 퇴거 시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예술가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원래 스쿼트 예술의 본질을 흐리고 공권력이 개입하였다는 지적이 일어났다.

파리 7구에 위치한 아틀리에 앙 꼬맹(L'Atelier en Commun)은 대안적인 공공 아틀리에 형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간이다. 예술가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열린 창작 공간인 이 곳은 7구 구청 보조관(conseiller municipal) 프레데릭 드 보부와(Frederic de Beauvoir)와 스쿼트 회화작가 피에르 망쟁(Pierre Mangin)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일드프랑스 뿐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이 아이디어로 공동의 아틀리에 조성이 가능한데, 파리에 문을 연 아틀리에 앙 꼬맹의 경우는 옛 전기공사 EDF의 전기변환소를 조형예술가들의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리노베이션한 공간이다.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은 파리 시가 지원하였고 공사 시공과 관련된 재정은 일드프랑스 지방에서 지원하였다. 이곳은 일드프랑스에 최초로 만들어진 공공 아틀리에로, 예술가 뿐 아니라 창작활동을 원하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창조의 자유를 위한 공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틀리에 앙 꼬맹은 기본적으로 수영장이나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 운영 방식의 원칙을 따라 운영된다. 다시 말해 사용자는 일정의 등록금을 내고 공공 기기로 준비된 작업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열린 공간이므로 한쪽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또다른 한쪽에서는 연극 연습을 하고 또다른 공간에서는 컴퓨터 작업으로 조각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그 옆에서는 음악연습을 하는 등, 다양한 예술 활동 작업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2013년 개관한 이래 현재 좀 더 심도있는 평가가 필요하지만, 현재 25퍼센트 정도의 사용자가 아틀리에 작업을 이미 다른 곳에서 하면서 좀 더 큰 사이즈 작업의 필요성 때문에 오는 경우, 파트타임으로 작업활동을 하는 최저생계소득자 범주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작가들이 50퍼센트, 취미나 여가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 25퍼센트 정도로 사용자 범주가 나누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아틀리에 컨셉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형태는 아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작가의 아틀리에에는 최소한의 개인 프라이버시와 작가 고유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독립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사무실 아틀리에의 개념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요약 및 결론

예술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프랑스 역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 및 부동산 위기에 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막대한 공적 자금 기반을 요구하는 기

존의 예술가 아틀리에 지원 정책은 변화를 맞고 있다. 파리 시 같은 경우를 볼 때 이미 거주 아틀리에 지원은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경우가 되었으며, 작업 아틀리에 임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지 오래되었다. 전술한대로 이는 아틀리에 지원 정책이 시작된 문화예술정책이 공간적인 문제와 맞물리면서 거주지원정책의 범주로 넘어간 것에서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예술가들은 스쿼트 운동 등 빈 공간을 불법으로 점거해서 아틀리에로 사용하는 등 다양하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아틀리에 공간 부족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해결책을 스스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공간에 집중하기 보다 집단적으로 공동의 장소를 사무실과 같이 사용하자는 공동 아틀리에의 개념이 대두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등의 공적 차원에서 예술가를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전문직업인으로 인정하고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 실행하고 있는 점은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정책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정부 등 국공립기관이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정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움직임과 공적 단체의 지원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어 한국적 현실에 맞는 아틀리에 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 참고문헌

- 파리 시 조형예술가 아틀리에 신청 정보 :
http://www.paris.fr/aides-et-subventions#candidature-a-un-atelier-d-artiste_8
- 다비드 랑글루와-말레, 예술가 아틀리에 지원 : 개인적 문제, 집단적 해결? 아틀리에-아파트에서 아틀리에-사무실까지, 일드프랑스지방 보고서, 파리, 2008년 5월 (David Langlois-Mallet, L'aide aux ateliers d'artistes : problématiques individuelles, solutions collectives ? De l'atelier-logement à l'atelier-bureau, Région Ile-de-France, Paris, mai 2008.)
- 장피에르 브리고디오, 파리의 조형예술가 아틀리에, 라 르뷔 드 테헤란, 통권 120호, 2015년 11월호 (Jean-Pierre Brigaudiot, Les ateliers des artistes plasticiens a Paris, N 120, novembre 2015)

- 첨부 문서 : 파리 시 예술가 아틀리에 신청 양식
- MDA 소속 조형예술가 현황 통계 자료 :
<http://www.lamaisondesartistes.fr/site/combien-y-a-t-il-dartistes-professionnels-en-france/>
- 아틀리에 영 꼬맹 웹사이트 : <http://www.atelierencommunconcept.fr/>

Presentation 3

Policy to Support Artist Ateliers in France

: Residence-type ateliers and
workshop-type ateliers and the
emergence of atelier of new concept

Park, Ji Eun

PhDs in Museum Studies, Lecturer, Graduated
Schoo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Université
Paris-Sorbonne

Introduction

When it comes to the policy to support artist ateliers in France, the notion that an atelier is seen as a prerequisite for artistic and creative activities has been the basis for culture and arts historically. Although artists are perceived as those in a profession in blind spots of social welfare under the current arts support policy of the country, the image of a poor and struggling artist who works at a cold atelier for true arts began to emerge from the mid 19th century, not that long ago. Previously, artist ateliers were not only a space of creation, but also a place of socializing and discussion combined with a salon in some cases. They were usually the private space owned by the artist. That is, many artists were rich enough in those days. In order to tackle the artist atelier policy of a society, it is essential to see first

how the society defines an artist. As a matter of fact, the term artist is vague in terms of general definition, often seen as an exclusive concept. Defining an artist often leads to the discussion about the opposite: 'What is not an artist' or 'what is not art?' It is also true that the boundary between arts as a hobby and arts as a profession is obscure. Furthermore, contemporary arts have become diversified and taken multi-genre formats over time, making defining and assessing artistic activities grow harder.

No matter how arts and artists are defined concretely, the awareness about artists as a professional worker is at the core of the French artist support policy covering assistance for artist ateliers. The awareness is a starting point for the discussion of the issues regarding welfare and support for artists as a member of a society. Given the nature of art works, especially in plastic arts¹, there is no regular salary, so artists cannot expect to earn money to certain levels structurally as in other professions. In this respect, social support for artists may be considered fair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fession. In other words, on the basis of the perspective that sees artists as a professional worker who is part of the society, artist ateliers are regarded as a professional (professionnel) and social space in France. Consequently, it seems that the atelier support policy covers support for a specific professional field of art work and welfare for the socially marginalized professions.

1 In France, the term plastic arts (arts plastiques) is a term for works of art created with mainly physical materials at a certain space such as painting and sculpture that was used to exclude the narrower definition of 'beauty' as in its predecessor 'beaux-arts' meaning fine arts. Afterwards, in order to emphasize visual elements of art works and since video, computer and cinematic techniques were adopted into the realm of contemporary arts, the term visual arts (arts visuels) was coined and began to be spread mainly in the Anglo-American countries. This term was introduced to France as well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of France since decades ago, but it could not substitute the existing term plastic arts as critics pointed out that the term visual arts is not appropriate considering that contemporary arts involve multi-sensory and multi-genre processes covering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For example, the term 'visual artist' is rarely used in France, and still, a plastic artist is widely used to refer to an artist and a teacher of plastic arts (professeur d'arts plastiques) to a teacher.

Particularly in France, plastic artists appear to be in insecure position, compared to artists of other disciplines. Whereas a social security system (the intermittents du spectacle system) is well established and in place for performing artists considering unique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field, plastic artists fall into a liberal profession (profession libérale) category and are under the general social security system. In reality, however, they are in extremely disadvantageous condition defying comparison in light of income level and social status, unlike workers in other liberal professions such as architects, doctors, and lawyers. Moreover, performing artists are often working as part of a theater company, but plastic artists work independently in most cases,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voice as a group. As they work individually as mentioned above, support and aid from established institutions like art museums or galleries in the field of fine arts are concentrated on a small number of elite artists, with ordinary artists without fame being discriminated relatively in many ways including opportunities of presentation and support.

Classification	Artist - Author (artiste-auteur)	Live and recorded performance artists and technicians (artiste et technicien du spectacle vivant et enregistré)
Discipline	Painter, sculptor, songwriter, choreographer, photographer, etc.	Dancer, movie director, vocalist, play actor/actress, TV PD, stage artist, etc.
Source of income	Copyright (droit d'auteur)	Salary (salaire): hired for salary
Special social security benef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tirement (basic) Social support Vocational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employment benefits: Intermittents du spectacle system Retirement (basic + supplementary)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MUTUELLE Social support (action sociale) Vocational education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social security	AGESSA, MDA (basic retirement pension, basic medical and social support), AFDAS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AUDIENS (supplementary retirement insurance,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and social support) AFDAS (Vocational education)

<Classification of Social Security Schemes for Artists in France>

In this situation, two organizations playing a pivotal role in the social security for plastic artists are the La Maison des Artistes (MDA) and the Association pour la

Gestion de la Sécurité Sociale des Auteurs (AGESSA). Founded in 1952 as a self-help association of artists for professional solidarity (solidarite professionnelle), the MDA, certified and agreed (agrement) by the state in 1975 through a joint manifestation of visual and plastic artists, has managed social welfare and insurance affairs of plastic artists to date. The AGESSA, instituted for writers, screenwriters, novelists, and photographers afterwards, serves to play a similar role in the relevant areas.²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present data of plastic artists officially released by the authorities in France. According to the 2009 statistics, the number of plastic artists registered with the MDA and living in France was 48,536 nationwide. Among them, 23,682 lived in the Ile-de-France region where Paris belongs, 60% of which lived in Paris.³ However, taking into account the number of artists without an MDA membership, the number of plastic artists in the Ile-de-France region is estimated to amount to 30,000 to 40,000. This data indicates the concentration of artists in Paris, which tells about the identity of the city as an arts capital.

This study seeks to address the French artist atelier support policy, with a focus on the Ile-de-France region embracing Paris. Despite the need for a comparison relying on accurate figures, the study is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at Korea is in similar situations where many opportunities of artistic activities and presentations exist mostly in and around Seoul.

2 The MDA has a twofold mission; as an association for professional solidarity among artists, it serves firstly for social welfare issues and secondly for issues of the administrative social security system that provides insurance coverage for artists. Although providing administrative services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the AGESSA does not work for professional solidarity among authors in real terms (even if stipulated). Some claimed that the two organizations should be combined, but due to call for differentiated services tailored to the needs of all sectors of arts, they operate independently at present. Instead, there is a single channel accessible by artists and distributors (<http://www.secu-artistes-auteurs.fr/>) that pursues to provide better services to stakeholders.

3 The average annual income from artistic activities declared by 21,687 registered artists living in the Ile-de-France region is 8,290 euros (in 2008).

Application process: eligibility and registration

In general, matters related to artist atelier aid and support are managed by the city authorities in large cities like Paris and by the Direction re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DRAC)⁴, a local government ministry of culture, and following the initial application for support, artists must update their application documents every year or at least every three years in order to keep their application effective. Basically, the foremost requirement of the financial aid for atelier and artistic creation is a certificate of the MDA or AGESEA registration. Besides, any artist in pursuit for the aid must submit dossiers like taxation certificate, income declaration, CV, portfolio, and bank account. Artists cannot join the MDA or AGESEA simply because they want to, but they have to prove that they are a professional artist by meeting the minimum income standard set by each organization, which is adjusted annually and was 6,864 euros in 2009.⁵

As to the artist atelier support procedures, take the following application process for ateliers of plastic artists in Paris⁶ as an example.

Application period

Applications can be filed only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next application period is from December 1, 2016 to January 31, 2017.)

Eligibility

- Any plastic artists (artists including painters, engravers, plastic photographers, video artists, and installation artists) legitimately living in France and having the ability to prove his/her professional artistic activities.
- Artists with an MDA or AGESEA registration (affiliation) or assignment (assujettissement).⁷
- Even in case of applying for a workshop-type atelier, not a residence-type atelier, the applicant must register a social housing application (<https://www.demande-logement-social.gouv.fr/>): it is a general requirement as building space

is managed by the Ministry of Territorial Equality and Housing of France.

Required documents

- Most recent MDA or AGESEA membership fee invoice: Those who did not pay membership fees for the year can apply with the invoice for the previous year.
- Images of 10-20 pieces of the latest art works: with information on sizes, years, and techniques. For videos or sounds, submit in AVI or MOV files.
- Detailed CV of artistic activities.
- Summary of overall artistic activities (up to one sheet).
- Press releases (up to 3 articles)
- Letter of Motivation for Application
- Proof of applying for housing to the housing department.

-
- 4 Founded in 1977 as a move of decentralizing functions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and in charge of cultural projects and activities in local communities as an expert and advisor for local governments and cultural cooperation bodies, DRACs are engaged in all sectors of culture ranging from plastic arts, cultural heritages, museums, bibliographies, books and public reading, music and dance, drama and performance, and science and technology culture to film and audiovisual. Major operations of DRACs may be categorized into area reorganization and public expansion,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and cultivation of culture and economy.
- 5 To obtain an MDA or AGESEA membership, artists must prove a certain level of artistic revenues from not only the sale of art works but also from teaching in art sectors. The minimum annual artistic revenue changes annually in consideration of price fluctuations (8,379 euros in 2013). If such requirement for minimum annual artistic revenue is not met, the membership of an artist, even if already registered, is nullified, in regardless of fame of the artist. Once registered, each artist must pay annual membership fee of 30 euro for association activities, which makes him/her eligible to apply for the artist atelier support and entitled to taxation benefits for artistic revenues (revenus artistique) and exemption for expenses of artistic activities (frais). The registration requires submissions of documentary proofs about exhibitions and creations resulting in revenues, including business registration No. (N. Siret), payment receipts, photos of artworks/activities as a source of income, photos of works sold, and exhibition catalogues. The MDA or AGESEA reviews these documents and notifies about the decision on registration. For more information on the requirements for the MDA/AGESEA registration, see <http://www.secu-artistes-auteurs.fr/mda/debuter>.
- 6 http://www.paris.fr/aides-et-subventions#candidature-a-un-atelier-d-artiste_8.
- 7 If failing to meet the minimum revenue requirement, the artist may be awarded a qualification to be on the list of artists, that is, 'assignment' (assujettissement), in which case he or she can take part in professional solidarity activities as a member of the artists association at the MDA, but is not eligible for special social security and taxation benefits for artists.

- Completed application form (see the Exhibit)
- Most recent taxation documents (avis d'imposition)
- Send to dac-atelier-artiste@paris.fr.

Legal grounds

- Tenants of ateliers for plastic artists are chosen in accordance of the Paris -Marseille-Lyon law enacted on December 31, 1982 (concerning administrative structures for the three cities).
- Article 14 of this law provides for the designation of tenants of social living space: the authority of designating tena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ty hall and the arrondissement office.
- Candidate tenants are selected in many stages: initial screening of tenants for ateliers under the control of Paris followed by designation and allocation stages.

Registration

Completion, submission and filing of application documents: The artistic expert committee (Comite d'expertise artistique) reviews application documents and provides expert opinions regarding artistic activities of the applicant. If there are significant progress in artistic activities, renewed applications can be submitted every three years for re-deliberation of the committee.

Selection

If there is a vacant atelier, a review board meeting presided over by the housing advisor to the mayor is held to review application documents and select candidates. Among the most important criteria for the selection at this meeting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artistic expert committee) are artistic activities of the candidate, match of the vacant atelier to the type of atelier that the artist is applying for, waiting period since the initial application, and social urgency.

Allocation

Before signing a contract, the lessor organization (HLM contractor) finally determines if income of the artist meets the requirement on the maximum income level for HLM residency.

Waiting time

Given that the number of ateliers for plastic artists in Paris falls short of applications for atelier made by artists in number, it is hard to estimate waiting time on average.

Application for change of Atelier

In case of wishing to exchange any leased atelier for other atelier due to a justifiable reason, artists must submit a new application.

Types of Atelier

Support for artist ateliers provided in such process at a national and public level consists of sale and residency assistance and building assistance, and the former is further divided into two areas: residence-type atelier and workshop-type atelier.

1) Residence-type atelier (atelier de logement)

Ateliers of this type combine work space and living space and are intended to provide the least possible residential and living condition for artists as well as a space for creation. Not to mention nationals of France, foreign artists living in the country legally can benefit from this residence-type atelier support, which is considered as a drive to make Paris remain a global artistic center. Around and after the World War II, many artists began to flock in New York, resulting in the decrease in the importance of Paris at the arts scenes. Consequently, this policy of France reflects

the aspiration to restore the status of Paris as an artistic capital by allowing artists from around the globe to live in the city for a long time.

Since the residence-type atelier support aimed to help artists secure work space as well as residence, the goal was to help the artists voluntarily find other place to live sometime later. However, skyrocketing real estate prices made it impossible for them to move to other places in reality, which in turn caused the rotation of ateliers for artists on the waiting list to be unlikely. Particularly in Paris, prices and rentals higher than any other areas in the world have become biggest obstacles to artists who struggle to live on their own. Furthermore, the residence atelier contract itself allows implicit renewal without any specific expiry (*tacite reconduction*), in principle, and therefore, once moving in the atelier, the artist can live there for good (if they want to), as a matter of fact.

Nevertheless, a residence-type atelier entails the issue of overlapping private space and workshop, despite its advantage of providing housing and work space at the same time. In a multi-functional space of this kind, it is not easy to separate space for life with the family and space for creation. Also this type of atelier is scarcely built and sold as an independent building, but usually located at the top floor of common rental apartment, making it hard to produce and move a large scale art work.

At present, to be allocated a residence-type atelier, an artist must meet four criteria: artistic standard relative to the category of professional evaluation (level of art work, artistic value, etc.), income level (not too low or high, at least able to pay for rentals on a regular basis), connection between creative work and structures of the atelier (e.g. large-scale sculptures require high ceiling),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of the artist and the size of the atelier.⁸ The

8 David Langlois-Mallet, *L'aide aux ateliers d'artistes : problématiques individuelles, solutions collectives?* De l'atelier-logement à l'atelier-bureau, Région Ile-de-France, Paris, mai 2008. P. 27.

problem is that all of these four criteria are very hard to meet at the same time in reality.

2) Workshop-type atelier (atelier de travail)

Workshop ateliers refer to a space for creation only without living space, allocated to individuals. Former mayor of Paris Bertrand Delanoe implemented a policy fostering workshop-type ateliers rather than residence-type ones from his first term. As a result, around from 2008, construction of residence-type ateliers almost came to a halt in Paris. Such change in policy seems to be related to a real estate crisis and economic crisis.

Unlike residence-type ateliers where living and work may be mixed up, workshop-type ateliers are advantageous for artists by helping them get focused on creation. However, despite benefits from affordable rental fees, artists have to pay both for separate residence and for the atelier, facing growing financial burden, as some point out. Also, considering that most artists have a job for living other than artistic creation,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y can find a workshop-type atelier nearby their residence, resulting in situations adverse to their work. This makes some artists alter a workshop-type atelier for living and work against laws.

3) Other atelier support programs

The French artist atelier support policy is intended for comprehensive artistic activities, beyond simply providing support for work space. Under this policy, artists may move into an established atelier, or they can construct a new atelier or renovate the existing private space or atelier with the subsidies, for instance. To apply for such aid, applicants have to submit a description about the current work space condition and details of structures they want to alter, a budget plan in detail, and a construction completion report (after receiving support). When it comes to

construction support, funding is granted with consideration for real estate prices and living expenses in the community.⁹ In this context, financial assistance for the purchase of equipment for creation is possible in a wide range of items ranging from printing press to video art equipment.

Problems with the atelier support policy of France.

As discussed above, unbalanced demand and supply is emerging as the biggest problem with the plastic artist atelier support programs. In Paris, all the ateliers are considered to be occupied now, and only in cases where existing tenants vacate due to relocation to other region or death, new applications are received. According to more accurate data, the number of artist ateliers held by public housing rental agencies (parc social) for the low-income class in Paris is around 1,500 to 1,600. Given that currently in Paris, over 500 plastic artists applied for an atelier and remain on the waiting list, and more than 600 are waiting after filing an application to the DRAC, one can be allocated an atelier in Paris after waiting 34 years on average under the current pace of atelier allocation.¹⁰ Theoretically, application for exchange of an already allocated and occupied atelier is plausible, but it seems almost impossible in the midst of such serious im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Another problem is that as the atelier policy at large involves physical living space, all operational issues are transferred from cultural policy division to housing policy division upon atelier allocated. Some raise that due to a lower level of expertise in and understanding on arts, the latter may lack in understanding on the situations artists face and therefore seamless management is unlikely.

⁹ For example, even in the Ile-de-France region, the amounts of subsidies vary by area in the range from 6,860 euros to 9,147 euros (based on annual subsidies).

¹⁰ Idem, p. 2.

Related facts and figures

- No of ateliers allocated by the DRAC in the Ile-de-France region in 2007: 16
 - Average ateliers vacated a year in Paris: 14
 - Average ateliers allocated by the City of Paris a year (2001 to 2008): 46
-

Construction of artist ateliers is mainly associated with HLM (logement d'habitation à loyer modéré, HLM), housing at affordable rentals¹¹. The HLM is a form of housing under the financial aid from the public sector, and lease companies are entitled to direct subsidies or indirect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ncluding loan and tax exemption.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for tenants of the HLM is the maximum income level. Nevertheless, those whose income is too small are excluded for consideration. This means that tenants must have an income high enough to pay for the rental fees, no matter how low they are.

Accordingly, also in terms of eligibility for the application for plastic artist atelier classified by the HLM, preferences are given to artists registered with the MDA or AGESEA. Artists earning too much money cannot benefit from the atelier support, which is true of those making the minimum cost of living (RSA: Revenu de Solidarite Active). In other words, whether or not an artist can afford rental fees with his/her current income may be more important in allocating an atelier. Consequently, priority is given to artists who have a regular income from work as a teacher, etc. Since there are many cases where arts teachers are not an artist currently engaging in creative activities, real artists are excluded from priority. Even though using income from artistic activities as criteria for atelier support and all sorts of artist

11 This public housing policy dates back to the Habitations à Bon Marché (HBM) under the Siegfried law enacted on November 30, 1894 (loi Siegfried du 30 novembre 1894): popular rentals and tax exemption benefits. The HBM affairs managed by the Ministry of Health (ministère de la Santé,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Korea) before 1945 were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Re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ministère de la Reconstruction et de l'Urbanisme) and transformed to HLM.

assistance results in such problem, this practice cannot be changed easily as it is one of the important criteria to see the creative activity of artists as a professional activity, namely, to view artists as a worker constituting a society.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pproaching the atelier support policy simply from economic perspectives without an in-depth understanding on artistic activities would make things worse. The notion that aids should result in visible outcomes in the short term cannot be fully accepted in the field of plastic arts.

Long-term support has been provided continuously considering that in the area of arts, one cannot calculate how much profit can be made from a certain amount of investment as in a mathematics equation. However, in France, perspectives have gradually changed under the new government, leading to shift in the policy.

Emergence of new concept of atelier : drive to seek for solutions voluntarily and aids from the public sector

Against this backdrop, artists themselves began to seek solutions in various ways. Instead of working at the same atelier continuously, some of them opt for undertaking residence projects offered by arts organizations from time to time, as an alternative. Many of them no longer wait for public atelier support, which seems impossible in reality, but build an independent network and shape a group or association. La Fonderie, La Petite Rockette, Arts Cloche, Cité des Arts Montmartres, La Générale, Les Frigos, Arkane, Le Caes, Le Laboratoire, Les Macaq, Le Carosse, Le 104, and La Maison des Métallos are among examples of group ateliers formed voluntarily by artists on their own and currently in operation.

The Squat Movement (mouvement squat) in which artists occupy a deserted hous-

ing or factory for creation without permit is among characteristics of such groups or associations. As the Squat atelier activity began to draw attention, multilateral interventions including aids from public organizations took place. The process has been assessed as positive, but critics said that the spirit underlying the movement disappeared. An example is the Chez Robert Electron Libre on the Rue de Rivoli in the 1st arrondissement of Paris. In the course of closing the building for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building safety regulations following its purchase, the city authorities forced the artists occupying the building to leave, sending in governmental power against the voluntary spirit of the Squat arts as some raised.

The L'Atelier en Commun, an atelier located in the 7th arrondissement of Paris is seen an alternative form of public atelier. Open to the citizens as well as artists, the space was designed after the idea of Frederic de Beauvoir the Conseiller Municipal of the 7th arrondissement of Paris and Squat painter Pierre Mangin. This idea can work in anywhere beyond the Ile-de-France region for the construction of a shared atelier. The L'Atelier en Commun in Paris was opened after renovating an old EDF substation into workshop for plastic artists. The space was purchased with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city authorities of Paris, with construction costs paid by the Ile-de-France Region. It is the first-ever public atelier in the Ile-de-France region and open to artists and anyone who are seeking for a place for creation at a free atmosphere.

The L'Atelier en Commun is run basically under the same principle of operating public facilities like a swimming pool or library. This means that users pay a certain amount of registration fees to use equipment made available. As it is an open space, some people are painting a picture, while others are rehearsing a play, and in somewhere else, computer-aided sculpture projects are underway next to those who are practicing music. In this manner, diverse artistic activities take place here at the same time. Since its foundation in 2013, despite the need of more in-depth analysis of the data, around 25% of the users currently visit for larger scale

art works even though they have other work space, 50% are those making the minimum living cost engaging in creation as a part-timer or artists as an irregular worker, and around 25% visit here for hobby or leisure.

Of course, these ateliers of new concept cannot satisfy all needs because many people still believe that artist ateliers should be an independent place to guarantee the least possible level of privacy and to establish a unique world for the artist. As these conditions seem hard to be met in reality, however, this office-like atelier is accepted as an alternative.

Summary and conclusion

Despite a wide range of support systems in place for artists, France is not an exception from the impacts of the global economic and real estate crisis, leading to a shift in the policy to support ateliers from the existing patterns requiring huge spending of public funds. Especially in Paris, the existing support for residence-type ateliers turned out to be practically inviable and has changed to the rental of workshop-type ateliers since long ago. As mentioned above, this is mainly because the cultural and arts policies as the basis of the atelier support policy were grouped into the category of housing assistance policies, coupled with the issue of space. Artists began to seek solutions to the shortage of ateliers in diversified and voluntary ways as in the Squat movement where artists illegally used abandoned spaces as an atelier. Instead of private workshop, the concept of public ateliers shared by a group of artists as an office emerged in this context.

Despite several problems, policies of France to support artists are of great significance to Korea in that France endeavors to make policies and put them into practice at the level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cognizing artists as a member of the society and as a professional and providing support to them in consideration of their unique status. More importantly, it is noteworthy that the public

sector is more active in providing such support in France today by having national and public organizations including the government at all levels review voluntary activities of artists from professional viewpoints. As shown in policies of the country, Korea should make atelier support policies customized to the reality of Korea by keeping a balance between artists' voluntary moves toward solution and supports from the public sector.

References

-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for plastic artist ateliers in Paris:
http://www.paris.fr/aides-et-subventions#candidature-a-un-atelier-d-artiste_8
- David Langlois-Mallet, Artist Atelier Support: Personal Issue, Collective Solution? Atelier-from Apartment Atelier-to Office, Report on the Ile-de-France Region, Paris, May 2008 (David Langlois-Mallet, L'aide aux ateliers d'artistes: problématiques individuelles, solutions collectives? De l'atelier-logement à l'atelier-bureau, Région Ile-de-France, Paris, mai 2008.)
- Jean-Pierre Brigaudiot, Plastic artist ateliers in Paris, La Revue du Teheran, No. 120, November 2015 (Jean-Pierre Brigaudiot, Les ateliers des artistes plasticiens a Paris, N 120, novembre 2015)
- Exhibit: Application Form for Artist Ateliers in Paris
- Statistics on the MDA-managed plastic artists: <http://www.lamaisondesartistes.fr/site/combien-y-a-t-il-dartistes-professionnels-en-france/>
- L'Atelier en Commun website: <http://www.atelierencommunconcept.fr/>

발제 4

예술인 그리고 그들의 창작공간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교수

1. 2016년 예술인들이 마주한 현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높은 GDP 성장률을 구가하는 나라가 아니다. 2010년대 이후의 성장률은 3.74%로 1990년대의 7.13%, 그리고 2000년대(2008년 이전)의 4.6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 국가의 경제성 장률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국민들의 소득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기 보다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2016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득이 일정한데 비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의식주 비용 중 의류 및 식음료 소비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주거비용-부동산 사용에 대한 임대료는 지난 수년간 폭등하였다. 또한 상권화가 가속화된 지역의 임대료 상승은 어마어마하다. 소득이 정해진 상황 에서 비용-특히, 부동산 비용이 크게 오르는 현실, 과연 예술인의 삶은 어떠할까? 그들의 창작공간은 안녕한가?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예술인이 일 년에 벌어들인 평균 수입은 4,683만원이

다. 그런데 한국의 예술인이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연수입은 1,255만원에 불과하다.¹ 따라서 상당수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이외의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² 이러한 비(非)예술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연평균 1,552만원으로, 예술활동 수입보다도 많다. 하지만, 평균이 아닌 중위값(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예술인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예술인들의 삶을 바라보면 충격 그 자체다. 예술활동 수입 중위값을 분석하면, 미술가 연 0원, 사진가 연 0원, 문학인 연 10만원, 공예인 연 166만원, 무용가 연 300만원에 불과하다. 즉, 2015년 대한민국 미술가 혹은 사진가의 50% 이상이 본인의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봤을 때 2016년 예술인들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낙관하지 않다. 특히 개인 창작공간이 필요한 예술인들은 그들의 낮은 평균 소득을 고려할 때, 약간의 비용 증가(임대료 상승)에도 힘들어 한다.³

예술인들은 부동산 건물 내 공간을 임차하여 창작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예술인 창작공간이 많이 위치한 지역은 빠르게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술인 창작공간은 다른 토지용도-예를 들어, 카페, 레스토랑 혹은 프랜차이즈 가게-와 공간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다. 가령, 예술인 창작공간이 합정 동소재 상가건물 2층에 위치한 경우, 상업화가 진척되면서 거대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1층과 2층을 통으로 임대 하고자, 건물주에게 더 많은 임대료를 제시하며 2층 예술인 창작공간을 내보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예술인 창작공간이라는 토지용도와 상업시설이라는 토지용도간의 경쟁이 발생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이미 서울의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이다. 예술인이 거대 프랜차이즈와 특정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예술인들이 자금력이 풍부한 프랜차이즈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면서 원하는 공간을 점유할 수 있을까?

물론 자금력이 충분한 예술인은 그 자리에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예술인들

-
- 1 예술인의 예술활동 연수입 1,255 만원은 건축가(평균 수입 9,628만원)와 방송인(평균 수입 6,526만원)이 평균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16.3.), 2015 예술인 실태조사, pp.61-62)
 - 2 전체 예술인의 50%가 겸업을 하고 있다. 이들 겸업 예술인의 예술활동 직업 투입 시간은 평균 14.3시간 그리고 예술활동 외 직업에 25.6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Ibid. pp.22-23)
 - 3 전체 예술인 중 개인 창작공간이 없는 응답자가 전체 45.7%였고, 집안에 창작공간 보유가 19.4%, 집 밖 별도 공간에 보유할 경우가 34.9%였다. 전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문화예술분야의 상세한 성격에 따라, 충분히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술가의 경우, 개인 창작공간이 없는 경우가 16.1%, 집안에 있는 경우 31.6%, 집 밖에 있는 경우가 52.2%에 달한다. (Ibid. pp.55-58)

은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지역에 남아 있고자 하면 작업장 규모를 줄여서 지역 내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비슷한 임대료 지불이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쟁은 어쩌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지역에 아무런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 업종이 경쟁으로 인해 도태될 때 반대 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말 예술인들은 지역과 도시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 존재이고, 토지시장 내 경쟁에서 퇴출되어 다른 지역을 유랑하여야 하나?

창의성이 핵심적인 가치가 되어가는 현재, 문화예술산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 창조산업의 근원이 되는 영국의 창조문화산업(Creative and Cultural Industry)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창조산업의 중요성은 창작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시(창조도시)와 이러한 창의 활동을 하는 계급(창조계급)의 중요성으로 연결된다. 즉, 창조산업은 일반적으로 창의성이 높은 노동력에 기반하며, 이들이 활동하는 도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문화산업 범주에 들어가는 문화예술계 종사자와 그들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지 그리고 이들의 활동 근거지가 되는 도시 혹은 도시 내 클러스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예술인 창작공간 클러스터 분포와 시기적 변화

예술인들이 지역에 안착하여 활동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상업화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에서 쫓겨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을 자주 듣는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들이 특정 지역에 위치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회사 혹은 조직들이 특정 지역에 모이는 이유를 도시경제학에서는 집적의 이익(agglomeration economy)을 추구하기 때문으로 본다. 동종산업에 속한 조직들이 집적을 통해 중간재를 공동 사용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노동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식 파급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식 파급효과는 대면 접촉(face-to-face interaction)을 통해서 나타난다.⁴

4 아써 오설리반(2015), “오설리반의 도시경제학”, 박영사

예술인들이 특정 지역에 왜 집적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위에서 나온 편익들은 일정 부분 관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간재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비용을 감소시키는 부분은 임대료 절감을 위해 예술인들이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맥이 통한다. 작업장은 예술인에게 필요한 요소의 하나이기에 공동작업장 사용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면, 예술인들이 공동작업장 소재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들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기 시작하면 이들이 활용하는 다른 중간 재화들을 공동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종 산업 소속 기업이나 사람이 특정 지역에 위치하면서 면대면 접촉(face-to-face contacts), 공존(co-presence), 동일 지역 내 입지(co-location)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와 의사소통을 로컬 버즈(Local Buzz)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로컬 버즈는 집적지역 내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로컬 버즈의 존재는 지역의 참여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데, 리소스 접근 기회를 높이고, 문제 해결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참여자간 신뢰를 증진시킨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⁵

한국의 예술인들이 특정 지역에 집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인들은 기본적으로 개별 작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동 작업을 이유로 특정 지역에 집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이들은 이벤트에 대한 정보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기에 예술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거처를 두고 싶다는 것이다.⁶ 즉, 예술인들은 특정 지역에 집적함으로써 로컬 버즈를 활용하고 있고 그것의 편익을 알고 있다.

예술인들이 도시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이고 이들이 창작공간을 특정 지역에 위치하고자 한다면, 예술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와 시간적 분포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예술인 창작공간 클러스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GIS 기법을 활용하여, 예술인 창작공간이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예술인 창작공간 클러스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서울시 사업체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예술인 그룹을 산업분류상 공예, 디자인서비스, 무대예술, 그리고 순수예술 분야 종사자로 선정하였고, 이들의 작업장 소재지가 세 시점(2006년, 2010년, 2014년)에 어떻게 시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5 Bathelt, H., Malmberg, A., & Maskell, P.(2004), Clusters and knowledge: local buzz, global pipelines and the process of knowledge cre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8(1), 31-56

6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운영진 인터뷰(2016.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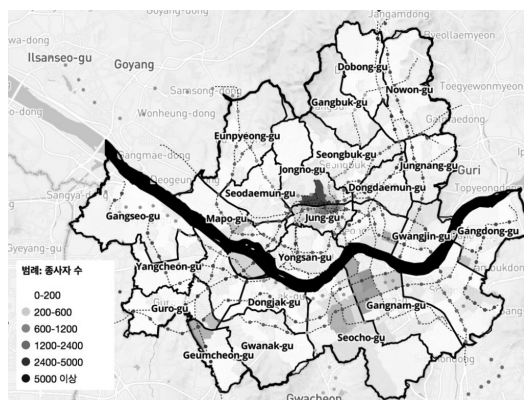


그림 1 예술/창작 관련 사업체 종사자 수
출처: 2006 서울시 사업체조사결과 자료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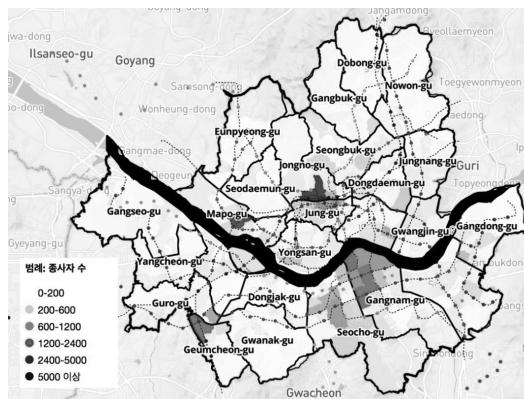


그림 2 예술/창작 관련 사업체 종사자 수
출처: 2010 서울시 사업체조사결과 자료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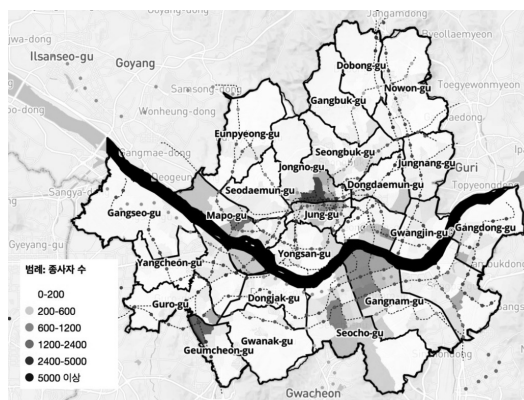


그림 3 예술/창작 관련 사업체 종사자 수
출처: 2014 서울시 사업체조사결과 자료 재가공

위 세 지도는 여러 함의를 보여준다. 첫째, 예술인들이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밀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도를 통해서 크게 네 권역(종로CBD권역과 마포/홍대권역, 강남권역, 구로가산권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한 권역에서 상업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 해당 권역의 공간적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마포/홍대권역의 경우, 2006년만 하더라도 작업장들이 홍익대학교 인근에 모여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접한 상수동, 망원동, 연남동 등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셋째, 새로운 예술인 창작공간 클러스터의 출현이다. 성수동을 보면 2006년에는 예술인 작업장의 집적 정도가 크지 않았지만, 2014년에 이르러서 그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업화 젠트리피케이션과 예술인 창작공간

예술인 창작공간 클러스터가 존재하고 클러스터로 인한 편익이 존재함에도, 예술인들은 매우 빠르게 창작공간을 옮기고 있다. 특정 사업주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예술인이 자영업적 상황(self-employed)이다. 따라서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간 이주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가 수월하다. 하지만 한국, 특히 서울지역 예술인의 창작공간 이주는 그 속도 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인 클러스터인 마포/홍대권역 내부에서 가장 선호되는 지역은 홍익대학교 인근이었다. 과거 서교동 ‘호미화방’과 홍익대 구내 ‘한가람 문구센터’ 등 대형 화방이 있었고, 전시장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지하실 및 차고의 임대료 수준은 보증금 30만원에 월세 5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클럽 및 카페, 의류가게들이 지역에 들어서면서 예술인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홍익대학교로부터 상대적으로 떨어진 상수동과 합정동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상수동과 합정동 역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면서, 임대료가 더 저렴한 망원동과 한강을 건너 공장지대가 밀집한 문래동으로 이동하였다.⁷ 근래에는 창작공간들이 또 다시 망원동에서 상수동으로 옮기거나, 신촌 방향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7 조선일보, 2012.7.3., “임대료 치솟은 ‘홍대 앞’ 떠나... 젊은 작업실, 망원 문래동에 둥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02/2012070202936.html?Dep0=twitter&d=2012070202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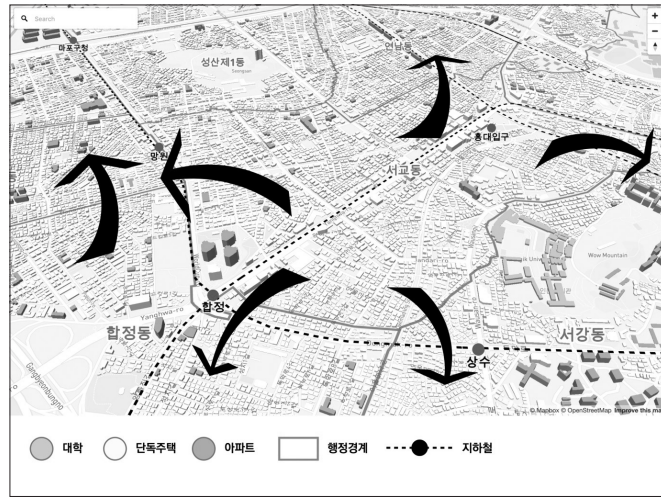


그림 4 홍대앞 일대 예술/창작관련 사업체의 이동경로(2006~2014)

홍익대학교 주변 지역(서교동)과 합정동, 서강동(상수동), 연남동의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 추이를 쉽게 알 수 있다.

행정구역	구분	2006	2010	2014	변화추이
서교동	종사자 수	282	1,564	1,078	↗ ↘
연남동	종사자 수	33	136	129	↗ ↘
합정동	종사자 수	82	144	277	↗ ↗
서강동(상수동)	종사자 수	N/A	74	113	↗

표1 홍대앞 일대 예술/창작관련 사업체 종사자 수 변화

출처: 2014 서울시 사업체 조사 결과 자료 재가공

서교동 지역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예술인 종사자 수가 급증하였으나, 2010년대 이후 나타난 상업화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으로 2014년에는 수가 급감(2010년대비 30%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주변의 연남동과 합정동, 서강동(상수동)이 새롭게 예술인 집적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합정동과 연남동 소재 종사자 수는 꾸준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서강동(상수동)의 경우 2006년 사업체기초통계에 예술인으로 잡힌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나 서서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113명이 되었다. 마포/홍대 예술인 클러스터에서 핵심지역(서교동)의 쇠퇴와 함께, 클러스터가 공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예술인 창작공간의 이동은 상업화 젠트리피케이션과 임대료 인상의 결과이다. 특히 임대료 인상폭이 매우 높아서 예술인 창작공간 혹은 규모가 작은 가게들이 감내하기 힘든 형편이다. 홍대 앞 예술인 사랑방 역할을 했던 ‘이리 카페’는 2004년 월 150만원에 서교동의 한 건물을 사용하였으나, 2009년 건물주가 임대료 2배 인상을 요구하자 상수동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 235만원의 임대료 계약을 하였으나, 5년 뒤 계약시점 대비 61%가 상승한 380만원에 재계약을 해야 했다.⁸

예술인 창작공간이 지역에 긍정적 역할을 함에도 지역에서 쫓겨나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래의 홍대 인근 도로변 토지이용의 변화에서 보듯이 짧은 기간에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2009년 화방이었던 건물이 2011년에는 보세 옷가게로 그리고 2013년에는 중견 의류기업 브랜드 가게로, 2015년에는 재벌 계열 편집숍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예술인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재화공급처가 사라지며 상업화가 진행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자본력을 보유한 조직에 의해 공간이 점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홍대앞 놀이터 인근 건물(서교동 361-21)의 용도 변화 2009 ~ 2015

출처: Daum지도 로드뷰 편집 후 재구성

8 경향비즈, 2016.6.7., ““임대료 횡포 막자” 상수동 상인들 공동교섭 나선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6072221025&code=920202)

대안: 예술인 창작공간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예술인 창작공간은 지역 내 앵커역할을 하면서 지역으로 많은 외부인, 즉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창작공간이 외부인에게 열려있는 경우, 혹은 이들의 창작물이 인근 지역의 다른 장소에서 외부인들에게 보여지거나 판매되는 경우 외부인들은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방문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예술인이 자신의 공방에서 만든 작품/제품을 공방 한 칸에서 판매하고, 미술가가 창작공간 인근에 위치한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접촉 공간의 존재는 많은 외부인의 방문 확률을 증가시킨다.

외부인들이 예술인 클러스터를 방문하는 경우, 이들은 독특한 소비행태를 보여준다. 특정 상권의 특정 가게에서 발생하는 소비행위는 확률(상권을 방문할 확률과 상권 내 특정가게에 방문할 확률)과 연관된다. 도시 내부에 서로 경쟁하는 상권이 있다면, 외부인들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능이 혼재한 상권에 가고자 할 것이다. 예를 들어, A상권에는 대기업 산하 프랜차이즈 가게들로 가득 찼다고 가정하고, B상권은 대기업 산하 프랜차이즈가 전체 30%, 예술인 공방 및 창작공간이 40%, 작지만 아담한 음식점들이 30%를 차지한다고 하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A상권보다는 B상권을 방문하려고 할 것이다. 대기업 산하 프랜차이즈 가게는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에도 있기 때문에 굳이 발품을 팔아 A상권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술인 창작공간이나 공방, 갤러리를 본인 거주 지역 인근에서는 보기 힘들다면, 외부인들은 B상권에 가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외부인이 B상권에 방문하는 경우, 이들의 쇼핑행태는 지역의 앵커가 아닌 다른 시설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예술인 공간에서 쇼핑을 하기 보다는 프랜차이즈 혹은 지역 내 작은 음식점에서 구매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프랜차이즈 및 작은 음식점들의 이윤이 증가한다면 이들 삼자(프랜차이즈, 작은 음식점, 예술인 창작공간) 간 공간 확보를 위한 경쟁에 들어가는데, 결국 승자는 가장 강력한 자본력을 갖춘 프랜차이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실제 발생하면 B상권은 A상권과 비슷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 상권 자체의 매력을 잃고 상권이 후퇴하는 것이다.

상권의 매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예술인 창작공간의 존재는 매우 절실하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서 이들의 거주 및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도 창작공간 지원에 대한 당위성이 존재한다.

이 점에서 보스턴과 런던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보스턴은 시(市) 산하의 재개발청(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을 통해 ‘ArtistSpace Program’(예술인 공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스턴시가 민간 디벨로퍼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이들이 개발 혹은 보유한 건물에 작업공간(Live/Work space와 Work space를 조성)을 조성하고 예술인들이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해당 정책은 2002년부터 실행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28채의 민간 소유건물에서 예술인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Live/Work space(주거와 작업공간이 함께 있는 공간)의 경우 259실이 존재한다.⁹

서울과 같은 거대 도시 런던에는 다양한 조직이 예술인 창작공간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역시 민간조직이다. 해당 조직에는 NGO와 재단 등도 있고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도 있다. 이들은 총 298채 건물에서 11,500실의 예술인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있다.¹⁰ 예술인은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공간을 사용하며, 이 공간들은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 임대료 수입 등을 바탕으로 개발·운영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공간을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 민간에서 예술인 창작공간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이 부분을 담당하려는 것은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공공기관이 직접 공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경우의 한계도 존재한다. 지역민의 민원 발생 가능성 그리고 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예술인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창작공간을 건설할 가능성 등 실제 수요와 동떨어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일이 현실화되면, 장기적으로 해당 공간의 활용도는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입과 별도로, 보스턴과 런던 사례에서처럼 예술인들의 수요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민간조직의 예술인 창작공간 개발·운영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다만 클러스터 확보가 절실하다고 느끼는 민간 디벨로퍼가 적을 수 있기에, 민간 디벨로퍼의 참여를 건인할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예술인 창작공간 개발 의지가 있는 민간 디벨로퍼에게 용적률 인상이나 토지용도변환 등의 도시계획관련 인센티브 혹은 건설비용 일부 보조(금융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미 청년주택 확보를 위해 이러한 인센티브들

9 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 ARTISTSPACE PROGRAM(<http://www.bostonplans.org/housing/artist-space-program/new-existing-artist-properties-in-boston>)

10 Mayor of London(2014), Artists' Workplace Study: Report and Recommendations September 2014, Great London Authority.

이 정책화 되었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예술인 창작공간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역시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인센티브를 받은 민간 디벨로퍼가 예술인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혜택-가령, 적정 수준의 임대료 책정-을 제공하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용적을 인상 특혜를 받아 4층 건물을 6층으로 더 높게 올렸음에도 시장 임대료를 받는다면 이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적정 임대료 수준의 예술인 창작공간 공급)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계량화하여 혜택만큼의 금액을 제한 적정한 임대료(affordable rent)를 책정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술인 창작공간 개발에 금융지원(10년 장기 2% 저리 이자 제공)을 한다고 하자. 시장이자율이 4%라고 가정하고 건물시공비용 5억원에 대해 연 2%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면, 민간 디벨로퍼는 매년 총 1천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
- 시장이자율 4%시, 이자 비용: 2천만원 = 5억원 * 4%
 - 금융지원이자율 2%시, 이자 비용: 1천만원 = 5억원 * 2%
 - 민간 디벨로퍼시 받은 혜택:
1천만원 = 시장이자율(4%) 비용과 금융지원(2%)시 비용간 차이
-

그리고 1천만원의 혜택은 최종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통해서 최종 수요자인 예술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만약 시장 임대료가 3천만원이라고 하면, 디벨로퍼는 인센티브로 인한 혜택(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2천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이 제공되는 경우, 예술인들은 시장 임대료의 66% 수준(시장 임대료는 3천만원이나 인센티브 받은 공간 임대료 2천만원)을 지불하게 되어,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의 인센티브 정책은 예술인 창작공간 공급자(민간 디벨로퍼)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 제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 정책은 공급자에게 지원을 한 후 최종적으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간접적 방식이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는 보다 직접적으로 예술인 창작공간 수요자인 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예술인 창작공간 임대료 바우처의 도입이다.

많은 국가에서 저소득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주거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원하는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데 소득이 낮은 경우, 본인이 지불 가능한 임대료와 시장 임대료의 차이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다. 바우처 제도는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확정된 금액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가격과 지불가능금액의 차이를 지원할 수도 있다.

정책이 지나치게 수혜적이어서는 안되나, 상황이 매우 시급한 경우 다양한 정책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예술인 창작공간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예술인 창작공간 공급자인 민간 디벨로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작공간 임대료 인하효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수요자인 예술인에게 창작공간 임대료 바우처를 제공하여 실질 임대료를 더욱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정책은 예술인 창작공간을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일정부분 가능케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기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수혜자는 반드시 합당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인센티브의 최종 수혜자인 예술인들은 일종의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지역 커뮤니티에 그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예술 교육과 같은 형태로 지역 공헌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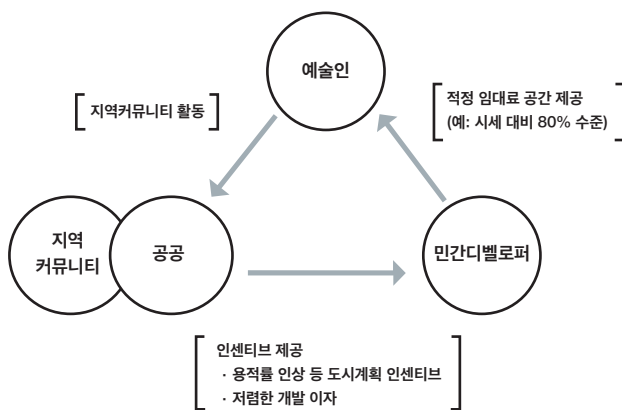


그림 6 예술인 공간 제공에 따른 공공-민간디벨로퍼 간 인센티브 제공 구조

예술인 창작공간 클러스터의 편익이 존재함에도 이들이 지역에서 빠르게 쫓겨나는 현실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예술인 커뮤니티, 정부 그리고 민간 조직들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2006), 서울시 사업체조사결과 정보,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2010), 서울시 사업체조사결과 정보,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2014), 서울시 사업체조사결과 정보, 서울특별시.
- 아씨 오설리반(2015), “오설리반의 도시경제학”, 박영사.
- Bathelt, H., Malmberg, A., & Maskell, P.(2004), Clusters and knowledge: local buzz, global pipelines and the process of knowledge cre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8(1), 31-56.
- Mayor of London(2014), Artists' Workplace Study: Report and Recommendations September 2014, Great London Authority
- 경향비즈(2016.6.7.), ““임대료 횡포 막자” 상수동 상인들 공동교섭 나선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6072221025&code=920202.
- 조선일보(2012.7.3.), “임대료 치솟은 ‘홍대 앞’ 떠나... 젊은 작업실, 망원 문래동에 둥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02/2012070202936.html?Dep0=twitter&d=2012070202936.
- 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 ARTISTSPACE PROGRAM, 2016.11.01., <http://www.bostonplans.org/housing/artistspace-program/new-existing-artist-properties-in-boston>.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 Studio is not a mere property

Presentation 4

Artists and Their Workplace

Kim, Kyung-Min

Professor, Urban and Regional Planning Maj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Current situations faced by artists in 2016

Korea is no longer a country witnessing a high GDP growth rate as before. The nation's growth rate since the 2010s is 3.74%, lower than 7.13% in the 1990s and 4.67% in the 2000s (before 2008). If a country's economic growth rate remains lower than before, incomes of its citizens are more likely to remain at a certain level, rather than rising hugely. This is the situation we are in now in 2016.

The problem is here that despite incomes remaining flat, the minimum cost of living continues to grow. Leaving clothing and food and beverage consumption among the necessities of life aside, housing costs - rents - have skyrocketed in recent years. Furthermore, increase in rent values in areas where commercialization is speeding up defies imagination. In a situation where with incomes being almost the same as before, costs - property values in particular- are rising, what would

artists' life be like? How about their workspace?

A 2015 artist survey has found that the average income of artists per annum is KRW 46,830,000. However, the annual income of Korean artists from artistic practices is only KRW 12,550,000.¹ Therefore, a significant number of the artists have to making living through other economic activities in addition to artistic practice.² Incomes from these non-artistic occupations represent KRW 15,520,000 per year on average, exceeding those from artistic practi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edian income (income of the person in the center when the entire artists are lined up in terms of income), not average, the life of artists is shocking in itself. When it comes to the median of yearly incomes from artistic practice, fine artists earn KRW 0, photographer KRW 0, writers KRW 100,000, craft artists KRW 1,660,000, and dancers KRW 3,000,000 at best. This means that in 2015, more than 50% of fine artists or photographers in Korea as of 2015 had no income from their own artistic practice.

Current situations encountering artists in 2016 are hard enough. Especially, artists in need of personal working place, given their low average income, find it hard to cover even a slight increase in costs (rise in rent).³

Artists rent a space at a building for their work of art, and locations where many artists work spaces are situated have become rapidly commercialized. With com-

1 In a sense, the annual income of artists from artistic practice amounting to KRW 12,550,000 has been raised mainly by architects (average income of KRW 96,280,000) and TV personalities (KRW 65,260,00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6.3.), 2015 Artist Survey, pp. 61-62)

2 50% of the entire artists have other occupations in addition to their artistic practice. Their average input time is 14.3 hours for artistic practice and 25.6 hours for non-artistic occupations. (Ibid. pp.22-23)

3 45.7% of the respondents were found to have no private working space at all, with 19.4% having at their home and 34.9% at a location outside home. Given that the survey was intended for artists as a whole, it seems that there would be a sufficient deviation depending on the segmented nature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industries. For fine artists, 16.1% had no private work space, 31.6% had at home, and 52.2% had outside home.(Ibid. pp.55-58)

mercialization going on, artists' workspaces have to compete for space with other land uses (e.g. cafes, restaurants, or franchise stores). Assume that an artist work space is on the 2nd floor of a commercial building located in Hapjeong-dong. While commercialization in progress, a large-scale franchise coffee shop wants to lease both the 1st and 2nd floors and asks the landlord to force out the artist space on the 2nd floor and sign a contract with them for a higher rent. This is a competition in land use between artist workplace and retail commercial space, which is common in many areas of Seoul today. In competing for space with large franchises, how many artists could win a space for higher rents than offered by the franchises equipped with sufficient funding capability?

Of course, artists, if having enough money, can afford to remain in an area, but otherwise they have to find other solutions. If they still want to work there, they could move to a smaller space in the neighborhood or move to a space in other areas they can afford.

Competition is inevitable in a capitalist economy. In particular, when industries that are unlikely to benefit the community are lost in competition and being forced out, it is hard to raise objections. Then, do artists give no benefits to the community and the city, and do they have to be eliminated from the competition in the land market and keep wandering around to find a working space?

Today, creativity is emerging as a central value, making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As shown in its name, the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y of the UK, a benchmark for Korea's creative industry, stresses the importance of culture and arts. The importance of the creative industries is connected to that of the city (creative city), a home to creative activities, and of the class engaging in such creative activities (creative class). Namely, the creative industries generally rely on highly creative people, and the city they work in is extremely important. Consequently, how to support those engaging in cultural

and artistic businesses grouped into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and their activities and how to boost the city or clusters in the city, home to their practice are among crucial issues to tackle.

2. Distribution of artists' work space clusters and the change over time

We often hear that a group of artists settled down successfully in an area, but soon commercialization forced them to move out. However, there is a very important implication in this situation; artists tend to move from one area to another. This indicates that artists appear to prefer specific neighborhoods over others.

According to urban economics,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gather at a specific location in their quest for agglomeration economy. Through agglomeration, organizations in the same industry can reduce costs by sharing intermediate goods, share labor force, and generate a knowledge dissemination effect, which comes from face-to-face interaction.⁴

Few studies have been made on what makes artists prefer specific locations, but some of the advantages as above may be observed. For example, when it comes to cost-saving by sharing intermediate goods, artists can benefit from using a shared studio. Since artists' workspace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ir practice, if they can save money by sharing a working space, they are more likely to rush into the location where shared work spaces are placed. Once they begin to settle down in a certain area, it is more likely that other intermediate goods will be shared as well.

4 Arthur O'Sullivan (2015), "Urban Economics of O'Sullivan," PARKYOUNGS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companies or people in the same industry at a certain area through face-to-face contacts, co-presence, and co-location is called local buzz. It can be seen as a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network in the location of agglomeration. Local buzz, if established, gives considerable advantages to the participants, such as better access to resources, growing possibility of problem-solving, and enhanced trust among participants, creat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as a result.⁵

Interviews of Korean artists have found that they tend to gather at certain locations. Basically, artists prefer individual works and it is not common that they flock together at a specific place for joint work. Nevertheless, they wanted to work in a place crowded by artists in hopes of collecting information on events and new projects.⁶ This shows that they are making use of local buzz and it benefits by gathering at a certain place.

Given that artists are found to be invaluable to a city and they want to work in a specific area, it is indispensable to gain an understanding 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arts clusters and historical changes in distribution because understanding artists' workspace clusters should be the basis for policy-making. A GIS technique was used to investigate whether artists' workspaces are gathered at specific locations and how these clusters change over time. On the basis of the Seoul Establishment Survey data, artists were grouped into workers in craft practice, design services, stage art, and fine art practices under the industrial classification to examine how locations of their work spaces changed around three points of time (in 2006, 2010 and 2014).

5 Bathelt, H., Malmberg, A., & Maskell, P. (2004), Clusters and knowledge: local buzz, global pipelines and the process of knowledge cre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8(1), 31-56

6 Interview of the Manager at Seoul Art Space Geum Cheon,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Oct 3,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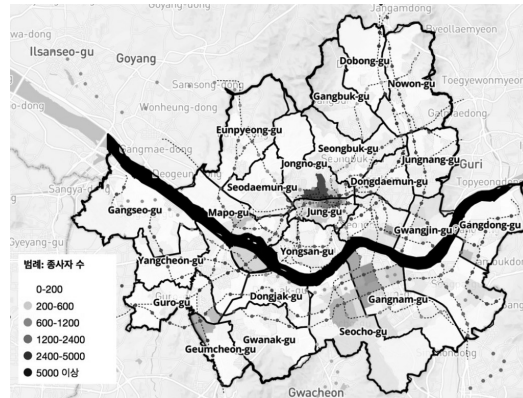


Figure 1. No. of workers in artistic/creative enterprises

Source: Re-processed from the 2006 Seoul Establishment Survey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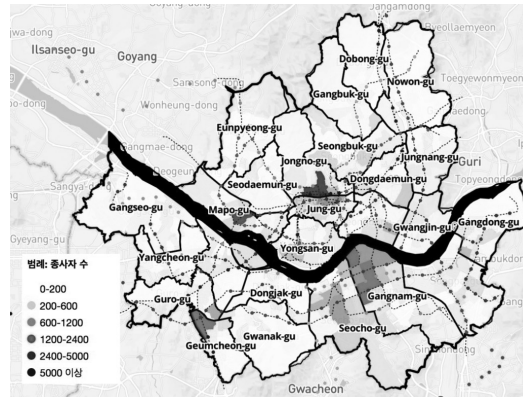


Figure 2. No. of workers in artistic/creative enterprises

Source: Re-processed from the 2010 Seoul Establishment Survey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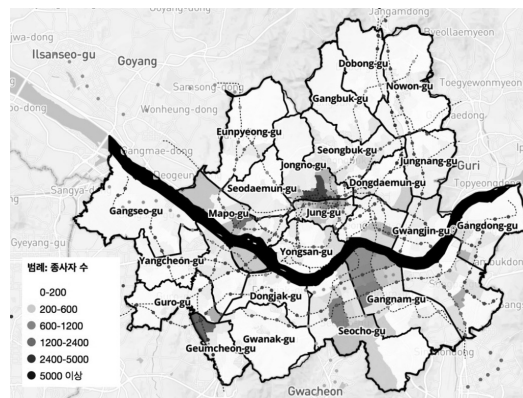


Figure 3. No. of workers in artistic/creative enterprises

Source: Re-processed from the 2014 Seoul Establishment Survey data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 Studio is not a mere property

These three maps have many implications. First, artists tend not to scatter evenly in various locations, but to crowd around specific locations; they are concentrated largely in four districts (Jongno CBD District, Mapo/Hongdae District, Gangnam District and Guro-Gasan District), according to the maps above. Second, commercialization and gentrification in a district widens the spatial range of the district. Taking the Mapo/Hongdae District as an example, they gathered around Hongik University in 2006, but gradually spread to adjacent Sangsu-dong, Mangwon-dong, and Yeonnam-dong. Third, new artists' workspace clusters are appearing. Although the degree of agglomeration was very trivial at Sangsu-dong back in 2006, a growing number of artists' studios were opened in 2014 in this neighborhood.

3. Commercialization and gentrification and artists' workspace

Despite the presence of artists' workspace clusters and their benefits, artists are rapidly moving their workspace. Although some artists may work for an employer, many of them are self-employed in status, which makes it easier for them to make decisions about relocation of the working place than other businesspeople. However, many express concerns about the speed of their movement in Korea, especially in Seoul.

The neighborhoods around Hongik University have been the most preferred locations for artists in the Mapo/Hongdae District as Korea's leading artists' cluster because there were large arts supply shops like 'Ho Mi Whabang' in Seogyo-dong and 'Han Garm Stationery' at Hongik University along with a number of galleries here in the past. Early in the 1990s, basements and garages were rented at around KRW 50,000 per month with a down-payment of KRW 300,000. Since the mid-1990, clubs and cafes, and clothing stores began to come in to these neighborhoods, eventually forcing out artists to Sangsu-dong and Hapjeong-dong areas

more distant from the university in the late 1990s. From the 2010s, Sangsu-dong and Hapjeong-dong also fell under the influence of commercialization and gentrification, causing artists to move to Mangwon-dong where rents were cheaper and Mulla-dong crowded with factories beyond the Han River.⁷ Movements from Mangwon-dong to Sangsu-dong or toward Shinchon have been apparent in recent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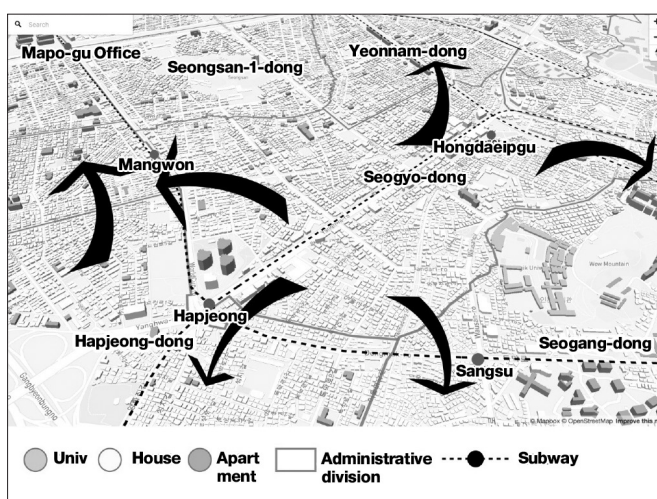


Figure 4. Movement of artistic/creative enterprises around Hongdae area (2006~2014)

The change in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sector in the neighborhood of Hongik University (Seogyo-dong), Hapjeong-dong, Seogang-dong (Sangsu-dong), and Yeonnam-dong provides a clear picture of such movement.

7 Chosun Ilbo, 2012.7.3., 'Soaring rents force young artists to leave 'Hongdae Ap' for Mangwon-dong and Mulla-dong to find a studio.'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02/2012070202936.html?Dep0=twitter&d=2012070202936)

Administrative Division	Category	2006	2010	2014	Change
Seogyo-dong	No. of workers	282	1,564	1,078	↗ ↘
Yeonnam-dong	No. of workers	33	136	129	↗ ↘
Hapjeong-dong	No. of workers	82	144	277	↗ ↗
Seogang-dong (Sangsu-dong)	No. of workers	N/A	74	113	↗

Table 1. Change in the number of workers in artistic/creative enterprises around Hongik University
Source: Re-processed from the 2014 Seoul Establishment Survey data

Artists sharply increased in Seogyo-dong from 2006 to 2010, followed by a rapid decline in number in 2014 as a result of commercialization and gentrification since the 2010s (down 30% from 2010). In contrast, adjacent Yeonnam-dong, Hapjeong-dong, and Seogang-dong (Sangsu-dong) are attracting artists as a new arts hub. The number of artistic practitioners based in Hapjeong-dong and Yeonnam-dong is steadily and quickly increasing. In the case of Seogang-dong (Sangsu-dong), no artist was recorded during the 2006 Seoul Establishment Survey, but the number of artists in the area continued to grow and reached 113 in 2014. These figures imply that with the waning center (Seogyo-dong) of artists' clusters in Mapo/Hongdae area, the Mapo/Hongdae artists' clusters have been spreading spatially.

The moves for artists' workspace are the result of gentrification and hike in rents. Especially, rents are rising too sharply for artists' work spaces or small shops to handle. YRI Café, once served as a meeting spot for artists near Hongik University, rented a space of a building at KRW 1.5 million per month in 2004, but moved to Sangsu-dong in 2009 when the landlord asked for double the rent. The café signed a lease contract for KRW 2.35 million per month with a down-payment of KRW 20

million at first, but 5 years later, the leasehold was renewed at a monthly rent of KRW 3.8 million, up 61% from the initial contract.⁸

Korea is not the only country where artists' workspaces are forced out, despite their positive contributions to the local communities. The problem is, however, that in Korea changes in the land use are happening at too short cycles as shown in the following picture about land use changes on a street in the vicinity of Hongik University. An arts supply shop back in 2009 turned into a clothing shop in 2011, which in turn became a medium-sized fashion brand shop in 2013 and then a select shop of a conglomerate affiliate in 2015. As the result of commercialization, the arts supply shop which had provided goods for artists' clusters disappeared and was replaced by an establishment with the most robust funding capability in Korea in the end.



Figure 5. Change in land use of a building near a playground in the vicinity of Hongik University (at #361-21, Seogyo-dong) 2009 - 2015

Source: Edited and re-organized from Daum Maps Roadview

8 Kyunghyang Biz, 2016.6.7., "In a bid to stop the tyranny of rents" merchants in Sangsu-dong launch joint negotiations"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6072221025&code=920202)

4. Solution: Incentives for artists' workspace providers and occupants

Artists' workspace plays a role in attracting a number of outsiders -tourists- to the town as an anchor of the community. Where their workspaces are open to visitors or product of their creation are displayed or sold to people from outside at a different place in neighboring regions, they might wish to visit the community of the artists for unique experience. For example, an artist may sell artworks/products at a corner of his/her studio or a fine artist may exhibit artworks at a gallery nearby, and the presence of a contact space of this kind is more likely to lure many outsiders to the town.

Visitors to artists' clusters display unique patterns of consumption. Consumption behaviors at a specific store in a specific business district are associated with a probability (that of visiting the business district and that of visiting a specific store in the district). If there are competing business districts across the city, visitors may want to go to the one with a range of interesting features. Assume that while business district A is full of franchise stores operated by large conglomerates, business district B consists of such stores at 30%, artists' ateliers and workspaces at 40%, and small but cozy restaurants at 30%. Generally speaking, people want to visit B instead of A. Since franchise stores of large conglomerates can be found easily anywhere in their communities, they would hardly bother to visit A. However, if it is hard to find an artists' workspace, atelier or gallery in their community, visitors would go to business district B.

By the way, once outsiders visit business district B, they are more likely to purchase at different facilities rather than the anchor of the community. Instead of shopping at artists' spaces, they would mostly make a purchase at franchise stores or small local restaurants. If revenues and profits of the franchise stores or small local restaurants are on the rise, a tri-party (franchise stores, small restaurants, and artists'

workspaces) competition starts to secure a space, and the winner would be a franchise store with the most robust funding capacity. And if this happens in reality, business district B would likely be in the same situation as business district A; that is, it would lose its charm as a business district and fall back.

Artists' workspace is crucial and desperately needed in keeping a business district attractive. Therefore, programs aiming to support living and working space of low-income artists are necessary not only to promote their artistic practice, but also to vitalize the local communities.

In this respect, examples of Boston and London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In Boston, the 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 under the City of Boston offers the ArtistSpace program (artist housing project) in which the city gives incentives to private developers who create artist spaces (live/work spaces and work-only spaces) at a building they develop or own for artists to rent at affordable prices. This initiative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2, and as of 2016, artist spaces have been offered to artists at 28 privately owned buildings. There are 259 live/work spaces (providing both housing and workplace) available currently.⁹

In London as a metropolitan city like Seoul, a variety of organizations a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rtists' workspace. A considerable number of the organizations are private bodies such as NGOs, foundations, and for-profit private firms for profit. They provide 11,500 studios at 298 buildings in total.¹⁰ On the basis of donations, government subsidies, and earnings from rent, they develop and provide spaces for artists' at affordable rents.

9 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 ARTISTSPACE PROGRAM (<http://www.bostonplans.org/housing/artistspace-program/new-existing-artist-properties-in-boston>)

10 Mayor of London (2014), Artists' Workplace Study: Report and Recommendations September 2014, Great London Authority.

To the contrary, most attempts to construct and operate such spaces have been made heavily by the public sector in Korea. These government-led drives should be highly regarded given limited provision of artists' workspaces by the private sector. However, artists' spaces developed and operated by the public sector still have limits such as high likelihood of complaints from the community and building at a distant location unwanted by artists if it is impossible to acquire sites, a decision not well reflecting actual needs of artists, in which case facilitation of the space would be lower in the long run.

Apart from public interventions, it is required to make a policy that can promote the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artists' workspace led by private organizations with a better understanding on artists' needs as in Boston and London. As private developers who find it crucial to provide artists' workspace clusters might be small in number, however, incentives to attract their engagement are required. A willing private developer may be granted incentives relating to urban planning such as increase in floor area ratio and land use conversion or financial aids for part of the construction costs. These policies are highly viable. Since these incentive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policy making process with the aim of securing housing for the younger generation, incentives for public artists' workspace provision can be realized as well.

It is important here to monitor whether the private developers benefiting from the incentives are providing an affordable level of benefits to artists (e.g. affordable rent). If a developer rents the space at a market rate even though he/she is granted an increased floor area ratio and in turn adds two more stories to the existing 4-story building, this is against the ultimate goal of the policy (to provide artists' workspace at affordable rents). Accordingly, quantified incentives should be given so as to set an affordable rent deducting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benefit.

For example, if financial assistance has been provided to a private developer for

the development (at a long-term 10 year interest of 2%) worth KRW 500 million (given a market interest rate of 4%), the private developer will enjoy a benefit equivalent to KRW 10 million each year as follows:

-
- Given a market interest rate of 4%, interest expense:
 $\text{KRW } 20 \text{ million} = \text{KRW } 500 \text{ million} * 4\%$
 - Given 2% of interest applied, interest expense:
 $\text{KRW } 10 \text{ million} = \text{KRW } 500 \text{ million} * 2\%$
 - Benefit of the private developer:
 $\text{KRW } 10 \text{ million} = \text{balance between the expense of market interest (4\%) and that of lowered interest (2\%)}$
-

The benefit equivalent to KRW 10 million should be given to the end user, that is, artists, in the form of lower rent. If the market rent is KRW 30 million, the developer should set the rent at KRW 20 million, an amount deducting the balance (benefit from the incentive, or, KRW 10 million).

If the artists' workspace is provided at such a level, artists would take significant advantage by paying 66% of the market rent (the market rent is KRW 30 million, but the incentive-given space is rented at KRW 20 million).

The policy on incentives as above is intended for artists' workplace providers (private developers), but its ultimate goal is to help artists by supporting artists' workspace providers first so that artists can benefit from such support indirectly after all. Therefore, policymakers should take into account initiatives that support artists as the user of the artists' workspace more directly such as a rent voucher, for example.

Many countries have put in place a housing voucher system for low-income families. In this system, the government provides assistance to cover the balance be-

tween the affordable rent and the market rent for those who want to live in an area but cannot afford to live there. The voucher system is implemented in a wide variety of ways; fixed amounts may be granted, or the balance between the affordable rent and the market rent may be funded.

Even though policies should not be too beneficial, a range of policies may be implemented to boost artists' workspace provision, if urgent. Giving incentives to private developers as an artists' workspace provider may lower rents, and providing a rent voucher to artists would reduce net rents all the more. This mixed policy (incentives for artists' workspace supplier and consumer) is expected to make some contribution to shaping a security net to protect artists' workspace.

Since another consideration in this case is that such incentives given by the government are from taxes paid by citizens, the recipient of the incentives must fulfill their due responsibility. Artists, final beneficiary of the incentives, should feel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need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y in any form like provision of arts education for the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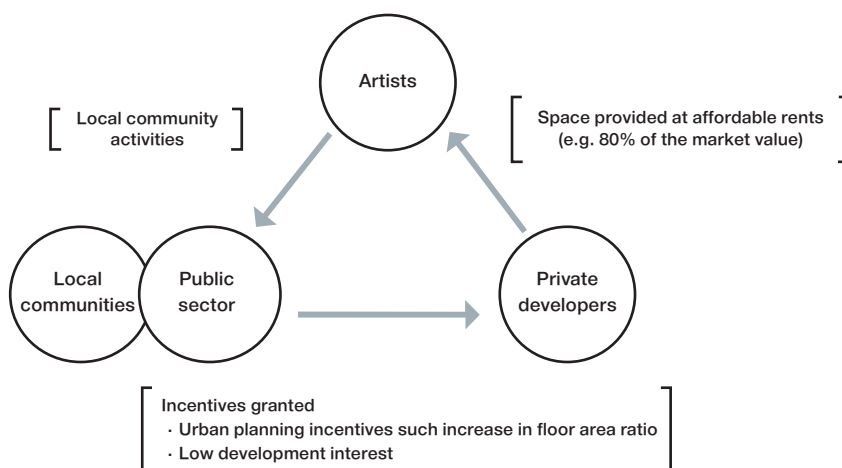


Figure 6. Incentive system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developers of artists' workspace

Despite benefits from clusters of artists' workspace, they are quickly being forced out from the local communities. In this situation, it is critical to come up with a win-win policy for all - the local communities, artistic community, the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References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6), 2015 Artist Surve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Seoul (2006), Seoul Establishment Survey data,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Seoul (2010), Seoul Establishment Survey data,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Seoul (2014), Seoul Establishment Survey data,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Arthur O'Sullivan (2015), "Urban Economics of O'Sullivan," PARKYOUNGSA
- Bathelt, H., Malmberg, A., & Maskell, P. (2004), Clusters and knowledge: local buzz, global pipelines and the process of knowledge cre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8(1), 31-56.
- Mayor of London (2014), Artists' Workspace Study: Report and Recommendations September 2014, Greater London Authority
- Kyunghyang Biz (2016.6.7), "In a bid to stop the tyranny of rents," merchants in Sangsu-dong launch joint negotiations"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6072221025&code=920202.
- Chosun Ilbo (2012.7.3.), "Soaring rents force young artists to leave 'Hongdae Ap' for Mangwon-dong and Mulla-dong to find a studio."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02/2012070202936.html?Dep0=twiter&d=2012070202936.
- 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 ARTISTSPACE PROGRAM, 2016.11.01., <http://www.bostonplans.org/housing/artistspace-program/new-existing-artist-properties-in-boston>.

발제 5

서울의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공유, 임대하는 방법

: 망원동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 사례

김성근

레인보우큐브 대표

1.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

- 레인보우큐브 소개

레인보우큐브는 시각예술 기반의 공동작업실이다. 망원동에 위치해 있는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은 2010년 합정동에 위치한 20평대의 2층 사무실을 공동작업실로 사용하면서 시작하였다. 이후 2011년 망원동으로 이전하여 2016년 현재까지 공동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다. 망원동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은 동시에 14명의 구성원이 사용 가능한 규모이며, 작업실이 운영되어 온 지난 6년간 61명의 작가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또한 작업실을 구하고자 하는 예술가와 새로운 구성원을 찾고자 하는 작업실을 위해 만들어진 작업실 정보 교류 웹사이트인 '작업실 커뮤니티 레인보우큐브'(www.rainbowcube.co.kr)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 4월부터는 합정동에 위치한 전시공간 '레인보우큐브 갤러리'(www.rainbowcube-space.com)를 운영 중이다.

- 공동작업실 생활의 시작

2009년, 김성근과 전영진은 미술용품 개발 사업을 함께 시작하게 된다. 회화 작가인 전영진의

지인이 운영 중이던 망원동 공동작업실 한편을 빌리게 되고 ‘작업실’이라는 공간을 처음 접하게 된다. 5명이 한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던 20평 남짓한 2층 작업실 중 비어있던 한자리를 쓸 수 있었다. 3평 남짓한 공간 안에 책상 하나는 김성근의 업무 공간으로, 나머지 공간의 반은 작품들로 쌓여 있었으며 또 그 나머지 반은 전영진 작가의 작업장이었다. 보증금은 19만 원이었고 매달 말일 19만 원을 공간 사용료로 작업실 운영자에게 후지급 하는 방식이었다. 보증금 19만원은 작업실 사용을 종료하고 나가기 전 마지막 달 월세로 대체되었으며 돌려받지 않았다. 한 자리당 1명의 작가가 사용하는 것이 작업실 내 원칙이었으나 지인이라는 이유로 2명이 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 합정동 공동작업실

2010년 미술용품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 공간을 여러 명이 나누어 사용하면서 그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는 공간 사용을 하면서도 월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공간 공유 방식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발생하는 공동작업실이라는 공간에 매력을 느껴 합정동에 20평 규모의 2층 사무공간을 얻게 되었다. 보증금 1,000만 원은 부모님께 빌려 마련하였고 매달 70만 원의 월세는 공간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작가 3명이 각자 23만 원씩 내어 충당하였다. 작업실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임대 보증금과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의 집기들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사용료 등의 유지비를 운영자가 부담하고 관리하는 식이었다. 이때부터 작업실 이름을 레인보우큐브¹로 정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 새로운 만남과 제안

2010년 새롭게 개발한 미술용품을 홍보하던 중 샘플을 받아보고자 한다는 고객의 전화를 받고 찾아갔다. 찾아간 곳은 작업실과 가까운 합정동에 위치해 있는 갤러리였다. 그 고객은 갤러리를 운영 중인 대표자였다. 갤러리는 본인 소장품들로만 가득 차 있었으며 건물 또한 본인의 소유의 건물이었다. 이후 그 고객과의 만남이 인연이 되었다. 갤러리로 찾아가 소일거리를 도와주거나 식사를 함께하며 미술계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다. 합정동 작업실에서의 만남도 있었는데

1 레인보우큐브(rainbowcube)는 한 공간 안에 다양한 빛깔을 가진 예술가들이 어울려 생활하고 있는 공동작업실의 형태를 의미하기도 하며, ‘화이트 큐브(white cube)’로 대변되는 현대미술 공간과 작품들에서 보다 다양한 범주의 예술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지어졌다.

언젠가 망원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건물 한 층이 비어있고 그곳을 젊은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작업실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였다.

그는 합정동 태생의 사업가로 인근 지역 곳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부동산 투자 관리, 유통업, 갤러리 운영, 미술 작품 컬렉터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고객과의 만남이 지속되던 어느 날 망원동에 비어있는 본인 소유의 상가건물 2층 공간을 보수하여 줄테니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사용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한다. 제안을 받고 찾아간 곳은 망원동에 위치한 오래된 2층 짜리 상가 건물의 2층 공간이었다. 1층은 그 자리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해왔던 것처럼 보이는 소형 마트가 자리해 있었다. 2층과 옥탑이 포함된 60평 규모의 공간으로 1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었다. 가운데에 나있는 복도를 중심으로 작은 거주 공간과 4개의 작은 사무실 공간이 양옆에 자리해 있는 구조였다. 또한 옥탑방과 옥상이 있어 작업실로 활용할 경우 다양한 야외 작업을 하기 위해 좋아 보였다.

그곳은 한강변과 가까운 망원동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있었으나, 건물 바로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마을버스는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합정역을 지났고 화방과 미술 관련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홍대 앞길을 지났다. 이러한 조건은 다양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작가들이 작업실로 이동하기에 유리해 보였고 미술 작업실로 사용하기 좋은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 망원동으로

10년 동안 비어있던 공간을 작업실로 만드는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건물주인 컬렉터는 공간 구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인테리어에 관한 권한을 레인보우큐브에 주었다. 2층 공간을 작업실로 만드는데 필요한 공사 비용 5,000만 원은 전액 건물주가 부담하였다. 합정동 작업실 공간을 사용하던 기존 작가들 중 망원동 작업실로의 이전을 원하는 작가들과 건축을 전공으로 배우고 있는 지인들이 참여해 아이디어를 냈다. 복도 양옆으로 공간이 들어서 있는 구조에서 벽을 허물어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5명이 사용할 수 있는 A 룸(약 20평) / 2명이 각각 사용이 가능한 B 룸과 C 룸(각각 약 7.5평) / 2명이 사용 가능한 D 룸(약 10평-이곳은 첫 2년간은 작업실이 아닌 전시 및 공용 공간으로 쓰이게 된다.) / 2명이 사용 가능한 옥탑방(약 7평)의 공간으로 13명의 작가와 1명의 작업실 운영자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개인당 3평~4평 정도의 공간을 사용 할 수 있었다.



<망원동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 구조>

망원동 작업실로 이전한 시기는 합정동 작업실 임대차 계약 기간 2년 중 1년이 남아 있는 시점이었다. 합정동 작업실은 같이 생활을 하던 한 작가에게 양도되었고 공동작업실로의 사용이 계속되었다. 합정동 작업실은 그간 몇 번 주인이 바뀌었지만, 2016년 현재 아직도 공동작업실로 사용되고 있다.

- 계약과 연장

망원동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은 2011년 8월부터 3년 계약을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보증금은 2,000만 원과 월 132만 원²을 내는 조건이었다. 3년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1년씩 연장이 가능하였고 2016년 현재까지 작업실이 운영되어오고 있는 동안 월세에 대한 인상은 없었다.

사용하던 합정동 작업실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을 내던 것에 비하여 망원동 작업실은 공간 면적이 3배 가까이 넓어졌고 사용 가능한 인원이 5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다. 입주 전 공간 내부를 건물주가 전부 보수해 주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들지 않았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것을 염두 하면 상당히 좋은 조건과 저렴한 월세 수준이었다.

2 당시 미술용품 개발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업자 명의로 작업실을 임차하였다. 월세 120만원에 세금계산서 발행 12만원을 합한 조건으로 132만원에 책정되었다.

합정동 작업실과 망원동 작업실에서의 작가 1인당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은 3평 정도로 크게 다르지 않으나 망원동 작업실은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작은 창고와 옥상 등이 있어 개인당 활용 면적은 더 넓었다. 사용 인원이 14명(실제 공간 사용료를 내는 인원은 12명)으로 늘어 났고 이에 따라 작업실 운영 수입이 늘어 났다.

- 위기와 극복

40년 전 지어진 망원동 작업실 건물은 2011년 건물주에 의해 2층 공간이 보수되기 전까지 10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건물주가 부담한 5,000만 원의 보수 비용은 오래된 내부 시설의 철거, 낡은 창문 전체 교체, 내부 벽 구조 변경, 바닥과 벽체 보수 및 페인트칠, 기본 전기 공사 및 등기구 설치, 화장실 공사 등으로 사용되었고 1층과 옥상을 연결하여 간단한 짐을 옥상으로 올려 보낼 수 있는 전동 윈치³ 설치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작업실 공간이었지만 숨겨진 문제가 작업실 사용 첫해 발생하였다. 40년 전 지어진 건물에 원래 창고 및 상가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단열 공사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았던 터였다. 한여름에 더운 열기가 작업실 내 벽체를 통해 그대로 전달되었다. 겨울이 되면 실내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결로 현상이 발생하였고 작가들의 물감은 얼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했다. 작업실 운영 수입으로 석유 난방기를 구입하였으나 단열이 안된 작업실 공간 전체를 데우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지속적으로 등유를 구입하여 보충해 줘야 하는 난방기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다.

건물의 단열이 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난방기를 사용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2012년 12월에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 공간에 적합한 단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단열에 대한 문제점과 심각성을 건물주에게 알려 몇 차례의 사전 협의 과정을 통해 단열 공사에 드는 비용 1,000만 원 중 레인보우큐브와 건물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단열 공사 비용 500만 원과 난방기를 설치하는 비용 300만 원을 합한 800만 원은 대출을 통해 충당하였다. 이후 2년간 작업실 운영 수입 중 일부는 이 대출 비용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

3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여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감아 붙여 물건을 매달아 올리는 기계이다. 건물주는 이것으로 다양한 재료들을 옥상으로 올리는데 편리하게 사용될 것이라 하여 설치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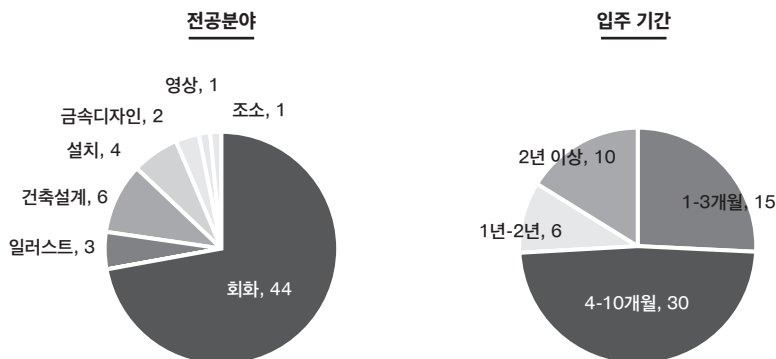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 중 전시 및 행사, 작업실 내 공유 공간으로 사용되던 D 룸은 작업실 내 운영 수입의 증대의 필요성에 따라 2013년부터는 2명이 사용 가능한 작업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 공동작업실의 작가들

망원동 작업실 내부 공사가 완료되기 전 합정동 작업실 작가들과 지인들이 우선으로 작업실 사용을 희망했고 2011년 8월 레인보우큐브 공동 작업실 생활이 시작되었다. 첫째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의 작가들은 전부 회화 전공자였다. 기존 합정동 작업실에서 생활하고 있던 작가들 모두 회화 전공자인 이유에서였고 새롭게 작업실을 들어오게 될 작가들도 그들의 대학 동기 혹은 후배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은 건물주가 스스로 예술 작업실로의 사용을 권하였기 때문에 공간 사용에 있어 바닥에 물감을 흘리거나 벽에 못을 박는 것, 또는 일부 시설을 추가-변경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없었다. 다만 공동작업실의 특성상 개방된 한 공간을 여러 명이 나누어 쓰기 때문에 먼지, 지속적인 소음, 신체에 유해한 약품 등을 다루는 작가들은 작업실 사용에 적합하지 못하였다.

지난 6년간 합정동-망원동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을 거쳐 간 작가는 총 61명이다. 이중 회화 작가가 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설계, 일러스트, 설치, 금속디자인, 영상, 조소 작업을 다루는 작가도 공간을 사용하였다.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을 사용하는 기간은 평균 12.6개월로 나타났다. 61명의 작가 중 작업실 사용 기간을 보면 1~3개월 단기로 사용하는 작가의 수는 15명, 4~10개월 사용하는 작가는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에서 2년간 사용하는 작가는 6명으로 나타났고, 2년 이상 장기 사용 작가 또한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단기 작업실 사용 작가는 한 달간 작업실을 사용하였고 3년 이상 작업실에 머무른 작가는 5명이었다. 이중 1명은 6년 넘게 작업실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수입과 지출

합정동 작업실에 비해 늘어난 작업실 인원과 저렴한 월세 계약 조건으로 작업실 운영에 있어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작업실 운영이 안정화된 2014~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매년 3,000만 원 정도의 작업실 공유 수입이 발생한다. 이 중 약 1,584만 원이 작업실 공간의 임차료로 지출된다. 나머지 약 1,400만 원이 작업실 운영의 연간 수입으로 발생한다.

작업실 운영 수입은 공간 운영자의 관리하에 작업실 내 시설 투자 및 유지비[냉난방기 설치, 공동 공구 구입 등] / 공과금 및 비품비[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통신비, 각종 비품 구입] / 작업실 내 행사 진행 비용[오픈 스튜디오, 전시, 회식] 등으로 사용되었다. 합정동 레인보우큐브 갤러리가 운영되기 시작한 2015년부터는 작업실 운영 수입금이 갤러리 공간 임대료로 사용되면서 갤러리 운영 유지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2012 (8~12월)	2013	2014	2015	2016 (1~10월)
수입	작업실 공유수입	10,890,000	26,000,000	30,310,000	30,670,000	23,940,000
	임차료	6,600,000	15,840,000	15,840,000	15,840,000	13,200,000
	작업실 수입	4,290,000	10,160,000	14,470,000	14,830,000	10,740,000
지출	공과금 및 비품비	1,5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2,300,000
	설비투자비	3,000,000	5,000,000	200,000	200,000	-
	대출금상환	-	3,600,000	3,600,000	800,000	-
	행사진행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200,000
	갤러리월세	-	-	-	7,200,000	6,000,000
	최종 수입	-510,000	-1,740,000	7,370,000	3,330,000	2,240,000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의 수입과 지출내역>

2. 작업실 커뮤니티 레인보우큐브

작업실 공간의 사용을 그만하고자 하는 작가가 생겨 공석인 자리가 생길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자리를 이어받을 작가를 구해야 한다. 작가들에게 받는 공간 사용료가 그대로 작업실 공간 전체의 임차료와 운영비로 쓰이는데 공석이 생겨 해당 공간에 대한 월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바로 작업실 운영에 비용적인 손실로 발생되기 때문이다.

작업실 내 공석이 생기는 경우 우선 작업실 내 동료 작가들에게 주변에 새롭게 작업실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있는지 혹은 자리를 이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알아본다. 동시에 네오룩⁴, 피터펜의 좋은 방 구하기⁵, 산그림⁶ 등의 사이트를 통해 작업실 공간을 공유 할 작가를 찾는다.

네오룩, 피터펜의 좋은 방 구하기, 산그림 등의 사이트에서는 ‘작업실 정보’에 대한 게시판을 제공하고 있지만 각각 미술 전시 아카이브, 부동산 직거래, 일러스트레이터 정보교류 등이 주 목적인 사이트이다. 새로운 구성원을 찾고자 하는 작업실과 새로운 작업실을 구하고자 하는 작가들은 주로 지인의 소개 또는 위의 열거한 사이트들, 각 미술대학교의 학과 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작업실에 대한 정보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실 입장에서는 새로운 구성원을 찾기에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또한 자신과 맞는 작업실을 찾고자 하는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작업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함에 어려움이 있었다.

레인보우큐브 작업실 커뮤니티(www.rainbowcube.co.kr)는 2012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초기 일 평균 접속자수 약 250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일 평균 약 1,400명 규모의 사이트로 발전하였다.

4 네오룩 www.neolook.com 이미지올로지연구소가 운영하는 시각예술 분야 정보 사이트, 게시판 중 ‘스튜디오’ 메뉴를 통해 작업실 정보 공유

5 피터펜의 좋은 방 구하기 cafe.naver.com/kig 국내 최대 규모의 부동산 직거래, 정보 사이트

6 산그림 www.picturebook-illust.com 일러스트레이터 모임 사이트, ‘작업실 관련’ 게시판을 통해 작업실 정보 공유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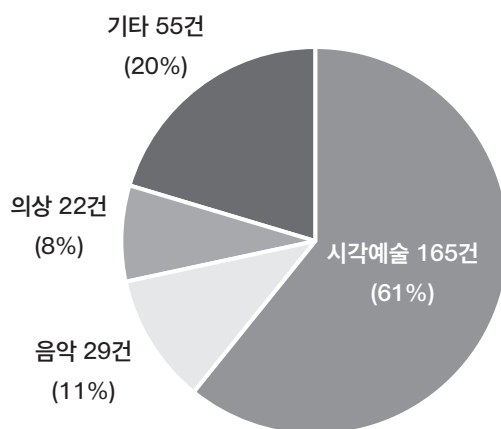
2012 년	94,013
2013 년	ⅡV
2014 년	380,177
2015 년	426,715
2016 년 10월 현재	398,968

<레인보우큐브 작업실 커뮤니티 연간 접속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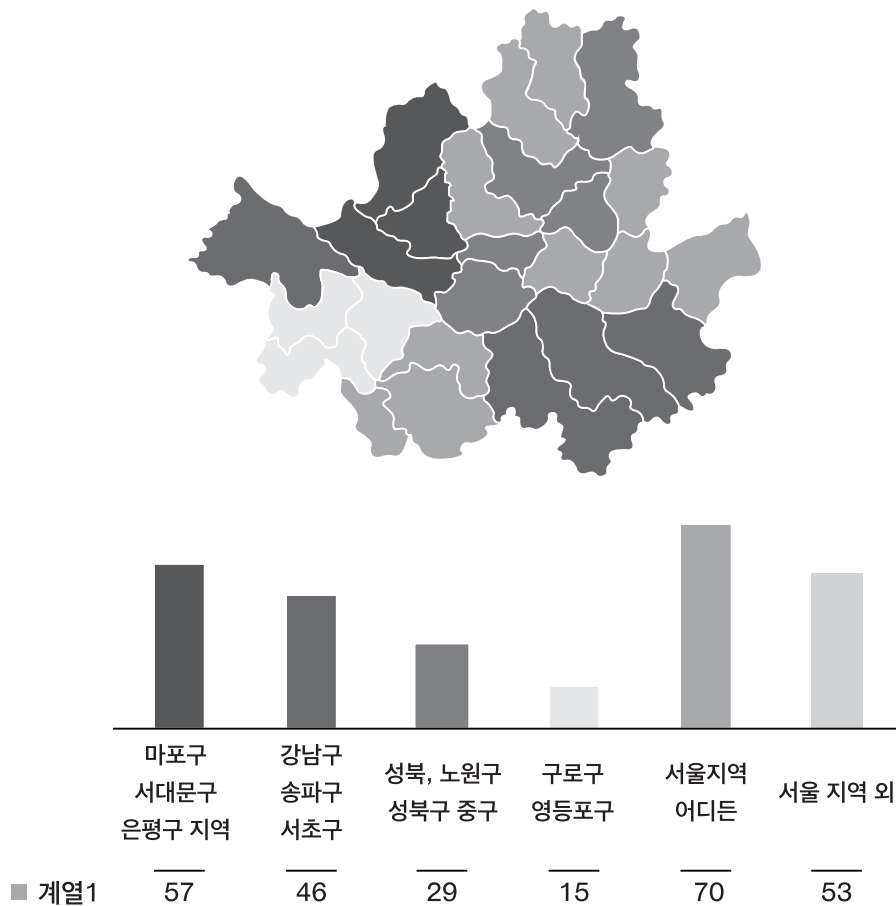
레인보우큐브 작업실 커뮤니티는 ‘작업실’게시판을 통해 회원 간의 자유로운 작업실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게시판 안에는 멤버 구인, 작업실구함, 작업실 매매의 세가지 소 메뉴로 나누어져 있다. 2016년 10월 현재 멤버 구인 글 4,000여건, 작업실 구함 글 400여건, 작업실 매매 660여건의 글들이 게시되어있다. 작업실 관련 게시글은 2014년에 720여건, 2015년에는 1,600여건, 2016년에는 2100여건이 등록되었다.

- 레인보우큐브 작업실 커뮤니티로 본 동향

레인보우큐브 작업실 커뮤니티 사이트의 ‘작업실’메뉴에 올라와있는 작업실 멤버 구인 글 4,000여건과 작업실 구함 글 400여건 중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올라온 ‘작업실 구함’ 게시글 중 본인의 작업 분야와 희망 지역을 밝힌 유효한 게시글을 통해 작업실을 구하고자 하는 작가들을 살펴보았다.



작업실을 구하고자 하는 글 전체 400건 중 본 조사에 유효한 게시글 270건을 분석한 결과 그 중 약 61%에 달하는 165건의 글이 회화, 일러스트, 조형, 영상 등의 시각예술 분야의 작업실을 원하는 글이었다. 이어서 음악관련 작업실을 구하는 게시글이 29건, 의상관련 22건으로 나타났으며 단순 사무실, 퍼포먼스, 주얼리 공방, 프라모델, 플라워 공방 등을 구하는 글이 55건이었다.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 Studio is not a mere property

작업실을 구하기를 희망하는 글 270건 중에서 선호하는 지역은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를 희망하는 글이 57건,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를 희망하는 글이 46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어디든 상관없이 작업실을 구한다는 글이 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작업실 멤버 구인 글 4,000여건 중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올라온 게시글의 제목을 분석⁷하여 관련 장소들을 취합하여 보았다. 가장 많이 언급된 장소는 홍대인근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강남권역, 문래동을 중심으로 한 영등포 권역, 노원구, 관악구, 성수동, 이태원지역 등 또한 여러차례 언급된 장소로 나타났다.

홍대	작업실홍대		상수역	홍대앞		합정	상도역	신촌	송실	행운	쌍문	내발	강					
								성신여대역	중앙대	성	세	성	용	목	송			
								돈촌역	이수역		이대	중	흑	온	성	철		
								정자동	마두동	이대			석					
								강서구청	서촌	이수								
홍대작업실	홍대근처		마포구청역		서교동	연희동	합정	강서구청	돈촌동	대학								
	홍대입구역		홍대인근					보문동	대학로	양평			화	여				
					합정홍	상수	산	경	문래동	영등포	문래	문	군자역	성수동				
망원동									문래창작촌	문래동에	행	문						
	연남동		홍대합정상수		마포구	홍대역				문래동영	영	영	서울숲		성			
													독섬역					
강남	신사		신사동	강남구	방배	서초	서	송	성개동	노원구								
			가로수길가	논현동														
가로수길	가로수길공동		신사노현	방배동	양재	반포			서울대입	낙성대	관악	낙성						
			청담동	양재동	천호역	삼성												
					청담동	송파												

<망원동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 구조>

3. 레인보우큐브 갤러리

레인보우큐브 갤러리는 합정동에 위치한 주택을 개조하여 만든 전시 공간이다. 이곳은 망원동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 공간의 건물주의 가족 명의 소유의 공간이다. 이곳은 40년간 사람이 살던 주거공간이었으나 2014년 가을부터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다. 망원동 2층을 작업실로의 사용을 제안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건물주는 합정동 주택을 작업실로 사용할 생각이 있다면 사

7 레인보우큐브 작업실 커뮤니티(www.rainbowcube.co.kr)의 작업실 ‘멤버구함’에 올라온 4,000건의 게시글의 제목만 데이터화하여 분석. 제목에 사용된 단어들을 분리·분류하여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를 취함. 상위 100개의 단어를 선정한 뒤 중복게시글에 의한 반복 재생 단어 제외. Tableau 10(www.tableau.com)를 이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시각화된 데이터 중 장소에 관한 키워드만 추출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용하라는 제안을 한다. 하지만 이곳은 작업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작업실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큰 방 1개와 작은방 2개, 거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진 23평형 규모의 주택으로 작업실로 사용될 경우 3~4명 정도의 생활이 가능했다. 하지만 작업실로 사용하기 위해 기본적인 내부 시설을 마련하고 운영하기에는 작업실 운영 수입에 비해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에서였다. 이후 이곳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특색을 살려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주택 구조로 3개의 방과 거실, 다락방, 2개의 작은 창고 공간, 창고가 있는 구조로 여러 개로 나뉘어진 공간에 다양한 형식의 예술 작품을 전시 하는 것이 가능해 보였다.

이곳은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여 임대수입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와 창고로 사용을 원하는 사업가의 제안을 받았던 공간이었다. 이 주택을 매각할 경우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고 창고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가는 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제안했다고 한다. 현재 합정동 레인보우큐브 갤러리는 보증금 500만 원에 60만 원의 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갤러리 운영에 필요한 월세는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의 운영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공동작업실에서 인연을 맺은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레인보우큐브 갤러리는 2014년 10월부터 내부 수리를 거쳐 2015년 4월 개관전 ‘Golden age’전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현재까지 20회의 전시와 예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4.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의 미래

- 작업실의 이전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은 2017년 2월까지의 사용을 끝으로 잠시 쉬어가는 기간을 갖게 될 예정이다. 건물주의 사정으로 인해 작업실 공간을 임시로 비워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이후 6개월에서 1년의 기간 동안에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이 기간 이후 다시 작업실로서의 재사용을 건물주는 약속하였다. 이 사항은 이미 1년 전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으며 지난 9월 그 시기와 기간이 확정되었다.

- 임시거처 찾기

14명이 사용하고 있는 60평 규모의 공간 공동작업실이 임시로 단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예정이다. 우선 작업실이 위치한 망원동 인근의 부동산 5곳을 찾아가

보았으나 공통적으로 돌아오는 답변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작업실의 보증금과 월세로는 비슷한 규모의 공간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답변이었다. 또한 비슷한 규모의 공간이 있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2배 이상 지불해야 사용이 가능한 곳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망원동이 새로운 상권으로 부각되며 이곳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상가와 사무실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몇 년간 망원동 지역 곳곳에 낙후된 건물들이 빠르게 재건축 되면서 주거공간 또는 사무공간으로 바뀌었고 작업실로 사용할만한 공간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레인보우큐브의 미래

레인보우큐브는 공동작업실을 기반으로 시작하여 작업실 커뮤니티, 레인보우큐브 갤러리로 확장되었다. 또한 지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61명의 예술가들이 성장하는 창작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시 거처를 찾는다 하더라도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건물주와의 원만한 관계로 인해 망원동 작업실은 다시 공동작업실로서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언젠가는 또 어떠한 이유로 작업실의 지속 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기가 올 것이다. 많은 예술가들이 성장하고 작품이 탄생하는 예술 생태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작업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유지 가능한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 Studio is not a mere property

Presentation 5

How artists in Seoul share their studios

: the case of <Rainbowcube>
in Mangwon-dong

Kim, Sung Geun

CEO, Rainbow Cube

1. Rainbow Cube Studio

- Introduction of Rainbow Cube

Rainbow Cube is a shared studio for visual artists. Situated in Mangwon-dong, the studio dates back to 2010 when I leased a former office with an area of 20 pyung (66.1m) on the 2nd floor of a building in Hapjeong-dong for a shared studio. The shared studio moved to Mangwon-dong in 2011 and has been in operation until now. The Mangwon-dong Rainbow Cube Studio is spacious enough to house 14 member artists, and over the last 6 years of operation, 61 artists used it as a work space of creation. We also run the 'Studio Community Rainbow Cube' (www.rainbowcube.co.kr), a website for studio information sharing between artists who are

seeking a shared studio and studios having vacancies for new members and the 'Rainbow Cube Gallery' (www.rainbowcube-space.com) in Hapjeong-dong from April 2015.

- Beginning of shared studio life

In 2009, Jun Young-jin and I started a business that develops art supplies. We experienced for the first time a 'studio' when we moved in a shared studio in Mangwon-dong operated by one of the friends of Jun Young-jin, a painter himself. The studio was on the 2nd floor of a building of around 20 pyung (66.1m) and shared by five artists, and we leased a portion of the studio. In the section of around 3 pyung (9.9m), there was a desk for me, and one half of the section was occupied by a pile of artworks, and the other half was used as a work space for Jun. The deposit was 190,000 won, and the monthly rent was 190,000 won, which was payable later. The deposit money 190,000 won was not refunded, but used to pay for the rent for the last month before we left. Basically, each section was being used by a single artist at the studio, but we were able to use the section together because Jun was a friend of the owner.

- Shared studio in Hapjeong-dong

In 2010, with the growth of my business, I needed a bigger space. Attracted to the concept of shared studio that the owner can benefit from sharing a space with many artists including decreased burden for the rental fees and natural networking with many people, I leased a work space with an area of 20 pyung (66.1m) on the 2nd floor of a building in Hapjeong-dong. I borrowed the down-payment of 10 million won from my parents and paid the monthly rent 700,000 won by receiving 230,000 won each from three artists who shared the space. As the space manager, I paid for the down-payment, equipment and supplies like refrigerator and microwave oven, and maintenance costs covering electricity, water supply and

Internet fees. From then on, the studio has been called Rainbow Cube.¹

- An accidental meeting and proposal

While I was promoting new art supplies in 2010, a customer called me for a sample on the phone. I visited a gallery to see him, which was in Hapjeong-dong, close to my shared studio. He was the CEO of the gallery, which was full of art works he collected, and the building where the gallery was located was also owned by him. Since then,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us continued. I often visited the gallery and helped him when necessary. We also had meals together exchanging views about the art community. Sometimes, we met at the Hapjeong-dong studio, and he frequently said that he wanted to convert one vacant floor of his building in Mangwon-dong into a studio for young artists.

Born in Hapjeong-dong, he owned real estate properties in the neighborhoods and engaged in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ment, distribution business, gallery business and art collecting. One day, he proposed me to use a space on the 2nd floor of his vacant commercial building in Mangwon-dong as a work space for artists, saying he would renovate the space before. Upon receiving such proposal, I went to the building to see how it was. It was on the 2nd floor of an old 2-story commercial building. On the 1st floor was a small store which seemed to have operated for long there, and the space with an area of 60 pyung (198,3m) including the 2nd floor and rooftop had been untenanted for a decade. On the 2nd floor, there were four small offices on both sides of the hallway with a small living space, and the rooftop house and roof floor looked ideal for various outdoor creations. Even though the building was on the edge of Mangwon-dong and near to the 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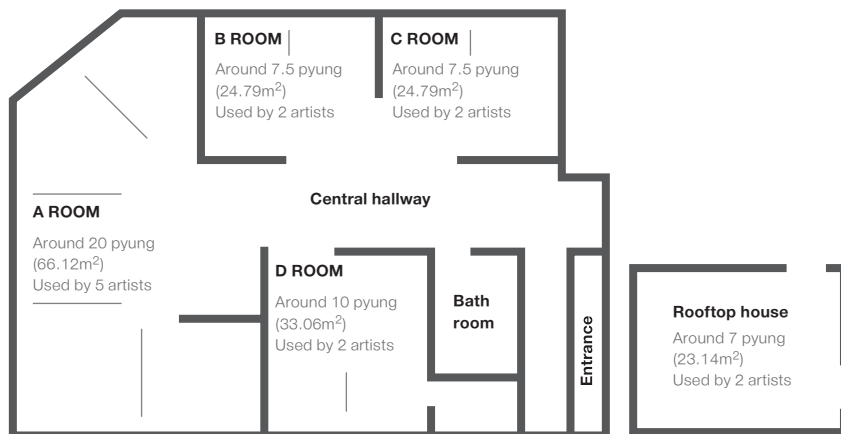
1 Rainbow Cube implies that the studio houses many artists with their unique colors like a rainbow in the same place. The name also signifies its pursuit for more diverse categories of arts from a space and works of contemporary arts represented by 'white cube.'

River, there was a town shuttle bus stop right before the building. The bus passed Hapjeong Station where Subway Lines 2 and 6 met and Hongdae Street where art supply shops and art-related businesses flocked together. It was conveniently located for artists to commute from the places they lived for work space.

- To Mangwon-dong

The construction of altering the decade-long vacant space into a studio went ahead quickly. The owner, who was an art collector himself, granted the authority over the design and interior work to Rainbow Cube so that the space could be organized at our discretion. The construction cost 50 million won, which was fully paid by the owner of the building. Those artists who tenanted the existing Hapjeong-dong studio and wished to move in to the new studio to be opened in Mangwon-dong and friends who were majoring in architecture made suggestions for the design. We removed the wall at the center to secure more space and redesigned the floor to have Room A for five artists (around 20 pyung, or 66.1m), Rooms B and C for two artists each (around 7.5 pyung, or 24.7m, each), Room D for two artists (around 10 pyung, or 33m- this room was used for exhibition and public space for the first two years), and a rooftop house for two artists (around 7 pyung, or 23.1m), for 13 artists and one space manager in total, 3 to 4 pyung allocated per person.

It was with one year left under the 2-year lease contract of the Hapjeong-dong studio when we moved to the new Mangwon-dong studio. The Hapjeong-dong studio was succeeded by one of its tenant artists and has continued to be used as a studio until now, despite a series of changes of owners.



<Structure of Mangwon-dong Rainbow Cube Studio>

- Contract and extension

Rainbow Cube Studio in Mangwon-dong was leased under a 3-year contract from August 2011 with a down-payment of 20 million won and monthly rent of 1,320,000 won.² The contract may be extended on a yearly basis after the initial 3-year term, and there has been no increase in the monthly rent so far.

Compared to the old Hapjeong-dong studio for which we paid 750,000 won every month with a down-payment of 10 million won, the new Mangwon-dong studio is almost three times wider and can accommodate 14 people, from 5 before. Since the building owner completed renovation of it before we moved in, no interior work costs were incurred. Given these, we were lucky enough to benefit from such highly favorable conditions and cheap monthly rents.

2 I was still running the art supply development business and leased the studio in the name of the business. The monthly rent 1,320,000 won combines the net monthly rent 1,200,000 won and 120,000 won of VAT.

Although the two studios were almost similar in terms of space per person, that is, 3 pyung or so, the new studio provides more room to everyone due to small public storages and the rooftop. Increase in the number of tenants to 14 (only 12 of which actually pay fees) has led to more income for us.

- Crisis and solution

The 40-year-old building where the Mangwon-dong studio is was left unattended for 10 years before its owner repaired its 2nd floor in 2011. The 50 million won of repair cost paid by the owner was spent removing old inside fixtures, replacing worn-out windows, change of inside wall structures, repairing and painting floors and walls, performing basic electrical work and lighting installation, renovating the bathroom, and installing a motor winch³ to lift things from the first floor to the rooftop.

Despite its seemingly perfect and systematic appearance, the new studio had an issue no one could expect until the first year of use. As the building was built 40 years ago originally for storage and commercial building purposes, heat insulation work was not performed during the construction. Hot summer heat came in through the inside walls, and in winter, room temperatures inside the studio fell below zero, causing condensation and in turn making paints frozen and impossible to use. We bought an oil heater, which was, however, not enough to warm the whole space of the studio, and it was not easy for us to maintain the heater because we had to continue to feed lamp oil.

3 The motor-winch is a motor-driven machine with wire ropes around a drum used to lift things. The owner installed it to make it easier to lift various materials up to the roof top.

Realizing that the heater could not be a solution without heat insulation work for the building, we performed a heat insulation work fit to the studio in December 2012. I advised the building owner about insulation related issues and the seriousness and via several rounds of negotiations, we reached an agreement that the insulation would be paid for jointly by the owner and Rainbow Cube at a ratio of 50:50. Rainbow Cube paid 5 million won 500 out of the total insulation cost of 10 million won plus 3 million won of cooler-heater system installation cost with a loan of 8 million won. For two years afterwards, a portion of revenues of the studio were used to pay back the lo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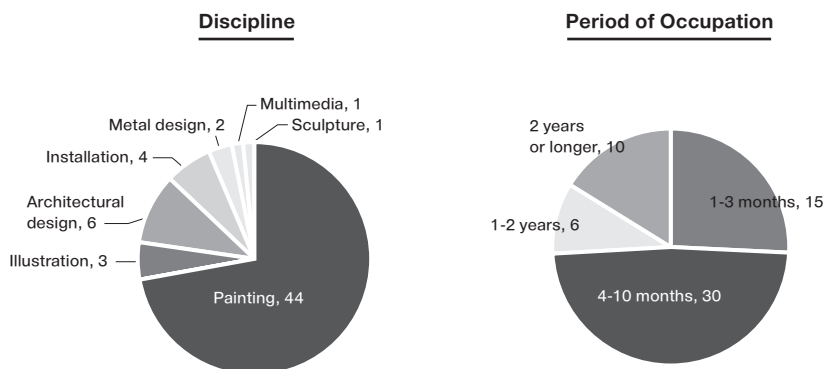
Room D at Rainbow Cube Studio, once used for exhibition, events and public space, began to be used as a work space for two artists from 2013 to meet the financial needs of the studio.

- Artists in the studio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interior work of the Mangwon-dong studio, artists at the Hapjeong-dong studio and their friends first expressed that they wanted to move in to the new studio. In August 2011, Rainbow Cube Studio opened. In the first year, the tenant artists were all painting majors. This might be mainly because all of the artists at the Hapjeong-dong studio were painters and new members were their college friends or juniors.

At the Rainbow Cube Studio, artists faced no constraints regarding the use of the space including spilling paints on the floor, nailing on the walls or adding or altering part of the facilities because the owner proposed and accepted the use as a studio. Given the nature of the studio as an open space shared by many artists, those artists undertaking projects causing dust or continual noises or handling harmful chemicals are not suitable for the studio.

Over the past six years, a total of 61 artists have used the Rainbow Cube Studio, both the Hapjeong-dong and Mangwon-dong studio combined, the majority of which were painters, representing 44 artists, followed by architectural designer, illustrators, installation artists, metal designer, video artists, and sculptors.



On average, the artists were found to use the Rainbow Cube Studio for 12.6 months. Out of the 61 artists, 15 used it for a short time between 1 and 3 months, and those who used the space for 4 to 10 months constituted the majority: 30 artists. Six used the space for 1 to 2 years, and those who used it for a long time in excess of two years amounted to 10. The shortest period of use was one month, and five artists used it for more than 3 years, one of which has been with us for over 6 years.

- Revenues and expenditures

By virtue of increase in the number of tenants and cheaper rentals compared to the Hapjeong-dong studio, revenues of the studio began to rise. Given the data from the 2014-2015 period when the studio entered into a stable stage, revenues of the studio were around 30 million won each year, of which around 15.84 million won

was allocated for rental fees. The remaining 14 million or so is the annual income of the studio.

The income has been used for investment in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installation of heating and cooling system, purchase of shared tools and equipment, etc. , utilities and supplies electricity, water, Internet and communication, and purchase of various supplies , and event expenses at the studio open studio, exhibitions, and meals under the control of the studio manager. Since the opening of the Rainbow Cube Gallery in Hapjeong-dong in 2015, income from the studio has been used to pay for rental fees of the gallery, constituting a significant component of the operation of the gallery.

		2012 (Aug-Dec)	2013	2014	2015	2016 (Jan~Oct)
Revenues	Income from the studio sharing	10,890,000	26,000,000	30,310,000	30,670,000	23,940,000
	Rent	6,600,000	15,840,000	15,840,000	15,840,000	13,200,000
	Profit of the studio	4,290,000	10,160,000	14,470,000	14,830,000	10,740,000
Expenditures	Utilities & Supplies	1,5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2,300,000
	Facilities investment	3,000,000	5,000,000	200,000	200,000	-
	Loan repayment	-	3,600,000	3,600,000	800,000	-
	Event expenses	300,000	300,000	300,000	300,000	200,000
	Rent for gallery	-	-	-	7,200,000	6,000,000
	Balance	-510,000	-1,740,000	7,370,000	3,330,000	2,240,000

<레인보우큐브 공동작업실의 수입과 지출내역>

2. Studio Community Rainbow Cube

Vacancies, if any, should be filled as soon as possible, because space use fees are used for rents and operating costs for the studio and vacancies mean losses in such operating cost.

Once a vacancy takes place, the studio manager first contacts the existing artists to recommend someone to fill the vacancy or to ask if they want to move. Then, the manager visits websites like Neolook⁴, Peter Pan Looking for Nice Room⁵, and Sangrim⁶ to find an artist to fill the vacancy.

The primary goal of these websites lies in offering art exhibition archives, direct real estate transaction, or information sharing of illustrators, respectively, even though they have a 'Studio Info' menu. Studios which are looking for a new member and artists finding a new studio in most cases find information from friends, websites mentioned above or notice boards of arts college websites. As information of studios is scattered in various channels, studios have much to do to find a new

	Unit (person)
2012	94,013
2013	205,723
2014	380,177
2015	426,715
As of Oct 2016	398,968

<Number of Visitors per year of Studio Community Rainbow Cube >

-
- 4 Neolook (www.neolook.com) is a website run by the Imageology Research Institute aiming at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visual arts. Users can share studio info at the 'Studio' menu
- 5 Peter Pan Looking for Nice Room (cafe.naver.com/kig) is Korea's largest website to share information regarding direct real estate transactions.
- 6 Sangrim (www.picturebook-illust.com) is a website for illustrators' networking, where users can share studio information at the 'studio-related' men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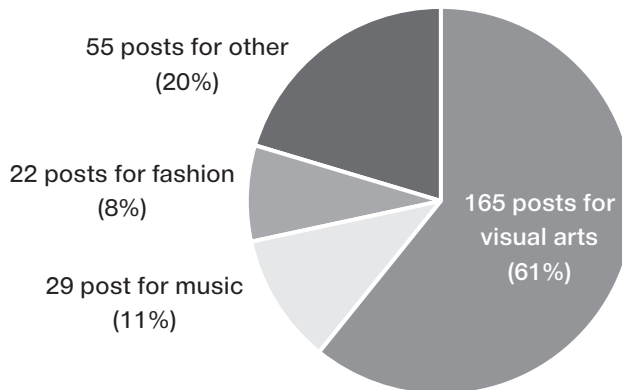
member. In addition, on the part of the artists wishing to find the right studio, it is hard to sift through all the information on studios offered by many channels.

The Studio Community Rainbow Cube (www.rainbowcube.co.kr) started from 2012. Its daily average visitors were only 250 at first, which has grown to 1,400 or so now.

At the Studio Community Rainbow Cube, members can exchange information freely at the 'Studio' menu, which consists of three sub-menus: Find a Member, Find a Studio, and Sell/Buy a Studio. As of October 2016, there were over 4,000 posts about finding a member, over 400 posts about finding a studio, and over 660 posts of selling/buying a studio. Over 720 studio-related posts were registered in 2014, over 1,600 in 2015, and over 2100 in 2016, respectiv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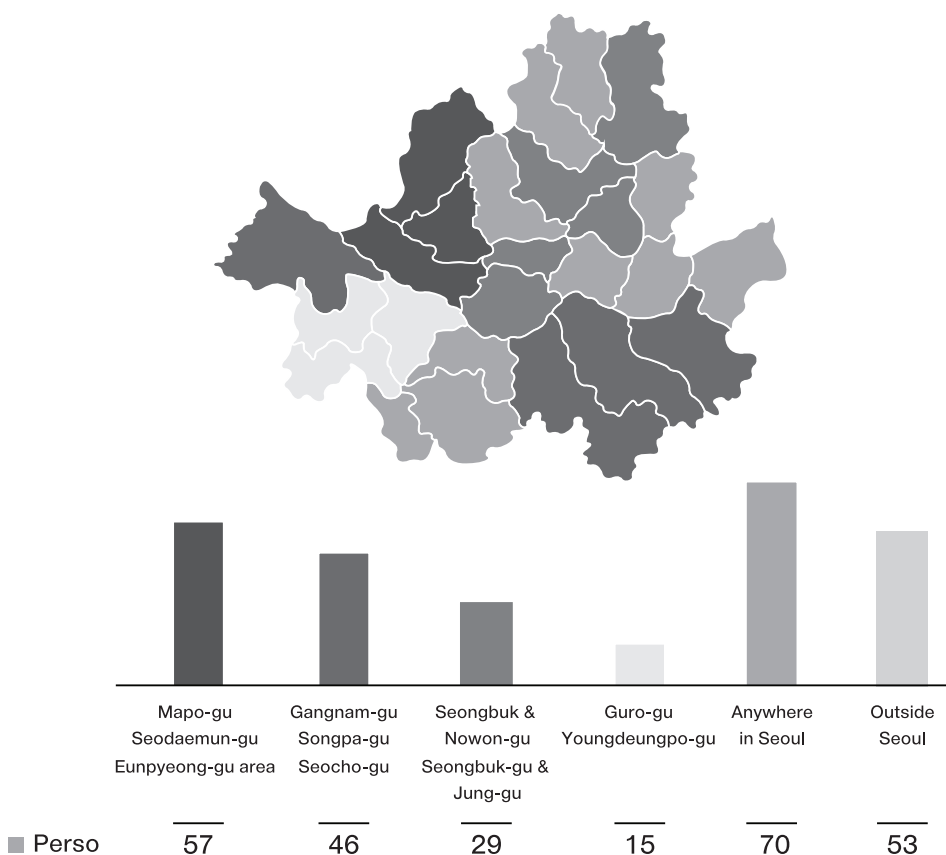
- Trends based on the data from the Studio Community Rainbow Cube

Out of over 4,000 posts regarding finding a member and over 400 posts about finding a studio appearing at the 'Studio' menu of the Studio Community Rainbow Cube, effective posts uploaded by artists 'seeking a studio' from 2013 to 2016 with information on their disciplines and desired locations indicated were analyzed to



identify trends regarding artists who are looking for a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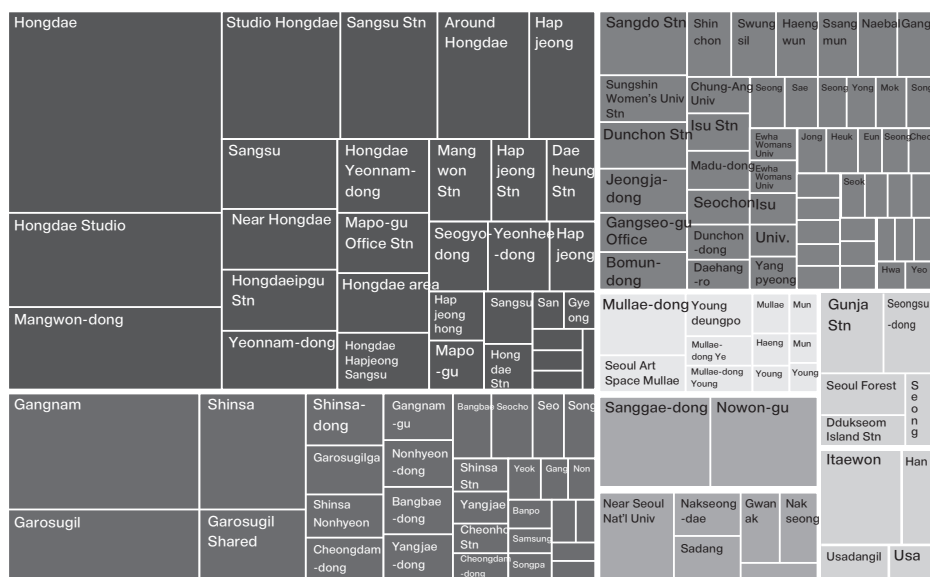
An analysis of 270 effective posts out of the entire 400 posts about looking for a studio revealed that 165 posts, 61%, were looking for ateliers for visual arts such as painting, illustration, design and video art, followed by 29 posts for music studio, 22 for fashion ateliers, and 55 for office space and workshops for performing arts, jewelry, plastic model, and flower art.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 Studio is not a mere property

When it comes to preferences of location, 57 of the 270 posts wanted Mapo-gu, Seodaemun-gu, and Eunpyeong-gu and 46 posts picked Gangnam-gu, Songpa-gu, and Seocho-gu. A majority of the posts amounting to 70 appeared to choose anywhere in Seoul.

From an analysis of titles of over 4,000 posts seeking a new member to fill a vacancy uploaded from 2013 up to now⁷, it was found that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place was the Hongdae area, and the Gangnam area, the Youngdeungpo area centering around Mullae-dong, Nowon-gu, Gwanak-gu, Seongsu-dong, and Itaewon area were often mentioned.



<Key words in the posts uploaded from 2013 to 2016>

3. Rainbow Cube Gallery

Rainbow Cube Gallery is an exhibition space renovated from an old house in Hapjeong-dong, owned by one of the family members of the owner of our Mangwon-dong studio. It had been inhabited for over 40 years until spring of 2014. As he did

7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database of titles of 4,000 posts on the 'Find a Member' menu of the Studio Community Rainbow Cube (www.rainbowcube.co.kr). Words used in the titles were separated and classified to extract most frequently used words. After selecting the top 100 words, repeated words in overlapping posts were excluded. Referring Tableau 10 (www.tableau.com), data were visualized. Key words about places only were extracted from the visualized data.

about the Mangwon-dong studio, the owner allowed us to use this Haojeong-dong house as a studio if we wanted, but it appeared not suitable for a studio. The house of an area of 23 pyung (76m) with one big room and two small ones, a living room and kitchen, if used as a studio, could have accommodated 3 to 4 people. We concluded, however, that we could not afford the renovation expenses and subsequent maintenance costs, given estimated incomes from the operation of the studio. Instead, we decided to use it as a gallery, making use of its spatial features. Considering that the space was built into many separated rooms and structures - three rooms, an attic, two small storages, and a garage, it seemed that various art exhibitions would be possible here.

This house had attracted attention of an investor expecting earnings from lease by rebuilding this house into a multiplex and a businessman looking for a warehouse. The house was valued at around 1 billion won on the basis of the then market price, and the businessman is said to have offered a monthly rent of 1 million won to the owner. Currently, the Rainbow Cube Gallery pays 600,000 won a month with a down-payment of 5 million won. Its rental fees come from incomes of the Rainbow Cube Studio. Artists who have used the Rainbow Cube Studio can have opportunities of exhibition at the gallery. After the renovation work starting from October 2014, the Rainbow Cube Gallery launched in April 2015 beginning with the first exhibition entitled 'Golden Age' and has been offering 20 exhibitions and arts events until now.

4. Future of Rainbow Cube Studio

- Relocation of the studio

The Rainbow Cube Studio will be temporarily closed for six months to one year after February 2017, because we have to move out of here due to the owner's

personal situations. He promised that we can use it again later. We reached an agreement on the time and period of temporary closing in September after negotiations from one year ago.

- Need of a temporary space for the studio

It would not be easy to find a place to be used a studio of an area of 60 pyung (198.3m) for 14 people and temporarily. We visited five real estate agencies around here in Mangwon-dong, but all of them said that it would be impossible to find a space on a similar scale for the current monthly rent and down-payment. They agreed that if we could find the right space, we would have to pay more than double the current monthly rent and down-payment. Lately, the Mangwon-dong area is emerging as a new commercial district, attracting a growing number of businesses and companies. In recent years, old buildings in the neighborhoods have been rapidly rebuilt into houses or office buildings, making it even harder for us to find an alternative place for our studio.

- Future of Rainbow Cube

Starting with a shared studio, Rainbow Cube is running a studio community and the Rainbow Cube Gallery, serving as a workshop and incubator for 61 artists over the past six years or so. Nevertheless, the future of Rainbow Cube Studio is uncertain at this point. If it would be possible to find a place for the studio to move in, it is not sure that the new space could house all of the current artists. Thanks to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 owner of the building, it would be possible to use the Mangwon-dong studio again, but some time later and for some reason, we might face situations making us think about how to manage and sustain the studio. Considering that a 'studio' is important as an art ecosystem where many artists grow and art works are produced, we hope to find a sustainable solution.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 Studio is not a mere property

발제 6

공적지원 영역 밖 예술가의 자발적 움직임

: 문래동 <아티스트런 스페이스 413> 사례

김꽃

아티스트런 스페이스 413 운영자, 미술작가

‘공간 사일삼’은 작가들이 운영하는 독립적인 미술 공간이다. 2009년 미술 활동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갖가지 부재한 요소들이 뒤섞인 상황에 놓인 작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의지로 문래동의 빈 공장을 임대하며 시작되었다. 공간 사일삼은 작가 4인의 임시적인 콜렉티브의 성격인 ‘프로젝트 413’으로 시작하여, 외부 전시와 프로그램들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자체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artist run space 413’으로, 또다시 좀 더 효과적인 공간의 작동 방식을 시도하며 ‘공간 사일삼’(2015)으로 변해 왔다. 공간 사일삼은 일정한 형태의 공간을 구축하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맞게 몸집을 바꾸는 유연한 운영 방식을 중심에 두고 있다.

공간 사일삼이 문을 연 2009년 즈음을 더듬어 보면 달리 운영자들은(작가4인) 대부분 무엇을 해야 할지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안 공간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이미 좁은 기회마저 더욱 희박해지거나 사라져 갔다. 어느 정도 작품 활동의 검증이 필요한 국공립 레지던시 라든지, 예술 기금을 수혜 받기도 좀처럼 어려웠다. 작업실이 필요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그마저 녹록지 않았고, 그러기에 다음을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문래

동이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일단은 작업실이 필요했던 친구들 몇몇과 문래동의 빈 공장을 공동 작업실로 임대했다. 별다르게 묶일 것도 없고, 특별한 활동의 방향성 또한 없었는데, 무엇 보다 잡히지 않는 목표 의식이나 같이 내는 목소리 같은 것에 신뢰감이 희박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그사이에 놓인 현재의 ‘근거리적’인 시야였다. 손에 잡히는 것과 스스로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을 하나둘 찾으면서 공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시 운영자들은 임시적인 성격의 콜렉티브인 ‘프로젝트 413’을 만들었다. 평소에는 작업 공간을 나눠 쓰고 간헐적으로 콜렉티브의 전시나 행사를 여는 것을 생각했다. 각자 개별적인 작업 공간과 발표의 무대가 필요했던 내부적인 수요를 채우려는 방편 이었다. [프로젝트 413]은 공간을 개보수한 과정을 묶어 놓은 첫 전시를 시작으로 몇 번의 프로젝트를 열었는데, 대부분은 어떤 비판적인 태도를 비추는 작업이라기보다는 이러 저러한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선택하거나 미끄러진 의식 같은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들이었다. 이 활동은 엇비슷한 시기에 장소특정적으로 시도했던 여타의 콜렉티브 기반의 작업과 묶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일시적으로 빈 장소를 점유하며 작업을 선보였던 [파트타임스위트]와 도시 공간을 파고들어 이를 배경으로 프로젝트를 벌였던 [리슨투더시티]의 작업이 그랬다. 개별 양상은 달랐지만, 현재 스스로 처한 상황을 그대로 비추어 내는 것에서 겹쳐지는 태도의 빗금이 있었다. 어떤 가치나 의미를 이야기하기에는 주변 상황에서 경험하는 구멍들이 시야를 막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프로젝트413]의 활동들은 처음에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공간의 성격이 비틀렸다. 애초에 전시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지만, 이 전시들을 보았던 젊은 미술 작가들의 공간 사용 요청을 수용하면서 전시 공간과 작업실이 혼재된 상태가 만들어졌다. 2010년 즈음에 스마트 폰이 보급되면서 공간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더 늘었다. 장소적으로 서울에서 구석지고 낮은 이곳을 스마트 폰의 지도 정보 서비스와 SNS가 조금은 평평한 거리감과 빠른 링크를 걸었다. 바깥으로 88만 원 세대라는 무기력한 이름으로 젊은 세대를 호명했고, ‘깁 세대’, ‘3포 세대’라는 말들을 이어 붙였다. 이에 상응하듯이 기회들은 더욱 쪼그라들었는데, 그래서 그랬던 건지 SNS 안에는 성토와 외로움의 단상들이 가득 맴돌고 있었다. 공간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은 제도권 미술에 진입하기 어려웠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그렇기에 다소 유예 기간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었다. 작가와 운영자 본인의 노력으로 부재한 제반 요소들을 메꿔 가며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경험을 하면서 다소 이상한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다. 이 즐거움은 희박했던 공간 운영의 동기부여라든지 운영의 계획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했다. 하나의 전시를 만들어 갈 때

재원적 부재를 당연하게 애써 외면하더라도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갈증이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작업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영역의 중요함과 무언가를 자유롭게 시도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음을 스스로에게 투영하는 느슨함 같은 것이 그렇다. 생각해보면 젊은 작가들 사이에서는 당장에 좋은 작업을 내놓지 못하면 끝없이 바닥으로 끌려 내려갈 것 같은 부담 같은 것이 팽배했고 높은 제도권의 진입 문턱이 이를 더 가중하지 않았을까. 개별 전시들에 가시적인 개연성은 희박했지만, 그들 사이에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띄엄띄엄 만져지면서 공간은 굴러갔다.

2012년에 들어서는 각각 임대료를 나눠 부담하던 운영자 두 명이 공간을 떠나게 되면서 공간을 유지하는 재원에 구멍이 생겼다. 이를 메우는 방편으로 작가레지던스를 시작하였고, 이들의 발표 전시까지 더해지면서 공간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 쌓여 갔다. 애초에 전시 공간으로의 운영을 생각하지 못했던 탓에 이를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했다. 동료 작가로서 가깝게 그들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할 수 있을 만큼의 보조를 했지만, 갈수록 여러 부재 요소들로 인한 피로감이 쌓여 갔다. 이 요소들을 운영자들이 몸으로 메꾸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다. 만약 제도적인 지원을 받더라도 행정적인 업무가 증가한다는 이유 때문에, 운영자의 개별적인 창작 활동과 병행하기 어렵기에 애초에 포기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살피면서까지 전시 공간을 운영해야 하는지 자문하게 되었고, 이러한 방식으로의 운영은 계속해서 공회전하는 상황에서 무언가에 헌신하고 있다는 어긋난 책임 의식 같은 것을 쌓아 가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간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제공 할 만한 여유가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역할을 떠 안을만 한 문제의식과 대의가 없었다. 아무리 역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결국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했다. 그런 것들을 채워 넣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손에 잡힐 수 있는 활동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작게라도 작동하는 것을 만들어야 스스로 공회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힘들이 단발성으로 사라지지 않길 바랐고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노력의 필요를 느꼈다.

이러한 고민은 어쩌면 공간의 정체성이 좀 더 구체화 되어 가는 계기로 작동하게 된 것 같다. 2013년에는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 413’이라는 이름이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작가들로 인한 공간 운영의 유연함과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전시 공간에 필요 불가결한 인력 구성을 채워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럴 수 없는 바에야 작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발생

할 가능성과 재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들은 완성형의 전시 프로젝트들보다는 작업에 대해 좀 더 생산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작가 스스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거나 각자의 문제의식을 도출할 수 있는 ‘베타버전’격의 전시의 형태와 규모를 구성하게 했다. 이를 위해 전시 공간의 규모를 축소하고 작가 레지던시 공간과 공용 공간을 더 확보하는 큰 개편을 했다. 그러면서 공간을 이용하는 창작자들을 ‘사용자’로 바꿔 불렀고, 공간에 접속하여 원하는 무언가를 실행하고 나갈 때까지의 모든 이용 방법을 담은 ‘공간사용메뉴얼’을 제작하여 웹에 발표했다. 이 메뉴얼은 사용자들에게 전시와 부대 행사,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입/출력 과정을 설명하고 제안하는 가이드로서 역할 하고, 외부의 요청들을 좀 더 낮고 부드럽게 소화할 수 있는 ‘오픈 소스’의 형태를 제공한다. ‘오픈 소스’적인 공간 운영은 사용자들로 인하여 공간의 정체성과 형태가 계속해서 덧대어지며 만들어지는 것을 바라면서 착안 된 것이다.

전시 공간은 지붕이 내부로 들어와 있는 복층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고, 안과 밖이 모호한 장소의 특수함을 전시 공간의 성격으로 끌어왔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이 릴레이로 공간을 사용하여 발표하는 ‘안이자밖 프로젝트’를 구성했다. ‘안이자밖 프로젝트’는 공간의 사용자들이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하는 과정들에서 어떤 고민의 지점과 가능성을 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좀 더 가깝게 벌려 보고, 또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서 작동하는 것을 중심에 둔다. 한편으로는 ‘안개 부엌’ 프로젝트를 공용 공간에서 시작하였고, 전시 외에 부대 행사, 세미나, 공연 등의 여러 형태의 발표를 수용하는 네트워크 공간으로 작동하길 바랐다. 작가 레지던시 또한 오픈 소스의 방식을 가져오려고 노력하였는데 레지던시 작가들이 공간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열어 두었다. 이 세 가지 프로젝트는 모두 ‘공간사용메뉴얼’을 통해 작동한다. 이를 통해 공간의 부재한 인력 구성을 그대로 노출하며 도리어 사용하는 방편으로 삼는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서 문득 ‘신생공간’이라는 명칭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안녕 2014년’이라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붓물이 터지듯이 많은 공간의 활동들이 수면 위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 공간들은 대부분 비슷한 시기를 통과한 작가들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활동들이 뚜렷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언뜻 느껴졌다. 개별 공간들은 SNS 기반으로 활동을 밀고 나가고 있었고, 서울 안에서 움푹 팬 저열한 환경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한 환경의 특수함을 끌어안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대로 노출이 되는 상황에 가깝고 그러한 타의적인 분위기가 서로를 멀지 않게 느끼게 한 것 같다. 그러한 태도의 기반은 개별적으로 어떤 특수한 모양새를 만들고 있었고, 그 점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 다종의 질감들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생’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 휘발성 짙은 이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동안의 경험을 더듬어 보면서 작가들의 이런 독립적인 활동들과 특수한 질감들이 미술 생태계에서 수용되기에는 척박한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예술 지원 사업들이 생각보다 경직되어 있고 이 활동들이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았다.

이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각자 개별적 활동들의 출력물을 판매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모임이 만들어졌다. 첫 모임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모임이 특정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테두리 짓는 것을 의도적으로 서로 꺼리고 있었던 점이다. 애초에 개별 활동들의 출력물이 유통되는 상황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고, 그러한 순환 같은 것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이 모임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모임은 거의 1년 동안의 준비 끝에 ‘2015 굿-즈’를 만들었다. ‘2015 굿-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굿즈’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상 깊게 남는다. 현대미술의 거래와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굿즈’를 그 거리감을 좁히거나 전환하는 미디엄으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가 중요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굿즈’가 단순 2차생산물과의 차이를 만드는 요소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굿즈’가 원본 작품에서 떨어져 개별적으로 작품의 물성으로 인지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던 것이 인상 깊었다. 그렇다면 ‘굿즈’는 작품이면서도 동시에 2차 생산물인 모호한 물건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지점에서 ‘굿즈’의 가용 범위가 굉장히 넓혀지는 것으로 보였다. ‘굿즈’는 이렇게 모호한 구석이 있었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것 같다. ‘굿즈’가 거의 윤곽이 드러났을 즈음에는 ‘작품을 경험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캐치프라이즈’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2015 굿-즈’는 열렸다. 작품과 함께 ‘굿즈’가 여기저기 거래되고 공간적으로 비좁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묘하게도 청량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 행사를 통과하며 참여했던 공간 중 몇몇은 사라졌고, 또 새로운 공간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들에 맞추어 공간 사일람은 계속해서 변해 왔다. 새로 개편한 공간의 운영 방식이 작동한 지 2년이 되어 가고, 이 시스템의 작동이 ‘버벅’거리는 지점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같은 오류들은 여지없이 프로젝트들에서 보이는데, 그동안은 그것들을 특수함이나 경험의 다른 즐거움으로 여겨 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어느 트위터 계정에서는 ‘일단 텍스트부터 놓으세요’라는 의견이 있기도 했다. 작품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전시 글의 형식이라든지, 난해하거나 미완적인 전시의 형태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수정,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는 것은 역시나 피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사용자들이 스스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직면하면서 풀어나가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

해서 고민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간의 프로젝트들을 전시의 형식과 관계 맺으면서도 다른 형식으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Presentation 6

Artists' movement to secure studios without governmental support

: the case of <Artists Run Space 413>
in Munrae-dong

Kim, Kkott

(Representative of Artist Run Space 413, Artist)

SPACE 413 is an independent artist space operated by a group of artists. In 2009, suffering from the lack of diverse elements making it hard for them to guarantee the autonomy and sustainability of their artistic practice, the artists rented a vacant factory building in Munrae-dong in hopes of making a breakthrough in the situation. Since its inception as 'PROJECT 413', a temporary collective of four artists, the space had gradually expanded to hold exhibitions and programs and offer a residency program in a new name of ARTIST RUN SPACE 413 until it was renamed SPACE 413 (2015) in the quest of a more effective space operation model. SPACE 413 operates flexibly by transforming itself into diverse shapes tailored to situations and environments, rather than remaining a fixed form of space.

In retrospect, most of the founders (the four artists) had no idea about what to do in 2009 when SPACE 413 was opened. As alternative spaces began to be closed,

already scarce opportunities became even rarer or disappeared. It was much more difficult to be accepted into national and public residency programs or receiving arts funds, which required proofs of artistic practice to a certain extent. We needed a studio but could not afford it for economic reasons. That left us uncertain about the future. One day, we heard that rent in Munrae-dong was cheap and rented a vacant factory in the area to use as a shared atelier. We established no restrictions and set no directions for our practice, mainly because we were not sure about having an intangible sense of purpose or speaking with one voice. The only consensus was simply 'short-sighted' viewpoints of the present. The space began to work as we came to find things in sight and what we could do one by one.

At first, the founders opened 'PROJECT 413' as a temporary artist collective designed to be a shared work space with studios usually and to hold exhibitions or events of the collective intermittently. It was a measure to meet internal needs for a private work space and a stage for presentation. After the first exhibition entitled PROJECT 413 displaying stages of the space renovation and repair, several projects followed, most of which cherished no critical mind, but expressed choices and slips of consciousness in the face of various situations. The project was made known to the public via the media along with place-specific attempts of other collective-based works of the times, as in Part-time Suite , a temporary exhibition occupying vacant space and Listen To the City , a project against the background of urban space. Different in form, they were overlapped in that each of them showed current situations literally. It proves that holes experienced from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blocked the view, making it impossible to talk about a certain value or meaning.

Activities of PROJECT 413 drove the nature of the space to move towards the direction never expected at the beginning. We had no plan to use the space for exhibition, but at the request of young artists who visited those exhibitions, the premises were divided into exhibition space and studios. With the spread of smart

phones from 2010, more people visited the space. Map apps and SNS helped them find this abandoned, backward part of Seoul with ease. The younger generation looked desperate, being called a '880,000 won generation, 'in-between generation,' or '3-po (giving up) generation.' Furthermore, opportunities were waning. That was why expressions of loneliness and denunciations flooded the SNS. Most of the visitors were artists who found it difficult to enter the established artist community or refused to agree with it and therefore had some grace period. In the course of filling diverse deficits together, artists and the operators seem to have had a certain strange pleasure. That kind of pleasure has provided them with a concrete picture of motivation and plan for the space operation, which they rarely had before. It appears that they had wished to solve the problem fundamentally, even if they naturally and consciously tried to forget about financial needs when planning an exhibition. They felt how important it is to have an arena to share their agonies about artistic practices and wanted to show themselves it is fine to attempt whatever they want. Maybe young artists might have felt that they would fall into an endless dungeon if they failed to produce good works of art right away, and the high entry barrier to the established artist community might have made things worse. Although individual exhibitions were highly improbable in reality, the space worked somehow with their shared interests and views tackled.

In 2012, as two of the operators who shared the rent left the space, we had to find other sources of finance. As a solution, we started a residency program and began to think about how to use the space in varied ways, while organizing exhibitions of the resident artists. Since we never thought of exhibition function of the space, preparations to accommodate and support the program were not sufficiently made. Even though we as a fellow artist did as much as we could to help them and talked with them a lot about their practice, tiredness about many lacking aspects grew over time. Such aspects could not be fully met by the operators alone, simply raising the need of an institutional system of assistance. Out of concerns over the burden of growing administrative works added to their own artistic practice, the

operators gave up applying for institutional support. Nevertheless, we came to question ourselves how to operate the exhibition space and concluded that the current way of operation might cause continual idling, making us have a biased sense of responsibility believing that we dedicated ourselves to something.

As a matter of fact, we neither had any room to offer something for those who visited the space nor any critical mind or great cause to motivate us to do so. It seemed that no matter how hard we tried to find out any role, it would not work well. Therefore, we thought that we needed to figure out how to initiate tangible activities and create a working thing no matter how small it would be to prevent idling, instead of making efforts to offset lacking elements. We did not want any resulting force to disappear shortly, though and realized more concrete effort would be necessary for this purpose.

Such thought probably caused identity of the space to become more specific. In 2013, we launched again as 'ARTIST RUN SPACE 413' with a focus on flexibility and dynamics of the artist run space among others. Deploying indispensable staff members for the exhibition facility was virtually impossible, which in turn made us turn to the potential and fun as a group of artists. That concept led to the format and scale of exhibitions in so-called 'beta version' that could boost more productive talks about work and allow artists to experiment with novel things or to raise an issue, instead of complete exhibition projects. To this end, we reduced the size of the exhibition space and expanded the residency and shared spaces as part of a full swing restructuring drive. In the meantime, we called artists using the space 'User' and developed the 'Space User Manual' providing for all the procedures from access to the space to doing something and exiting and published on the web. As a guide that provides users with information and makes suggestions about exhibitions and events and in/output procedures of the residency program, the manual offers 'open-source' to embrace requests from outside in more humble and soft manner. The open-source space operation aims to encourage continuous user contributions to shaping the identity and module of the space.

In the exhibition space, roof is situated inside on the double-layered section, making the entire space unique with vague distinction between in and outside. On top of that, users have built the 'Inside and Outside In One' project in which they present artworks in the space as a relay. The project was designed to help see more closely what kinds of concerns and possibilities users have and find in the course of creating and presenting art works, with an emphasis on its operation on the mobile interface. Furthermore, the 'Foggy Kitchen' project was exhibited at the shared space with a variety of modes of presentations like auxiliary events, seminars and performances on the sidelines in an attempt to make it a network venue. In order to adopt an open-source system for the artist-in-residence program, we have encouraged the resident artists to serve as an operator of the space. The three projects all have been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manual. Lack of staff in the space itself has become a means of use.

Amid changes in the state of play, we heard about 'new spaces.' Following the 'Good-by Year 2014' discussion, a growing number of spaces appeared, most of which were operated by artists who went through the same period. Their activities were not apparent, but there seemed a certain consensus. They were SNS-based and located in poor and devastating environment across Seoul. Rather than actively accommodating the peculiarity of such environment, they seemed to be exposed helplessly to the environment, which might have made them feel ties with each other. As a result, they were shaping a particular pattern and creating unprecedented diverse textures.

However, the word 'new' itself seemed volatile, because from the experiences so far, the environment was not mature enough for the arts eco-system to accept such independent activities of artists and unique textures. Moreover, as existing support programs for arts were stiffer than expected, it would be considered hard for such activities to find a momentum to ensure sustainability to some degree. Afterwards, a meeting was held to organize an event for the sale of printouts of

their individual practices. At the first round of the meeting, it was very impressive to see the participants hesitating to form a certain network or group. This might be because they simply wanted to distribute the printouts and find a solution to their circulation from the beginning. After almost one year's preparation, the meeting resulted in the creation of '2015 Goods.' Many views were exchanged regarding what 'goods' are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event. Since trades and distributions of contemporary arts were not seamless, opinions suggesting 'goods' as a medium to narrow or convert a gap were important. We also discussed what made 'goods' different from simple 2nd products and some impressively claimed that 'goods' should be perceived as individual properties of artwork apart from the original work. If so, 'goods' are an ambiguous object which is a work of art and a 2nd product at the same time, and in this respect, the availability of 'goods' hugely widens. It appears that 'goods' are vague in a sense and therefore tell more stories. Around when 'Goods' was almost taking its shape, the catch phrase 'New Method of Experiencing Art Work' was coined. In this manner, the '2015 Goods' was launched. Along with art works, 'goods' were traded here and there, and the small venue full of visitors gave a strange feeling of refreshment. Following the event, some of the participant spaces disappeared, and new spaces have created.

In the process, SPACE 413 has continued to evolve. Almost two years have passed since its operation system was put in place, and there are some 'buzzes' this system is making. Errors have taken place in projects, but they have been regarded as unique or another fun of experience until now. It is hard to explain them in detail, but some tweets have suggested, 'Why don't you give up text first.' Among them are exhibition texts not enough to explain artwork and complicated or incomplete exhibitions. However, we would not endeavor to correct or improve. Rather, we are in the process of coming up with ways that induce users to solve this issue. We are also thinking about how to print out projects so far in different manner but in relation to the exhibition format.

제 8회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기획 /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

창작지원본부장 이규석

실행 / 금천예술공장

총괄매니저 이정훈

기획·운영 김건희, 김수아, 이현

운영지원 최소연, 홍민희, 박찬경

디자인 사회적기업 (주)안테나

번역 베리타스통번역센터

통역 한국동시통역센터

시설관리 이의국, 이웅찬, 정병채, 김경희, 조기춘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주철환

발행일 2016. 11. 23.

이 자료집에 수록된 글의 저작권은

해당 저자와 서울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울문화재단, 2016

서울시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

(0858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5길 57(독산동)

T. 02-807-4800 F. 02-807-4125

Planning / Arts Support Departmen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Executive Director Lee Gyuseog

Implementing / Seoul Art Space GEUMCHEON

Manager Lee Junghoon

Program Organiser Kim Gonhee, Kim Sooa, Yi Heon

Program Assistant Choi Soyeon, Hong Minhee,

Park Changkyoung

Design ANT3NA

Translation Veritas Interpretations & Translation Center Corp

Interpretation Korea Center for Interpretation&Translation

Facility Maintenance Lee Uikook, Lee Yoongchan,

Jeong Byeongchae, Kim Kyunghee, Cho Kichun

Publisher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Editor Ju Cheol-Hwan

Published Date 23, November, 2016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s can be reproduc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copyright holders.

© 2016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Art Space GEUMCHEON

57, Beoman-ro, 15-gil, Geumchoen-gu, Seoul, Korea (08583)

T. +82(0)2-807-4800 F. +82(0)2-807-4125

www.sfac.or.kr

www.facebook.com/seoulartspace.geumcheon

blog.naver.com/sas_g/

geumcheon.blogspot.com



제 8회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The 8th Seoul Art Space International Symposium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